

국역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국역 출판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호남지역 개항장인 군산과
목포와 내륙 도시였던 광주에서 활동한 소방조들의 역사

국역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

김상욱 역

光州消防二十年史

木浦消防沿革史

群山消防組發達誌

목차

해제(解題)

1. 연혁사 개관	12
2. 편찬 과정과 저자	16
3.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의 구성과 내용	20
4.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에 대한 가치와 의의	32

군산소방조발달지(群山消防組發達誌)

제1장_조선 소방의 개요	61
제2장_군산소방조의 기원	71
제3장_군산소방조의 창설	80
제4장_소방조와 예산	90
제5장_소방 장비 및 기타 설비	92
제6장_군산의 소방과 소화용수	94

제7장_창설 이후의 화재 도수	96
제8장_역대 간부와 현재 조원	100
제9장_소방조와 야경	103
제10장_방화사상 선전과 사업	105
제11장_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표창식	107
제12장_조 간부의 소감과 희망	120
제13장_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	132
제14장_전국소방조두대회 출석기	136

목포소방연혁사(木浦消防沿革史)

제1장_목포소방조의 기원[濫觴]	185
제2장_소방 규칙 발포	187
제3장_목포소방조 창설	191
제4장_목포소방조 정비	194
제5장_소방조의 일대 쇄신	209
제6장_역대 간부와 현재 조원	240
제7장_기구기계 기타 설비	241
제8장_소방조 예산	244
제9장_목포의 소방과 수도	247
제10장_최근 화재 건수	249
제11장_소방조와 야경	254

광주소방 20년사(光州消防 20年史)

1. 우리나라 소방 기원[濫觴]	281
2. 광주소방조 기원	283
3. 공설소방조 조직	283
4. 공인소방조 조직 당시 기구	284
5. 위생소방조합시대 기구표(1916년 4월 조사)	285
6. 소방조 사무소 위치	286
7. 광주 읍내 지세	286
8. 경비관서	287
9. 광주읍	287
10. 조기 제정	287
11. 조가 모집	288
12. 규약 제정	289
13. 소방 예산(1916년도 위생소방조합 당시)	300
14. 조원 및 가족 위안회 기타 개최	300
15. 근속 조원 표창	302
16. 상해수당 지급	304
17. 조원 위로금	304

18. 퇴직수당 지급	305
19. 각금(醶金)을 받은 것	307
20. 기부품을 받은 물건	308
21. 각금(醶金)을 한 현황	309
22. 구역 외 응원	310
23. 조원의 각 가정	310
24. 조원의 평소 마음가짐	311
25. 조원 수양과 야구	312
26. 조원의 연령·직업·취미	313
27. 통보 연락	313
28. 주요 소방 관계 전화번호표	314
29. 경종타점(警鐘打點)	315
30. 수도 및 수리	315
31. 소방 전용 탱크 및 우물 건설 개소	316
32. 사설 소방기 설비	317
33. 1931년 소화전 수압검사표(1931년 9월 조사)	318
34. 경종대	319
35. 소방기구고	320
36. 주요 기구 구입 발체	321
37. 물품 구입에 대하여	322
38. 주요 소방 기계 성능	322
39. 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	324
40. 조선소방협회 각 도(各道) 기부 할당액표	326

41. 소방협회 기본금 전남 각 군(郡) 할당액	327
42. 조선소방협회 전라남도 연합지부 발회식	327
43. 강연회 개최	328
44. 각 방면 파견	328
45. 친열(親閱)	329
46. 조원 견학	330
47. 강습 지도	331
48. 방화 선전	332
49. 식전·송영·봉축·기타	332
50. 조원 채용 방법에 대하여	334
51. 상비원 채용	334
52. 광주경찰서 역대 서장	335
53. 역대 광주면·읍장	335
54. 광주면·읍회 의원	336
55. 관할의 변화	338
56. 현재 소방 장비표	339
57. 화재 외의 출동과 야경	340
58. 기본금 조성	343
59. 복제 개정	344
60. 역대 간부	345
61. 현 조원표(1933년 9월 1일 현재)	346
62. 퇴직 조원표(1911년 10월~1933년 8년 7월 11일)	349
63. 연중행사	350

64. 이상	351
65. 주요 화재	352
66. 최근 화재 빈도수	355
67. 각 도별 화재 손해	355
68. 화재 원인표	356
69. 조원 폐기 이용 고안(아이디어)	356

일러두기

1. 연호

본문의 연호는 모두 양력으로 통일하였고, 인용문 안에 등장하는 음력은 모두 양력으로 통일하였다.

예) 명치 43년→1910년

2. 인명

처음 나오는 일본인명 중 독음(ふりがな)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한글 독음과 한자를 병기하고 다음부터는 한글만 적었다. 단, 독음을 알 수 없거나, 원자료에서 연명이나 표로 등장하는 명단은 독음 없이 한자만 표기했다.

3. 지명

본문 안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 및 용어는 필요할 경우 한국식 한자를 표기하였다.

예) 명치정(明治町)

4. 역사 용어

일본식 용어는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되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사 용어를 병기하였다.

예) 하타모토(族下: 하타모토라고 한다. 쇼군의 직할 무사들이며, 경호대 역할을 하였다.)

일본식 한자성어는 원문을 표기하고 () 안에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예: 대층고루(大層高樓: 어마하게 높은 건축물) / 염매(鹽梅: 처마에 매달린 소금에 절인 매화 즉, 처마나무의 가연물을 의미한다.)

전문적인 소방 관련 용어는 옆에 ()로 설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예) 高張提燈(다카하리조친: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리게 된 초롱)

5. 도표와 숫자

횡서로 구성된 표 및 한자어는 모두 한글로 바꾸고 필요에 따라 종렬로 바꾸었다. 표 안의 숫자는 한자 대신 모두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4자리를 기준으로 잘랐다.

예) 1,462,291원

6. 각주

각주 번호는 일괄적으로 유지하였다.

각주의 한자는 () 안에 병기하였다.

해제(解題)

1. 연혁사 개관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은 개항 이후 목포와 군산, 내륙 지역이었던 광주에 터 잡아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조를 만들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소방조는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화재를 진압하였던 단체이다. 목포·군산·부산·인천 등 개항장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결성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의 거주가 늘어 가면서 소방조도 전국에서 활동하였다. 소방조는 재조일본인회, 거류민단에서 운영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총독부에서 거류민단을 관할하면서 소방조는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보조기관으로 변질되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 소방조 규칙’이 발표되면서 부면(府面)에서 소방조를 관할하고 경찰서장이 통제하면서 경찰 보조기관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9년에는 경방단에 소방조가 편입되면서 소방조는 일제의 전쟁 보조 역할도 수행하였다.

1_이것은 편의상 목포소방연혁사·군산소방발달지·광주소방이십년사를 묶어서 부른 것이다. 본문에서는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으로 통칭할 것이다.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은 『군산소방조발달지(群山消防組發達誌)』(1927), 『목포소방연혁사(木浦消防沿革史)』(1929), 『광주소방20년사(光州消防20年史)』(1933) 등 세 권의 소방조 연혁사를 편 의상 묶어 통칭한 것이다. 군산은 1899년 개항하였으며, 목포는 1897년 호남 최초의 개항장이 되었다. 특히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막대한 미곡을 이출하는 군산항은 인천항·부산항과 더불어 전국 3대 미곡 이출항이었다.

목포는 다도해 해산물과 면화 이출항으로 이름을 날렸다. 군산·목포 호남지역이 호남의 대표 항구로 성장하자, 이들 항구의 경제성에 주목한 일본 상인들은 목포항에 몰려들었다. 군산과 목포는 1899년 11월 3일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에 소방조가 결성되었다.

1899년 도청이 광주로 옮겨지면서부터 광주는 호남의 대표적인 행정 중심도시가 되었다. 광주에 일본인 거주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8년 호남의병 대토벌작전에 일본 수비대가 들어섰다. 광주읍성이 철거되고 일본인 점포가 들어서면서 일본 상인들은 광주소방조를 결성하였다.

이들 세 지역 소방 연혁사가 발간된 시기를 보면 『군산소방조발달지』는 1927년, 『목포소방연혁사』가 1929년, 『광주소방20년사』는 1933년이다. 말하자면 호남지역 소방 연혁사가 편찬된 기간은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대전소방연혁(大田消防の沿革)』(1933), 『대구소방25년사(大邱消防25年史)』(1933)도 편찬되었다.

본 연혁사들이 편찬된 시기인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반은 일제강점기 기간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1920년 3·1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강압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하였다. 1920년에는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방직공장, 식품공장 등 노동집약적인 공장이 들어섰다. 일본에서는 ‘대정데모크라시’라는 자유화 바람으로 인한 노동운동, 선거권 쟁취 바람이 불었다. 경성을 비롯하여 시가지에는 백화점, 극장, 유흥업소, 목욕탕 등 위락시설이 즐비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열풍은 도시 지역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1920년대는 전기가 일반화되었다. 방직공장, 정미소가 늘면서 유류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도 빈발하였다. 화재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다. 군산·목포에서도 화재가 빈발하면서 정미소, 미곡창고, 면화공장을 가지고 있던 실업인들은 이러한 대책으로 소방 장비 확충을 지원하였다.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치되었고, 1928년에는 조선소방협회가 창립되었다. 조선소방협회는 소방활동을 통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라는 사실을 결집해 내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통치 주체였던 일본인, 지배를 당한 조선인들은 화재 앞에서 막대한 소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화재 앞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이며, 이는 ‘내선융화책’과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일제 통치 의도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급증하는 화재 앞에서 소방조들은 소방자동차펌프를 도입하였는데, 소방자동차펌프는 신속한 현장 출동과 강력한 방수 능력을 가진 효과적인 장비였다.

소방활동 연혁사는 1920년-1930년대 초 소방조로서는 가장 도약기에 간행되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개항 이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화재 발생의 양상과 당대의 소방수들이 화재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다. 아울러서 일제강점기 소방조가 시대적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조는 급박한 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구조하는 봉사단체였다. 총독부는 소방조의 이러한 봉사적인 시혜성(施惠性)을 심분 활용하였던 것이다. 소방조의 출초식²에서도 소방조가 보여 주는 최신 장비를 동원한 소방훈련을 통하여 총독부의 조선 통치에 대한 은혜성을 홍보하였던 것이다. 1928년에 결성된 조선소방협회는 소방을 통한 선전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조선소방협회는 각 지역 소방조 연혁사 발간을 적극 후원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소방조 연혁사 내용에는 조선소방협회의 발족과 업무 수칙, 소방협회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의 성과가 세밀히 수록되었다.

『목포소방연혁사』에서는 조선소방협회 발족 기금 모금에 대한 기부자 명단을, 『광주소방20년사』에는 소방협회의 발족 사항과 운영 규정을, 『군산소방조발달지』가 소방협회 발족에 관한 과정을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조선소방협회가 소방조 연혁사의 출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서 연혁사 서두에 조선소방협회 총재에 대한 축사가 수록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 아래 간행된 '소방조 연혁사'의 간행 의도를 분석해 보면, 첫째, 연혁사의 취지가 일본 식민통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었기에 일본인들의 시각과 그들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소방조의 편찬을 지원한 간부들이 모두 유력한 일본인 자산가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조선의 주인이며 이곳에서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자긍심에 가득 차 있었다.

2_출초식은 소방조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의 일종이다. 출초식은 보통 1월 3, 4일에 치러졌는데, 이날은 부윤, 군수, 경찰서장 등 지역의 최고 관리들이 참석하였으며 부민들은 소방조의 행진과 방수 시범, 사다리 조법 등을 참관하며 응원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당대 소방조의 대다수는 조선인들로 구성되었지만, 조선인 소방수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 소방 연혁사에서도 수록되었지만, 소방조의 간부인 조두·부조두·소두 및 각 부장들은 일본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혁사에서는 일본인 간부에 대한 표창과 칭찬, 일본인에 대한 자긍심이 언급되어 있다.

소방조 연혁사가 이처럼 일본인의 시각에서 기록되었지만, 당대의 소방조의 행적과 활동을 더듬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편찬 과정과 저자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은 총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는데, 『군산소방조발달지(群山消防組發達誌)』는 군산의 언론인이었던 아키야마 슈자부로(秋山忠三郎)³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목포소방연혁사(木浦消防沿革史)』는 목포소방조가, 『광주소방20년사(光州消防20年史)』는 광주 지역의 운수업자였던 가토 기사부로(加藤機三郎)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소방조 연혁사가 출간된 계기를 보면 『군산소방조발달지』는 군산소방조 결성 28년을 맞아 그동안 성장한 군산소방조의 성과를 분석하고 소방활동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간행한 소방조 연혁지이다.

『군산소방조발달지』의 저자 아키야마 슈자부로(秋山忠三郎)는 경

3_아키야마 슈자부로(秋山忠三郎)는 1921년 3월에 경성일보 전남지국장으로 목포에 제임하였다. 1921년 10월 일본 편집국장으로 발령 났다. 그가 군산소방조발달지를 저술할 무렵인 1927년에 군산의 언론인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성일보 기자로서 목포와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 책은 그가 군산에 근무할 당시 군산소방조의 부탁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책 이외에도 『군산부사(群山府史)』 『남철연원사(南鐵淵源史)』 등 당대 군산 및 전북 일원의 행정과 철도사업에 관한 책을 남기기도 하였다.

『군산소방조발달지』가 간행된 1927년 군산은 인천·부산과 더불어 조선 최고의 미곡 이출항으로 부상하였다. 군산 거주 일본인 실업인들은 미곡의 이출에 맞추어 전북 지역의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상업회의소와 부의회를 장악하였다. 일본인들은 군산항의 축항(築港) 공사를 진행하며 미곡 이출을 늘려 가고 있었다. 군산 지역 미곡상들은 군산소방조 간부를 겸하였기에 미곡 수확철이면 항만에 쌓아둔 미곡을 경비하며 야간순찰을 강화하였다.

아키야마는 군산 지역의 부흥을 과시하고자 하는 군산소방조 및 군산의 실업가들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서두와 본문에 수록된 군산 유력자들의 소회에는 이 책에 대한 그들의 후원 상황이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당대 군산 지역의 화재 발생과 소방활동, 화재에 대한 소방조의 대응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목포소방연혁사(木浦消防沿革史)』는 1926년 목포 부민과 자산가들이 기부금을 모아 소방조의 숙원인 자동차펌프를 구입하였다. 자동차펌프 구입을 계기로 목포소방조는 70여 명의 원로 소방수를 퇴진시키고, 자동차펌프부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목포소방조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목포소방연혁사』를 간행하였다.

『광주소방20년사』의 간행은 광주소방조는 1933년 규약을 만들면서 한일공동소방조로 거듭 탄생하였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간

행되었다고 본다. 일본인 위주로만 운영되었던 광주소방조에 한국인들의 대거 가입은 광주소방조의 외연을 넓히고, 광주 지역의 한국인들을 새롭게 포섭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목포소방연혁사』의 간행은 1929년 10월 7일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맞추어 목포소방 조두인 아소 사쿠오(麻正作男) 조두의 사임이 이루어졌다. 아소 조두는 전임자인 후쿠다 유조(福田有造)의 뒤를 이어 1918년 4월 9일 조두에 취임하였다. 1929년 사임하기까지 아소 조두는 12년 재임 기간 동안 목포소방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소 조두는 러일전쟁 이후 1906년 목포에 건너와 목포상업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旭시장을 경영하였다.⁴ 1926년 자동차펌프 구입을 위한 모금운동이 아소 조두의 가장 큰 업적이었다. 이때 모금된 8,500원으로 자동차펌프를 구입하고, 5,700원은 펌프 차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소 조두는 전문화된 소방조를 구상하고 자동차펌프대를 창설하여 원로 소방수의 퇴진을 압박하였다. 부조두 후타키 이치조(二木市臧) 퇴임 이후 부조두를 선임하지 않은 것도 독자적으로 소방조를 운영하겠다는 아소 사쿠오의 의도였다.

이처럼 개혁을 주도한 아소 사쿠오는 목포소방조의 변화를 과시하기 위하여 소방조 연혁사의 편찬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목포소방조는 1926년과 1928년의 두 번의 모금에서 제1차에서는 17,243원, 제2차는 12,306원을 모금하였다. 당대 목포소방조의 경상비 예산은 1923년 3,860원, 1924년 4,601원이었는데 여기에 비추어 목포소방조의 소방 모금액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제2차 모금에서는 조선소방협회의 후원기금도 모금되었다. 목포 부민들의 기탁금을

4_探川覺太郎, 위의 책, 448쪽.

접수한 목포소방조는 그들의 고마움과 은혜로움을 홍보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목포소방연혁사』에는 제1차 모금과 제2차 모금을 기탁한 사람들을 전부 수록하였다. 이들의 인명에 대한 수록은 제1차에 11쪽, 제2차에는 22쪽을 수록하였다. 『목포소방조연혁사』 121쪽 중에서 총 33쪽이 이들 기탁자들로 수록되었다고 볼 때 약 사분의 일이 기탁자 명단으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이 책의 편찬 취지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 지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다.

『광주소방20년사』(1933)는 러일전쟁 이후 광주에 터전을 잡은 가토 이쿠사부로(加藤巖三郎)가 편찬하였다. 이 책에서는 광주소방조의 창설 계기부터 광주소방조의 구성, 조원들의 역할 등이 수록되었다. 또한 1910년부터 1932년 사이의 광주 화재 발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다른 소방조 연혁사에서 기록하지 않은 소화전 설치 장소 및 제원, 수압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었으며, 더불어 광주소방조가 최신 도입한 소방펌프자동차 제원, 화재 진압 장비 현황, 소화전 설치 장소 등도 언급되었다.

가토 이쿠사부로는 광주 지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는 광주소방조원이다. 그렇다고 그가 광주 지역에서 언론에 종사하였다거나 광주에서 대단한 실업가는 아니었다. 『목포신보』 1934년 8월 25일 기사에 보면 광주 소매상들이 대동단결하였는데, 그가 소상공인들의 조합장에 취임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가토는 광주 송정 간의 자동차 영업권을 따내더니, 광주 목포 간의 자동차 영업을 하여 부를 축적한 실업가이다. 1913년 4월 16일에는 전주와 이리 간의 자동차 영업허가권을 출원하였다는 『매일신보』의 보도도 보인다. 가토는 이처럼 광주를 중심으로 여객을 중심으로 상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광주 지역의 유력

자가 되었다.

3.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의 구성과 내용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은 횡서 활자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에 기술한 바대로 『군산소방조발달지(群山消防組發達誌)』·『목포소방연혁사(木浦消防沿革史)』·『광주소방20년사(光州消防20年史)』 등 총 세 권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 세 권은 형식상의 연관성은 없다.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이라는 제목은 번역자인 필자가 임의적으로 정하였다. 다만 이 책들은 목포, 군산, 광주 지역의 소방조라는 주제로 엮어진 연혁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간되었다. 여기서 ‘연혁사(沿革史)’라는 것은 소방조 활동의 과정을 재조명하고 역사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소방수, 소방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는 소방활동을 구성하는 삼 요소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조 연혁사는 소방수들의 조직 구성과 그렇게 구성된 소방수들이 소방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추가하여 소방조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화재를 통하여 당대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은 소방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혁사를 전개해 나가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권 모두 저마다의 구성과 전개에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차이점은 목포·군산·광주 지역이 저마다 공간적, 경제적 형성 배경

의 차별성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군산은 미곡 이출항으로 알려진 개항도시였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공간이 분리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분리성으로 인하여 조일인 사이의 양극화가 심하였고 생활 양상도 달랐다.

목포는 다도해의 해산물과 면화 이출로 알려진 개항장이다. 개항 이후 목포는 비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이 뒤섞여 혼거하였고 점포도 밀접하게 운영되었다. 이는 府 행정에서도 조선인들의 진출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고, 결국 소방조도 조일공동소방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비하여 광주는 호남의 내륙 행정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행정·교육 중심지이며, 호남지역의 행정적·경제적 중심 지역이다. 광주의 본정통은 광주의 중심부로 일본인들이 점유하여 인근 수기옥정의 조선인과는 차별화되었다. 따라서 소방조의 활동도 193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었다. 이처럼 공간의 차별성으로 소방조 연혁사의 내용도 각기 특수성을 가지고 서술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전제로 세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군산소방조발달지(群山消防組發達誌)』

『군산소방조발달지』는 다양한 인물들의 소회와 감상문이 실려 완성된 책으로, 군산소방조의 출발과 연혁 그리고 당대의 소방제도, 화재 통계, 기타 방화 여건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일종의 지방사적 시각으로 정리한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반부는 188쪽의 본문이며, 후반부는 89쪽의 부록이다.

서두에는 군산소방조 관련 인물 및 각종 행사 사진이 많이 실렸다.

표지(標紙)의 표제(標題)는 군산소방조 부조장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의 휘호로, 화가 시나가와 노부오(品川信男)가 고안한 것이다. 전반부는 총 14장으로 화재 예방과 주의사항 및 6개 항목의 참고자료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은 방화 관련 선전 표어들을 모아서 실었다. 여러 사람의 서(序)가 많이 실려 있는데, 법학박사 마쓰이 시게루(松井茂),⁵ 경기도 경성소방서장 오구마 구만조(小熊九万造), 군산부윤 사와무라 고지로(澤村荒次), 군산경찰서장 와타나베 소우에몬(渡邊惣右衛門)의 글이 각각 실렸다.

제1장은 당대 1920년대의 조선 소방의 개요를 정리하여 군산 지역 소방조 연혁사라는 지방사의 지역적이고 편협한 점을 극복하였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 당대의 소방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기에 소방사로서의 값어치를 높였다.

제2장에서는 군산소방조의 결성 배경이 화재 진압을 위한 목적보다는 ‘군산 각국 거류지’ 거주 일본인의 이권을 보호하고, 영사경찰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실을 밝혀 준다. 더불어 군산소방조의 구성이 중사조(仲士組)⁶로 구성된 하층 일본인 거주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3장 부분은 군산소방조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장에서는 개항기에 결성되어 활동해 온 ‘각국거류지군산소방조’를 청산하고 1912년 출발한 ‘공설군산소방조’를 구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방조원

5.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1898~1902)는 동경소방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동경소방의 기초를 닦았다. 통감부 시기에는 조선에 건너와 대한제국 경무국장을 지내면서 대한제국 공중소방대를 창설하였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저술활동을 하며 소방조에 영향을 미쳤다.

6. 중사조(仲士組)는 부둣가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노무자 집단을 말한다. 일명 나가시(ながし)라고 한다.

에 대한 나열과 김제소방조를 만든 하시모토 아키라(橋本央)의 회고, 정읍소방조를 창설한 가나모리 겐조(金森玄三)의 각국 거류지 시절의 소방조 추억담이 실려 있다. 또한 소방조의 펌프 장비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당대 소방 장비의 역할을 알 수 있으며, 자동차펌프 도입으로 소방조가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4-5장은 군산소방조의 예산과 장비에 대한 소개, 제6장은 군산소방조의 소화전과 소방용수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었다.

제7장은 1912년부터 1926년까지의 군산 지역의 화재 발생 통계와 주요 화재 발생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화재 이외에 수난 구조활동에 군산소방조의 출동기록도 있다.

제8장은 군산소방조 역대 간부와 현재 소방조원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소방조 역대 간부 이력을 통하여 당대 군산 지역의 유력자와의 관련성도 파악된다.

제9장-10장은 군산소방조의 활동을 소개하였는데, 소방조가 경찰 보조역할을 하면서 야경 및 방화 선전,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소개하였다. 1928년부터 매년 12월 1일이면 전국적으로 방화대이 행사가 한창이었는데, 『군산소방조발달지』가 간행된 1927년에는 이러한 방화대이 행사가 없었기에 체계적인 방화활동에 대한 소개는 소략한 편이다. 1928년 이후 나중에 간행된 소방조 연혁사들이 방화대이 행사를 상세하게 소개한 것과 차이를 보여 준다.

제11장에서는 1926년에 열린 군산소방조의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표창식을 소개하였다. 15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조원 표창이 있었는데 조두였던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군산경찰서장, 전북지사, 군산시장, 군산상업회의소 회두 등 지역 기관장들의 치사도 수록되었다. 이들 기관장들의 표창의 변(辯)은 군산

소방조가 걸어왔던 과정을 나열하는 것이어서 군산소방조의 활동 과정과 변천을 이해하는 데 자료가 된다.

제12장에서는 군산소방조 간부들의 소감과 포부가 소개되었다. 초대부터 24년이나 조두를 역임한 군산 최고의 실업가인 오사마 후지, 군산상업회의소 부조두를 지냈으며 김제 최초의 지주가 된 하시모토, 군산소방조 조두가 된 이와타 스네조(岩田常造)의 1926년 전국조두대회의 출석, 2부 부장으로 소방수를 군대식으로 훈련한 모리 도시로(森敏郎) 등 소방조 간부들의 소방조 운영 신조가 기록되었다.

제13장은 1년 뒤에 설립된 '조선소방협회(朝鮮消防協會)'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소방협회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전국소방조두회의에서 합의되었으며, 1928년 11월 조선총독부에서 창립되었다. 조선소방협회는 소방조의 단합(여기서는 朝日人の 단합)을 역설하면서 '내선융화(內鮮融和)' 시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창립되었다. 특이한 것은 군산소방조는 조선소방협회 창립 1년 전에 출간되었기에 다른 소방조 연혁사와는 달리 소방협회의 계획에 대한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 제14장은 군산소방조의 조두인 이와타 스네조(岩田常造)가 1926년 10월에 열린 쏠일본 소방 조두에 참석한 기행문이 수록되었다. 이 부분은 다른 연혁사에서는 보기 드문 기행문으로 저자인 아키야마는 언론인으로서 문필적 감각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조두대회에 참석한 경성소방서장 오구마 구만조(小熊九万造), 전주소방 조두 마쓰모토 후구이치(松本福市) 등 조선의 쟁쟁한 소방 조두를 통해서 당대의 소방 간부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서 동경소방조두대회에서 의결한 소방협회의 창립, 출동 시·기물 파괴 시 손해배상, 방화데이 지정, 소방조의 복제 통일 件 등은 향후 조선 소방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담론(談論)들이었다.

추가로 저자는 화재 예방에 관한 주의사항, 화재를 대하는 평소의 자세에 대한 추가적인 상식을 말미에 수록하였다. 내용은 당대 화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온돌·부뚜막·고타쓰·화로·제등·촛불·불장난 화재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이것은 백여 년의 시간이 흐른 요즘에도 용이한 방화 요령이다. 특히 당대에 새로운 화재 원인으로 등장한 전기 사용 방법이 구술되어 있는데, 감전 주의 및 전기선에 대한 취급까지 세밀한 기술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화재 상식에 대한 나열은 지금으로부터 백 년 전인 1920년대 화재에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하였는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정신을 작흥(作興)시키고 방화사상을 고취한 민요집이 수록되었다. 예컨대, 군산소방대의 노래, 군산소방조의 행진가, 1912년에 유행한 소방 유행가, 방화 선전 표어를 수록하였다. 이 장은 화재와 싸우는 소방수 남편을 둔 여인의 염려에서부터 의용소방수의 사명감 넘치는 각오까지 다양한 심정을 가사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당대 여타 소방조 연혁사에는 발견되지 않는 『군산소방조발달지』에서만 볼 수 있는 드문 기록이다. 이러한 문학적인 문헌이 『군산소방조발달지』를 문학적 성격이 진하게 배어 있는 연혁사로 평가하는 배경이다.

『목포소방연혁사(木浦消防沿革史)』

『목포소방연혁사』의 구성은 군산소방조의 구성의 예를 답습했다고 봐야 한다. 최초 소방 연혁사인 『군산소방조발달지』를 모방한 것은 매우 개연성 있는 사실이다. 다만 『목포소방연혁사』의 경우에는 12장으

로 구성되었으며 그중에서 제5장이 중심의 ‘장’이라고 봐야 한다. 5장과 6장은 21쪽-82쪽까지로, 이 책의 총 분량 121쪽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5장과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소방 장비 혁신과 소방차 기부금 모금에 『목포소방연혁사』가 비중을 걸고 이들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목포소방조는 부민들의 모금으로 장만한 자동차펌프와 장비를 과시하기 위해 소방조 연혁사를 편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군산·목포·광주소방조 연혁사)의 구성은 공통적으로 소방조의 도입과 개요 설명, 구성 그리고 보유 소방 장비에 대한 소개, 화재 발생 건수 및 상수도 및 소화전과 소방용수에 대한 기록 순으로 구성되었다. 특이한 것은 소방 연혁지의 서두 부분에는 소방조에 관한 소회, 소방조의 연혁사의 편찬에 대한 축하인사, 그리고 소방조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한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명사의 축하 말씀은 목포공설소방조의 실질적인 기틀을 다졌던 아소 사쿠오(麻生作男), 조선 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조선소방협회 총재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등이다. 이들의 축하인사 말씀은 이 책이 갖는 지향성과 특성 그리고 당대의 소방조의 위상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목포소방연혁사』의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소개하자면, 제1장에서 목포소방조의 구성과 설립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목포공설소방조는 공설소방조 설립인가로 조직되었는데, 목포소방조의 시초는 목포 개항 다음다음 해인 1899년 11월 3일, 메이지 덴노 탄생날이었다. 당시 목포영사 모리카와 기시로(森川季四郎), 경찰서장 엔도 다다요시(遠藤忠興)·후쿠다 유조(福田有造)·다카네 노부노리(高根信禮) 등의 간부들의 주선으로 창설되었는데 명칭은 ‘각국거류지(各國居留地)목

포소방조라고 칭하였다. 개항 이후에 거류민단에 의하여 목포소방조가 각국거류지목포소방조로 탄생되었음을 기록하였다.

제2장에서는 1910년 목포부 이사관 마쓰모토 시게토시(松本重敏), 목포경찰서장 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거류민단장 다카네 노부노리(高根信禮) 등이 목포공설소방조를 결성하면서 소방조 규칙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소방조를 결성한 배경을 서술하였다. 아울러서 이사청령으로 만든 목포소방조 규칙을 수록하였다.

제3장에서는 22조로 구성된 ‘목포소방조 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목포소방조가 새롭게 공설소방조가 되면서 소방조 구성원들을 소개하였다. 조두·부조두를 비롯하여 자문 역할을 하는 상담역에 이르기까지 목포소방조를 구성하는 간부들은 목포 지역의 유력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목포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목포소방조의 간부로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동향과 당대 목포 지역의 주요 실업인들을 연결하면서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사료가 된다.

제4장 제목을 ‘목포소방조의 황금시대’라고 이름하였다. 1910년 목포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마쓰이(松井) 경찰서장은 목포소방조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주문하였다. 하층 나가시(仲士,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들이었던 소방조원들에 대한 풍속 교정과 이들에 대한 의식 개혁을 통하여 목포소방조가 예방 소방활동을 하는 사실, 18구역장으로 임명된 목포소방조 상담역들이 지역에서 소방 점검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목포소방조의 황금시대를 맞았음을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목포소방조가 새로운 일대적 혁신을 이룩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소방조가 당시 경성소방서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펌프를 도입한 것이다. 자동차펌프는 당시 완용, 증기, 가솔린펌프 다음으로 발달된 소방펌프로 전국에서 보유한 소방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고가의 장비였다. 1만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펌프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민들이 성금을 쾌척하였던 것이다. 제5장에서는 당대 펌프 구입 성금에 기부한 부민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편집자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다.

기부금을 기탁한 이들을 수록하면서 제5장은 29쪽부터 89쪽에 무려 60쪽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목포소방조 연혁사의 삼분의 일에 달하는 분량이다. 그 밖에도 자동차펌프를 구입하면서 새롭게 자동차펌프조가 만들어지고 각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면,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서 구세대 70여 명의 소방조원이 퇴진한 부분도 언급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아소 사쿠오(麻生作男) 목포소방 조두가 기존의 인사들을 퇴진시키고 목포소방조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제6장은 급증하는 화재로 인하여 추가로 제2차 자동차펌프 구입 모금운동이 전개되면서 1차 때보다 더 많은 특히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기부금을 기탁한 부민들의 명단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아울러서 조선소방협회 설립 기금 모금에서도 목포 유력자들이 많은 금액을 기탁한 명단을 수록하였다.

제7·8장·9장에는 소방 장비의 도입과 소방조의 예산, 그리고 소방용수를 공급해 주는 소화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소방조가 새롭게 소방 장비를 충원하였으며 자동차펌프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를 관리하는 상비소방수와 상비소방수가 근무하는 격납고, 망루 그리고 소화전 등 소방수와 소방 장비 그리고 소화전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8장은 목포소방조를 운영하는 소방조 예산에 대한 통계가 있다.

9장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소화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자동차펌프가 도입되면서 펌프에 대한 대량의 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화전과 소방용수는 필수적이었는데, 이것은 상수도 건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화전은 목포부의 많은 예산 지원으로 설치되었는데, 소방용수 설치 장소도 면밀하게 수록되어 있다.

제10장은 화재 발생이다. 화재는 소방조 연혁사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제10장에서는 1923-1927년까지의 화재 발생을 손해액과 더불어 통계하였다. 아울러서 1927년도에는 매년 월별로 화재 특성을 수록하였다. 화재 발생 통계는 화재의 추세와 화재의 특성을 이해하는 주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화재를 유추함으로써 당대 목포 경제의 주요한 생산이 무엇이었는데도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면화와 미곡 이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포 경제에서 화재는 이러한 면화공장 과 미곡창고 정미소에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재 이외에도 야경과 화재 예방활동에 치중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소방조가 당시 화재를 진압하는 활동 말고도 어떤 활동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야 한다.

『광주소방20년사(光州消防20年史)』

『광주소방20년사』는 『군산소방조발달지』, 『목포소방연혁사』에 비하여 늦은 1933년 10월 8일에 발간되었다. 이것은 『군산소방조발달지』에 비하여 6년이나, 『목포소방연혁사』에 비하여는 4년 정도 늦은 시기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소방활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조선소방협회(朝鮮消防協會)’가 발족한 1928년에 비하여는 5년 정도 늦은 것이다. 소방조 연혁지가 늦게 발간되었기에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기

술되었다.

『광주소방20년사』는 군산·목포소방 연혁사에 비하여 늦은 1930년대 초반에 발간되었기에 1930년대 소방의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혁사이다. 『광주소방연혁사』는 저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서술을 하였다. 종전의 『군산소방조발달지』가 14장으로 구성되고 『목포소방연혁사』가 12장으로 구성되었다면, 광주소방조는 69장으로 나뉘어 매우 세부적인 구성 방식이었다. 이처럼 세부적인 구성 방식은 연혁사 서술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제1장부터 제11장까지는 광주소방이 결성되는 계기와 배경을 서술하고 소방조의 정체성을 기술하였다. 제12장부터는 광주소방조 규약을 수록하였는데, 이 규약은 1933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책에서 가장 핵심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 규약에 따라 일본인 일색으로 구성되었던 광주소방조는 ‘조일공동소방조’가 되었음을 천명하였다. 광주소방조의 규약은 이전의 소방조 연혁사에서는 기술되지 않았던 소방조 편제 체제에 관한 규정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광주소방조 규약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에서는 광주소방조가 광주 읍내에 거주하는 내선인(內鮮人: 일본과 조선인)으로 조직한다고 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광주읍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하고 방화방수 기타의 재해를 경방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광주소방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제3장은 소방조의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소방 장비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소방조의 복장과 대여 장비에 관한 관리 사항, 제6장은 소방조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하여 광주소방조가 봉사하는 의용소방이었지만 보수를 받는 관변 소방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제7장 소방조원의 상병치료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하였다. 제8장에서는 사무분

장을 규정하여 이전의 소방조 연혁지에서는 수록되지 않은 관료적인 성격을 규정하였다. 제9장 회의 부분에서에서는 소방조원의 총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의 사항을 수록하였다.

제10장에서는 퇴직위로금을 소방조원에게 주도록 하였는데, 다른 소방조에 비하여 광주소방조는 경찰에 대한 예속적인 성격을 보여 주었다. 특히 조두·부조두·소두를 비롯한 소방 간부들은 일반 소방원에 비하여 증액된 퇴직금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 제11, 12장 또한 소방조의 예산과 금전에 관한 기본금과 그 액에 대한 감사 부분을 언급하였다.

이후 제14장부터 제26장까지는 소방조원들에 대한 조위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조원 재정 상태와 후생복지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제27장부터 제38장까지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장비 및 소방용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당시 광주소방조가 도입하였던 최신 자동차펌프차에 대한 제원과 성능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자동차펌프에 대한 면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의 소방펌프차와 장비의 재원을 연구하는 데 매우 필요한 사료가 된다. 아울러서 광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위치를 상세히 묘사하여 당대 화재 진압에 소방용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39장부터는 1928년에 발족되어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다'라는 내선융화 시책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던 조선소방협회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특히 조선소방협회의 발족을 앞두고 각 지역에 할당된 부담금, 협회의 규정, 각 지역별 연합회에 이르기까지 조선소방협회의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제44장부터는 소방조원에 대한 채용 방식, 그리고 소방조원에 대

한 교육과 강습, 화재를 예방하는 소방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제52장부터 제54장까지는 광주 지역 역대 광주경찰서장, 읍면장, 면협의회장까지 나열하여 광주소방조가 지방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들 유력 기관장들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조가 경찰서, 부청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제55장부터 제64장까지는 광주소방조 구성원에 대한 명단을 수록하였다. 특히 광주소방조를 거쳐 간 퇴직원과 역대 간부 등의 임기와 출신 지역을 파악하여 당대 관련 인물들의 동향과 광주 지역 유력자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5장에서 제69장까지는 당대 광주 지역의 화재 발생과 주요 손해액을 살펴보면서 화재를 나열하고 있다.

4.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에 대한 가치와 의의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의 간행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이다. 이 기간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 밑그림이 완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식민지 주제의 확립, 3·1만세운동을 무산시키면서 식민지배체제를 구축한 일제는 1930년대 초반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다’라는 말살정책으로 조선인을 세뇌하였다. 총독부는 화재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조의 봉사와 선행을 선전하면서 ‘내선융화’를 홍보하였다. 따라서 소방활동 연혁사의 편찬은 일제의 내선일체를 홍보하

는 편찬사업이기도 하였다.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은 철저하게 일본어를 사용하여 일본인의 시각으로 집필되었다. 공간은 비록 조선의 호남지역이었지만, 일본의 역사와 에도시대의 소방과 화재를 배경으로 하여 소방의 역사와 과정을 엮어 나갔다. 군산·목포·광주는 호남지역에서 행정적·경제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식민 거점도시이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 최대의 미작 지대였으며 면화의 생산지이기도 하였다. 목포·군산을 통하여 이러한 산물들이 이출되었기에 전국에서도 호남지역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지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소방조 연혁사를 통하여 화재 발생과 소방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당대 조선 전역의 소방활동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군산소방조발달지』, 『목포소방연혁사』, 『광주소방20년사』의 가치와 의미를 짚어 보기로 하자.

『군산소방조발달지』의 서술은 군산 소방조원들의 느낌과 주관성을 담고 있다. 군산소방조 15주년 기념식을 통해 군산소방조 간부들은 소방조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움이 담긴 회상을 하였다. 『군산소방조발달지』는 군산의 신문기자였던 아키야마 슈자부로(秋山忠三郎)의 글체와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신문기자 특유의 깔끔한 문체와 전개 방식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당대의 화재와 소방의 현실을 군산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담담하며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인 천하가 된 식민 공간인 군산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도 현실감 있게 잘 묘사되었다.

『군산소방조발달지』는 연혁사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법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산소방조의 결성 배경을 설명

하고 군산소방조가 여러 시련 속에서 군산의 지킴이로 우뚝 부상하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군산소방조원들이 소방조를 통하여 무엇을 시도하려 했는가, 소방조의 활동은 식민공간의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담론을 내포하였는지도 밝혀 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군산소방조발달지』는 시대적인 사회상과 소방수라는 인간상,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전개 방식에 매우 충실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서두 부분에는 1920년 당대의 전국 소방조의 활동 숫자나 장비 그리고 예산, 한국 소방의 개론을 소개하고 있어 연혁사로서의 기술 방식에 탄탄함을 더해 준다.

여기에 비하여 『목포소방연혁사』는 1910년대 소방조의 개혁과 1926, 1927년 소방 장비 확충을 위한 모금 성과 기술에 치중하였다. 소방 장비 확보, 그중에서 자동차펌프의 도입과 조선소방협회 창립기금 모금 현황을 상세하게 수록한 것은 『목포소방연혁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들의 기부 현황을 통하여 당대 목포 지역의 자산가 및 목포 부민들이 목포소방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후원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

아울러서 목포 부민들이 목포소방조를 후원하고 소방조라는 단체를 통하여 일본인들이 목포 지역에서 그들의 내선일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알 수 있다. 군산·광주소방조와는 달리 목포는 조일인의 혼거라는 거주 여건을 배경으로 ‘조일공동소방조’는 1910년부터 일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일인의 공동소방조 구성의 영향은 1926년 자동차펌프 구입을 둘러싼 기부금 모금에도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형적인 혼거 방식을 채택한 목포 거주민들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소방20년사』는 가토 이쿠사부로(加藤巖三郎)가 서술하였다.

가토 이쿠사부로는 광주 지역의 운수 경영자이다. 그가 1910년대 광주에서 자동차 2대로 송정 간 자동차 운수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기록이 있다. 아울러 그는 전주 익산 간 여객운수업에도 투자하였다. 이처럼 가토는 지역의 실업가로 활동하였지만, 일단 『광주소방20년사』의 내용 자체는 매우 치밀한 구술이다. 물론 그가 이 책을 직접 저술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여 저술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토는 전문적인 문필가는 아니지만, 광주소방조의 인명과 장비 현황을 객관적으로 수록한 것은 기록문 형식의 연혁사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광주소방20년사』는 정확한 기록을 지향한 연혁사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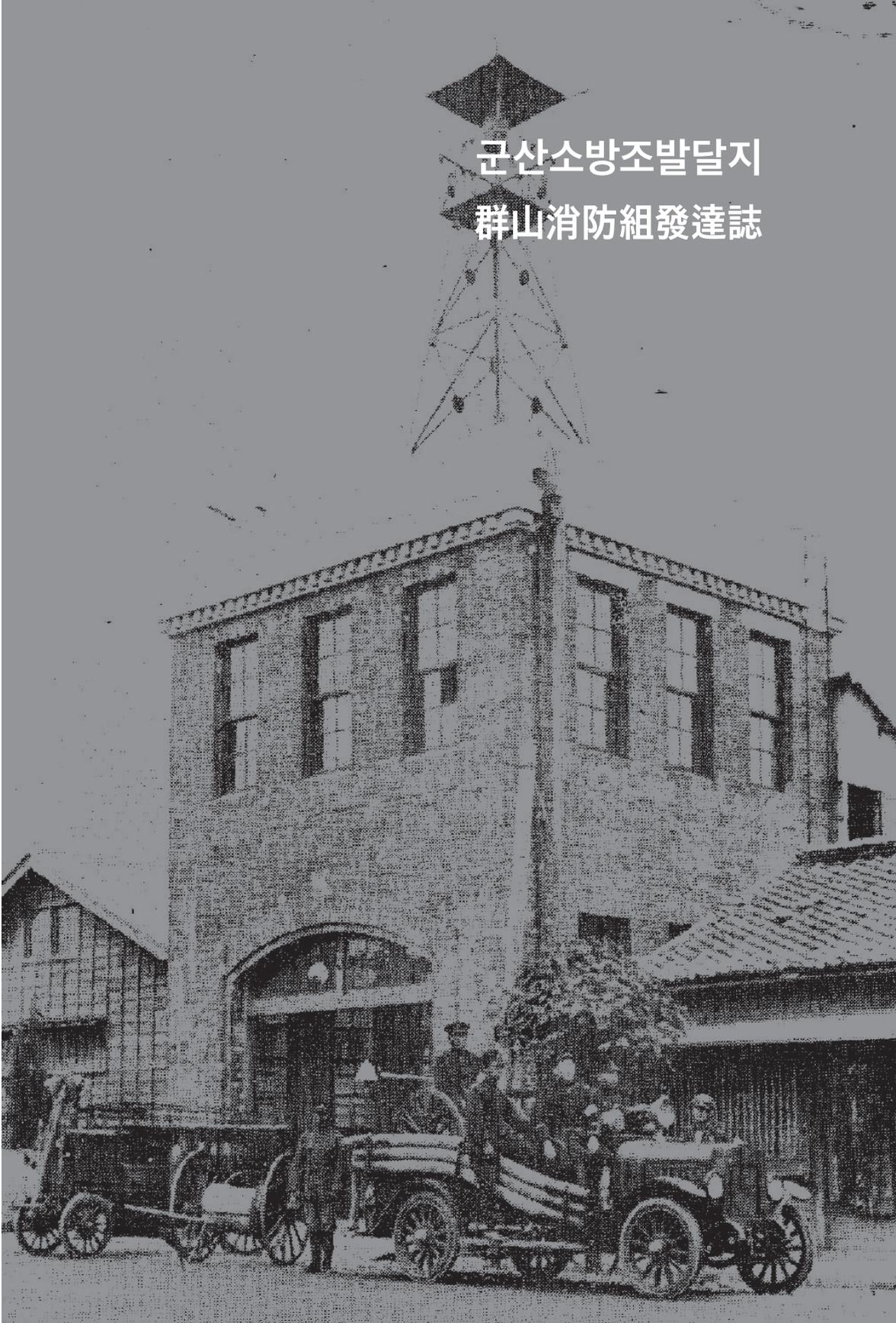
『광주소방20년사』에서는 1930년대 소방조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목록과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당대 소방 장비의 활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기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조가 어떤 규율 아래 소방수들을 포상하고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전국 1,500여 개의 소방조의 편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세밀한 언급도 많지 않았다. 『광주소방20년사』의 기록에서 이러한 궁극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소방조원들에 대한 퇴직금과 복지, 조위금에 대한 차등화된 지급 방식, 각 係로 편성된 역할 분담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기술이 돋보인다. 어쩌면 일지나 보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감정을 배제한 사실적인 기록이 이루어졌다. 『광주소방조25년사』에 수록된 소방펌프차를 비롯한 파괴 기구, 마토이와 화재 진압 복 등에 대한 상술(詳述)은 일제강점기의 소방 장비와 복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군산소방조발달지』·『목포소방연혁사』·『광주소방20년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당대 명사들의 의용봉공에 대한 휘호, 축하 휘호, 축사 등을 통하여 소방을 인식하는 총독부의 시선과 일본인 간부들의 인식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각 책의 시작 부분에는 소방조의 활동을 그린 사진들이 수록되었다. 1920년대의 소방조의 활동은 당대 신문에서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하여 이 같은 활동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소방활동사를 일별하는 데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에 기록된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소방활동의 발자취는 앞으로의 소방사 연구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래 소방의 설계 및 나아가야 할 좌표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군산소방조발달지
群山消防組發達誌





群山消防組發達誌

附消防と一般心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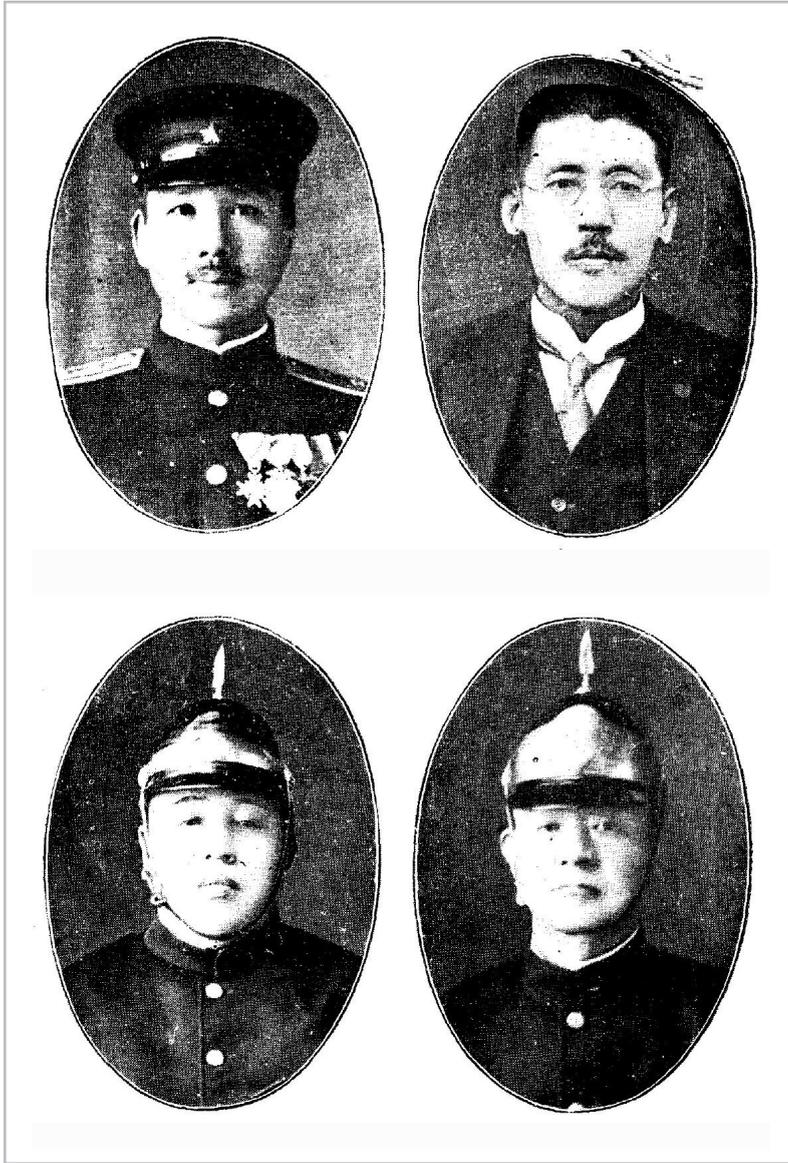




고노(河野) 전북경찰부장 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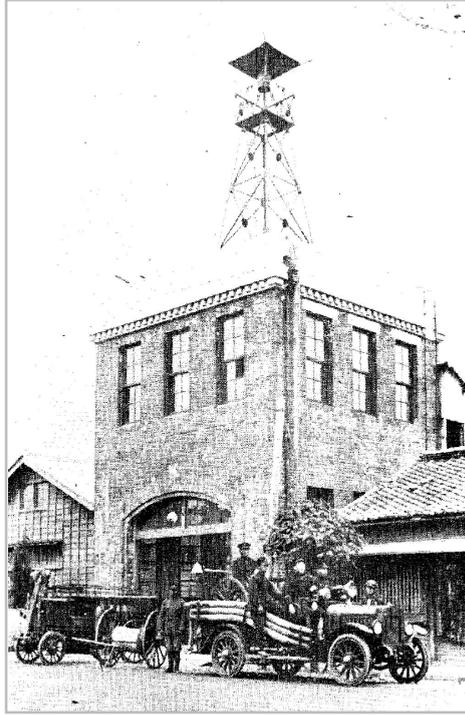
1927년 전북지사 와타나베 시노부(渡邊忍) 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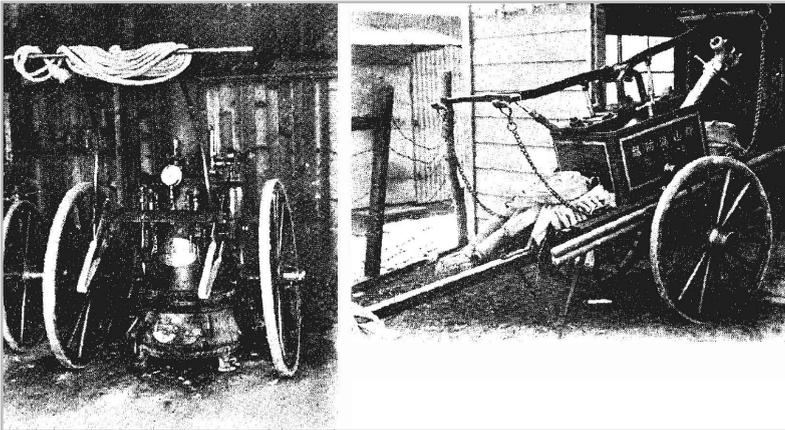
군산부윤 시와무라 아라지로(澤村荒次郎) 오른쪽 上
 군산소방조두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 오른쪽 下
 군산경찰서장 와타나베 소우에몬(渡邊物右衛門) 왼쪽 上
 군산소방조 부조두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왼쪽 下



군산소방조소두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 오른쪽 上
 모리 도시로(森敏郎) 오른쪽 下 / 기시다 쓰네조(岩田常造) 왼쪽 上
 나카이 고지로(中井小二郎) 왼쪽 下 / 야노 사부로(矢野三郎)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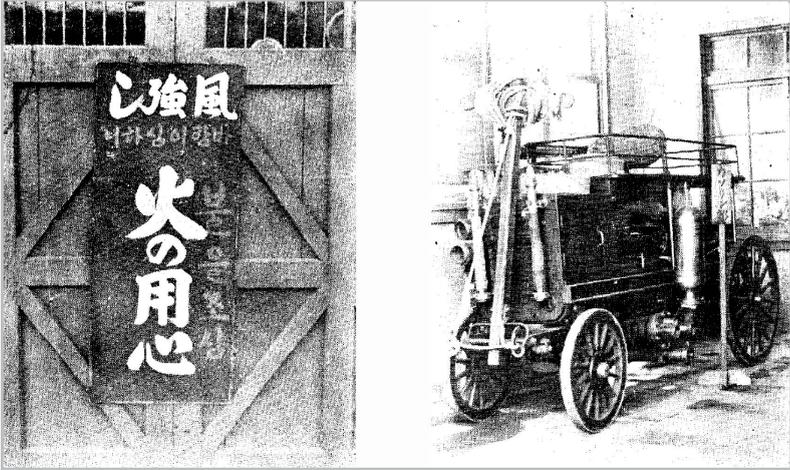


군산소방조의 자동차 격납고와 망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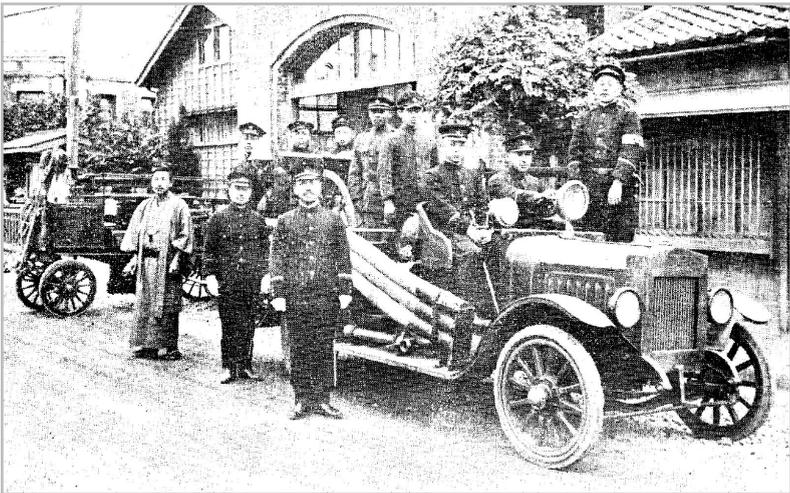


증기펌프(左) / 완용펌프(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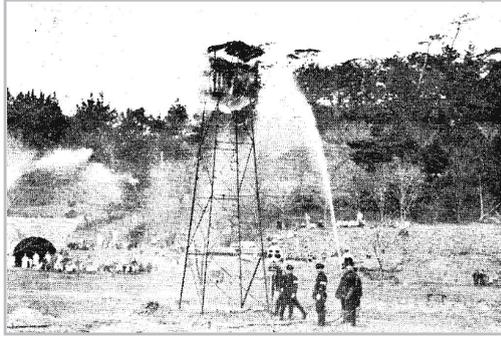
증기펌프는 1907년 부산소방조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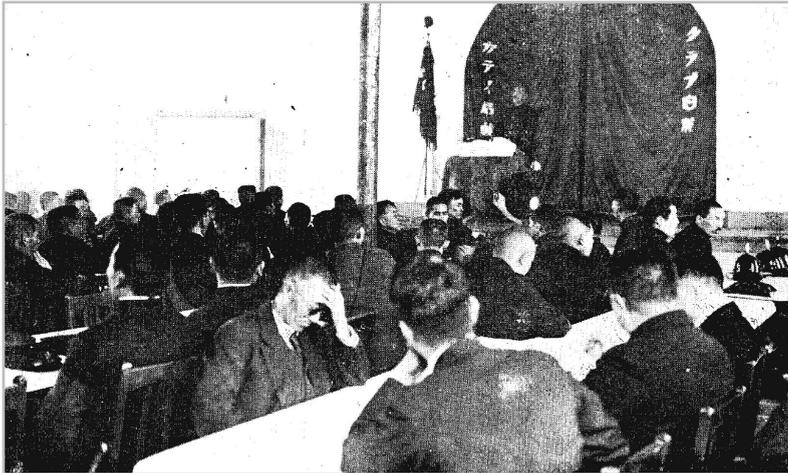
대문에 불조심 표어를 부착하였다.(左) / 가솔린 펌프이다.(右)
 가솔린펌프는 증기펌프보다 한걸음 앞선 펌프 장비로 1912년 경성소방조에서 도입하였다.



1925년 군산소방조가 도입한 자동차펌프



군산소방조의 모의화재 방수 연습이다. 터널(위쪽)은 지금도 이용 중인 해망굴이다.



1927년 군산소방조의 출초식 위로연회 모습

序

금번 군산소방조발달지를 편찬함에 있어, 편찬인 측에서는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야쿠시지(樂師寺) 군을 통하여 특별하게 서문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일찍이 오랫동안 조선의 경무국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⁷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⁸ 두 통감 보좌에 미력하나마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경찰, 국민소방(國民消防)⁹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었기에 기꺼이 이를 승낙하는 바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방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잠시도 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는 점은 식자(識者)가 아니다

7_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841년 10월 16일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이다. 근대 일본의 정치가. 19세기 후반 일본이 개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체제와 기반을 다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하급 무사 집안 출신으로, 22살 때 영국으로 유학하면서 근대화된 서구 문물에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순방하는 등 근대적 제도의 도입에 기여하면서 고급 관료로 성장했고, 메이지 정부의 헌법 제정과 양원제 의회 수립, 내각 구성을 주도했으며, 초대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국제관계를 주도하며 결국 한반도의 병탄에 앞장섰고, 1905년 을사늑약 후에는 초대 통감으로서 조선 침탈의 주역이었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한국의 청년 안중근(安重根)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했다.

8_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는 1849년 조슈 번(長州藩)에서 출생하였으며 일본의 군인, 정치인, 외교관이다. 보신전쟁(戊辰戰爭)에서 존왕파로 참전하였고, 프랑스에 유학하여 공부했다. 1890년대 초 중의원 서기관장이 되었고, 1892년 제2회 총선거에 당선되었다. 1893년 주 프랑스 공사에 임명되었다. 사법상, 농상공, 일본 대장성 장상 등을 역임하였고 1900년부터 귀족원 칙선 의원을 지냈다. 1906년 추밀고문관, 한국 부통감을 거쳐 1909년 이토 히로부미의 후임으로 대한제국 통감에 임명되었다. 아라스케가 통감으로 재직 중 이토는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사살되었다. 7월 12일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을 소네의 권력으로 전격 탈취하였다. 1910년 5월 30일 병으로 조선통감 직위를 사직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여 요양하다가 그해 9월 13일 사망하였다.

9_국민소방은 저자인 마쓰이 시게루(松井茂)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소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그는 국민소방을 통하여 일본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소방의 유래, 소방의 전술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라도 분명하다. 내가 근래에 널리 ‘국민소방’의 저서를 일반에게 발표하는 까닭도 필경 이 문제가 국민 정신 및 국민 경제상 매우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선 소방에 대해서는 그 연혁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유래하는 바 또한 깊다. 그러나 오랜 옛날 소방의 기억은 현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개항 이후에 개항장을 통하여 소방의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나는 1908년 조선 경무국장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전 조선에 훈령을 발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소방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는 겨우 수 개의 소방조에 불과하였으나, 이후에 점차 수를 늘려 이제 800여 개가 된 것은 참으로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금할 길 없다.¹⁰

특히 조선 소방의 발전상 잊을 수 없는 일은 나의 재임 중 오구마 구만조(小熊九萬造)¹¹ 군이 초빙에 응하여 조선 소방을 위하여 공헌한 점이다. 조선 소방이 오늘날과 같이 융성을 보기에 이른 것은 오구마 군의 공이 지대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오구마 군은 처음으로 궁중 소방을 창설함과 동시에 민간 소방에도 힘을 쏟아 조선 소방, 그중에서 특히 경성소방의 발전을 도모하였다.¹²

10_한일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 8월 이후에는 소방조가 68개로, 다음 해인 1911년에는 155개로 증가하였다.

11_오구마 구만조(小熊九萬造)는 1908년 조선통감부 경부, 1915년 조선총독부 보안과 소방계에서 근무하였으며 목포·군산·경성소방조 등 전국 각지의 소방조의 훈련과 개편에 관여하였다. 1925년에는 경찰관 교습소 교관에 이어서 경성소방서장, 1928년 경기도 내무국 지방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12_군산·목포소방조가 새롭게 변화의 계기를 맞을 무렵 오구마 구만조는 지역의 소방조를 방문하여 소방조를 진단하고 펌프 장비 개선을 조언하였다. 1925년 오구마 구만조는 초대 경성소방으로 부임하였다.

더하여 총독은 물론이거니와 아카시(明石),¹³ 이스미(亥角),¹⁴ 아카이케(赤池),¹⁵ 마루야마(丸山)¹⁶ 씨 등 여러 경찰 당국자가 열심히 조선 소방의 융창(隆昌)을 기한 결과로 마침내 훌륭한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조선 소방의 발전상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은 1915년 ‘조선총독부소방조 규칙’¹⁷의 공포이다. 즉, 이를 계기로 일반 국민에게도 소

13_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1864년 9월 1일~1919년 10월 26일)는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일본 제국 육군의 군인이며 화족이다. 조선통감부 경무총장, 제6사단장, 타이완 총독 등을 역임하였다.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일본 공사관 무관을 지냈다. 최종 계급은 육군대장 훈1등 공3급 남작이다. 1910년 10월 1일부터 1914년 4월 17일까지 조선총독부 초대 경무총감부 경무총장을 역임하였다.

14_이스미 나카조(亥角仲藏)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시를 역임하였으며, 1919년 9월 26일부터 1921년 8월 5일까지 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하였다.

15_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 1879년 1월 27일~1945년 9월 10일)는 일본 도쿄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02년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였다. 1919년 9월 20일부터 1922년 6월 18일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나중에 경시총감이 되어 가코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인의 학살을 지시하였다.

16_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는 1922년 6월 18일부터 1924년 9월 27일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17_조선총독부의 소방 조직의 통제는 1915년 6월에 발포한 ‘朝鮮總督府消防組規則’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총 10조로 구성된 ‘조선소방조규칙’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1조 ‘경무부장은 화재의 경계 방어를 위하여 지역을 정해 소방조를 설치할 수 있다(설치 목적 및 승인). 제2조 소방조는 조두 1인, 소두 및 소방수 약간 인으로 조직한다. 조두·부조두 및 소두는 경무부장이 임명한다(구성 인원 및 임명). 제4조 조두는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소방조의 사무를 관리하고 조원을 지휘 감독한다(구성원 직급별 역할). 제5조 경찰서장은 소방조를 지휘 감독한다(지휘체계). 제9조 府의 구역에 있어 소방조에 관한 비용은 府의 부담으로 하고 여타 소방조에 관한 비용은 그 지역 주민의 각출금으로 支辨한다(비용 부담). 등의 규정을 두었다. ‘조선소방조규칙’은 1894년 2월 10일에 칙령 제15호로 발포한 일본의 소방조 규칙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소방조규칙’은 지역 자치를 담당하는 부 현지사가 소방조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소방조규칙은 경무부장을 책임자로 규정하였다. 일본소방조 규칙 제1조는 ‘水火災 경계 방어를 위해서는 부 현지사가 소방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는 ‘경무부장이 화재의 경계 방어를 위해 소방조를 설치’한다고 하였고, 水災 방어는 조선소방조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7조,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방조에 대하여 水災 및 火災의 경계 방어 태세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급할 시에는 水火災를 경계를 빙자하여 조선인들의 시위 진압에 언제든지 소방조를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일본의 소방조 규칙은 소방조의 설치 구역은 시정촌에 두고(제

방이 점점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24년 나는 오랜만에 조선에 놀러 와서 경성소방의 발전 상황을 목도하였다.¹⁸ 경성소방의 발전이 내지(일본)에 비하여 뒤지지 않은 것을 알고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원래 경성이나 부산에서도 화재의 발생은 적지 않았으며, 특히 근대의 발달에 수반하여 조선 각 지역은 더욱 화재가 빈발하였다. 여기에 맞추어 경성·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소방 장비가 갖추어지고 수도시설도 보급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외에도 화재를 알리는 경보기 설치, 도로 확장 등 화재 예방상 개선을 요하는 점도 필요하다고 믿는 바이다.

이제 조선 소방에 바라는 바는 소방조를 중심으로 내선인(內鮮人: 일본과 조선인)의 공동심을 깨우쳐서 소화 칙령에 담겨 있는 이른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¹⁹ 내선인의 공존공영의 바람은 나처럼 조선 소방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말을 한층 크게 한다. 따라서 나는 이번 『군산소방조발달지』 편찬에 대하여 대단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이 저서가 조선과 일본인의 화합에 이바지할 것을 믿으며, 여기에 한마디 소감을 남기는 바이다.

2조), 소방조의 복무 규율 및 징계는 부 현지사가(9조), 부 현지사는 소방조의 부를 나눌 수 있고(제5조), 소방조의 거동에 방해가 될 경우 부 현지사가 그것을 해결한다(10조)고 하여 부 현지사의 소방조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경무부장의 책임하에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던 조선소방조와는 차이를 두었다.

18_조선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는 1925년 3월 1일에 개서되었다. 따라서 마쓰이가 1924년에 목격한 것은 경성소방서가 아니라 경성소방소의 발전상이다.

19_소방을 통하여 조일인의 동화를 추진하려는 총독부의 방침은 일관된 것이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소방조규칙을 발표한 이래 일제는 소방조를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1927년 4월 29일, 소화천황의 생일일에…

정3훈위 1등 법학박사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적다.

序

우리나라(일본)가 건국하여 본래의 국민성을 유지하며 주변의 마수에 의하여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우뚝하게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에 응시(雄視: 위세를 부리며 남을 내려다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말할 나위도 없이 역사의 기록에 비추어 보아 우리 국민이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역사를 무시하고 지나온 업적을 살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융창은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 국민의 도리로서 우리나라 역사 발자취를 안다는 것이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소방에 있어서도 '소방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국가에 국민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국민성이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면 소방에도 역시 소방정신을 바라지 않겠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유지에 국민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소방에도 소방정신이 없다면 국가 자치의 방호자인 소방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성이라는 것이 국가의 역사 연혁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소방정신에 있어서도 역시 난난신고(艱難辛苦: 갖은 고초를 겪어 몹시 힘들고 괴로움)를 겪고 만들어낸 그 소방조의 변천 과정을 밝혀 그 연혁에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른바 소방정신이라는 것이 발생

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사로 편찬함에 있어서는 소위 역사의 내용인 연혁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일이기에 그 필요를 느끼면서도 소방사(消防史)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지극히 드문 현실인 것이다.

지금 군산소방조가 오사와(大澤) 조두 이하 아카마쓰(赤松), 기시다(岸田), 미쓰토미(光富), 모리(森), 나가이(中井), 야노(矢野), 아키야마(秋山), 기타이치(北市) 씨 등의 노력에 의하여 군산소방조발달지를 편찬하고자 모였기에 나는 나의 직분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군산소방조가 자발적으로 그 소방정신을 일으키고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용기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소방'이라는 것은 자치이다. 입헌국가의 기초가 자치에 유래하는 것과 같이 자치 소방정신을 키우고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기초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끔씩 소방정신을 도외시키고, 소방조에 몸담는 것을 자랑하고, 주변이나 다른 지역에 과시하기 위하여 펌프[唧筒]²⁰를 구입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은 자치 소방의 정신을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긴다.²¹ 이름은 '자치'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소방의 이름을 빌려 사인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위선에 대해서는 나는 경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1908년 이래 지속적으로 군산소방조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가령, 지금 이 발달지를 읽지 않아도 군산소방조의 열정적인 노력

20_즉통(唧筒): 물을 높은 곳으로 빨아올리는 펌프 장비.

21_고가의 가솔린펌프나 자동차펌프 등의 최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지역 소방조들이 지나치게 예산을 확보하여 경쟁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의 흔적과 발달의 역사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 발달지 이외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고심담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노고가 소방정신을 진작하고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조원들은 반근착절(盤根錯節: 세상일에 난관이 많음)을 멀리하고 소방일에 집중함으로써 오늘의 성적을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본서의 원고를 보내면서 지나간 일에 대한 감동에 젖어 두서없는 말로 나의 기쁨을 보내는 바이다.

1927년 4월

경성소방서 서장실에서 오구마 구만조(子熊九万造) 씀

序

우리 군산은 항구도시로 해마다 발전이 이루어져 거주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점포 및 건물도 오랜 거주를 위해 튼튼히 지어지고 있으며 은행이나 회사도 서로 경쟁하듯 굉장히 견고한 사옥을 건설하게 된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영구적 구조로 튼튼한 가옥이 건축된 것은 건물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시된 가구, 집기, 상품, 기타 물품 관리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방설비는 도시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이며 도시가 발전하고 팽창하면서 관리 개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산의 소방기관을 보면 조원의 훈련, 기구기계의 설비가 해마다 개선되었으며, 특히 소방 장비로는 최신식 자동차펌프도 갖추고

있다. 보조장비로서 가솔린펌프, 증기펌프, 완용펌프²² 등도 있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고 부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군산소방조는 조두²³를 비롯하여 간부와 조원 모두가 상하 일치, 협심진력하는 대원들이다. 화재 발생 시에는 빠른 출동과 신속한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군산의 안전에도 바람직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소방기관의 설비가 다른 기계시설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성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방조두회의에 상정하여 안건이 되어야 하고 조선소방협회²⁴의 설립을 기다려 한층 개선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군산소방조에서 발달지를 편찬함으로써 후일의 기록으로 하려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군산소방조원 및 일반 부민은 이것을 계기로 군산의 연혁과 역사를 체계 있게 이해하고 더욱 크게 도약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감히 줄문(拙文)을 초안(草案) 서문으로 하는 바이다.

1917년 4월 18일

군산부윤 사와무라 아라지로(澤村荒次郎)

22_완용펌프는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들여온 소방 장비이며, 인력으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 장비이다. 이어서 증기펌프는 1911년 부산소방조에서 들여왔으며 이어서 가솔린펌프, 1921년에는 자동차펌프 등을 경성소방서에서 도입하였다. 특히 자동차펌프는 이전에 사용하였던 펌프보다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였다.

23_소방조의 최고 우두머리를 조두(組頭)라고 한다. 이전에는 '組長'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나, 1915년 '조선소방조규칙'에서 조두라는 칭호를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24_조선소방협회는 1928년에 설립되었다. 군산소방조의 발간이 1927년이었기에 조선소방협회의 설립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序

아키야마(秋山)²⁵·기타이치(北市) 두 사람이 금번에 군산소방조발달지를 편찬한다. 이를 살펴보니, 비단 우리 군산소방조의 역사 연혁을 상세하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제도, 화재 통계, 기타 방화 문제를 언급하여 경화(警火)사상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요즘 구하기 어려운 참고자료라고 할 만하다.

생각건대 군산소방조는 창설 이래 16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역대 선배 유지의 헌신적 노력과 분투에 의하여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소방조 편찬기록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두 사람이 뜻을 모아 올봄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자료의 수집에 힘쓰는 끝에 이 저서를 완성하였다. 부디 이 저서가 소방조의 흔적을 돌아보며 발전을 도모하는 지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소방조를 성장시키는 바탕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소방계는 변화의 기회와 마주하였다. 예를 들어 1926년 1월 도쿄의 소방 출초식에는 황공하옵게도 섭정궁(攝政宮)²⁶ 전하께서 대립(臺臨: 황족이 자리를 같이 함)하여 친히 검열을 하셨다. 소방에 종사하는 자, 소방 임무를 지휘하는 간부들 모두가 황공하여 감격하며 몸 둘 바를 몰랐다. 곱절로 그 책무의 중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가을 창립 15주년 기념축전을 거행하여 새롭게 태어난 군

25 『군산소방조발달지』를 저술한 아키야마 슈자부로(秋山忠三郎)를 말한다. 군산·일본에서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언론 문필인이다.

26 섭정궁(攝政宮)이란 대정천황이 1912년 즉위 후 병약하여 1921년 11월 25일 왕태자 히로히토(裕仁)가 셋쇼노미야(攝政宮)에 취임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히로히토를 섭정궁으로 호칭하였다.

산소방조는 소화유신(昭和維新)²⁷과 더불어 다시금 일대분발을 결심하게 되었다. 여기에 부응하여 이 저서가 출간된 것은 정말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두 사람의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1927년 4월 초3일

진무일왕의 제일(祭日: 황실의 祭典이 있는 날)에
군산경찰서장 도경시 와타나베 소우에몬(渡邊惣右衛門)

머리말

소방기관의 완비가 충실 여하에 따라 그 나라의 문명과 야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정신의 수준을 평가함에 충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소방기관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과학화, 기계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유럽의 소방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함이 있다. 더구나 도시의 발전과 인구의 조밀함에 비교하자면 한층 더 조직의 충실과 설비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소방기관이 아무리 군대처럼 최정예의 장비를 완비하였어도 소방대원들의 희생적 정신과 헌신이 없다면 유사시에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음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야마토(大和) 민족²⁸ 특유의 충군(忠君), 애국(愛國), 의용(義勇)의 열렬한 정신이 있

27_소화유신(昭和維新)은 쇼와의 즉위와 더불어 메이지유신과도 같이 새로운 증흥을 이룩하자는 주의이다.

28_야마토민족(大和民族)은 현재 일본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으며, 이 정신으로 재난과 싸우며 난국을 향하는 의연한 국민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동경소방대를 예로부터 「에도의 꽃」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멋진 소방복이나 노래하며 출동하는 태도 등 외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애, 사회애, 인류애,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희생과 헌신, 즉 고유의 의와 용을 국민들에게 바치는 용혼의담(勇魂義膽)²⁹의 발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작년 1월, 동경소방 출초식³⁰에 황공하옵게도 섭정궁 전하께서 왕립하시어 친히 검열을 하셨다. 전하께서는 우리의 의용소방 훈련을 보시면서 그것이 국민정신의 진흥을 촉진할 것이라 인정하시어 참으로 황공할 따름이다. 이 일은 우리 동경소방조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전국 소방조의 영광이다. 생각컨대 소방조원의 사명천직과 소방조원의 임무 또한 비견할 수 없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나와 군산소방의 유래를 생각해 보니, 군산소방조는 1912년 4월, 공설인가하에 소방조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개항 무렵인 1899년 11월 3일 천장절(메이지 천황의 생일)에 각국거류지회 소속으로 조직이 창설된 이래 29년의 성상을 경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¹ 그동안 인구의 증가, 상공업의 발전, 시가지의

일본에서 현재까지 정치적으로나 인구적, 언어적으로 다수파를 구성해 왔다. 이름의 유래는 일본에서 4세기에 존재했던 야마토 시대에서 따왔다.

29_용혼의담(勇魂義膽)은 의로움이 있는 용감한 기사의 혼을 이야기한다.

30_소방조의 출초식을 일본인들은 '데조메시키'라고 했는데 매년 1월 4일에 이루어졌다. 데조메시키의 기원은 일본에서 거행되었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소방의 시무식이었다. 1659년 1월 4일 에도(江戸)에서 시작한 '데조메시키'는 上野의 東照宮 앞에서 거행된 이래 관습화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일본인 거주지에서 출초식이 이루어졌다.

31_군산소방조는 1899년 11월 3일 '각국거류지군산소방조'로 출발하였으며 이 시기의 '각국거류지군산소방조'는 군산의 일본인회에 소속되어 일본 영사의 지시를 받았으며 공

확장과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소방조도 소방 장비의 개선과 소방훈련으로 해마다 향상되었다.

군산소방조는 남조선의 웅도(雄都)인 군산의 소방조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장비와 기술을 구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방조 간부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다시금 자동차펌프 1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완전한 소방 장비의 구비 계획은 창설 당시와 비교하면, 그 진보와 개선의 흔적이 참으로 두드러진 것이다.

작년 10월 17일에 거행된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 및 10년 이상 근속 조원 표창행사’에서는 그동안의 소방조 변화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즈음하여 앞으로 소방조원의 사기를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오늘날 군산소방조의 발전은 오로지 소방조원의 희생정신, 헌신적 노력, 경찰당국의 지도 편달에 따른 결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감사해하고 있는 바이다.

이처럼 오랜 이력을 갖는 군산소방조에 관한 과거의 일관된 기록이 없고 그 변천 추이의 경과 또는 진보 개선의 노정을 소상히 살펴보는 기록도 없었다. 따라서 금번에 본 책자를 편찬하여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발전의 지침으로 하며, 또 하나는 조원 및 시민에게 배포하여 불조심 사상 보급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1927년 4월 3일

진무일왕제의 길일을 축하하며 편집자 일동

설군산소방조는 1912년 4월 군산부와 군산경찰서의 인가하에 발족되었다.

범례

- 一. 본서의 최초 편찬 계획은 단순히 군산소방조의 연혁, 역사만을 기술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방화사상이 발달하고 각 도시가 경쟁하듯 소방설비를 확충하려는 추세에 비추어 이번 기회에 방화(防火)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一. 종래 군산에는 소방에 관한 체계적인 기록이 없다. 또한 종합된 사료도 없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에 부족한 부분은 당시 관계자의 기억을 구술 채록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국 및 당사자에게 질문을 통하여 소방 조직의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기에 어렵사리 원고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 一. 조선 각 도시의 소방조 역사를 부분적으로 기록해서 다룬 책자는 단편적으로는 존재하였지만, 본서와 같이 창설 29년간의 연혁 역사를 조직적, 계통적으로 기술한 책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군산소방조가 다른 곳에 우선하여 본서 편찬의 큰일을 한 것은 다른 곳에 비하면 자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 一. 본서 편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면밀한 조사와 치밀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책의 내용 중에는 오언탈루(誤謬脫漏: 오류가 있음)가 없기를 바라면서 양해를 구한다.
- 一. 본서 편찬에 즈음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신 여러분, 특별히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와타나베 군산경찰서장, 사와무라(澤村) 군산시장, 소방조 간부 및 하시모토 히데오(橋本央), 가나모리 겐조(金森玄三), 다니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 다카하시 구라타로

(高橋倉太郎)·시부야 킨지로(渋谷金次郎)·미즈카와 사다지로(水川禎治郎),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一. 군산소방조가 오늘날의 개선 진보를 보기에 이른 것은 오구마(小熊) 경성소방서장의 지도 가르침에 의한 것이 많았다. 시민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오구마 서장은 본서 편찬의 일을 칭찬하고 종종 꼼꼼한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一. 본서의 서두에는 마쓰이(松井) 법학박사의 서문이 실려 있다. 마쓰이 박사의 서문을 구하기 위하여 편집자의 선배이며 조선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인 야쿠시지 지로(藥師寺知臈) 씨를 중간에 세우고 기고를 부탁하도록 하였다. 마쓰이 박사의 서문이 본서를 빛내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지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박사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덧붙여서 소개의 노고를 끼친 야쿠시지 씨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 一. 표지의 표제(標題)는 군산소방조 소두인 미스토미 가하치(光富嘉八) 씨의 휘호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장(意匠: 디자인)은 화가인 시나가와 노부오(品川信男) 씨가 고안한 것이다.(편집자)

목차

제1장_조선 소방의 개요

제2장_군산소방조의 기원

제3장_군산소방조의 창설

1. 증기펌프 구입
2. 가솔린펌프 설비
3. 일 년에 걸친 분규
4. 오구마 경성소방서장의 지도
5. 자동차펌프 구입

제4장_소방조와 예산

제5장_소방 장비 및 기타 설비

1. 평소의 준비

제6장_군산의 소방과 소화용수

제7장_창설 이후의 화재 도수

1. 주요 화재와 손해액
2. 화재 이외의 경비 사항
3. 화재보험 계약고

제8장_역대 간부와 현재 조원

제9장_소방조와 야경

제10장_방화사상 선전과 사업

제11장_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표창식

1. 1927년 소방조 출초식

제12장_조 간부의 소감과 희망

1. 전체적인 연락 통일이 필요 = 大澤藤十郎

2. 소방의 사명감 더욱더 중대 = 赤松繁夫
3. 책임 관념과 마음의 설비 = 光富嘉八
4. 전국조두대회 출석의 영광 = 岸田常造
5. 규율 절제를 중요시하자 = 森敏朗
6. 현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곤란하다 = 中井小二郎
7. 봉공의 적성(赤誠)을 이어받자 = 矢野三郎

제13장_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

제14장_전국소방조두대회 출석기

화재 예방의 주의사항

화재에 대한 평소 준비

출화 시 주의사항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화재 시 전기 취급 방법

전기사업관리규칙 제5장 발췌

소방정신 작흥(作興), 방화사상 고취 민요집

방화 선전 표어

제1장_조선 소방의 개요

군산소방조의 연혁과 역사를 기술하기 전에 조선 소방의 개요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것은 장차 대도시로 도약하려는 군산에 살고 있는 군산 시민으로서, 재해가 닥칠 경우 이를 방어해야 하는 군산소방조원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소방조는 대개 市와 面을 단위로 조직되었고, 그 수가 840조에 달하고 있다.³² 조직의 내용을 분류하면, 일본인으로 조직된 것이 11조, 조선인으로 조직된 것이 270조, 내선인(內鮮人) 공동조직이 507조, 내선지(內鮮支)인 공동조직이 22조, 이 중에 상비소방수³³를 배치한 곳은 인천·평양·부산·대구의 네 도시로 경성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었다.³⁴

그리고 전 조선의 소방조원의 수는 일본인 9,491명, 조선인 42,386명, 중국인 98명으로 합계 51,975명, 소방조는 3면당 1조, 소방조원은 인구 349명당 1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1926년 9월 조사) 게다가 이것을 1919년 경찰제도의 개정 시, 소방조 657조, 소방조원 44,579명에 비교하면 현저한 진보·발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_‘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보면 군산소방조가 출간될 무렵인 1926년에는 846조, 1927년에는 876조가 결성되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전국의 840조는 이 시기의 소방조 통계와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_조선의 소방조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출동하는 의용소방체제이다.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의 개념이었다. 자동차펌프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장비를 조작할 상비소방수가 필요하였는데 상비소방수의 등장은 자동차펌프를 일찍 도입한 인천·평양·부산·대구 등의 도시였다.

34_서술한 바와 같이 「群山消防組發達誌」가 출간된 1927년의 두 해 전인 1925년에 경성소방서가 개서되었다.

물론 구·한국시대에는 거류지 및 개항장에 일본인이 조직한 소방조가 있었으나, 설비 내용이 불완전하였다. 오늘날 당시와 비교하면 그 진보와 발전의 차이가 참으로 두드러진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 소방기관의 설치를 본 것은 1908년 1월 궁중에 소방대가 설치되어 궁중뿐만 아니라 도시의 화재에도 출동하게 되었던 것이 효시이다.³⁵

조선에 있어서 현재의 소방조는 1915년 부령(府令)으로 발표된 소방조 규칙에 의거하여 조직·설치되었다. 당시는 부제(府制)만 실시되고 면제의 시행은 없었기 때문에 소방조원의 비용은 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에서 부담하고 기타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주민의 각출금으로 지불했던 것이다.³⁶ 그런데 그 후 1917년 면제(面制)가 시행되었고 이것과 동시에 소방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 소방조의 비용은 부와 동일하게 면에서도 이를 부담하게 되었다.

화재 발생 도수는 전 조선을 통털어서 1919년 이후 10년까지 매년 3,500회를 오르내렸다. 이것은 오히려 증가의 경향을 보여 1919년도 130여만 원, 1921년도에는 267만 9천여 원, 1925년도에는 화재 발생 도수 3,890회에 대하여 소실 피해는 321만 6천여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1923년에는 소실 피해가 738만 원에 달하여 약 5배 반의 증가율을 보였다.

화재의 원인은 온돌 사용 부주의에 의한 것이 많아서 전체의 10분의 4를 차지한다. 화재 발생의 순서는 아궁이에서 끊어낸 재, 방화(放火), 아이들의 불장난, 뇌화(雷火), 담배꽂초, 의심스러운 불, 모닥불

35_궁중소방대는 1908년 오구마 구만조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궁중 소방대는 창덕궁소방대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36_1915년에 발표된 '조선소방조규칙'에서 소방조의 운영에 관한 비용은 府面에서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등의 순서로 이어지는데, 기타 원인에 의한 것은 근소하다. 그리고 경찰 당국으로서의 화재의 예방 설비에 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온돌의 개조, 재 모아 두는 곳의 개선, 방화벽의 설치는 적어도 화재 예방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조선의 소방기구 중 펌프의 종류는 완용(腕用)펌프가 가장 많고, 가솔린펌프 이어서 자동차펌프 19대, 증기펌프 6대에 불과하다. 기타 소방 장비로서는 수관차(水管車: 소방 장비를 옮기는 수레), 사다리, 긴 쇠갈고리, 짧은 쇠갈고리 등 그 종류가 많으나,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소방조 창설의 역사가 짧았으며 특히 국민의 생활, 문화, 의식 수준이 내지(일본)에 비하여 저급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조다운 조직의 형식을 정비하지 못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³⁷ 그러나 1925년 4월 조선 지방관 관제 개정과 함께 경성에 소방서가 설치되었고, 경시 또는 경부를 서장에 임명하기로 하고, (현재 서장은 경시) 그 아래에 경부보 2명, 순사부장 2명, 소방수 124명을 배치하였다.

게다가 경성, 용산, 마포에 3소방조의 설치와 황금정, 남산정, 본정 3정목, 한강통에 소방과출소를 설치하였다. 이들 설비와 기관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지(일본)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경성 시민도 바야흐로 소방에 관해서는 소방기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

37_해제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방조 연혁사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인의 의식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산소방조는 1930년대까지 조선인들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로 보아 조선인을 비하하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 있다.

다. 또 지방에 있어서도 府 소재지는 자동차 또는 가솔린펌프를 구입 하였으며, 인천, 부산, 군산의 경우는 가솔린펌프, 자동차펌프를 구입 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대체로 그 지방의 사회, 경제, 민도(국민의 생활, 문화, 의식 수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점차적으로 이들 설비 기관의 개선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 증기펌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07년 통감부 이사청령에 의하여 창설된 부산소방조이며, 이어서 원산소방조에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증기펌프는 손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이었다.³⁸ 이후 1912년 경성상비소방대는 스위스에서 가솔린펌프를 구입했는데, 이 가솔린 펌프는 일본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펌프 장비들은 그 성능이 뛰어났기에 이후에 내선(일본과 조선) 각지 지방 도시라고 하더라도 가솔린펌프 도입이 일반화되었다. 이후, 경성 상비소방대에서는 자동차에 부착된 수도용 소방차를 고안 제작하였는데, 그 성능이 뛰어나 이것 또한 내선(조선, 일본) 각지에서 환영받 았다. 이러한 소방펌프 장비들은 소방력의 증강에 큰 공헌을 하였다.

조선의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1919년도의 부면(府面) 예산은 그 총액이 고작 17만 7천여 원에 불과하고, 1920년도에는 두 배로 증가 하였으며, 1922년도에는 40만 8천 원, 1923년도에는 49만 원에 달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방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25년도에는 33만 1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만 원이 줄었고, 1926년도에는 38만 9천 164원으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1923

38_펌프 장비를 화재 현장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레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을 '수관차(水管車)' 내지는 '수만차(手挽車)'라고 하였다.

년도에 비하면 10만여 원의 감소를 보였다. 게다가 전국 소방조 각 조의 평균액에 있어서도 1926년도 475원으로 1924년도의 1조당 평균액 635원에 비하면 160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 부담은 가공할 소실 피해액과 비교하면 참으로 구우일모(九牛一毛: 보잘것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마다 소방 비용이 이처럼 감소되는 것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책임지는 소방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상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당국은 깊게 고심하고 있는데, 일반 인민들도 화재 대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조는 그 지방에 있어서 주민의 공적 기관이며 소방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조선소방조규칙 제7조에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방조에 대하여 수재, 기타 재해의 경계 예방을 위해 출동을 명할 수 있다'가 있다. 따라서 소방조는 단지 화재의 경계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수재(水災), 풍재(風災) 기타 혹시라도 인민들의 재화(災禍)에 대해서 경계 방어에 힘써야만 한다.

조선은 산림의 황폐에 기인하여 해마다 홍수가 많은데 그 피해가 보통이 아니다. 이러한 재해에 소방조의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1925년 여름, 전 조선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소방조원의 눈부신 활동으로 사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아는 바이다. 요컨대 소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및 의용봉공의 정신을 기르며 그 희생적 정신, 헌신적 신념, 나아가서는 국민 교육에 이바지하는 바가 지대하다. 특히 내선인 공동으로 조직된 소방조에 있어서는 내선인 일치융화에 해당하는 미풍을 진작하고 그 효과의 다대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바이다.³⁹ 이처럼 선량한 소방조의 존재는 사회에 기여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표1〉 각 부면(府面) 소방조 기구표 일람표

부면별/ 종별	조수	펌프				수관 자동차	수만 자동차	운송차
		자동차	가솔린	증기	완용			
경성부	3	3			9	3	2	7
인천부	1	1		1	3	3	13	3
청주면	1				3		3	1
공주면	1		1		1		4	
대전면	1	1	1		1		2	
군산부	1	1	1	1	4		2	4
전주면	1		1	1	1		1	
목포부	1		1		3		4	
광주면	1		1		1		2	
대구부	1	1			3	1	2	
부산부	1	2	1	2	5	3	5	5
마산부	1	2	1		2		5	
진주면	2				2		4	1
해주면	1		1		4		3	1
평양부	1	1			2	1	7	2
진남포부	1		1		3		4	2
신의주부	1		1		2		3	
춘천면	1		1		1		2	
원산부	1				2		4	
함흥면	1	1	1		2		1	2
청진부	1	1	1		3			
나남면	1		1		2			
합계	26	10	15	5	71	11	82	29

39_화재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해이다. 따라서 소방활동에 있어서 조일인 간의 민족적 구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인식이었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라는 '내선융화책'을 선전하는 데 소방조를 내세웠다.

〈표2〉 각 도별 소방조표(1925년 말 현재)

종별/도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합계
면적	831	481	526	552	900	1,231	798	1,085	968	1,844	1,703	2,073	1,319	14,312
호수	376,482	153,256	132,258	260,710	422,042	428,841	365,843	277,758	224,542	149,654	231,483	227,412	99515	3,549,797
인구	2,028,832	847,477	1,282,039	1,368,262	2,157,901	2,332,626	2,021,976	1,462,291	1,241,199	1,410,856	1,331,706	1,413,684	625,079	19,519,927
면수	247	110	175	188	268	272	257	226	165	193	148	141	81	2,503
조수	85	45	63	43	192	53	66	50	48	28	83	38	20	814
부수	101	48	72	47	265	20	99	18	54	31	123	38	35	971
소방 조직	조두	159	77	113	85	90	124	57	86	54	144	68	40	1,437
	소두	291	156	229	201	220	394	162	165	102	217	180	90	3,390
	소방수	4,144	2,013	2,897	2,622	12,321	4,723	2,279	2,105	1,439	6,426	1,987	1,415	47,251
계	4,594	2,246	3,239	2,908	13,645	3,190	5,241	2,498	2,354	1,596	6,787	2,235	1,545	52,078
면경비비	41,013	8,643	15,833	24,594	28,274	45,040	79,515	13,166	40,911	12,083	7,961	11,331	13,605	342,969

〈표3〉 화재 원인표(1921-1925)

종별/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溫突(온돌)	1,474	1,526	1,399	1,701	1,443
竈(아궁이)	488	415	458	551	427
風呂場(목욕탕)	27	34	40	38	36
洋燈등불)	25	32	18	27	31
火鉢(화로그릇)	84	128	83	126	100
取灰(타고 남은 재)	246	368	33	467	408
爐(화로)	9	38	19	24	25
焚火(모닥, 화투불)	78	117	90	125	125
燈火(등불)	57	81	52	93	68
炬澁(헛불)	18	22	22	24	9
煙草吹穀(담배공초)	185	219	153	262	249
消炭(숯)	14	17	27	24	30
弄火(불장난)	146	208	177	269	238
火藥(화약)		1	2	2	6
銀冶工場(대장간)	16	19	9	9	11
汽車煙突(기차온돌)	9	17	30	55	18
燐寸な弄し(도깨비불)	94	134	93	175	139
製造所煙突(공장온돌)	8	10	110	6	7
其他(기타)	37	90	93	92	30
計(계)	325	3,477	3,117	4,021	3,400
放火(방화)	189	154	309	304	257
雷火 및 不審火(번개벼락)	125	145	204	242	232
총 계	3,519	3,876	3,630	4,567	3,889

〈표4〉 각 부면 화재표

부면별/종별	화재도수	소실동수	소실호수	손해액
경성부	271	169	190	497,762
인천부	47	23	19	230,958
청주면	6	7	6	24,200
공주면	6	6	9	2,180
대전면	4	9	17	8,710
군산부	8	13	13	30,665
전주면	9	22	16	1,951
목포부	7	12	23	310,000
광주면	11	11	11	1,026
대구부	41	71	63	107,055
부산부	68	90	103	102,148
마산부	33	39	35	59,947
진주면	20	38	31	11,473
해주면	22	18	23	2,833
평양부	83	141	141	438,810
진남포부	16	25	25	22,684
신의주부	9	7	7	9,613
춘천면	2	2	2	2,404
원산부	23	33	34	80,043
함흥면	20	25	25	7,933
청진부	5	5	5	4,099
나남면	20	3	6	342,362
합계	713	770	804	2,300,755

〈표5〉 소방 예산표(1924-1926년 4월 1일 현재)

연별	종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합계
1924	조수	81	45	62	42	166	50	63	50	45	28	84	36	19	771
	예산액	129,639	9,302	110,165	40,251	37,424	60,801	87,313	13,246	38,332	10,611	6,825	16,567	19,035	489,541
	매조 평균	1,600	207	325	958	225	1,216	1,385	265	852	375	81	460	1,000	635
1925	조수	83	44	62	42	175	51	64	50	44	28	84	36	19	782
	예산액	40,232	8,643	15,440	15,155	27,194	44,567	71,998	13,163	40,453	10,177	7,866	11,337	14,833	331,157
	매조 평균	484	196	249	601	155	863	1124	263	919	391	93	314	780	414
1926	조수	88	45	63	43	192	52	68	50	48	28	83	38	20	819
	예산액	72,482	8,899	17,628	19,111	44,856	52,247	92,378	16,212	38,610	12,584	8,185	14,948	15,100	389,164
	매조 평균	823	198	280	677	234	986	1,358	324	804	449	98	415	760	475

제2장_군산소방조의 기원

군산소방조는 1912년 4월 1일, 공설소방조 설립인가하에 창설·조직되었다. 그러나 소방조의 기원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군산 개항년인 1899년 11월 3일, 천장절이다. 당시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주임인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⁴⁰ 군산경찰서장 핫타 죠노스케(八田朝之助), 오오사와(大澤) 상희 지배인 사사키 오사무(佐佐木耕), 오기 야스타로(扇安太郎),⁴¹ 나카시마 켄키치(中島善吉),⁴² 우쓰기 세리(宇津木競),⁴³ 이마이 죠지로(今井讓次郎) 씨 등은 합심하여 소방조를 창설하였다. 명칭은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 군산소방조'라고 칭하고, 소방수는 다니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⁴⁴ 씨가 경영하는 해운업 군산조의 짐꾼을 배당하여, 그 수 27-8명, 장비는 쇠갈고리, 도끼, 끌어당겨 쓰러뜨리는 그물, 즈크(doek, 네덜란드 제작 수통) 등 비교적 유치한

40_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는 1849년 4월생으로, 1872년 10월 27일부터 이즈하라의 어학소에 재학하면서 한국어를 배웠으며 이후 부산 초량으로 건너와 한국어 실습에 선 발되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1878년 3월 하나부사가 리공사로 재차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 생도가 되어 한국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1882년 임오군란을 만나 당시 외무철등속으로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와 함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피난하였다. 그는 1870년 중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한국에서 통역관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난을 겪기도 했지만 일본군 통역관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으로 경력을 인정받아 분관주임에 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41_대주 출신으로 군산분관주임 아사야마와 같은 동향 출신이다. 개항 이후 군산에 들어와 1901년 거류민회 초대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거류민단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류민회 의원을 역임하고 초대 상업회의소 의원을 역임하였다. 개항부터 군산 미곡상으로 이름을 날렸다.

42_아사야마와 같은 대주 출신으로 군산 지역의 쌀과 들깨를 매점매석하여 개항 이후 초창기 군산의 큰손으로 활동하였다.

43_중충상점(中沖商店) 지배인을 맡았으며, 군산 각국거류지회 초대 대표를 역임하였다.

44_군산 개항 이후 군산의 살아 있는 사전이라 할 정도로 초창기에 군산에 들어온 인물로 청일전쟁 당시부터 군산에 거주하였다. 군산의 선박 하역운반업자들의 조직인 '군산조'를 조직하여 중사들의 대표로 군립하였다. 군산소방조의 초대 조두를 역임하였다.

것들이었다. 하기가 당시는 개항 초창기로 거류민도 겨우 300명에 불과하였고, 시가지 역시 황량·적막하였기에 소방설비가 보잘것없음은 당연하였다.

1900년 4월에는 모리히로 우메기치(森廣梅吉)⁴⁵ 씨의 해운조직인 일세조(日勢組)⁴⁶의 직원들도 소방조에 가입하였다. 그 후 1905년, 목공, 미장업으로 이루어진 공우회(工友會)가 생겨서 그 회원도 여기에 가입시키고 변화를 보였다. 공우회의 대표는 금리리에 사는 아키야마 슌지(秋山春次)⁴⁷ 씨였다. 조의 간부는 최초로 다니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 씨가 조두를 역임하였다.

1900년 1월 다니구치가 사임하면서 군산경찰서장이 형식상 조두에 취임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니구치(谷口)·모리히로(森廣) 두 사람이 소두에 임명되었는데, 소두는 사실상 조두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의 구성은 최초에는 1部, 2部로 구분하고, 제1부는 다니구치(谷口) 씨, 제2부는 모리히로(森廣) 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1905년에 공우회 회원들이 새로이 소방조에 가입하여 제3부를 설치하여 부장에는 아키야마 슌지 씨가 취임했다. 소방 장비 역시 단순하였으며, 수압펌프를 처음으로 구입한 것은 1902년 봄, 두 번째 수압펌프 구입은 1904년에 이루어졌다.

1908년 1월, 현, 경성소방서장인 오구마 구만조(小熊九万造) 씨를

45_군산의 하역운반 통관업자 중에서 가장 고참으로, 1889년 부산에 와서 長文祖에 가입, 목포의 장문조로 옮겼다가 1899년 군산 개항과 더불어 군산에 와서 중사가 되었다. 1900년 3월 日勢組를 조직하여 尼崎기선회사는 물론 군산부 내의 많은 일을 담당하여 조합원 20명을 거느렸다. 1900년 4월 일세조를 이끌고 소방조에 들어와 소두가 되었다. 1912년 소방조 분류로 사임함.

46_군산항만에서 화물 운반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47_1905년 工友會를 이끌고 소방조에 가입하여 소두가 되었다. 1912년 4월 1일 공설소방조 창설 당시에는 제2부 교문이 되었다. 군산소방조의 얼굴 역할을 하였다.

초빙하여 소방조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고 소방 장비 2대 및 부속품 수리를 하였다. 동시에 동경경시청에 의뢰하여 다시금 수압펌프 3대(가격 874원) 및 소방수의 피복 60조를 주문하였다. 망루대, 삼바시(경사진 널 발판) 등도 비상용으로 설치하였다. 군산소방조는 종래 72명이었던 조원을 97명으로 증원하고 종래의 2부제를 4부제로 하여 군산소방조로서는 충분한 장비를 구비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1908년 8월 8일에 거행된 소방 연습 광경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8월 5일 오전 5시, 경종을 신호로 소방조원 일동은 경찰서 앞에 모여들었다. 소방기구 등 기타 점검을 받고 예정대로 6시에 공원 아래 연습장에 도착하여 펌프 및 사다리의 사용 연습, 방수 연습을 하였다. 이어서 아마노 기노스케(天野喜之助)⁴⁸ 각국거류지회두, 미야다테(宮館)⁴⁹ 서장의 강평과 훈시 후에 상품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동은 축배를 들고, 9시 산회했다. 당일에 모여들었던 소방수는 80명으로 이들은 4부로 나누어 연습했으며, 소방용수를 이용한 방수(放水)는 삼바시(경사진 널 발판)를 이용한 펌프 운수차 4대를 사용하여 멋진 시범을 보여 주었다.

군산소방조의 당시 예산은 2,100여 원으로 소방 장비의 구입은 임시비용을 책정하여 집행하였다. 1911년에는 군산 시가지가 점차 확대

48_아마노 기노스케(天野喜之助) 이사관은 군산 이사청이 설치된 다음 해인 1907년 2월에 부임하여 합병 이후에는 군산부윤으로 재직하여 10여 년을 행정관으로 재직하였다. 동경제대 법대 출신인 그는 이사관 부임 시에 일본 궁내성에 의뢰하여 일본 천황의 사진을 받달고 왔다. 군산 재임 시에는 의병활동에 대비하여 경성에서 오구마 구만조 경시를 초빙하여 소방정원을 확대하였다. 조선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를 했던 인물이었다.

49_1871년생으로 1895년 동경 경시청 경부를 시작으로 조선에 건너와 통감부 경부가 되었으며, 1908년 군산 이사청 경시가 되었다.

되면서 소방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수압펌프를 7대, 저수조 25, 경종대 3곳을 갖추었다. 이어서 1912년 4월, 소방조의 개편 필요성으로 인하여 소방조를 일단 해산하기로 하였다. 1912년 2월에는 조간부를 비롯한 조원에게 은배(銀杯) 또는 목배(木杯)에 감사장을 첨부하여 증정하였다.

이상이 군산소방조 시초 시절부터 1912년 4월 1일 신조직하에 창설된 군산소방조의 변천 경과이다. 다음은 최초부터 소방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했고, 적지 않은 공로가 있는 다니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다카하시 구라타로(高橋倉太郎)·시부야 긴지로(渋谷金次郎) 씨 등의 경험담을 게재함으로써 1912년 4월 소방조의 변경 전의 연혁과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군산소방조의 기원이라고 하면 1899년 개항 당시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9년 11월 3일의 천장절에 소방조는 자기 존재를 밝힌 것이다. 당시 군산 주재의 대판상선대리점 오사와(大澤) 상회 지배인 사사키 오사무(佐佐木耕) 씨를 비롯하여 미곡상인 오기 야스타로(扇安太郎, 故人), 나카시마 켄키치(中島善吉, 故人), 우쓰키 세리(宇津木競), 잡화상인 이마이 죠지로(今井讓次郎) 등 여러분과 경찰서장인 핫타 죠노스케(八田朝之助, 故人) 씨 등의 알선하에, 영사관 분관주임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故人) 씨의 명에 의하여 각국거류지회두가 소방조를 조직하여 ‘각국거류지회군산소방조’라고 칭하였다.

소방수는 나의 후배들로 군산조(群山組)⁵⁰의 조원 28명이 이에 해당된다. 쇠갈고리 20정과 도끼 2개, 고정물을 끌어당기는 그물과 즈

크제 수통 50개를 비치하였다. 당시는 다소 유치한 소방 장비로 오늘날의 장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후 1900년 4월에 일세조(日勢組)가 만들어져 이들도 소방수에 합류하였으며 군산조의 조두였던 나는 1월에 사임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나와 모리히로 우메기치(森廣梅吉) 씨가 각각 소두로 임명되었는데, 소방수는 약 50명이었고 소두는 조두의 실제 사무를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였다.⁵⁰

수압펌프를 처음으로 구입한 것은 1903년 봄으로 기억한다. 다음 해인 1904년 새로 수압펌프 한 대를 추가로 구입했다. 그때는 거류민이 늘어나고 소방수도 증가하여 소방조는 제1부, 제2부로 분리하고 내가 1부, 모리히로 씨가 제2부 소두를 맡게 되었다. 1905년경 목공, 미장업으로 이루어진 공우회(工友會) 회원도 합류하여 소방조원은 약 1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 부산, 목포, 진남포 등의 소방조를 보면, 그 지역의 최고 유지가 조두에 취임하고, 소방조도 또한 면목을 일신하였는데 유독 군산만이 우리가 소두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소방 장비 등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을 느끼고 사임을 자청한바, 마침내 45년 봄에 해임되었다. 나와 우메기치 씨는 각국거류지회로부터 3개의 은배(銀杯)와 감사장을, 다른 조원은 목배(木杯)에 상장을 기념으로 받았다. 그 해 4월 1일 새롭게 군산소방조의 설립을 보았으며, 오사와(大澤) 씨를 조장으로 뽑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들 소방조 시대의 가장 기억나는 수난(水難)이라고 하면, 1909년 8월 금강의 범람이다. 현재의 군산역 건널목으로부터 미야자키(宮崎) 농장의 앞쪽 마을 십 리 남짓의 거리에 있는 마스다(益田) 농장

50_군산항만에서 화물 하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사조 단체를 말한다.

(현 구마모토 응본농장) 부근 일대가 탁수(濁水)로 넘쳐흘렀다. 작은 배를 띄워서 구조에 나선 일이 있다. 그리고 1907년 12월 25일 밤 11시경, 현재 오쿠라(大倉) 씨 집 후방의 언덕 위에 있던 일식 정자에서 불이 나 소화에 전력을 다하였던 적도 있다.

1906년부터 1908년 무렵은 세상 물정이 어수선했기에 소방조는 경찰과 협력하여 야경을 담당하여 일본도와 권총으로 무장하여 거류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였다.⁵¹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면 현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심각하였다. 옛날에 우리가 만든 소방조가 약 30년 후인 오늘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소방 장비가 갖추어졌고, 소방조원 또한 훈련을 받고 있는 점은 크게 기뻐해 마지않는 바이다.(다니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



왕년에 다니구치 이타로 씨가 군산 조두를 하고 있었을 때 아사야마 영사관 분관주임의 제안으로 시작된 각국거류지회 군산소방조의 결성일은 1899년 천장절(11월 3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때부터 소방수가 되어, 오늘날까지 약 3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제1부 완용펌프의 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다른 분들의 회고담과 중복될 부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나의 추억담을 이야기하자면, 군산소방조의 개혁은 1908년, 1912년, 1923년의 3회라고 생각한다. 1908년에는 경성의 오구마 경시가 공원 아래 광장에서 펌프 사용 기술 및 소방수로서의 현장 활동과 품행을 매일 지도

51_이 시기에 세상이 어수선했다는 의미는 1906년 을사늑약이 강요되고 여기에 조선인들의 항쟁인 을사의병이 발발하면서 군산 지역에서도 조선인들이 주동이 되어 일본인들에 대한 테러가 공공연하게 발생한 것을 말한다.

하셨다. 1912년 4월의 개혁과 더불어 조원의 복장이 누비옷으로는 곤란하다고 하여 새롭게 양복(洋服)으로 바뀌었다

지난날에는 큰불이 나도 인가가 적었기에 쉽게 진압되었다. 예를 들어 후지다(藤田) 목재상의 화재 때는 새벽 5시경 물 길던 조선 사람이 발견하고 '불이야 불이야'를 소리쳐 알렸다. 나는 지금의 대화정(大和町) 아사카(安積) 상점의 장소에 있었던 요리점 동양관 안쪽의 우물에 호스를 넣어서 송수하였는데, 겨우 30분 정도에 물이 고갈되었다. 따라서 금강의 바닷물을 운반하여 방수하였다. 당시의 수고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식 정자가 전소되었다. 마쓰오카(松岡 船具店 안쪽)의 화재 시는 아직 수도가 없었기에 금강에 호스를 넣었다. 화재 현장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도중에 펌프를 연결하여 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금강에 호스를 담겼을 때는 아직 이른 봄철이었기에 양다리가 한기에 오싹하였다.

현재의 시모다(下田) 정미소 이전에 있었던 미쓰하시(三橋) 정미소 화재에는 육석정미소 앞의 수도 소화전에서 수구(水口, 물을 끌어들이거나 흘러 나가게 하는 구멍)를 잡아서 소화에 힘썼다. 현재의 와타나베(渡邊) 포목점 부근에도 큰불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요즘 소방수나 일반인들은 소화전 위치를 망각하여 화재 시에 방수가 늦어 큰불로 확대되거나 태우지 않아도 좋을 집을 태워 버리는 일도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소화전에 쌓인 눈을 조금 쓸어 두는 것이 화재 발생 시에 도움이 된다.⁵² 소화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화재 발생 시 소방수의 사망은 한 명도 없고, 단순히 경상자만 2, 3명

52_당시에는 눈이 오거나 한파가 오면 소화전 결빙이 심하였기에 소화전 위의 눈을 쓸거나 담요를 소화전 속에 넣어 두어 결빙을 막았다.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화재 출동 외에 또 다른 재난은 금강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인데, 어느 해에는 배를 짐수레로 운반하여 띄우기도 하였고, 군산 역 부근에서는 지붕에 올라가 있던 조선인을 구호 피난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을 위하여 소방수들은 밥을 제공하였으며 부사정(富士亭)과 초등학교 방화 때에는 40일 남짓 계속해서 야경에 종사하였다.⁵³

군산소방조의 야경 시초는 1907년 무렵으로 해변의 수상과출소에 매일 밤 9시부터 출동하여 서쪽 해변가, 동쪽 해변가, 본정(本町), 명치정(明治町), 전주통(全州通)을 지나서 야간순찰을 하였다. 매년 정월 4일에 거행된 출초식은 영사관을 선두로 각 정(各町)을 순회하였으나, 하라(原) 서장 시절에 폐지되었기에 군산좌(群山座: 군산에 있는 극장)에서 일동이 축배를 들고서 산회하기로 하였다.

나는 오랜 기간 소방에 종사하고 있는데, 군산은 다른 도회지와 비교하여 예부터 큰 화재가 적어 행복하였다. 그러나 화재가 줄어든 만큼 부민들이 해이되어 소방조의 고마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재 발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다카하시 구라타로(高橋倉太郎) 씨 이야기)



내가 군산소방에 관계한 것은 1899년이다. 1912년 1월 4일 출초식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을 보지 못하였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니 구치(谷口) 씨와 모리히로(森廣) 씨와 나는 소방조를 사임했다.⁵⁴

53_부사정 화재는 1906년에 발생하였으며 초등학교의 방화 발생 또한 시국의 혼란스러움에 편승하여 조선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테러 차원에서 발생한 방화로 추정한다.

54_1912년 군산소방조원들의 포상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표출되었다. 소방조원들은 출

다만 나는 당시 계속해서 오쿠라(大倉家)의 의용소방을 담당하였고, 1919년 3·1만세운동 때에는 부사정(富士亭)에 방화가 있어서 오쿠라가의 펌프를 운반하여 지금의 대화정(大和町) 나니와(浪花) 집 앞의 우물 덮개를 열고 호스를 연결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오쿠라가에 대기하고 있었다가 상황이 위험하였기에 현장에 간 적이 있다. 이보다 전인 1908년 11월 24일 폭풍우에는 소방조원이 군산 항내(港內)의 조난 구조에 힘써 전복된 거룻배 손님인 나카무라 하쓰타로(中村初太郎) 씨 부부와 익사하려는 처녀를 가까스로 구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 상선조(商船組)의 다카하시(高橋) 씨 기타 2, 3명의 소방수는 소네 아라스케 통감으로부터 인명 구조의 표창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옛날 소방은 화재는 물론 천재지변에도 출동하였으며, 선박 손님의 승강(乘降: 타고 내림) 시 반드시 소방복을 착용하고 거룻배에 승선하였다. 따라서 소방조는 감독의 임무에 해당될 정도로 책임이 무거웠고 권위도 있었다. 1912년에는 해륙운수업의 조두가 소방 조두를 담당하였으며,⁵⁵ 조의 후배가 소방조원인 관계상, 비상시에는 명령지휘가 충분히 철저하며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하는 위세가 좋은 점이 있었다. 현 야노 산로(矢野) 소두가 취임하기 전에 나에게 소두가 되어 달라는 교섭이 있었으나 형평상 사퇴했다. 요컨대 군산소방조의 장점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조원이 노력하는 점이다. (시부야 긴지로(渋谷金次郎) 씨 이야기)

초식을 거부하는 갈등을 보였으며, 결국 군산소방조 상설소방수와 일부 간부들의 교체로 결말되었으며 소방조의 혁신을 야기하였다.

55_여기서 해륙운수업의 조두가 소방 조두를 담당하였다는 의미는 다니구치(谷口)와 모리히로(森廣) 등이 항만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군산조와 일세조 등을 거느리며 화물을 운반하는 중사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제3장_군산소방조의 창설

1912년 4월 1일, 소방조 창설의 인가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군산소방조의 창설을 보았다. 동시에 군산 각국거류지회두 아마노 기노스케(天野喜之助) 씨로부터 다음과 같이 소방 간부의 임명이 있었다.

군산소방조 조장 大澤藤十郎

부조장 橋本 央

1부장 岩田宇之助

2부장 金森玄三

3부장 北川 醇

4부장 窪田好助

소방조의 구성을 보면 각 부에 소방조원 50명씩을 배치하고 각 부 4명의 아래에 상설소방수를 두어 비상시의 방호를 담당하는 이른바 의용소방 조직의 기초를 쌓았다. 간부 6명, 소방수 200명으로 진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상설소방수

제1부 高橋倉太郎, 今石故五郎, 藤田善治, 井場竹造

제2부 長久重次郎, 石川長治郎, 未廣三吉, 津方左吉

제3부 水川禎治郎, 左藤廣治, 半貴長吉, 松尾仙吉

제4부 廣岡谷五郎, 小野銀次郎, 飯盛徳一, 園田常一

소방계장, 순사, 永石尙卓

이리하여 1912년 1월 4일 거행되었을 소방 출초식을 겸하여 신조식을 본 군산소방조의 발회식을 4월 중순 요즘의 곤비라(金比羅)⁵⁶ 신사가 의젓하게 자리한 해망산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당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서장인 하라류 타치바나(原龍橋) 경시의 지휘하에 오사와(大澤) 조장, 하시모토(橋本) 부조장 이하 4부 부장, 소방수 등은 새롭게 만든 황토색의 소방 제복을 착용하고, 각 부의 마토이(깃발)를 선두로 原제작 독일식 신형 완용펌프 4대를 갖추어 출동했다. 식은 소방기구의 점검, 방수 연습, 서장의 강령 훈시 순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에는 시가를 씩씩하게 한 바퀴 돌고서, 해망산 산장에서 일동은 축배를 들고서 산회하였다.

당시의 깃발잡이 및 나팔수는 제1부 깃발 하마다 이타로(濱田伊太郎), 제2부 깃발 고바야시 코마기치(小林駒吉), 제3부 깃발 세키야 고고로(析谷小五郎), 제4부 깃발 한누키 나가요시(半貫長吉), 나팔수 모리타 키요노리(森田清允) 5명으로 소방조의 진퇴 조작은 이때부터 나팔의 연주에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각 부의 깃발수로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선발하여 소방조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 지금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소방조의 발달에 기여·공헌한 하시모토 아키라(橋本央, 김제), 가나모리 겐조(金森玄三, 정읍) 두 사람의 담화를 게재하기로 한다.



거슬러 올라가 16년 전 나는 군산에서 정미, 제염 등의 사업에 종

56_불교의 수호신으로 비를 오게 하고 항해의 안전을 수호하는 신이라 함.

사하면서 각국거류지회 의원으로 공직에도 관여하였다. 그 시절, 소방의 역사를 토론하던 중 당시 경찰서장인 하라(原) 경시와 의견 일치를 보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방 조직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의견은 각국거류지회 회두 아마노(天野) 이사관에게 건의되어 각국거류지회의 예산으로 군산소방조를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이 오늘날의 소방조가 된 것이다. 1912년 4월에는 소방조의 신 규정에 따라 전부터 사용한 수압펌프 2대와 2명의 소두가 있던 것을 새로이 4부로 나누고 조장에는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 씨, 부조장에는 내가 그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1부장은 이와타 우노스케(岩田宇之助), 2부장은 가나모리 겐조(金森玄三), 3부장에는 하나오카 쓰루마츠(花岡鶴松), 4부장에는 구보타 고스케(窪田好助) 등 여러분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압펌프도 4대로 증대하고 내지인(일본인)만으로 소방조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1회 소방 출초식에는 내가 하라 서장을 대신하여 현 초등학교 교정에서 그 강평을 한 적도 있다. 이른바 군산소방조의 산과역을 하였던 것이다. 소방복은 새로이 양복(洋服)을 채용하였다.

소화용수는 우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18은행 군산지점 뒤쪽의 해벽(海壁)⁵⁷ 아래에 탱크를 설치하여 만조 시에 충만한 해수를 가득 채워서 그 부근 일대의 비상용수를 걷기 위하여 소방 잔교(棧橋)를 축조하였다. 1916년 겨울, 김제의 농장으로 이주하기까지 부조장으로서 나는 화재에 출동하고, 봄가을의 연습에도 참가한 적도 있다. 다행스럽게 큰 화재나 다른 천재지변도 없었던 일은 행복한 따름이었다.

57_해안을 큰 풍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가에 설치한 벽이나 돌 축대.

나는 퇴임 후 거류지회로부터 공로 표창으로 은배(銀杯) 1개를 받았으며, 은배를 바라보면 당시를 생각하며 추억에 젖는다. 지난 1916년 10월 17일 군산소방조의 창립 15주년 축전 개최에 참석하여 소방조의 웅장한 모습을 관전하였을 때 지난날과 너무나 발전한 모습에 감탄하였다. 지금은 몸은 김제에 있어도 마음은 추억이 많은 군산의 하늘에 있다. 소방조의 발전을 시작으로 제반 시설을 정비함에 있어서 기쁨의 정과 감사의 뜻을 금할 길 없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군산소방조의 발달지가 편찬된 것은 나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하시모토 아키라(橋本央) 씨 이야기)



1912년 4월, 군산각국거류지회 회두인 아마노 이사관 및 하라(原) 경찰서장의 회합으로 결성된 군산소방조에 나는 제2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에 소방조의 기풍 쇄신을 위하여 소방조원은 전부 다갈색의 제복을 새로 맞추어 착용하였다. 소방조의 활동 지시는 나팔을 사용하여 조원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각 부에 순사 부장을 배치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소방정신의 진흥을 위한 것이며, 일괄적으로 소방 복장을 통일한 것은 경찰관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나의 2부에는 당시 군산의 명망가인 아키야마 슌지(秋山春次) 씨를 상담역으로 하여 소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나 또한 불충분하지만 조원을 지휘하여 연습을 거행하였고, 1913년 2월 지금의 정읍으로 이사할 때까지 군산소방조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임기는 극히 짧았다.

그러나 소방 창설 첫해로 조원들의 노력은 지대하였다. 그런 만큼 당시를 회고해 보면 상당히 유쾌한 마음이다. 그 당시부터 각 정(各町)의 실업인과 유력자가 소방정신을 이해하였고, 나아가서 소방수가 된 사람도 있었다. 이력저력 조의 면목을 새롭게 하여 견실한 방향으로 나아갔다.⁵⁸

나는 현재 와카토미(若富) 여관 인근에 있는 군산 구락부 2층에서 부하 조원들과 모여서 제2부로 만일의 출동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가령, 조 깃발을 누가 잡을 것인가를 정하는 등 그때그때 회합을 자주하여 출동 시에 다른 부의 활동에 지지 않는 훈련을 하였다. 現 고창서장인 나가이시(永石) 씨가 군산경찰 재직 당시에 소방계장이었으며, 현재 이리서의 형사인 아사다(淺田) 씨도 소방 업무에 깊게 관련하였던 기억도 되살아난다.

이미 15, 6년 전의 과거가 되었으나, 작년 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축하연에 참석하여 과거 지인들이 여전히 소방조원으로 근속하고 있음을 보고 충심으로 옛날을 그리워하는 맘이 들고 그들에게 존경심이 드는 바이다. 나는 정읍으로 이사 후 다시 정읍소방조의 창설에 종사하게 되었고, 지금도 역시 정읍소방조의 고문으로서 일을 하면서 미력한 힘을 보태고 있다. 나 또한 소방에 열정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 금번 군산소방조 연혁지 출판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하는 바이다. (가나모리 겐조(金森玄三) 씨 이야기)

58_군산소방조뿐만 아니라 당시 전국 대부분의 소방조들은 1, 2, 3부를 두는 편제를 하였다. 부를 통제하는 부장은 대부분 소두들이 담당하였으며, 지역별로 부장들이 소방조를 통할하는 체제였다.

1. 증기펌프 구입

1915년 3월 1일, 군산 상수도의 준공을 예측하여 소방기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해 3월 25일, 경비 1,540원을 투입하여 동경 소방펌프 제작소 마쓰오(松尾) 공장에서 제조한 증기펌프 1대를 구입하였다. 그해 8월 1일, 소방조 부제(部制)의 개편이 있었는데 종래의 4부제를 폐지하고 2부제로 하였다. 간부를 조두, 소두로 개칭하였으며, 소방수의 수도 116명으로 줄이고 그중 16명으로 증기부를 신설하여 이들을 상설소방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배속하였다.

제1부(완용펌프)

小頭 板谷城之助 소방수 50명

제2부(완용펌프)

小頭 花岡鶴松 소방수 50명

蒸氣部

소두 金谷萬六, 소방수 16명 內機關手 4명 水川禎治郎, 松井萬市, 津方左吉, 小倉慶治

2. 가솔린펌프 설비

=군산미곡상조합으로부터 기부=

1917, 8년경, 와타나베 우타로(渡邊宇太郎) 서장 재임 중, 화재사고가 빈발하였으며 1917년 12월 31일 오전 1시에 행정(幸町) 미쓰하시(三橋) 정미소의 큰불, 본정통(本町通) 오사다 이소지(前長田磯次) 상점

의 실화로 시민을 불안하게 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군산미곡상조합은 조합원들 재산에 화재가 발생하자 1919년에 펌프 1대를 구입하고자 기부금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각 출하였다. 군산소방조는 각출된 미곡상조합 기부금으로 가솔린펌프 25마력 1대 구입비 4,100원, 부속품 및 창고 신축비 등 합계 약 5,00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정통에 이들 소방 장비를 보관할 격납고를 신설하고 간부 인사이동을 하였는데 1부 완용펌프 소두 이타야 시로노스케(板谷城之助)·2부 완용펌프 소두 시라이 마쓰타로(白井松太郎)·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증기 소두 가나야 만로쿠(金谷萬六), 가솔린 소두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씨를 임명하였다. 또한 소방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군산소방가를 모집하였는데, 미즈카와(水川) 소방수의 소방가가 입상하여 1917년 출초식에서 처음으로 제창되었다.

1. 지키자 전복의, 富의 집결지 군산항
고귀한 인명재산의, 보호의 의무는 소방대
2. 깃발 아래 모여서, 의용(義勇)에 득의양양 헌신의
진심을 방패 삼아서, 참으로 용감한 소방대
3. 월명산의 밤바람에 진홍빛 불꽃이 덮쳐도
어찌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에게 철(鐵)의 팔이 있다.
4. 물결 출렁거리는 금강의 거슬러 올라가는 물이 덮쳐도
어찌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에게 철(鐵)의 팔이 있다.
5. 우리들 희생의 활동은 하늘의 도움이 항상 더하여져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리, 군산소방대

3. 일 년에 걸친 분규

=이 분규를 기회로 하여 대 쇄신을 행하다=

1922년 7월 2일, 군산소방조 창설 1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소방수 이상의 근속 표창식을 군산좌에서 거행하였는데 표창자 선정이 불공정하였다는 항의가 있었으며 소방조는 동요의 조짐을 보였다. 그해 12월 21일, 상설소방수들이 연서(連署)하여 사임을 제출하였다.

1923년 1월 4일에는 출초식을 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1월 23일 출초식을 다시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동요는 1월 26일 ‘군산소방조 개조에 관한 동지회’가 결성되는 것으로 분열이 표면화되었다. 이날 동지회에 찬동한 출석 소방수는 34명. 미즈카와(水川) 상설 소방수 외 95명의 연서로 ‘현재의 소방조는 군산의 발전에 수반하지 않는 시설로 인정되며 장비의 개선 및 조직의 개조를 기할 것’ 외 4건의 결의문을 제시하고 당국에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기타무라(北村) 서장, 미야다테(宮館) 서장, 아카마쓰(赤松) 상업회의소 부회두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갈등이 한창일 때 병든 서장은 그해 2월 16일 퇴관하였다. 반면, 양쪽 가운데에 서서 조정 일을 담당한 아카마쓰 부회두는 군산축항 문제를 가지고 오사와 상업회의소 회두와 함께 2월 16일 저녁 동경행에 올랐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소방조원들은 대오를 갖추어서 두 사람의 출발을 역전에서 전송하며 크게 기세를 더하였다. 그러나 아카마쓰 씨 등의 동경행으로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방치되었다. 군산소방조를 위하여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이듬해 3월 30일 후임 서장으로 노가미 다이자부로(野上代三郎) 씨가 부임하였는데, 그는 군산소방조의 내분을 평정하고자 소방조의

간부 및 소방수의 의사를 청취하였다. 또한 동경에서 돌아온 아카마 쓰 부회두 등과 협의하여 소방 조직의 쇄신을 단행할 것을 정하고, 소방동지회의 여론도 일부 청취하였다. 그 결과 1923년 5월 5일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씨를 부조두로 임명하고, 7월 12일에는 소두 이타야 시로노스케(板谷城之助)·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가나야 만로쿠(金谷萬六),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등의 해임과 동시에, 미즈카와(水川) 소방수 외 6명의 퇴임을 보아, 약 1개년에 걸친 분규는 원만하게 해결을 보았다. 이와 동시에 새로이 소두에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가솔린), 미스토미 가하치(光富嘉八, 증기), 마쓰오 요시오(松尾義雄, 1부), 모리 도시로(森敏朗, 2부)의 4명이 임명되었다. 군산소방조의 조직이 바뀌어 면목을 일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 오구마(小熊) 경성소방서장의 지도

=설비의 개선 충실을 도모하다=

1923년 8월, 노가미(野上) 경찰서장,⁵⁹ 구니무네(國宗) 부윤은 군산의 발전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경성소방서장 오구마(小熊)를 위촉하여 소방조의 점검을 받기로 하였다. 오구마 경시는 1923년 9월 16일 수행원을 동반하여 군산을 방문하였다. 다음 날인 17일 오구마 경시는 군산소방조의 소방 장비 점검 및 방수시험을 현

59_1905년 3월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 주재 헌병대에서 근무하였다. 1912년 5월 이사청 경부에 임명되었고 경성 경무고문지부에서 근무하였다. 1912년 8월 북청경찰서장에 임명되었다. 1917년 춘천경찰서장으로 전임되었다. 이후 군산경찰서장에 임명되었다.

장에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수도의 수압, 비상용수 설비 즉 백석(百石) 입구의 저수탱크 8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오구마 서장은 다음 날 18일, 일반 소방수를 위하여 초등학교 강당에서 군산소방조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오구마 서장의 이러한 순시는 군산소방조의 개선·진보에 크게 이바지하였는데, 오구마 서장은 1911년에도 군산에 와서 소방수에게 펌프의 조종, 훈련 등을 가르쳤던 적도 있었다.

5. 자동차펌프 구입

= 와타나베(渡邊) 서장 열심히 소방에 힘을 쏟다=

군산소방조로서는 오구마(小熊) 경성소방서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군산소방조에 자동차펌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간부들의 협의 결과 1924년 7월 29일, 경성의 구마히라(熊平) 상점이 9,700원(운임 제비용 합계 일만 오백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펌프 1대를 구입하였다.

또한 1924년 9월에는 공사비 2,000원으로 벽돌건물 1층짜리 소방 대기소를 경찰서의 인접지에 신축하였다. 이어서 1925년 10월 공사비 1,600원(그중에 400원은 계단)으로 동 대기소의 2층을 증축하였다. 1926년 봄, 공사비 195원으로 대기소 옥상에 철근제 망루(지상으로 부터 높이 48尺, 2층 옥상까지 30尺)를 건설하였다. 나아가 1927년도에는 자동차펌프 1대를 증설하였다.

더구나 현 서장인 와타나베 소우에몬(渡邊惣右衛門) 경시는 1924년 12월 노가미(野上) 전 서장이 퇴관 후에 새로 부임한 이래 소방에 열정을 쏟았다. 조원의 규율, 절제, 사기 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소방조

의 개선에 신경을 썼다. 이리하여 군산소방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새롭게 더욱 혁신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군산 소방조만의 일이 아니라 군산부를 위하여 축하할 일이다.

제4장_소방조와 예산

1914년 4월, 부제 실시 이후 소방조에 대한 군산부 경비비 예산의 매년도 액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경상비(엔)	임시비(엔)
1914	3,055	
1915	1,380	
1916	1,070	
1917	1,455	
1918	1,656	
1919	1,609	380
1920	3,786	
1921	3,786	
1922	3,404	5,520
1923	4,124	1,400
1924	6,540	9,100
1925	6,349	2,500
1926	7,276	150
1927	6,273	550

새로운 시설로 1919년도에는 기구 놓아 두는 곳, 이전·증축비로 300원, 호스건조대 신설에 80원을 계상하였다. 1922년도에는 자동차 펌프 기타 소방 장비 구입비 5,000원, 기구장치대 걸치비 500원을 후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조원 표창비 20원을 계상하였다.

이어서 1923년도에는 우물 굴착비 7개소 1,400원을 계상하였다. 1924년도에는 비상용 저수지 4개소 신설을 위하여 1,600원을 계상하고 자동차펌프 1대 구입비 6,000원, 위와 같은 창고 신설비 1,300원, 경종대 1개소 신설비 200원을 계상하였다. 1924년도에는 소방조의 숙원인 자동차펌프 구입의 허락을 받았으며, 1925년도에는 저수지 2개소 비용 1,000원, 망루 1개소 신설비 1,500원을 계상하여 모두 실현하였다. 동년 망루 위의 피뢰침 150원을 계상, 1927년도에는 저수지 신설 1개소 500원, 소방대기소에 수도전 1개소를 부설하였다.

1927년도 경상비를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수당 3,267원 내역

운전수급 1,800원(월액 75원 2인), 운전수 위로금 60원, 상비소방수 수당 480원(1인 1일 2월 50전 ㄹ 192인), 화재 기타 출장수당 300원(1인 1회 100ㄹ 300인), 소방조원 수당 397원(조두 1인 20원, 부조두 1인 10원, 소두 1인 5원, 5인 소방수 1인 3원 114인), 소방회의 출석 여비 100원, 조의료 100원, 구조료 10원, 퇴직 구조료 100원, 위로금 100원

수요비 1,906원 내역

펌프 등 기타 수리비 200원, 비품비 800원, 소모품비 350원, 피복비 400원, 전등료 129원, 수도료 36원

잡비 1,000원 내역

소방 연습비 400원, 소방 출초식비 500원, 화재 예방 선전비 100원

수선비 100원 내역

창고 기타 수선

제5장_소방 장비 및 기타 설비

군산소방조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화재 진압 장비 및 창고, 망루, 저수지, 비상용 우물은 다음과 같다.

펌프

자동차펌프1, 가솔린펌프 1, 증기펌프1, 완용펌프 2(외 구식 펌프3)

창고

1부 완용 보관, 전주통 부윤 관사 아래

2부 완용 보관, 대정정 금광사 사원 아래

증기 보관, 본정통 대동양행 본점 앞

자동차펌프 보관, 명치정 소방대기소

망루

철골제 1-경찰서 옆 소방대기소 옥상

목제(불감시 망루) 2-수상파출소 옥상, 영정파출소 앞

기타

마토이(纏) 5, 기(旗) 5, 수송차 4, 수관차 2, 고장제 등 5, 철골 화재
모의대(높이 5칸) 1

저수조(貯水槽)⁶⁰

저수조는 8개소이며 그 위치는,
대화정(大和町) 천부찾집 가로 지하
본정통(本町通) 중정정미소 앞 지하
전주통(全州通) 강등가구점 앞 지하
신영정(新榮町) 남조선 호모회사(護謨會社) 앞 지하
영정(榮町) 청목직공소 앞 지하
개복동(開福洞) 회소관 도로 종점 지하
신흥동(新興洞) 유곽군산 망루십자로 지하
본정통(本町通) 십팔은행 지점 십자로 지하
또한 1927년 예산으로, 저수지를 전주통 향정(무카이) 만년필 가게
앞 지하에 신설할 예정이다.

비상용 우물

부내에 있어서 이미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물은 12개소이며, 비
상시에 사용한다.

60_저수조(貯水槽)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이다.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되
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에는 저수조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1. 평소의 준비

상비소방수 8명은 매월 1일과 15일에 2회 출동한다. 각 펌프 장비 보관소에 가서 장비 검사를 실시하며, 수선이 필요하면 수선하고, 화재 출동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펌프의 상설소방수는 정원 6명이며, 그중 운전수 2명은 주야로 소방대기소에서 근무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전화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경찰관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할 준비를 한다.

제6장_군산의 소방과 소화용수

화재와 소화용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군산 시가지는 나날이 확장되고 인구가 밀집하였다. 따라서 소방 설비 준비와 동시에 소방용수도 새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같은 필요에 따라 군산부 수도 당국자를 면담하여 화재와 수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다음은 당국자의 대답이다.

화재 발생과 소화용수는 필수불가결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최근에 대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군산은 다행스럽게도 이전부터 화재 발생이 적었고, 그 재해 발생도 드물었다. 앞으로 시가지가 확장되고 가옥도 늘어나면 고층의 건축물 등에 새벽 화재가 발생, 연소를 생각하면 피해 공포가 심대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도시생활의 안전을 기한다고 하면, 그 대책인 소화용수의 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군산부의 최근 인구는 22,000명을 헤아린다. 이 중 수도 급

수 인구는 12,000명, 여기에 필요한 현재 만들어진 저수지 수량은 최대 1,300만 입방척⁶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도 해마다 인구 증가에 비추어 보아 충분치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군산부에서는 향후의 수도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1928년도 이후의 신규 사업으로 인구 5만을 포섭하는 군산을 산정하고 그중에서 25,000명은 수도를 의존하는 것으로 한다.

하루에 1인당 급수량은 4.32입방척(약 7斗)을 필요로 한다. 하루에 1,100,000 입방척을 급수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저수지의 수량으로는 화재 사용 시에 방수력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소화 시에 곤란이 발생한다. 또한 여름철 가뭄 시에는 단수의 곤란함을 모면할 수 없으며, 만일의 경우에 큰 재해에 도달할 수 있다.

최근 부내 각지에 매설된 수도방화전의 수는 기존의 85개소이다. 1927년도 예산으로 3개소의 신설을 계획하였으나 소화전의 자연방수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펌프에 의지해야만 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소화전이 자연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평상시 단수 우려가 없도록 현 저수지의 제방을 15尺 증축하고 이곳에 3,500만 입방척 정도의 저수를 추가로 함과 동시에 저수지로부터 여과지(수도시설에서 물을 여과하는 장치를 갖춘 못)에 이르는 동안의 8인치 송수철관을 12인치로 확대하고 여과지의 현재 30尺 수위를 4배 늘려 120尺의 수위로 양을 늘릴 계획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자연수압이 6, 70파운드⁶²에 달하여, 소화전으

61_한 자 길이의 변을 가진 입방체의 부피

62_야드파운드법에서 질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1파운드는 0.45359kg이다.

로부터의 자연방수로 충분히 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연차적으로 증설해 오고 있는 부내의 저수조는 8개소에 매설하고, 1927년도 중에도 500원을 투입하여 1, 2개소를 증설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부는 소화에 필요한 제반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숭선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다. 부에서는 해마다 소방 조직의 완비와 맞는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제7장_창설 이후의 화재 도수

1912년 4월, 군산소방조 창설 이후, 1926년 12월 말까지의 화재 도수는 다음과 같다. 그 이전의 통계는 유감스럽게도 발견치 못하여 게재하지 못하였다.

연도별	화재 도수	손해 견적표(엔)
1912	12	638
1913	9	520
1914	11	605
1915	12	940
1916	10	2,866
1917	11	45,925
1918	10	40,325
1919	10	77,758
1920	2	250
1921	6	20,242

1922	11	15,428
1923	4	23,820
1924	6	300,128
1925	8	30,665
1926	5	180,805

1. 주요 화재와 손해액

〈표〉에 있어서 군산의 큰 화재로 소실 피해가 많았던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一, 1917년 12월 31일 오전 1시, 행정(幸町) 삼교(三橋) 정미소의 기관 부에서 발화, 공장 전부와 사무실 절반 및 현미, 백미 약 2,000가마니를 소실, 손해 45,000원에 달하였다. 오전 7시 진화했다.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바람이 없었다.
- 一, 1919년 3월 28일 오전 5시 10분, 대화정 부사정(富士亭)에 방화가 있었다. 연소 가옥 112호, 손해 5만여 원
- 一, 1919년 3월 23일 오후 11시, 공립초등학교에 방화가 있었다. 교사 1동 소실, 손해 9,386원
- 一, 1922년 12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서빈정 정목조선소에서 발화, 손해 4천여 원
- 一, 1923년 3월 19일 오전 11시 지나서 이타야 조노스케(板谷城之助) 씨 소유 연립주택에서 실화, 손해 5천 원
- 一, 1924년 7월 11일 오전 0시 15분, 강호정 조일정미소 발화, 왕겨 정선공장 1동, 왕겨 건조공장 1동, 창고 2동 등 250평을 소실하여

손해 30만 원, 오전 3시경 진화, 동남의 미풍이 있었다.

- 一, 1925년 3월 12일 오전 0시 40분, 전주동 34번지 김덕완(金德完) 빵집에서 발화하여 3동 4호 중에서 1동 2호 18평이 전소, 2동 연소의 재난을 만나 3시에 진화, 손해 26,300원
- 一, 1926년 5월 15일 오전 4시 40분, 본정통 조선정미회사 지점 공장에서 발화, 강풍에 필력거리며 공장 3동, 기계 2기, 사무실 주택 2동을 전소, 이웃의 창고 1동반 소실, 앞 도로의 오이마(追間) 정미소의 공장, 기계 1기, 주택 1동 전소, 6시 30분 진화, 손해액 조선정미소 14만 원, 추간(追間) 3만 원. 단, 1912년 소방조 조직 개혁 이전의 것은 통계가 없으므로 불명확하지만, 일본정 후지다(藤田) 목재 가게, 군산일보사 등의 화재는 규모가 큰 것이었다.

2. 화재 이외의 경비 사항

군산소방조가 화재 이외 천재지변에 출동하여 사회 공공을 위하여 봉사한 주요 사항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 一, 1916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장마철이 되었다. 6월 15일, 전날부터 내린 비가 지상에 정류하여 시가에 범람하였고 침수된 가옥이 엄청났다. 소방수 10명으로 강호정 도로를 개척(산을 뚫거나 땅을 파서 도로, 운하를 개통함)하고, 경포리 노선 건널목의 수문을 개방하여 배수에 힘써 피해를 방지했다.
- 一, 1919년 3월, 독립 소요에 즈음하여 소방조가 소집되었다. 야간에 이르기까지 경비에 종사하였다. 소요가 점차 진정되었는데, 1개월여에 걸쳐서 경비 임무에 종사했다.

一, 1924년 3월 3일, 백주에 조선인 노동자 수천 명이 경찰서에 몰려 들어 사태가 험악해짐에 따라, 소방수가 출동하여 부내의 경계를 맡게 되었다.⁶³

이 밖에 조직 혁신 전인, 즉 1912년 4월 이전, 수회에 걸쳐서 금강의 범람이 있었다. 또한 우기에 때에 따라서는 호우와 홍수가 있어 소방조가 출동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3. 화재보험 계약고

1927년 4월 상순, 군산상업회의소 조사에 의한 군산부 내의 화재보험 계약고는 각종 화재보험회사 대리점 40점 중, 해상을 제외한 16개 대리점분, 합계 약 500만 원을 나타냈으며 협정 보험율은 8원이다.

63_1920년대 전반에 걸쳐 소작분쟁이 들불처럼 발생하였다. 이 시기 소작권 분쟁을 둘러싸고 지주들을 향한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전국으로 일어났는데, 특히 미작 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군산부와 주변 지역에서 소작분쟁이 심화되었다.

제8장_역대 간부와 현재 조원

1912년 4월 1일 이후, 1927년 4월에 이르기까지 군산소방조 간부의 임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위	기간	이름
조장	임명 1912. 4.1 의원면 1915.8.1	大澤騰十郎
부조장	임명 1912.4.1. 의원면 1915.12.10	橋本 央
1부장	임명 1912.4.1. 의원면 1915.8.1	岩田宇之助
2부장	임명 1912.4.1. 의원면 1912.12.10	金森玄三
3부장	임명 1912.4.1. 의원면 1915.8. 1	北川醇
4부장	임명 1912.4.1. 의원면 1915.8. 1	崖田好助

직위	기간	이름
조두	임명 1915년 8월 1일	○大澤騰十郎
부조두	임명 1910년 12월 10일 의원면 1920년 1월 14일	北川醇
1부 소두	임명 1915년 8월 1일 의원면 1923년 7월 12일	板谷城之助
2부장 2부 소두	임명 1912년 12월 19일 의원면 1923년 7월 12일	花岡鶴松
4부장 증기소두	임명 1915년 8월 1일 의원면 1923년 7월 12일	金谷萬六
2부 소두	임명 1917년 12월 19일 의원면 1923년 7월 12일	白井松太郎
가솔린부소두	임명 1918년 6월 1일 의원면 1923년 7월 13일	岸田常造

직위	기간	이름
부조두	임명 1923년 5월 5일	○赤松 繁夫
가솔린부소두	임명 1923년 7월 12일	○岩田常造
증기소두	임명 1923년 7월 13일	○光富嘉八
1부 소두	임명 1923년 7월 12일 의원면 1925년 2월 26일	松尾義雄
2부 소두	임명 1923년 7월 12일	○森敏郎

1부 소두	임명 1924년 8월 13일 의원면 1925년 5월 8일	騰田文市
1부 소두	임명 1925년 4월 20일	○矢野三朗
자동차부소두	임명 1915년 9월 18일	○中井小二郎

(附記) 이름 앞의 ○표시는 현재 소방조 간부이다.

군산소방조원은 창설 이래 16년간에 많은 인원이 임용되고 그만두어서 상세하게 기록할 수 없다.

1927년 4월 20일 현재 소방조원(간부 7명을 제외한 정원 114명, 현재 2명 결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펌프 지부(정원 6명)

(계장) 山口立市, 米今壽三, 三島繁, 長谷川鐵治郎, 濱本末吉

(係長) 生田善藏

◆ 가솔린펌프 지부(정원 15명)

(係長) 合田只郎, 東公直, 傍田房五郎, 島非要次郎

(係長) 津方佐吉, 山本淺吉, 吉岡柳助, 西平佐太郎

(係長) 中村丹藏, 西村竹藏, 河崎茂, 松本繁太郎, 松浦正起, 橋本作一

(나팔수) 工藤芳太郎

◆ 증기펌프 지부

(係長) 堀内辰眞

(係長) 末廣三吉, 田中加壽多, 中島一, 摩治七太郎, 萬田高治, 高田富太郎, 四十房久作

(係長) 浦邊俠一, 秋吉 明, 中島秀一, 長谷川孝一, 重吉五郎, 大野増太

郎, 吉賀寅雄

◆ 제1부 완용펌프(정원 39명)

(係長) 太田助太郎, 田中豊四郎, 高橋高太郎

(係長) 高橋倉太郎, 竹中政一, 伊達龜雄, 吉田實次, 兒玉豊松, 近藤西之助

(係長) 今石故五郎, 淺野昨未, 森川秀一, 長久京造

(나팔수) 福島百助, 渡邊音吉, 龜山寅一, 米田英吉, 渡邊力吉, 正木庄太郎, 西村貞一, 下房處之助, 大坪龜太郎, 上技美利, 橋本平吉, 岡田審助, 樽島茂, 近支嘉久治, 板野與一, 大畑宇吉, 莖田與市, 伊田慶三郎, 黒川龜之助, 大西量一, 長久重太郎, 安部平三郎, 久松利一, 江崎市太郎, 西森與四郎

제2부 완용펌프(정원 39명)

大泉嘉義, 梶春雄, 日和佐一, 永井武, 三戶恒太郎, 山本種雄, 瀬戶照正, 松尾新一, 吉産仁平, 三宅正一, 下平佐太郎, 西村秀吉, 大泉義雄, 上原 藤, 堀川材吉, 吉川幸喜, 足立幸人, 稻恒卓治, 山田喜一, 矢野信義

(係長) 吉山増太郎, 山崎九朗治

(係長) 江藤太市, 井手清, 小椋莞策, 澤中文吉, 殿山忠男, 吉賀光造, 秋山梅吉, 鈴木松吉, 坂本力之助, 安田彦次郎, 大平九郎平, 堤令朝松, 田中熊太郎, 濱岐好男, 小沼榮, 門脇正信

덧붙여서 1926년 4월 27일부로 전라북도 고시 제30호로 『군산소방조를 2부로 나누고 소방수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로 개

정하였다.

제1부 45명(1부 완용 39명, 자동차 6명)

제2부 69명(2부 완용 39명, 가솔린 15명, 증기 15명)

제9장_소방조와 야경

군산소방조의 야경은 1907년경에 시작하였다. 당시는 매일 밤 9시부터 세관지서 앞 수상(水上)파출소로 출동하였다. 서빈, 동빈, 본정, 명치정, 전주통의 야간순찰을 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41년 6월, 거류지 망루 건설 준공과 함께 아마노(天野) 각국거류지회두부터 미야다테(宮館) 경찰서장 수신 공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류지회 망루 건설 준공에 붙여 금번에 경비 근무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 오전 6시까지 12시간으로 한다. 소방부 2명이 매일 밤 교대로 근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군산소방조의 야경은 거슬러 올라가 2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 부민의 도난 예방에 기여한 바가 많다. 아래에 군산상설소방 야경단의 일지를 펴서 읽으며, 원문 그대로를 기록함으로써 야경단의 고심의 일단을 엿보기로 한다.

- 一. 1916년 2월 7일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순찰하였으나, 사고 없음(하룻밤 4회 순찰)
- 一. 1919년 12월 14일 오후 10시 5분, 빈정 7번지 발화하여 10시 40

분에 소화하다.

一. 1920년 2월 20일 밤 다음 오전 3시, 본정통 센즈(千頭) 상점으로 부터의 통보에 의하여, 곧바로 수상과출소 순사 2명과 함께 본정통과 전주통에 걸쳐서 비상선을 펴고 도둑의 행방을 수사하였는데, 전주통 마스다 기치지(増田吉次) 덕에 침입해 있던 도둑을 체포하였다. 도둑의 물건은 본서로 가져갔다.(당번 소방수 末廣, 下平, 長久, 西村)

一. 1920년 3월 1일 소요 기념일에 즈음하여 3월 6일까지 임시로 5명씩을 증원하다.

해안과출소 - 長久, 粒生, 廣岡, 井場, 水川

본서 대기소 - 直田, 下平

영정(榮町)과출소 - 甲田, 西本

一. 1922년 2월 22일, 오늘밤은 특별대로 하여 소방수 水川, 西村, 松田, 松岡 4명은 본서 순사의 지휘하에 출동하여 검거에 힘을 보탰다.⁶⁴

一. 1926년 12월 10일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 제1구 순찰 중, 구조통 기성당 과자점의 덧문 하나가 바람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집주인을 불러서 주의를 주었다.(堀内·近藤소방수)

一. 1927년 1월 10일 오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제2구 순찰 중에 대화정 석천당의 옆에 중국인이 거주 가옥의 안쪽에서 발화하자 즉시 달려가서 경찰에 통보하고 소화에 힘써 겨우 불길을 잡았다.

64_군산소방조를 비롯한 모든 소방조들은 경찰서 순사의 지휘하에 소속되었다. 화재 출동에서도 경찰서의 순사 계장이나 소방 계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내지는 지침을 주었다. 야경 순찰도 마찬가지로 순사의 지휘를 받았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대로 구역을 순찰하고 귀서하였다.(山田, 古山 소방수)

一. 1927년 1월 6일, 본정 조선정미소 앞에서 수상한 조선인을 확인한바, 누구인가 하고 물었으나 답변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본서로 연행하였다. 당직인 나가오(長尾) 순사에게 인계하였다.(古山 소방수)

一. 1927년 1월 29일 오전 2시 30분경, 곡구(谷口)여관 앞을 순찰 중 수상한 조선인 2명이 구정(龜井) 옆에 웅크리고 있기에 수하를 하였는데, 2명이 도주하여서 추격하여 1명은 군산일보 안쪽에서 붙잡았고, 또 한 명은 옥정 황전상점 옆에서 체포하였다. 본서에 연행하여 고바야시(小林) 순사에게 인도하였다.(生田, 長谷川 소방수)

1921년 2월 5일, 경찰서장으로부터 상업회의소 회두에게 상비소방수 편성의 야경 개시에 관하여 협의한바, 그 결과 회의소에서 편의상 야경 구역 내로부터 야경비를 징수하고 야경수 기타 용도로 충당하는데, 야경은 매년 10월에 개시하여, 다음 해 3월 말에 종료한다. 그 기간 동안 소방조 간부가 선발한 8명의 소방수가 매일 밤 6명씩, 야경의 임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제10장_방화사상 선전과 사업

군산소방조는 일반 부민의 방화사상 고취와 선전을 위하여 1919년부터 1927년 4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요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을 게재한다.

- 一. 1919년 4월 중순, 소방기금 모집을 위하여 가부키(노래, 춤, 연기가 혼합된 일본의 전통 연극) 연예회를 군산좌에서 개최하였다.
- 一. 1921년 1월 5일부터 수일간, 화재 예방 선전을 위하여 소방조원이 부내 각 방면에 출동하여 선전에 힘쓰다.
- 一. 1922년 6월 중순, 소방기금을 만들기 위하여 후원자가 되어, 도치기 야마(栃木山), 오니시키(大錦) 일행의 동경대각력(東京大角力), 일본 스모의 유지 및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단법인)이 흥행하였다.
- 一. 1923년 3월 19일 오전 1시가 지나서, 서빈정 이타야 조노스케(板谷城之助) 씨(당시 소두) 소유의 연립주택에서 실화하여, 이타야 씨의 집으로 번져 이타야 씨도 재앙을 당하였다. 이 때문에 이타야 씨가 보관하던 소방조의 서류 1건이 소실당했다.
- 一. 1923년 8월 19일, 방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시 소방 연습을 거행하였다. 경찰청사의 화재를 모의하여 소방 출동의 광경을 활동사진(필름 600尺)으로 촬영하였다. 그날 밤 군산좌에서 일반 부민에게 공개하였다. 동시에 불조심에 대하여 경찰관, 소방조원의 강연이 있었다. 경비 250원을 필요로 하였다.
- 一. 1925년 6월 18, 19의 양일간, 동경대각력의 도치기 야마(栃木山), 도코하나(常花) 일행을 초청하여 흥행하였다. 이 흥행은 당시의 군산부의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다소나마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다.
- 一. 1926년 9월 24, 25일의 양일, 동경시에서 개최된 전국소방조두대회에 기시다(岸田) 소두, 오사와(大澤) 조두의 대리로 출석하다.(상세한 내용은 뒷장에 있다.)
- 一. 1926년 10월 17일, 소방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장기근속자

표창식을 공원 아래 공설그라운드 운동장에서 거행하였다.(축하회 기사 참조) 또한 이날 방화 선전, 소방정신 작흥의 속요집 국판(菊版: 국판 전지를 16겹으로 접은 책의 크기: 세로 21cm, 가로 14cm) 반절 24항을 인쇄 발행하여 내빈 및 기타 배부하였다.

1. 1927년 2월 24일, 방화 선전의 연쇄극을 군산좌에서 2일간 공개하였다. 히로토미(廣富) 소두의 방화와 소방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제11장_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표창식

군산소방조는 공설소방조 설립인가로 1912년 4월 창설되었다. 이후 1926년 창설 15년에 달하여 그해 10월 17일 간나메사이(일왕이 10월 17일에 햅쌀을 신사에 봉납하는 제사)를 맞이하여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표창식을 거행했다. 이 영광스러운 기념식을 계기로 군산소방조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의 연혁과 역사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장래의 진보 개선의 전기가 되었다.

이날 오전 7시, 소방수는 각 부 장비 보관소에 집합하여 소두⁶⁵의 점검을 받았으며, 곧바로 식당인 공원 아래 공설운동장에 도착하여 도미나가(富永) 경찰부장의 점검을 받았다. 즉시 훈련에 들어가 와타나베(渡邊) 군산서장의 강평이 있었고, 모의화재, 방수 연습, 제1부 제

65_일제강점기 소방조의 서열은 조두, 부조두, 소두, 소방수의 순이었다. 이 중 소두는 중간 간부로 화재 현장에서 현장 지휘자였다.

2부의 대항, 증기펌프, 가솔린펌프의 대항, 제트 홀, 제등 떨어뜨리기, 채색방수 등이 있었다. 행사는 12시 20분에 종료하였다.

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식의 순서는 개회사, 와타나베(渡邊) 서장의 식사, 표창 및 기념품 수여, 도지사 고사(告辭: 의식 때에 상급자가 글로 써서 읽어 축하하거나 훈시하는 말), 사와무라(澤村) 시장 축사, 내빈 축사(하시모토 아키라(橋本央), 우시오 쇼오이치(牛尾正一), 이소베 겐야(磯部謙哉), 오쓰카(おおつか) 정읍소방 조두 등 여러분) 오사와 표창자 대표의 답사가 끝나고서 축하연으로 자리를 옮기자, 아카마쓰(赤松) 씨 회두의 소감 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여흥 자리로 이동하여 기생과 술을 알선하였다. 오후 5시 반에 성황리에 산회하였다. 당일에 표창을 받은 15년 및 10년 이상 근속자는 다음과 같다.

표창장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 조두

군산소방조 창설 이래 조두로서 15개년 근속하고 조합의 지도훈련, 기구기계 개선을 위하여 진력한 공로가 현저하다. 이에 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전을 거행함에 있어 금메달 1개를 증정하고, 그 공로를 표창한다.

표창장

소방수 某씨

군산소방조원으로 근속 10년(또는 10 몇 년) 정려각근(精勵恪勤: 게을리하지 않고 일에 힘씀), 그 공로가 참으로 대단하다. 이에 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전을 거행함에 있어 은양배(銀洋杯)⁶⁶ 1쌍(또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그 공로를 표창한다.

식사(式辭), 고사(告辭), 축사(祝辭), 답사(答謝), 축전(祝電)
또한 당일의 식사, 고사, 축사, 표창자 답사, 축전을 다음에 게재한다.(순서는 축하회의 식순에 의한다.)

식사(式辭)

오늘을 기하여 여기 군산소방조 창립 15주년 축전을 거행함에 있어 본도 지사각하 대리 및 내빈 여러분 다수가 왕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근속 공로자의 표창을 거행하여 조두 이하 다수의 수상자를 뽑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이 성대한 의식에 참석하여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해 마지않는 바이다. 처음에 군산소방의 시초는 이전의 거류지회 시절부터 있었으며, 수많은 변천을 거쳐서 1912년 4월 1일 현 군산소방조가 설립되었다. 그 후 춘풍추우(春風秋雨: 긴 세월)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시대의 다사다난이 있었으나, 대체로 국가의 발전과 시가지의 확장에 동반하여 우리 소방도 손으로 하는 소방에서 기계소방으로 진전하였다. 비록 내용과 외관에서 아직은 우리가 바라는 바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소방대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정비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여도 결코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건대 소방의 발달은 문화와 과학의 발달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민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군산소방조의 오늘이 있는 것은 참으로 역대 유지의 헌신

66_표창에 대한 부상 및 기념품으로 수여하였는데, 銀으로 조각된 술잔을 말한다.

적 노력 분투의 공로에 의거한 부분이 많다. 세밀하게 지난날을 더듬어서 하던 일을 생각하며, 보국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금할 길 없다. 특별히 오늘 표창을 받으시는 장기근속자의 견인불발(堅忍不拔: 굳게 참고 버티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의 기백과 숭고선미(崇高善美: 숭고하고 최선을 다함)한 의협심은 참으로 소방조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그 공로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소방은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적 임무로 의용봉공의 희생적 정신은 참으로 소방정신의 바탕이 된다. 근래 다사다난한 세상의 변화에 동반하여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방이 가장 뛰어난 것은 결국은 지기(志氣: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기)정신에 있다. 소방의 발달은 항상 시민의 명예로 생각하며, 지역의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제도의 발달 여부에 따라 그 나라의 성숙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소방의 활성화의 정도가 사회 개선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영매(英邁)하시고 문덕에 뛰어나신 섭정궁 전하께서 동경소방 출초식에 친열(친히 검열, 열병함)하시어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 지난번 전국소방조두대회를 동경에서 개최하여 일본소방협회 설립안을 가결하여 소방제도의 새로운 개혁을 의도한 것은 생각건대, 화재 진압이라는 실질적 역할 외에 더욱 큰 임무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⁶⁷

67_1926년 9월 24, 25일에 일본 동경의 靑山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소방조두대회에서는 조선 소방의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안건들이 의결되었다. 동경소방조두대회는 일본, 대만, 조선 등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던 권역의 소방 조두가 대거 참여하였다. 이 대회에서 소방조 활동을 보조할 전국의 소방협회를 만들자는 의결이 있었다. 또한 방화대이를 지정하자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우리 마을의 애향정신이 충실한바, 향토 옹호의 깃발이 되어 건전한 자치의 발달이나, 충실한 국방정신의 배경으로 싹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소방의 임무가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 관민이 일치하여 막대한 후원하에 오늘의 의식을 거행하기에 큰 의미를 깊게 터득하였다. 충심으로 감사의 성의를 포함과 동시에 나는 그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바이다.

아울러서 조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오늘의 식전을 큰 전환점으로 삼아 다시금 그 임무의 중책을 자각하고 더욱 상호간에 협동하여 장래 한층 분투노력함으로써 모든 부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아울러서 관민이 일치하여 자치정신을 보여 참으로 지방 대도시의 단결심을 가지고 포부와 각오를 새롭게 하여 그 책무를 완수하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소회를 담아서 식사(式辭)로 갈음한다.

1926년 10월 17일

군산경찰서장 와타나베 소우에몬(渡邊惣右衛門)

고사(告辭)

오늘의 길일을 맞이하여 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장기근속 공로자 표창식을 거행하게 됨을 진실로 국가를 위하여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생각건대 화재와 수해는 인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재해로 한번 그 재해를 만나면 문화시설, 생활의 안전이 하루아침에 그 근거가 파괴되고, 산업의 발전 역시 저지될 것이다.

때로는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은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에 동경에서 발생한 지진과 화재 피해의 참담함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생생하

다. 우리 조선에서도 화재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이 입은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국가의 발전마저도 위협받았다.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대한 것이다. 따라서 소방기관의 충실한 완비는 하루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소방조는 1912년 4월 창설 이래 계속해서 조직을 개선하고, 소방기구와 장비를 정비하여 건전한 발달을 달성하였다. 조원은 수년을 하루같이 일치단결하여 일단 재해가 있을 때에는 일신상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최선으로 본분을 다하였다.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공헌한 공적이 참으로 현저하여 기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는 틀림없이 지방에 계신 여러분의 정성스런 원조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남자답고 용맹한 많은 조원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장기근속한 조원들은 한마음으로 전념하여 노력하고 공로가 지대하며, 타의 모범이 되기에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이들을 공로 표창하는 의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군산 시가의 발전은 해마다 진전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축항의 완성에 동반하여 남한의 옹도로서 그 발달이 눈부시다. 더불어 군산소방조의 책무가 더욱 중대함을 깨닫고 장비도 보완하고 훈련을 쌓아서 화재 발생 시 헌신봉공의 활동으로 시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요즘 불조심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어 마지않으며, 이상으로 말씀을 갈음한다.

1926년 10월 17일

전라북도지사 외타나베 시노부(渡邊忍)

축사(祝辭)

오늘로써 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를 열고, 아울러 공로

자 표창의 식전을 거행함에 있어,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할 수 있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바이다. 군산소방조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많은 변천의 연혁이 있었는데, 대체로 해마다 건전한 발달을 하였다.

기초가 공고를 더하여 특히 최근에 조두를 비롯하여 기타 간부 및 조원 모두 그러한 사람들을 얻었고 상하 일치단결, 열의진취(熱意盡悴: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쓰), 그 활동과 훈련에 성과를 보였다. 장비에 있어서도 최신식인 펌프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용수 저장소를 신설하였다. 기구 격납고를 건축하는 등 점차 개선하여 지금은 소방 장비 또한 완비하였다. 이를 지난날과 비교하면, 면목을 일신하였고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소방시설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양한 것은 당국 관헌의 지도가 적절하였기 때문이나, 이 또한 조두 이하 조원 여러분의 희생적 열성과 헌신적 노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소방조 창설 이래 근속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빠르게는 10여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근속하고, 그동안 처음과 끝을 하루같이 분투하고 노력한 조원 여러분, 특히 조의 창립 당초부터 조두의 임무를 맡은 이래 조의 중진이 되어 부하의 통솔, 조의 쇄신, 설비의 개선 등에 진력한 오사와(大澤) 씨의 공적에 대해서는 부민들이 감사하는 바이며, 그 노고에 대하여서는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영광에 있어서 표창의 일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바야흐로 군산 항세의 발전에 동반하여 주택점포의 신축, 증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가지는 날로 팽창을 거듭하여 장래 더욱 크게 소방시설의 정비, 충실을 도모할 필요를 느낀다. 조원 여러

분도 한층 그 직책에 힘을 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담당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면서 축사에 갈음한다.

1926년 10월 17일

군산시장 사와무라 아라지로(澤村荒次郎)

축사(祝辭)

군산소방조 창립 15주년 축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군산소방조는 1912년에 창립되었다. 소방조의 결성과 더불어 군산의 발전 또한 더욱 충실해졌다. 오늘날 완전한 소방기관으로 된 것은, 소방조원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저는 시민 여러분에 대하여 온 맘을 담아 경의를 표하는 바다.

제가 15주년 기념 축하회에 참석하여 유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일반인보다 한층 더 간절함이 있다. 왜냐하면 15년 전 군산소방조가 조직되었을 때 불초한 제가 그 산파역이 되어 동분서주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저는 군산에 거주한 각국거류지회 의원직에 있는 관계상, 당시 군산경찰서장인 하라(原) 경시로부터 저에게 조언 요청이 있었다.

저는 각국거류지회 회장인 아마노(天野) 이사관에게 건의하여, 각국거류지회의 예산으로 군산소방조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군산소방조의 시작이다. 조두로는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 씨를 밀어 올리고, 저는 부조두가 되어서 사무에 열심하였다. 군산시가를 4부로 나누어 각 부장에는 하나오카 쓰루마쓰(花岡鶴松), 가

나모리 겐조(金森玄三), 이와타 우노스케(岩田宇之助), 구보타 고스케(窪田好助) 등을 추천하였다.

그 후 저는 1916년 군산을 떠날 때까지 부조두의 직을 더럽히고 있었다.(스스로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됨) 이 기간에 있어서 저는 화재에 출동하였고, 또한 소방 연습에 있어서 강평을 한 일도 있었지만, 오늘의 상황을 보고서 금석지감을 금할 길 없다. 특별히 금번에 표창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친숙한 사람들이었기에 한층 감개가 무량하다. 여기에 오늘의 성전을 축하함과 동시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기대하는 소방조원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다. 소방조원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으며, 그 임무는 참으로 중차대하다. 때문에 소방조원은 항상 의기와 의협의 정신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여하튼 여러분은 더욱더 분려하여 그 솜씨를 연마하고, 소방기관의 실무를 온전하게 할 것을 희망해 마지않는 바이다. 오늘의 성전에 있어서 약간의 소감을 술회하며 축사로 갈음한다.

1926년 10월 17일

하시모토 아키라(橋本央)⁶⁸

68_하시모토(橋本)는 1906년 군산에 들어왔으며 1911년 동진강 일대의 개간지를 불하받아 개간에 착수하면서 김제로 이주하였다. 1916년 5월부터는 김제에서 본격적으로 농장 경영을 시작하였다. 그의 농장은 죽산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평야였으며 그는 '김제의 하시모토'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군산소방조의 부조두로 활동한 것은 1916년 김제로 이전 직전까지였으며 나중에 그는 김제소방조의 조직에도 관여하였다.

축사(祝辭)

추풍소삽(秋風蕭颯: 늦가을의 경치가 매우 쓸쓸함) 부근의 경치가 자랑할 만할 때, 우리 군산소방조는 그 창립 15주년 축하회 및 조원 공로자 표창식을 깨끗함을 자랑하는 공원대 아래에서 거행함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성대한 의식에 참석하여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생각하건대, 우리 군산은 다른 곳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항세(港勢: 항구도시인 군산의 번영)의 신장과 더불어 가옥 역시 구태를 벗고, 새로운 도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미적 감각을 채용하고 있다.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시민들이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즉, 소방기관의 정비와 그 활동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군산소방조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실적을 돌아보아, 군산을 위하여 진체(盡瘁: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한 공적이 큼을 매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더군다나 사람이 수신하고 제가하는 일이 원래 쉽지 않은데 여력을 공공적 사업에 바친 조원 여러분의 봉공적 정신의 위대함을 보아 나로서는 치하해 마지않는 바이며, 이는 참으로 오늘이 있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하여, 또한 군산을 위하여 더욱더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며 축사로 갈음한다.

1926년 10월 17일

군산상업회의소 부조두 우시오 쇼이치(牛尾正一)

축사(祝辭)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오늘, 군산소방조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기

넘 축하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조두 이하 근속 표창의 행사를 거행함은 우리들 시민으로서 기쁘기 한량없다.

되돌아 보건대 소방기관이 충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시민의 기쁨과 슬픔에 관여한다. 특히 최근 시세의 발전에 동반하여 더욱 그 느낌을 강하게 하고 있다. 현재 소방의 설비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자동차펌프·가솔린펌프의 비치, 기타 설비 등 다른 도회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특히 조두 이하 백 몇십 명의 조원은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하에, 그 훈련이나 기량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은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을 갖게 함과 동시에 당국자의 노고에 감사할 뿐이다. 생각건대 소방의 임무는 군대의 중요성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국가사회 존립상 불가결한 기관으로써 다시금 그 진보 발전을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근속 표창자 여러분의 다년간의 공로에 감사하며, 15주년 기념 축사로 갈음한다.

1926년 10월 17일

이소베 겐야(磯部謙哉)

축사(祝辭)

오늘 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및 표창식을 거행함에 있어, 소회의 일단을 말할 기회를 얻어서 불초한 자로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생각건대 소방의 임무는 단순히 화재를 진압하고, 홍수를 막아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시대의 문화를 보호하고 또한 이를 향상시켜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어, 그 임무가 중대하고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작금에 방화사상은 겨우 보급이 되고 있으나 문화의 향상에 동반하여 그 재해는 엄청나다. 재해는 경제는 물론, 주민의 행복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국운의 진전을 저해하기에 이를 막는 소방조의 사명은 참으로 중대하다. 본 소방조는 1912년 창설 이래로 건전한 발달을 이루어 그동안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개선과 소방 장비 역시 정비하였다. 이것은 부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나 역시 조원 일동의 희생적 정신의 발로에 있다고 하겠다. 간절히 바라건대 더욱 일치 단결하여 주민의 행복을 보호하고 소방정신과 그 위력을 발휘하여 소방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데 힘써 줄 것을 약간의 소회와 함께 축사로 갈음한다.

1926년 10월 17일

정읍소방 조두 오쓰카 요네오(大塚米雄)

축사(祝辭)

오늘, 군산소방조 창립 15주년 축하회에 맞추어 장기근속 조원에 대한 공로 표창식을 거행함에 있어 관민 여러분의 왕림에 감사드린다. 경하의 글로써 우리들의 영광이 무엇일 것인가를 말하며, 원래 소방조원은 의기가 뛰어나며 의용봉공할 각오, 의협심이 넘치는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군산소방조는 수년의 세월이 지나, 그동안 자랑하기에 충분한 공적을 이루었으나, 스스로 경험한 바 또한 적지 않다.

특히 해마다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음은 우리가 약간 자신을 갖는 바이다. 이에 군산부윤은 장기근속 조원에 대하여 포상을 부여하여, 분에 넘치는 명예를 얻었다. 수상자 일동은 몹시 감동하여 앞으로 그

본분을 다할 것이다. 만일 유감스러운 일을 당하여 시민 여러분의 두터운 성원에 보응하려고 함은 수상자 일동이 맹세하는 바이다. 이에 수상자 일동을 대표하여 줄문으로 답사에 대신한다.

1926년 10월 17일

군산소방 조두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

축전(祝電)

가지 못하고, 다만 여러분들의 소방조는 組 스스로 시민의 소방이 되었다. 시민은 이것이 자신의 소방 됄을 자각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이를 감독하는 이상적, 자치적 소방 됄을 축하함.

경성 오구마(小熊) 소방서장

15주년 기념을 축하함. 京城 조선화재보험회사

盛典을 축하함. 무주경찰서장

盛典을 축하함. 김제소방조

盛典을 축하함. 김제 이스미 쥬조(亥角仲藏)

一, 1927년 소방조 출초식

군산소방조 출초식은 관례적으로 매년 1월 4일 거행하여 왔다.

1927년은 선왕이 붕어하시고⁶⁹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은 애수(哀愁) 가슴에 스며드는 슬픈 근심)의 구름에 잠겨 있고, 더구나 대상(大喪: 임금의 죽음) 전에 속하기에 깊은 사려로 무기 연기 중인데, 그 후 제

69_여기서 선왕은 대정천황을 얘기하는데, 그는 1912년 7월 30일에 즉위하여 1926년 12월 25일에 사망하였다.

1기의 향함(諒闇: 천자가 부모의 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는 기간)도 끝남으로써 각지의 예를 따라서 3월 17일에 거행하게 되었다. 당일 오전 7시, 소방수는 1점중에 준비에 착수하고, 8시 2점중에 각 격납고에 집합, 9시 3점중에 회장인 공원 아래 공설 그라운드에 집합, 각 부속의 소두로부터 복장, 기구기계의 점검을 받았다.

이때부터 방수 연습, 모의화재, 각 펌프의 위력 시험, 분열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와타나베(渡邊) 서장의 강평이 있었다. 모두 끝나고 공회당에서 부민 유지를 초대하여 위로의 잔치를 베풀었다. 연회에 앞서서 서장으로부터 금번 15년 이상 근속 공로자로 퇴직하고, 아래에 기록한 13명의 조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계속해서 일장의 훈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아카마쓰(赤松) 부조두의 답사, 사와무라(澤村) 시장의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2시 반에 산회했다.

제12장 조 간부의 소감과 희망

1. 전체적인 연락 통일이 필요

군산소방 조두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

화재에는 실화, 방화, 기차의 매연, 농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실화(失火)이다. 실화에 기인한 화재의 재난은 사소한 과실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완전히 뜻밖의 일이라는 것에 귀착한다.

원래 이러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순사들이

경계를 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의 힘으로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소방기관의 설비는 개인으로 보나, 국가사회로 보나 긴요한 일이어서 이것의 설비에 관해서는 당국이나 민중이나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재해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다른 것과는 달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관동대지진 및 2회에 걸친 다지마(현재의 효고현 북부)의 대지진 화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국가에 주었는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손해는 국민경제상 중대한 관계를 끼치고 화재 지역 이외, 다른 지방의 민중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소실 피해는 단순히 재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더구나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제회복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소방에 관심을 두고 규칙의 개정, 설비의 개선, 소방수의 훈련, 소방정신의 작흥(作興: 정신이나 기운을 단번에 일으킴),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유감이 없도록 기약하며, 대처에 뒤짐이 없도록 힘쓰게 되었던 것이다. 작년 9월 24, 5일 양일, 동경에서 개최된 전국소방조두대회의 경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방의 진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회합으로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도 경무국의 주선으로 가까운 시일에 쏜조선소방조두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조선소방협회 설립의 계획이 있는데, 아마도 그 계획은 조선에서 소방의 통일 연락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의 진보

향상을 촉진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 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소방 장비를 구비한다고 하여도 조원의 소질이 나쁘고, 규율·질제의 장점을 취하지 못하다면, 그 소방은 헛되이 도시의 장식품이 되어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소방은 군대와 같은 것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단체 전체의 공동 활동을 방해하게 되어 유사시 생각지도 않는 실수를 초래하게 된다. 소방에는 소방정신의 함양을 필요로 하기에 소방정신이 없는 소방은 흡사 부처상에 혼을 넣지 않는 것(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즉 내부에 긴장한 소방정신이 있어야만 심야에 숙면 중일지라도 경종 1타에 엄동설한을 개의치 않고 벌떡 일어나서 출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소방의 존엄한 진가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군산소방조는 작년 창설 15주년을 맞이한 것도 사실은 개항한 해, 즉, 1899년의 성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9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 성쇠의 곡절이 있었으나 군산의 부흥에 맞추어 점차 개선을 거듭하여 이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전혀 손색없고, 조원의 훈련도 뛰어나서 군산을 위하여 참으로 경하에 마지않는 바이다.

나는 군산소방 조두의 중임을 맡은 이래 이미 16년 동안 하등에 공헌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거행되었던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에 즈음하여 표창의 영광을 받았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세상은 소화(昭和)의 신시대에 접어들었고(1926년에 소화천황의 즉위가 있었다) 장차 군산도 여러 상황에 봉착할 것이고 따라서 소방의 임무도 더욱더 중대하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로서는 앞으로 도 가급적 군산소방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라도 보탬 예정이다.

2. 소방의 사명감 더욱더 증대

군산소방조 부조두(副組頭)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⁷⁰

군산소방조는 1912년 4월 1일, 공설소방조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사실은 1899년 11월 3일, 천장(天長: 일왕 생일) 길일, 즉 군산 개항의 해에 창설되었던 것이다. 그 후 어떤 사정에 의하여 일시 해산되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12년 4월 1일 다시 조직을 보기에 이르렀다. 전후를 통산하면 창설 이래 29년 즉, 개항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오랜 세월 동안 간부 및 조원이 직간접적으로 쏟은 노력은 실로 적지 않은 바이다.

군산의 소방기관을 보건대, 시가의 발전 팽창에 동반하여 점차 개선·진보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대는 이미 수압펌프, 증기펌프, 가솔린펌프의 시대가 아니다. 특히 수원이 낮은 군산과 같은 경우는 수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펌프에 의존해야 한다.⁷¹ 이에 현재 보유하는 자동차펌프 외에 추가로 한 대의 자동차펌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구입 계획은 간부 사이에서는 이미 무르익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한다. 또 반드시 실현시킬 계획이다.

군산은 오늘날 ‘쌀의 군산’으로 내외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⁷² 따라

70_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는 1904년 조선으로 건너와서 群山에 거주하였다. 1907년에는 양조기구를 인수하여 신흥동에서 양조공장을 경영. 1914년 주류 제조를 시작하였고 釜州通에 판매소를 둬. 1920년에는 상업회의소 회원으로 선출. 부협의원, 학교조합의원, 도평의원을 겸함. 1923년 가업을 단고 전북수산회장에 추대. 1930년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선거에 출마하여 부회원에 선출. 군산소방조 부조두 역임함.

71_증기펌프, 가솔린펌프에 비하여 자동차펌프는 소화전에서 물을 흡수하는 동력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뛰어났다.

72_군산은 부안, 김제, 익산, 옥구, 정읍 등의 평야에서 산출되는 미곡을 오사카로 보내 인

서 주택, 상점, 공장, 은행 등의 건물로 시가지를 새롭게 하고 있고, 시가의 팽창 또한 과거와 비교할 바가 아니며, 특히 다년의 현안사업인 축항(築港)⁷³도 마침내 1926년부터 기공한다. 장차 이것의 준공과 서로 어울려서 마군(馬群: 마산과 군산을 잇는 남해선 철도), 경남(京南: 중부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철도) 양 철도의 완성을 보기에 이르지 않겠는가.

군산의 진보·발전은 참으로 현저할 것이다. 현재 140여만 석의 쌀 수이출은 300만 석 이상으로 도달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다면 항세(滄勢)의 진보 발전에 동반하여 소방의 임무도 한층 중대함을 더하여 갈 것이다. 동시에 조직의 완비, 기구기계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우리 소방조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시민은 지금보다 더 각오를 새롭게 하여 한층 소방기관의 완비 충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소방은 자치의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 동포에 대한 희생적 관념을 성장시킨 것으로 소방의 천직 사명은 참으로 중대함이 있는 것이다.

작년 1월 동경시의 소방 출초식에서 외경스럽게도 섭정궁(攝政宮: 나중의 소화일왕) 전하가 오시어 친히 검열하신 일은 틀림없이 국민 정신 작흥의 뜻으로 황공할 따름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2,500여 년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으며, 어려움에 다다르면 의연하게 다른 이를

친, 부산과 더불어 최고의 미곡 이출항으로 성장하였다.

73_군산항의 축항 공사는 1905년 시작돼 193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군산 내항의 호안을 형성하는 주요 부분은 1932년 마무리된 제3차 축항 공사의 결과물이다. 군산항의 제3차(1926~1932)와 제4차 축항 공사(1936~1938)를 통해 건설된 뜬다리와 부유식 합체로 구성된 구조물 등은 일제강점기 쌀을 수탈하기 위한 상징적인 구조물이다.

구하는 숭고한 일본 고유의 정신의 고무적인 격려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배찰(拜察: 삼가 헤아려 살핌)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소방에 종사하는 자는 의용소방의 진실한 가치를 끝까지 발휘하여 국민정신의 중견이 됨으로써 국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 천직 사명을 다해야 함을 바라는 바이다.

3. 책임 관념과 마음의 설비

군산소방조 소두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⁷⁴

소방조는 평시의 군대와 같은 것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립상 유용하고 빠뜨릴 수 없는 기관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무용지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아니 평상시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무용지물로 취급받아 선불리 소방기관의 개선이라든가 충실을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재화(災禍)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그 필요에 대하여 하루라도 없어서는 곤란한 기관임을 통감할 것이다. 즉 유사시의 계획은 평상시의 준비에 달려 있다. 평상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유사시 여하한 능력이 발휘된다. 흡사 군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은 우리로서는 평소라도 마음을 긴장시켜 설비의 충실, 기관의 개선 등에 대해서 남모르게 골치를 앓고

74 미쓰토미 가하치(光富嘉八)는 1907년 전라북도 군산으로 옮겨 와서 인쇄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였다. 1916년에 설립된 군산인쇄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1925년 9월에 사장으로 추대되었다. 1914년 이래 학교조합위원, 부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군산소방 조두, 상무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시에 완전을 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하여 충실의 열매를 거양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소방기관의 설비는 시대의 진보, 세상의 발달과 동반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지 소방만은 시대의 발전을 따르지 못해 유감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점은 예산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예산은 일단 재해의 손실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요는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소방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갖고 소방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사회국가의 태평함에 기하도록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산소방조는 작년 10월 17일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를 거행하였고, 실로 오랜 역사와 수많은 변천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소방조의 장비를 다른 곳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재 조원은 전부 121명, 기구기계로는 자동차펌프 1대, 가솔린펌프 1대, 증기펌프 1대, 수압펌프 2대를 갖고 있다. 특히 자동차펌프는 20마력의 위력을 갖고 있는데, 책임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조선 정미소 화재 등의 실험에 있어서 자동차펌프 1대만으로는 약간 걱정이 앞서기도 하다.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1대의 자동차펌프를 구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 당사자로서 책임의 대조물(對照物)은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유무의 판별조차도 할 수 없다. 하기가 적 앞에서는 백만의 용맹한 장군을 갖추어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니 평소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과 자문을 구하여 소방 대책을 수립하고 마음의 준비 태세도 항상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⁷⁵

평소에는 평범한 의용소방조원으로서 이렇다 할 특별한 임무도 없

이 소방수라는 명예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겠으나, 소방조에 종사하는 당사자로서 실제로 느긋하지는 않다. 책임의 지위에 있는 이상 자나 깨나 신경을 쓴다. 특히 잠잘 때에는 미리 출동 태세를 하고 화재 통보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마음 씀씀이는 소방조원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는 결국은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상으로 오는 책임 관념의 발로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 책임 관념이야말로 비로소 소방수로서의 천직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방의 생명은 의협심에 임하는 소위 희생적 정신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수재, 화재의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는 나아가서 현대 유행하는 사회의 악의 풍습을 소탕할 각오와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기구기계의 충실과 정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마음의 충실과 정비는 더욱 필요하다. 기구기계의 충실 정비는 예산 확보에 의하는 바가 있으나, 마음의 충실 정비는 한마디로 소방조원 자신의 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적으로 조원 각위의 자애와 부민(시민)의 후원을 구하는 바이다.

4. 전국조두대회 출석의 영광

군산소방조 소두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저는 군산소방에 종사하여 금년으로 9년이 경과하였는데, 그동안 소

75_시험에 대해서 비시험물과 비교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이다. 여기에서는 연소의 대상물을 얘기한다.

화 방수, 기타 재해 사변을 당하여 출동한 일은 상당한 회수에 달하여 새삼스럽게 회고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 1919년 3월 독립 소요 무렵에는 1개월여에 걸친 경계 임무에 종사했는데, 제가 경계할 때에만 재해가 발생하여 공립초등학교의 방화, 부사정(富士亭)의 방화 등이 있어 소방수 일동과 함께 철야로 대단한 고심을 맞보면서 경비한 기억이 아직도 인상에 강하게 남아 있다.

군산은 원래 각 도시에서 보는 밀집된 가옥이 몇십 호여서 큰불의 발생은 없지만, 다만, 1922년 12월 25일 밤, 서빈정 마사키(正木) 조선소의 출화, 1924년 7월 11일 오전 0시를 지나서 신영정(新榮町) 조일정미소의 발화, 1926년 5월 15일 이른 새벽, 본정통 조선정미회사 지점의 전소와 같은 경우는 군산으로서는 큰불이어서 소실액이 수십만원에 달하였는데, 소방조의 활동에 의하여 연소를 막아 엄청난 화재로 확대되지 않고 끝낸 적도 있다.

앞으로도 시민 각자의 경화(警火)사상의 보급과 소방기관의 충실이 서로 어울려서 실화와 유소(類燒: 화재가 이웃으로 번져 가는 상태)의 재난을 면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1926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전국소방조두대회에 군산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보고 들은 소방 지식은 참으로 값어치가 있고 군산 소방기관의 충실과 개선을 기함에 있어서 도움 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 1922년 11월 17일 이시카와(石川) 전북경찰부장 재임 당시에 이리에서 도내 각지 소방조의 연합연습을 개최하였을 때에도 저는 여기에 참가하였고, 각 소방조의 설비와 조작을 현지에서 견학하고 얻은 바가 많았다.

바야흐로 시대 변화에 동반하여, 각 도시에서는 소방기관의 확충 개선을 도모하고, 동시에 소방 방화교육에 노력하고 있는데, 군산소방

조도 지금 1대의 자동차펌프를 구입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옥을 파괴하는 것도 부득이하지만, 그보다도 불을 끈다는 것이 선결 문제인 이상, 어떻게 해서든 소화기관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긴급하다.⁷⁶ 군산도 점차 발전하고, 오늘에 있어서는 대군산 건설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기에 상당히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펌프 1대와 100本 내외의 호스의 설비를 증가할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저는 이 기구기계 완비의 날에는 언제라도 안심하고 은퇴하려고 생각한다.

5. 규율 절제를 중요시하자

군산소방조 소두 모리 도시로(森敏朗)⁷⁷

제가 군산소방조 소두의 말석을 더럽히게(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을 낮추어서 하는 말) 된 것은 1923년 소방조 개혁 무렵 미쓰토미(光富) 소두와 제가 함께 임명되었던 것이다. 저는 제2부 완용펌프의 소두로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취임 후에는 소방수의 소질 개선에 힘썼고, 출화 시에 출동에 빠지는 일은 용서 없이 도태시키고, 절제 규율을 으뜸으로 하도록 힘쓰고 있다.

요즘 제2부 소방수는 거의 군대 출신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동작에 있어서나 정신을 훈련하였다. 화재 출동 시에 우리의 대처하는 동작을 본다면 모두가 칭찬할 것이다. 그리고 제2부 완용펌프조 소방수

76_에도소방부터 고수하였던 파괴소방을 지양하고 이제는 자동차펌프 등을 도입한 방수소방으로 진화작전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77_1923년 군산소방조 2부 소두를, 1935년에는 군산소방조 2부장을 역임하였다.

는 출화 시에 방수에 주력하기보다는 인명 구조와 가연물의 파괴에
진력하도록 평소에도 훈련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원들은 지휘자
의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 군산소방조도 해마다 나아지고 있지만, 소방수는 앞
으로 더욱 훈련을 쌓아서 본래의 사명을 온전하게 하도록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6. 현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곤란하다

군산소방조 소두 나카이 고지로(中井小二郎)⁷⁸

선배 제현을 본받아서 소두의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 저는, 작년 가을
창립 15주년 기념 축하회를 거행하고 군산소방조가 바야흐로 16년의
오랜 영광의 역사를 유지하고 그동안 기구와 장비 양면에서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이 충실한 조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역대 간부 및
선배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해
마지않는 바이다.

때는 소화유신(昭和維新)⁷⁹ 만물이 새롭게 변화하고 창조의 시대
를 만나, 생각건대 군산은 매년 인구가 조밀해지고, 시가지는 더욱 확
장되어 백만 석의 수출을 자랑하는 군산항의 축항 공사가 완성되면
서 이제는 3백만 석 수출을 돌파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군산은 바
야흐로 참으로 대군산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78_1925년 9월 18일 군산소방조 자동차부 소두가 되었다.

79_1926년 소화 텐노가 새롭게 일왕으로 취임함을 칭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방기관의 규모 설비도 현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며, 한층 더 최신 장비를 도입함과 동시에 새롭게 제정된 소방 조전(操典: 장비를 움직이는 조법 및 훈련 기술)의 취지에 근거하여 소방조원의 규율적 훈련 및 소방 장비의 숙달을 충분하게 하여, 명실공히 의용소방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모범 소방조의 건설에 힘써야만 한다.

따라서 장래 우리의 책무는 더욱더 중차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목적 달성에는 우리 각자의 분투 노력은 물론, 선배, 후배 및 시민 여러분의 지도와 후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와 관련하여 와타나베(渡邊) 군산서장이 우리 소방조의 개선 향상을 위하여 항상 친절한 지도 편달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소방에 대해서 열심인 것은 감탄해 마지않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바이다.

7. 봉공의 적성(赤誠: 참된 정성)을 이어받자

군산소방조 소두 야노 사부로(矢野三郎)⁸⁰

불초한 자가 군산소방조에 관여하여 더구나 소두의 중임을 맡은 것은 분수에 넘쳐 외람되어 비난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되돌아보면, 지난 1925년 3월 12일 오전 1시경, 폐점인 서방(西坊)인가 중국인 빵집에서 출화하여, 때마침 부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다행

80_야노 사부로(矢野三郎)는 군산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오복양복점을 운영하였다. 14살의 나이에 교토 양복점에서 기술을 익혀 1904년 군산에 정착하였다. 1908년에는 전주에 吳服양복점 지점을 개설하였다. 1925년 4월 20일 군산소방조 1부 소두를 역임하였다.

스럽게 화염은 폐점에는 도달하지 않고 북쪽으로 이웃한 이와타 우노스케(岩田宇之助) 씨의 가옥으로 번지려고 하였다.

군산 변화가인 전주통의 장소인 관계로 한때는 큰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으나 신속하게 달려간 소방조의 활동으로 옆으로 번진 건물 수도 적었다. 다행히 큰불로 이어지지 않고 끝났으나, 이 큰일에 직면한 저는 내심 이상한 긴장과 충동을 느꼈다.

이윽고 이와타(岩田) 씨의 알선 및 와타나베(渡邊) 서장의 부탁으로 군산소방조의 일원이 되었다. 즉 그날 밤의 화재가 소방조에 가입한 동기가 되었다. 소방조원이 되었지만 몸과 마음이 장년기를 지나서 화재 시에는 마음먹은 대로 출동하기 어려워 진심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저로서는 부여된 소방조의 회계 임무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노력할 작정이다. 부디 제가 늦게나마 사회 공공을 위하여 바친 봉공의 참된 마음을 이어받아 그 임무를 온전하게 하도록 조력 후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제13장_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

도시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방화 설비의 확충이 급박하며, 따라서 정부에서도 최근의 방화에 대하여 다양한 시설 계획을 세우고, 일반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1926년 1월에 거행된 동경소방 출초식에는 황공스럽게도 섭정궁 전하께서 태림(台臨: 황족이 그 자리에 출석하는 것)하여 친히 검열하셨다. 참으로 황공할 따름이다. 소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

으로서도 황송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또한 1926년 9월에는 동경에서 처음으로 전국소방조두대회가 개최되면서, 소방이 근대에 있어서 더욱 중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지(內地: 일본)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전국소방조두대회에 있어서 결의하여, 전국소방협회 설립 계획을 조속히 실현시키고자 준비 중이다. 조선에서도 경무국의 주관으로 가까운 시일에 서울에서 전조선소방조두대회를 개최하고, 회의 안건에는 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을 부의(附議: 어떤 일에 덧붙여 논의하는 것)하여 실현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실현할 그날은 역시 한층 조선소방계의 진보·개선을 더 할 것이다. 이는 참으로 조선 소방만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 민중을 위하여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다. 다음에 참고로 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의 요령을 게재한다.

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

一. 본회를 재단법인으로 한다. 본부를 조선총독부 경무국 내에 연합지부를 도경 경부 내에, 지방지부를 경찰서(서울에서는 소방서) 내에 두고, 관할구역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一. 목적

소방조원, 소방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이것에 관계 있는 자의 조위(弔慰), 구제 및 공로 표창을 하며, 방화소방에 관한 사항의 개선·진보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一. 사업

1. 소방 기타 재난에 관한 직무상의 사상자 및 그 위족 및 장기

근속자를 조위 구제하는 일

2. 방화소방상 공로, 뛰어난 공적 있는 자 또는 단체의 명예를 표창하는 일
3. 방화소방상 필요한 사항의 조사 연구
4. 잡지 및 도서의 간행 배포
5. 강습회 전람회 등을 개최하는 일
6. 소방 종사자의 위로 친목 및 덕성의 함양에 관한 방법을 강구하는 일
7. 기타 방화소방에 관한 사업의 진보·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一. 자산

1. 회원의 회비에 의한 수입
 2. 공사(公私)의 기여에 관련된 금전물품
 3. 보조금
 4. 본회의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기타 잡수입
- 자산은 협의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때때로 용도가 지정된 기여금품 및 특별한 경우는 연합 지부 또는 지방지부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一. 회원

다음의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1. 소방조원 및 소방 사무에 관계가 있는 관공서 직원
2. 방화소방상 학식 또는 경험 있는 자
3. 방화소방에 관하여 공로 있는 자
4. 본회의 사업을 익찬(翼贊: 힘을 모아 돕는 것)하는 자

一. 역원

본부 역원

총재 정무총독을 추대한다.

회장 경무국장으로 한다.

고문 약간 명 학식과 명망 있는 자에게 총재가 촉탁한다.

이사 2명 경무국 경무과장 및 회원 중에서 책임자로 인정 받는 자에게 회장이 촉탁한다.

협의원 약간 명, 회원 중 학식과 명망 있는 자 및 관계 관공리를 촉탁한다.

사무원 약간 명

연합지부 역원

지부장 도지사에게 촉탁한다.

부지부장 도경찰부장에게 촉탁한다.

지부 간사 도경찰부 보안과장에게 촉탁한다.

지부 평의원 약간 명, 회원 중 학식 및 명망이 있는 자 및 관공리에게 촉탁한다.

사무원 약간 명

지방지부 역원

지방지부장 도경찰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촉탁한다.

지방부지부장 2명, 회원 중 학식 및 명망 있는 자.

지방지부 간사 1명, 경찰서장(서울은 소방서장) 또는 경찰 근무 경부 또는 경부보에게 촉탁한다.

협의회원 약간 명, 회원 중 학식 또는 명망 있는 자 및 관공리에게 촉탁한다.

사무원 약간 명

一. 기타

본회의 경비는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회원의 각출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부의 예산은 협의원 회의 결의를 거쳐서 회장이 이를 정하며 연합지부 또는 지방지부의 예산은 지부 평의원회 또는 협의원의 결의를 거쳐서 연합지부장의 신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14장_전국소방조두대회 출석기

군산소방조 소두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전국소방조두대회는 1926년 9월 24, 25일 양일, 동경시 청산(靑山)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보다 앞서 군산소방조에서도 위의 통지를 접하고 참가하기로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조두인 오사와 도쥬로(大澤藤十郎) 씨가 당시에 여행으로 부재중이어서 소두인 기시다 쓰네조(岸田常造) 씨가 대리로 출석,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10월 2일에 군산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군산소방조로서는 큰 소득이다.

다음의 기록은 기시다 쓰네조 씨가 1926년 10월 17일 거행된 군산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 축하회 회장에서 구두보고를 대신하여 내빈 및 소방조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제목이 『전국소방조두대회출석기』라고 하며, 참고로 다음에 게재한다.

인가가 밀집한 곳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드시 소방기관의 설비가

있어야만 한다. 내지(일본) 및 조선, 만주, 사할린, 대만 등, 우리 본토 및 영역 내의 소방조는 1만 1천 4백여 개에 달하며, 조원의 수는 실로 170만의 다수를 헤아린다. 이들 조원은 각각 지방 경방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서 그 책무에 종사하고 있다. 덧붙여서 같은 직책과 임무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방조는 전국적으로 통일 연결이 없고, 재향군인 또는 청년단과 같은 조직이 없으며, 따라서 시세의 진운에 동반하지 않는 아쉬움을 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경(東京) 경시청의 다카노(高野) 소방서장, 토야마(富山)의 하세가와 쇼조(長谷川庄藏) 씨 등 각지의 선각(先覺) 조두 20여 명이 발기인이 되어, 금번 동경에서 전국소방조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군산에도 위의 통지가 왔으나, 당시 오사와(大澤) 조두가 여행으로 부재였기에 내가 대리로 말석을 더럽히게 되었던 것이다. 대회로부터의 통지는 9월 23일까지 동경시 시바구 사쿠라다 혼고쵸(芝区櫻田本郷町) 조선총독부 출장소에 집결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서 9월 20일 오후 8시 40분 군산발 열차로 경찰서원, 소방조원 및 친근한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쾌창한 출발길에 올랐다.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뜻밖에 이리에서 전주소방 조두 마쓰모토 후쿠이치(松本福市)⁸¹ 씨를 만나서 같은 여행의 벗이 되었다. 대전에서 경부선으로 바꾸어 타니, 차 안에서 씩씩하게 말하는 한 사람의 신사가 있었다. 아직 만나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대화 모습으로 도량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81_마쓰모토 후쿠이치(松本福市)는 1907년 2월 조선으로 건너와 군산부에 거주하였다.

“아이고, 수고 많소!”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오”라고 응답한다. 이 장신에 여윈 몸의 신사는 용산소방 조두인 아키야마 마사지(秋山督次)⁸² 씨로 상대방 신사는 조선의 소방 조두 중 가장 열성이라는 소리가 있는 함흥의 소방 조두 오쿠라 요시오(小藏榮夫) 씨이다. 일견 옛날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많이 마시고 많이 이야기했다. 차 안에서 무료함을 느끼지 못하고 동경까지의 긴 여행을 직행하려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이다.



시모노세키에서는 사가(佐賀)현의 현(懸)의원으로 유도 4단의 호걸인 소방 조두 우치다 세이이치(内田清一) 씨 외 기타 규슈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또한 여기에 한층 더 떠들썩하고 활기를 더하면서 22일 밤 동경에 도착, 이윽고 9시 반 미리 숙소로 정해 둔 청산(靑山)청년회관에 도착하였다.

다음 날 23일 오전 11시, 조선총독부 출장소에 집합, 모인 사람이 19명(서울, 용산, 해주, 강릉, 충주, 청진, 철원, 대구, 전주, 부산, 동래, 마산, 목포, 대전, 함흥, 군산의 각 소방 조두와 이외에 오구마(小熊) 서울소방서장, 도다니(戸谷) 총독부속, 요코이(横井) 조선소방신보 사장 등이 우선 대회의 의안에 대하여 조선 측으로서는 어떠한 방침을 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협의 결과 조선 측에서는 소방의 조직과 여건이 내지(일본)와 다른 점이 많고, 대회 운영 방침상 구구한 의견을 피하고 대체론으로

82_아키야마 마사지(秋山督次)는 1909년 6월 조선에 건너와서 부친이 살아 있을 때에는 부친의 일을 도왔고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1919년부터 영정 총대 자리에 임명되었다. 1919년 12월부터는 군산소방조의 조장으로 취임하였다.

정하자고 결의하였다. 회합이 끝나니 오후 7시, 조선 측은 전 총독 부 경무국장이며 현 동경시 고급조역(東京市高級助役: 장을 보좌하는 상급 공무원) 마루야마 츠루요시(丸山鶴吉) 씨를 주빈으로 하고, 오구마(小熊) 서울소방서장, 토다니(戸谷) 총독부속, 기타 여러 사람을 교바시쿠 오와리쵸(京橋区尾張町)의 마쓰모토 로(松本樓)에 초대하여 만찬회를 개최하였다.

24일 오전 7시 반, 회장(會場)인 청산(靑山)청년회관에 도착하여, 접수부에 명함을 제출하고 도착 번호와 의안 계획서를 받았다. 때는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은 9월 24일, 추계 황령제(皇靈祭: 역대 일왕의 제사를 지내는 궁중행사)의 길일, 회의 장소는 메이지 신궁의 가이엔(外苑: 궁궐의 외쪽 넓은 정원) 일본 청년회관, 시기도 좋고 장소도 좋아 참으로 경사스럽지 아니한가. 정각 오전 8시, 진령(振鈴: 개시나 종료 등의 신호로 방울이나 종을 흔들어 울리는 것)으로 일동 착석, 총원 기립, 도야마(戶山) 군악대의 「기미가요」 연주에 제창하였다. 장엄한 기운이 실내에 가득하였고 이윽고 발기인 도야마(富山) 소방 조두인 하세가와 쇼조(長谷川庄藏) 씨가 개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다음의 순서로 대관(大官, 높은 벼슬) 명사의 강연 및 축사가 있었다.

강연 「불의 신」 백작 후타라 요시노리(二荒芳徳), 축사, 총리대신 와카쓰키 레지로(若槻禮次郎), 同, 내무대신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同, 경시총독 오타 마사히로(大田政弘), 同, 東京府지사 히라츠카 히로요시(平塚廣義), 同, 東京시장 이자와 다키오(伊澤多喜男) 게다가 기타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하세가와 쇼조(長谷川庄藏) 씨가 좌장석에 앉았고, 이어서 동경 다키가와(瀧川)소방 조두인 아리마 아사오(有馬淺雄) 씨를 의장에, 동경 센주(千住)소방 조두 하시모토 코키치(橋本幸吉) 씨를 부의장에 추천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중

요한 의안은 다음과 같다.

의안

- 一, 경무국에 소방과를 설치하고, 각 부현(府縣) 경찰부 경찰서에 소방 사무 전임자를 두는 건
- 一, 소방조 규칙 전부 개정의 건
- 一, 소방훈련의 방침을 통일하는 건
- 一, 적당한 파괴소방 실시에 따른 손해보상의 법규를 정하는 건
- 一, 수입 소방기계의 관세를 면제하는 건
- 一, 전국적으로 방화테이를 신설하는 건
- 一, 의용소방원의 정신 대우 및 향상에 관한 건
- 一, 소방 직원 및 조원의 기차, 전차 무임 또는 할인 승차의 건
- 一, 전국소방협회 설립의 건
- 一, 소방조를 소방대로 개칭의 건
- 一, 소방조의 복제를 전국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건

이외에 각지에서 제출된 대동소이한 의안은 위의 안에 포괄되어 그 대부분은 즉시 가결되었다. 소방조원에 관한 대우 및 향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직무상 사상(死傷)한 조원에 대해서는 전사상자(戰死傷者)와 동일한 보살핌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며, 예를 들어서 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일부는 단상에 뛰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다.

장내의 공기는 긴장하여 하나의 안건마다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의장은 온화한 얼굴에 침착하면서 재치 있는 말을 섞어서 신속하게 의사를 처리해 가는 모습이 능숙하였다. 이

리하여 제1일의 의안은 대부분 심의가 끝나서 폐회하고, 다음 25일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각에 방울종 소리가 울려 착석, 이어서 의안 중 일부 개정 및 추가예산, 기타 귀찮다고 보이는 것은 위원에게 부탁하기로 하고 각각 교섭 실시를 140여 명의 위원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대회는 여기에서 만세로 성황리에 폐회를 선언하였다.



폐회 후 오후 5시, 일동은 다이쇼(大正)생명, 신일본화재보험회사의 초대회에 출석, 다시 오후 7시부터 조선소방조 관계자만, 시바 단풍관(芝紅葉館)에서 조선은행 총재, 동양척식회사 총재의 초대 만찬회에 출석하였다. 위의 양 초대회마다 모두 성황을 이루었다. 다음 26일에는 오전 중 소방 장비 전람회를 보고, 오후 1시부터 대회 출석자를 위안하는 가부키좌를 관람했다.

이와 같이 도처에서 대환영을 받은 것은 고마웠고, 가슴에 부착된 휘장에 ‘조선(朝鮮)’의 두 글자가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인으로 잘못 알게 되어 일동은 참지 못하고 휘장을 감추었다.⁸³ 다음 27일 오전 9시, 메이지신궁 외원(外苑, 궁궐의 바깥 정원)에 집합, 인원 점호 후에 신주쿠 황실정원[新宿御苑] 참관, 잠시 후 메이지신궁 참배가 끝나고 나서 청년회관 식당에서 대일본 맥주회사의 초대 오찬회에 참석하였다.

오후 2시 내상(內相)의 관저에 초대받아서 4시에 만세삼창하고 산

83. 동경소방 조두에 참석한 소방 조두들은 조선에 거주하는 각 지역의 일본인 조두나 소방 간부들이다. 이들이 조선에서 왔다는 조선의 휘장을 달게 되자 현지 일본인들이 이들을 조선인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부끄러움을 느껴 휘장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조선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회하고 집에서 나왔다. 28일 동경을 출발하여 각각 흩어져서 혼자만의 쓸쓸함, 여행의 활기가 없음. 도중에 도산(桃山)⁸⁴에 참배하고 오사카(大阪)에서 1박 하였다. 오사카에서 비행기 80여 대의 공중전 폭탄 투하 연습, 10월 2일에는 연병장에 세워진 바라크(가건물)에 폭탄을 투하하여 소방조가 출동하여 진화에 힘쓰는 장쾌한 광경을 견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때마침 강우가 계속되어서 측후소에 날씨를 물어보았으나 불확실하다고 하여 단념하고 30일 오사카를 출발, 10월 2일 군산에 귀착하였다.



금번 여행은 물론 전국소방조두대회의 출석만을 위한 용건으로, 왕복 고작 12일, 몹시 험기증이 날 정도로 바쁜 여행이었다. 생각건대 금번 동경조두대회는 최초의 개최이었고, 많은 의안을 고작 2일간에 폐회하였기에 회의의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의안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전국소방협회 설립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다.

이 일만으로도 대회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통과되지 못한 다른 의안은 추후에 실행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전국 천여 조의 소방조 대표자가 자기의 책무의 중대함과 시세의 진운에 동반하여 소방기관의 개선·진보를 더욱 필요로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즐거이 대회에 출석하였다.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여 중요한 안건을 상정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혼쾌해 마지않는 바임과 동시에 나의 동쪽 지방 소방기관 견학과 병행하여 이 대회의 출석이 나

84_경도(京都) 모모야마(桃山)에 있는 명치천황의 능(陵)을 말한다.

에게 유익하였으며 동시에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화재 예방의 주의사항

① 연돌(굴뚝)

연돌(煙突)에 의한 화재는 대단히 많다. 이는 청소를 게을리하였거나 파손된 곳을 살피지 않고 불을 때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하게 청소하고, 파손의 유무를 조사하여 수선하여야 한다. 연돌의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하고, 건물에 접한 부분은 불연(不燃)물질을 사용하고 목욕탕이나 부엌의 연돌은 천장과 차양에서 떨어뜨리고 바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시키고, 정상은 처마 위로 높게 돌출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뚜막

부뚜막, 목욕탕, 화로, 불을 지피는 곳에서 화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개조나 수선을 하여야 한다. 굽도리의 종이에 접하는 것은 그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지붕 속에는 그을음이 고이지 않도록 때때로 청소를 하여 불뚱이 튀어 번지거나 옮겨 붙는 것에 주의하고, 근처에는 장작, 짚, 대팻밥, 낙엽과 같이 타기 쉬운 것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배꽂초, 성냥

담배꽂초를 이불이나 침구 사이에 집어서 넣거나 불이 붙어 있는 채 껌박 놓아두거나 던져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쓰레기통이나 실내에 두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성냥이나 불쏘시개의 타고 남은 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성냥과 담배꽂초

를 붙이 붙은 채 버리기 때문에 곧잘 불을 내는 것이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고타쓰(일본의 방 안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 앙카(작은 화로)

고타쓰, 앙카는 불 담는 그릇의 바닥과 불의 강도에 주의하고, 의류, 기저귀를 말릴 때에는 불에 닿지 않도록 강철의 테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방 안에 두는 고타쓰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나무로 만든 화로의 아래에는 돌이나 양철 등 불연물질을 깔아 두어야 한다. 불을 넣어 둔 채 망각하여 화재가 된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타쓰와 앙카에서 불을 냈을 때는 당황하여 이불을 젖히지 말고, 그대로 이불을 뭉쳐서 비벼 끄는 것이 좋다.

⑤ 화로, 곤로, 스토브

화로는 타다 남은 불에 주의하고, 불을 넣은 채 집을 비워서 곤란하다. 또한 화로, 곤로, 스토브 위에는 의류나 기타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을 두어서는 곤란하다. 곤로는 불뚱이 튀어 번지는 것을 주의하고, 미닫이문의 연소하기 쉬운 물건 옆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맹장지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일시에 불이 넓게 번져서 당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때에는 즉시 먼지털이를 물에 적셔서 때려 주면 된다.

⑥ 전기, 가스

전기는 전선의 피복 파손에 주의하고, 철물류나 미닫이문에 접촉해 두지 않도록 하며, 전구를 형겁으로 덮어 두거나 이불 속에 넣어서 앙카의 대용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는 스위치를 끄고 당업자(當業者: 그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에게 급하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초심자의 세공(細工)은 위험하다. 가스가 새거나 가스관이 파손되었을 시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냥에 불을 붙이거나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도 순식간에 인화하여 큰 사건이 되기에 즉시 가스회사에 통지하여야만 한다.

⑦ 취탄(取灰), 숯불을 끄는 항아리, 타다 남은 불

취회(取灰: 재를 모으는 것)는 용기 및 보관 장소 및 버리는 곳에 주의하여야 한다. 완전히 화기가 없어지지 않을 동안은 불이 붙기 쉬운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부뚜막, 난로, 화로 등의 타나 남은 불은 여하튼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은 숯불을 끄는 항아리에 넣든지, 물을 부어서 완전히 불기가 없도록 하여야만 한다. 숯불을 끄는 항아리의 뚜껑은 불연물질이 완전히 밀폐할 수 있고 틈이 없는 무거운 것을 사용하고, 토방이나 돌로 만든 대 위에 놓아 타기 쉬운 것의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된다.

⑧ 약품, 유류

석유, 휘발유, 약품류는 취급에 주의하고, 담배, 성냥, 덮개를 씌우지 않고 그냥 드러내어 태우는 촛불 등의 화기를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휘발유는 의류의 더러움을 지우기 위하여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것이 원인인 실화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상당히 주의하여야만 한다. 유류에 불이 붙었을 때는 재나 토사를 뿌리면 꺼진다. 채소를 튀김할 때나 만약 냄비의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는 푸성귀를 던져 넣든지 소금이나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꺼진다.

⑨ 제등, 촛불

등명(燈明: 신불에게 올리는 등불)이나 모기향에 불을 붙인 채, 신봉(神棚: 집안에 모셔 놓은 감실)이나 불단의 문을 닫거나, 또는 그 부근에 부적 등의 타기 쉬운 것을 어질러 두어서는 안 된다. 제등이나 촛불, 캔델라(휴대용 석유등)를 붙이 붙은 채 잊어버리거나 나화(裸火: 덮개 등이 없이 불길기 노출되어 있는 불)인 채로 흠뻑으로 된 곳간이나 헛간 속에 들고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1920년 8월 이카호(伊香保) 전정(全町)을 불태웠던 것은 식모가 제등을 미닫이문에 걸어 두고 그대로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⑩ 모닥불

가옥 또는 불타기 쉬운 물건의 근처에 모닥불을 피워서 안 된다. 또한 모닥불에서 떨어지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닥불이 끝났을 때는 물을 부어 화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람이 있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보류하여야만 한다. 1925년 3월, 東京市 深川区 西平井町 204戶를 태웠던 것은 모닥불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⑪ 램프

램프의 기름 항아리는 금속성 물질을 사용하는 한편 추락하지 않도록 매다는 것을 튼튼하게 한다. 못은 굵은 못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램프에 불을 붙인 채 석유를 주입하면, 석유에 불이 붙어 이것에 의하여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램프와 캔델라(휴대용 석유등)를 목욕탕과 화장실에서 사용할 때는 다른 곳으로 화기가 옮겨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⑫ 농화(弄火), 방화

어린이의 불놀이가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평소에 불의 무서움에 대한 것을 알려 주어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엄히 주의를 주어야 한다. 성냥은 불놀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좋다. 방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집 주변에 숯가마나 기타 불쏘시개가 될 만한 것이 놓여 있는 곳은 방화에 상황이 좋지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도록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⑬ 집을 비웠을 때, 잠잘 때

집을 비울 때는 첫 번째로 부재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火器)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잠자기 전에는 부뚜막, 난로, 목욕탕, 화로 등 화기가 있는 장소는 잘 돌아보아서 잔불에 주의하고 제등과 촛불과 등명(燈明)을 붙여 둔 채로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⑭ 건조실, 생석회

건조실을 설치한 곳은 항상 화재에 주의하고, 사용 후에도 충분히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생석회가 물기를 머금으면 열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에 대한 평소 준비

① 소화 준비

잠자기 전에 불의 근원을 돌아보아 통이나 바게쓰,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두고 바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도

가 있는 곳에서는 가는 호스를 적당하게 준비해 두면 좋다. 또한 소화기, 간편한 펌프 등을 비치해 두면 좋다. 소화기는 종종 검사하여 효력 여하, 약품의 유무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소화전 위에는 물품을 쌓아 두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만 한다. 또한 유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모래를 넣은 바게쓰를 준비해 두고, 실화 시에 당황하여 물을 뿌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흠뻑으로 된 공간이 있는 집에서는 근처에서 불이 났을 때에 빨리 문의 틈새기를 발라 화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측면에 점토를 쌓아 두는 것이 좋다.

② 피난 준비

만일의 화재의 경우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도망쳐서 어느 곳에 피난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식으로 평소부터 미리 정해 두고서 화재 시에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더 이 준비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난에 용이하도록 노인과 어린이, 환자, 장애인은 가급적 2층에 재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는 삼끈, 큰 보자기, 자루, 등불, 촛불, 성냥, 쥘신 등도 준비하여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도록 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학교와 회사, 공장 등에서는 때때로 피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비상구의 내외에는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실화의 경우 첫 번째로 들고 나갈 것은 무엇이고 다음으로는 무엇을 들고 나갈다고 하는 식으로 물품의 순서를 평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다. 관청 등에서는 중요한 물건에는 비상지출(非常持出: 물건을 가지고 나갈)이라고 문자를 써 두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비상상자, 비상의

류라는 식의 것을 만들어, 귀중품은 평소에 넣어 두고서 비상시에 그것을 들고 나가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만일을 생각하여 가옥과 같은 부동산은 물론, 가재도구, 상품과 같은 동산에도 화재보험을 들어 두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출화 시 주의사항

① 마음을 안정시킬 것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인데, 실화의 경우는 특히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침착하며 용감하게 행동하고 결코 당황해서는 안 된다. 실화의 경우에 당황하였기 때문에 사소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귀중한 물건은 태우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는 일이다.

② 경찰, 소방서에 급보(急報)할 것

화재라고 인식하였다면 즉시 소화의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찰서(소방소가 있는 곳은 소방서)에 급보하는 것이 좋다. 비밀리에 불을 끄려다가 큰불이 된 사례가 많기에 비록 작은 불을 보더라도 전화가 있는 곳은 전화로, 또한 화재 보지기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촌락에서 화재가 돌발하였을 경우, 보지(報知)설비가 없는 곳에서는 즉시 망루에 올라가 범종을 울리면 좋다. 소방 출동 시는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비켜야만 한다. 소방은 최초의 5분간이 가장 중요하다.

③ 전화를 거는 법

경찰소방서에 화재의 전화를 걸 때는 전화국을 호출하여 “화재”라고

하면 (번호 따위는 필요 없다) 교환수는 즉시 경찰소방서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단하게 불을 낸 집의 주소 번지 혹은 알기 쉬운 목표를 말하면 좋을 것이다.

④ 화재 보지기를 누르는 법

화재 보지기로 출화를 알릴 때는 유리를 게타로 차서 깨뜨리고 단추를 강하게 1분 정도 누르면 그 화재 장소가 소방서의 수신기에 감지가 된다. (화재 보지기의 설비는 아직 군산에는 없다.)

⑤ 이웃에 급히 알릴 것

실화의 경우에는 큰 소리로 이웃집에 알리거나 쇠파아나 바게쓰류를 두들겨서 긴급함을 알리는 것이 좋다.

⑥ 응급 방화법

근처의 화재 시는 즉시 그 방면의 창문을 닫고 지붕과 벽에는 물을 뿌리고 흠벽으로 된 곳간에는 재빨리 문의 틈새기를 발라 화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 만일 자신의 집에서 실화했을 때는 불이 난 실을 닫고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좋다. 물을 뿌릴 때는 연기에 뿌리면 효과가 없기에 불에 접근하여 타고 있는 곳에 뿌려야 좋다.

⑦ 노인과 어린이를 우선

도망칠 때는 우선 노인과 환자, 어린이 등을 가장 먼저 미리 정해져 있는 안전지대로 피난시켜야 하는데, 연소의 경우나 풍향을 고려하여 결코 바람 아래로 피난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2층, 3층 등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큰 이불을 겹쳐서 그것을 양손으로 보듬고서 뛰어내리면 비교적 안전하다. 또한 삼끈이나 띠를 매어 이어서 그 끝을 기둥에 단단히 고정하고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좋다. 빨래 등을 걸어서 말리는 장대 등을 이용, 붕을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기에 휘감겨 있을 때에는 빨리 지면을 기든가 또는 벽에 붙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다. 또한 여유가 있다면 수건이나 손수건을 적셔서 입과 코를 덮는 것이 좋다.

불꽃이나 기와 따위가 떨어질 때는 머리에 냄비나 화분 종류를 쓰고서 나오면 위험이 없다.

두발이나 입고 있는 의복에 불이 붙었을 때는 놀라서 달려가면 오히려 불이 타기 때문에 달려서는 안 된다. 곧바로 지상에서 구르든지 모포나 이불류로 덮는 것이 좋다.

화재 시 전기 취급 방법

=특히 소방조원 여러분의 주의를 구한다=

우리 군산에서 역사가 풍부한 공공사업 중, 가장 현저한 발달을 이루고 공적이 있는 군산소방조의 사실(史實)의 편찬 계획이 있는 것을 축복하고, 동시에 그 봉공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에 대하여 약간의 개요를 설명하고, 화재 시 경찰 관헌 및 소방 당사자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시는 어느 곳이나 전기사업의 소재지이며, 이 사업지에는 반드시 전기 공작물로서 가로(街路)에 붙어서 전선로 즉 가공식(架空式)의 크고 작은 여러 줄기의 전선이 펼쳐지고 여기에 전기를 통하여 배

전(配電)하는 것이다. 전기의 지지물인 전주의 완목(椀木)에는 도기 애자(陶器碍子: 전선을 절연하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철탑과 전봇대에 단 기구, 일반적으로 도자기 또는 플라스틱제의 절연체와 주철제의 금구로 되어 있다)로 선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안에 빨간 애자(碍子)에 부착된 선을 고압선이라고 칭한다. 군산은 3,300볼트의 전압이어서 여기에 감전되면 생명에 관계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또한 단독으로 하얀 애자에 타고 있는 선을 저압선이라고 칭한다. 110볼트의 전압으로 수요가의 옥내에 직접 배전하는 것으로 인체에 닿으면 그 통과량에 의하여 생명의 위험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요가옥 내의 배전 및 전기설비에 대해서 설명한다.

- ① 가옥 내의 배선은 은폐식과 노출식이 있는데, 체제상 말 그대로 은폐공사를 실시하고 끝사나운 선을 숨기고 노출공사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실시하지 않기에 외관상으로 배선의 위치는 불명(不明)하다.
- ② 수요가옥 내에 전등, 동력, 전열, 의료용 등 각종 전기응용설비가 있는데, 모두 외부의 전선로에서 그 용도의 최고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일단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전선에 닿는 일이 절대로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잡하기 때문에 부주의나 부지불식간에 감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화재에 있어서 전기회사는 전선의 보안장치와 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소방각위가 안심하고 활동하도록 시설의 완전을 기하고 있다.

전기사업관리규칙 제5장 발취

제64조 전기사업자는 송전 중인 가공전선로의 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현장에 기술자 및 인부를 파견하여 위험 예방의 수속을 실시하고 그 뜻을 출장 온 경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파견원은 경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퇴장할 수 없다.

화재 장소에 파견 나온 기술자 또는 인부는 주간에는 표시 깃발, 야간에는 표시등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 전기사업자는 송전 중 실화, 폭풍 기타 비상인 경우에는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내의 가공전선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송전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항(前項)에 의하여 송전을 중지한 구역 내 전선로의 각 요소에는 주간은 표시 깃발, 야간에는 등불을 걸어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소의 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위험을 표방하여 밤중에 발생하는 실화에 있어서 발전소가 송전을 차단할 때는 모든 시가 암흑이 되어 한층 혼잡을 초래하며 예측하지 못한 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단 구역을 부분적으로 하는 장치로 항상 전선로에 비상용 스위치 설치가 있다. 군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곳에 설치하여 전압의 국부 차단을 할 수 있다.

실화 가옥의 일부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집의 선로 인입구에 있는 '안전스위치'라고 하는 소형 철상자 또는 도기상자를 열어 두면 그 옥내만 차단할 수 있고, 위에서 설명한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알맞게 대처하면 전기의 위험은 전혀 없을 것이다. 차단 구역을 좁게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피해와 혼잡을 막는 것으로써 화재의 경우는 소방 당사자와 전기회사의 파견 기술자와 협의하여 전기에 관한 일은 전부 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렇지만 소화는 한순간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기가 통하고 있거나 누전된 옥상에서 소방 작업을 감행하는 일도 있기에 이런 점은 주도면밀하게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상의 주의 사항으로는,

- 一, 전주 전선이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도 함부로 칼을 가지고 전선을 절단하거나 전주를 쓰러뜨리는 것은 소양이 없고 무모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감전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 一, 화재가 발생한 부근의 가옥에서 함부로 옥내 전선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이는 고압전기가 누전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一, 화재 현장에서 전주가 경사(傾斜)되었을 때에 넘어질 수 있고, 동시에 주상변압기, 개폐기 등이 낙하할 우려가 있고, 각기 중량이 있다면 부상의 우려가 있다.
- 一, 소방 호스의 끝은 전선에 방수하지 않을 것. 또한 누전이 명백한 지붕(아연)에는 주의한다.
- 一, 소방은 맨손으로 전선을 대지 않는다. 기다란 대나무 또는 막대기로 닿을 것. 건조한 형철조각이라면 한층 좋다.

끝으로 감전되었을 시의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우선 첫 번째로 전선의 전기를 차단한다.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전선에서 떼어낸다. 화급한 경우는 마른 대나무 또는 목재로 그 사람을 움직인다. 전선을 떼어냈을 때, 곧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 인공호흡은 장시간 시도하기에 만약 고압전류로 인하여 신체가 변색되었을 때는 회복할 수 없다. 차전(遮電)의 방법을 모르고

감전자를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는 수많은 사례가 있다. 화급을 다룬다고 하여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위험한 요소가 없도록 참으로 소방조원 여러분의 유의를 바라는 바이다.

(군산전기회사 전무이사 히구치 도라조(樋口虎三) 씨 이야기)

◆ 소방정신 작흥(作興), 방화사상 고취 민요집

여기에 수록된 민요가집은 우리 조원 동료 및 전부터 지도하시고 후원하신 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느낀 바를 표현한 창작시입니다. 이 민요를 크게 불러 소방정신을 작흥하고, 낮게 읊조리면서 방화사상을 고취합니다, 화재로 인한 두려운 손해를 미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군산소방조)

(국경절)

군산소방대

- 一, 여기는 조선 제일의/ 이름난 쌀의 군산항/ 역사 그윽한 소방대
- 一, 마을에 우뚝 솟은 망루의/ 종소리와 함께/ 모이는 용사 백이십
- 一, 극한 살을 에이는 겨울밤에도/ 편안하게 꿈꿀 수 없는/ 소방의 임무를 누가 알랴.
- 一, 바람이 불다 마다 하는 광란의/ 새빨간 불꽃도 무엇이더냐/ 신명을 바치리라.
- 一, 2만여 명의 시민을 위하여/ 함께 불꽃과 싸우자/ 소방 임무를 위하여 (군산경찰서)

(행진가)

군산소방대

1. 그 이름은 맑은 금강의 /부근 빛나는 군산에 / 태어나서 이제 30년
역사도 장구한 의와 용에 / 2만여 천의 사람을 위하여 / 목숨 바친
소방대
2. 작열하는 염열(炎熱)의 여름날도 / 눈보라에 살을 에이는 겨울밤에
도 / 사계와 주야 구별 없이 / 휘몰아치는 화신(火神)을 타일러서 /
그 적 앞에 창을 잡고서 / 힘내라 동지 백이십
3. 바람에 휘날리는 새빨간 / 불 속으로 뛰어들어 / 흠어지고 나서 이
름을 아쉬워한다
우울함이 없는 몸의 주변에는 / 순식간에 불꽃이 수습되고 / 극한
위험을 구한다네
4. 아아 용감한 군산의 / 꽃이라고 불릴 소방은 / 종소리와 함께
드높은 하늘에 뛰어오르자 / 쌀로 이름을 얻은 군산의 / 시민은 평
안하게 사소서

압록강 절구(節句)

소방수에게 비바람 눈이 무엇이드나
새빨간 화염에 싸여서 이영차
떨어지는 들보와 불기둥이여
쓰러지는 곳에도 시민을 위하여 있도다

한밤중에 때르릉 때르릉 울리기 시작하는 범종 소리
文句 “간식, 아버지 화재여요” 좋다고 한마디 한다
몸을 감싸며 이영차, 쇠갈고리를 잡고서 불 속으로

타오르는 희생의 소방수가 있다

소방수에게 물불이 무엇이드냐
비바람은커녕 이 몸뚱아리 이영차
쇠를 움켜잡은 이 팔이여
움켜잡은 소방호수를 집에 뿌리고 있다

금은의 가재도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타서 재가 되는구나 목숨조차도 이영차
죽게 될지 모른다네 두려움이여
화재는 서로 조심하세

화재라면 화재라고 한마디 전화를 하면
자동차펌프는 곧바로 출동하네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을 꺼 버리네
참으로 소중하게 하여야 한다네

세상을 위하여 무거운 임무를 맡은 것을 義라고 하네
물불을 가리지 않음을 용기라고 하네
의용소방의 신분이기엔
불꽃처럼 진다고 하여도 싫다고 하지 않네

사나이입니다 나는 진짜로 사나이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이영차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개가 있는 소방수의 마토이잡이(깃발잡이)라네

관동(關東)⁸⁵의 세상에서 드문 지진조차도⁸⁶

화재가 일어나면 물건은 남는다네 이영차

주의하세요 불의 근원을

불은 사람까지 재로 만든다네

네 당신 조심하세요. 불의 근원을

고작 담뱃불이라고 하여도 이영차

집도 보물도 재가 된다네

참으로 생각할수록 무섭다네

금강의 흐름은 깊기로 이름이 높다네

의용으로 세상을 구하세 이영차

종소리와 함께

알리세 군산소방대

군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의용의 모임

모험결사는 미리 각오했다네 이영차

새빨간 불길이 무엇이드냐

명예는 빛난다네 소방대

85_일본의 문화와 경제는 교토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關西)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關東)로 크게 나뉜다. 여기에서는 대지진이 잦은 관동 지방을 빗대어 얘기한 것이다.

86_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대지진이다. 도쿄, 요코하마 지역이 파손되었고 10만에서 14만 명이 사망하였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다.

서로 화재에는 질렸어요 새빨간 불꽃
한번 덮치면 가장 사랑하는 이영차
처자 재산을 빼앗아 간다네
조심하세 각자의 불의 근원을

마음으로 고작 담뱃불이라고 하여도
대단히 높은 고층건물도 재로 된다네
주도면밀하게 주의하세
무서운 불길은 피어오른다네

어느 관리가 근무처에서 전화를 건다
文句 “여보세요, 자네 후미꼬인가. 아, 그런가, 나는 좀 조사할 물건
이 있어서 늦어지니까 불 관리 잘하고 먼저 쉬소”, “여보, 늦어요, 나
혼자는 외로워요, 불 관리는 여자의 책임인걸요, 확실하게 잘 관리했
어요. 걱정 말고 조사하고 돌아오세요”

문구(文句) “여보, 매우 늦네요”, “겨우 연회가 끝나서 지금 돌아가는
중이네”, “기모노의 불탄 자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담배꽂초를 떨어
뜨린 것 같네, 낭패로세”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일이지 않아, 앞으로
도 있을 일이다. “조심해서 돌아오세요”

安來節,⁸⁷ 都都逸⁸⁸

생명, 재산을 맡기고 편안하게 소방설비하에 잠잔다.
당신은 소방으로 변덕도 있지만, 결코 나는 질투를 하지 않는다.
사회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나이로 뽑힌 소방수
토해 내는 기염과 질투의 불꽃, 손을 대지 못하는 소방수
발화를 발견하면 우선 첫 번째로 화재라고 전화 한 통
시뻔건 불꽃이 되면 끝이다. 화재는 최초의 5분간.
침상에 걸린 소화 누비옷, 객기가 아니구먼, 자 준비
생선회의 초맛을 아는 사나이 기분, 소방수라면 마토이잡이
병은 입에서 눈물은 눈에서 화재는 마음의 방심에서
월명산 아래에 밤바람이 불면, 자, 그럼 나가자 의(義)와 용(勇)으로
대대로 지켜 온 보물일지라도 성냥 하나로 재가 된다.
어른이 되지 못하는 자식을 가진 집안보다, 화재 한 번이 무섭다.
타지도 마르지도 않는 그 속을 불을 내고 물을 뿌린다.
즐거운 토막잠에 아직 절반의 꿈, 밭구나 범종이 주인을 부른다.
사랑의 불로 보면 순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화재로 태우지 않으리 집
과 대지
태우든 태우지 않든 나 혼자, 혼자 근신하면 화재는 일어나지 않는다.
3월 벚꽃에 5월을 창포, 소방조에는 금화(金花: 모란)
성냥개비 하나에도 방심은 금물, 꽃의 도시도 재가 된다.
일상의 준비를 잊어서는 안 된다. 화재는 괴로운 것 무서운 것

87_야스기부시: 야스기 지방의 민요 샤미센에 피리, 북 등을 반주하는 밝고 쾌활한 노래.
1914년, 1917년에는 東京으로 진출하여 전국적으로 유행함.

88_도도이치: 유행 속요, 아연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남녀간의 정을 구어로 표현하는데,
보통 7·7·7·5의 4구로 되어 있다.

화재가 첫 번째, 검약이 두 번째, 화합이 세 번째의 처세술로 중요
사람을 떠들썩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화재도 원래는 사소한 방심
에서

당신을 화재 때문에 나는 집안일로 함께 괴로운 신세대,
멈춰 주세요. 잠자면서의 흡연, 만약에 불이 나면 함께 힘들어요
내세까지 함께하기로 한 남편이 소방수가 되어 질투하지 않고 살고
파요

내부의 전말에 돈의 전말, 바람이 부는 밤은 불의 전말
눈앞의 불씨에 방심하지 말라, 바람기 불기는 무섭더라
시무식 신호의 종이 울려 퍼지고, 주인은 용맹한 나들이옷 차림의 모
습(소방복)

당신은 소방수 나는 아내, 결코 투기는 하지 않으리

스톤톤 절(節: 다이쇼 말기의 유행가)

스톤톤 스톤톤 하고 나아가는 세상에
소방기관도 정돈하고
여기에 맞이하는 15년
더구나 더없이 진보하고 있구나.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돈을 벌자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울리는 경중에 일어나서
소방복을 입고 늑름하게 뛰어나간다.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나온 후에는

안에서 주인아줌마는 염려하는 얼굴
부상과 잘못이 없기를
신에게 빌어 본다.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달려간다
자동차펌프의 굉장함
뿜어내는 물의 세력에
스톤톤 스톤톤 진화되었다.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스톤톤 지나가는 세월이여
지나고 지나서 10년 15년
근속 공로가 지대하구나
여러분이 받은 기념품. 스톤톤 스톤톤

소패(小唄)⁸⁹

- ◎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네, 그것을 그대는 모르는
가 근무하는 것이 무섭다오 조심하세.
- ◎ 화재 가운데서 살아났다. 문득 생각난 것이 인연이 되어, 화로를
향하는 계란 술, 어머니 눈이 내리는 살창, 미단이문을 살며시 여
니 참으로 겨울 경치가 아닌가.
- ◎ 저 범종은 주인이 치는 것일까 생각에 잠겨, 창녀 신세인 이내 몸
은 애달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짜증이 난다. 뜻대로 되지 않는
뜬세상이여.

89_고우타라고 한다. 명치 말기에서 쇼와 전기까지의 유행 가요의 한 부류.

방화 선전 표어

火 화재 예방에 불조심

제등(提燈)을 깜박 잊어버리면 화재가 된다 불조심

화소대(火消臺) 화재의 근원, 금, 탐의 火消臺

화로 화재의 불은 남겨 둔 화로에서

竈(조: 부뚜막) 화재의 불은 부지불식간의 부뚜막에서

화달(火燧) 화재의 불은 들여놓은 고타쓰에서

담배 화재의 불은 식사도 잊어버리는 담배에서

성냥 화재의 불은 버린 성냥의 불뚝에서

굴뚝 굴뚝은 말이 없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타서 불만을 불로 표출한다.

풍로 화재의 불은 보이지 않는 풍로의 밑바닥에서

잔불 잔불은 집을 태우네, 불씨는 물로 끄세

※ ‘불은 부주의입니다’를 일본어로 운을 띄워서 11행시로 만든 것

カ : 화재 때에는

: 허둥지둥하지 말고

: 빨리 소방(경찰)에 알립시다

: 남에게 숨기면 나도 타인도

: 모면할 수 있는 몸이 타고 만다오

: 분투노력하여도 불은 피어올라서

: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재가 된다네

: 엄청나게 쌓은 황금과 창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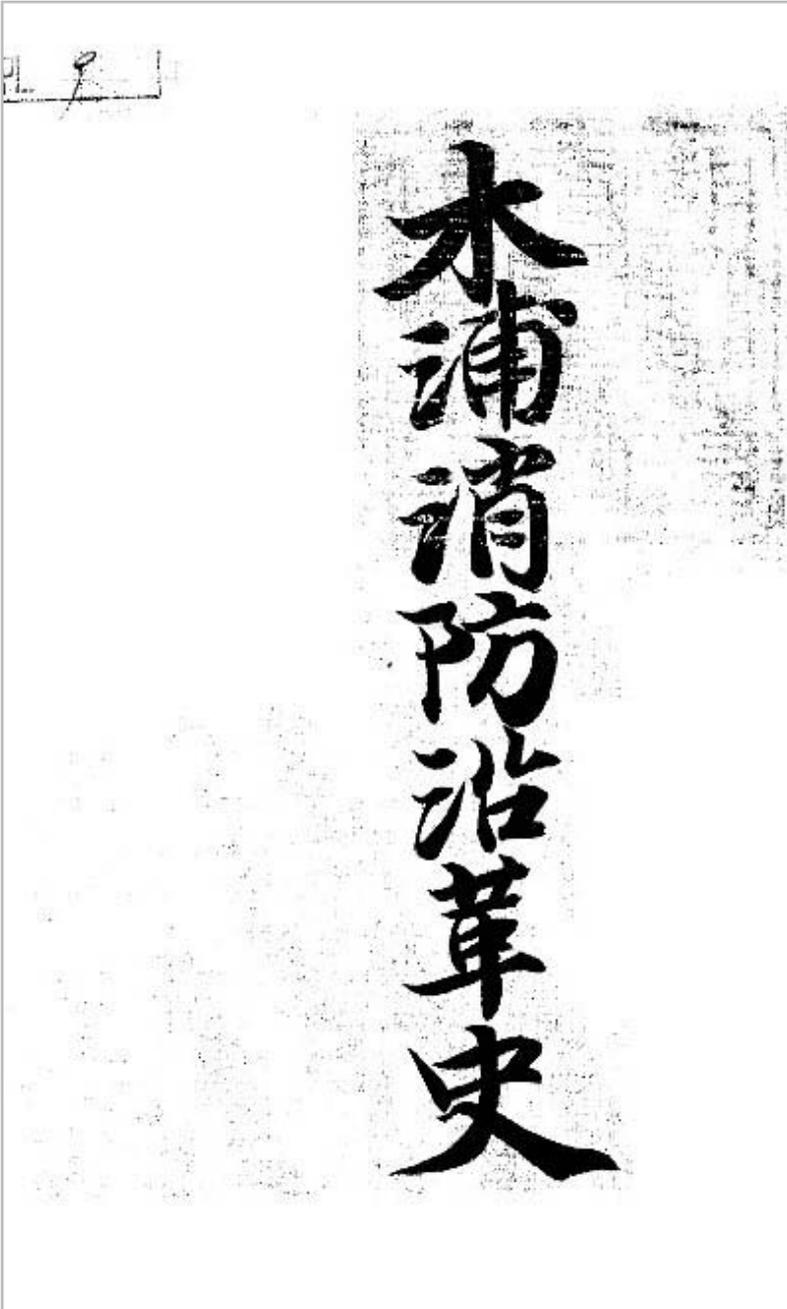
: 휘익 하고 타 버린다네, 오늘 아침의 화재

: 전화를 겁시다 소방서에 화재라고

: 곧바로 자동차가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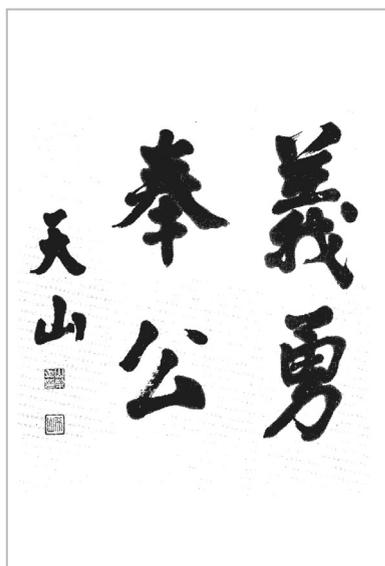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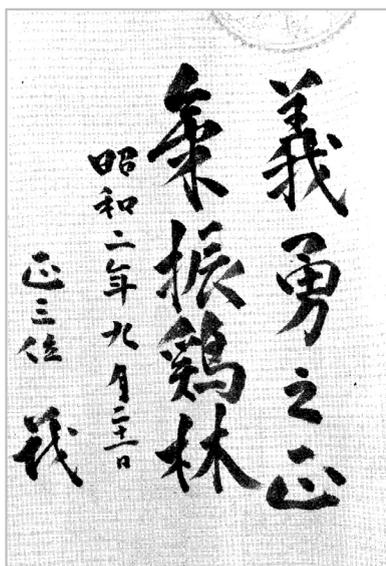
목포소방연혁사
木浦消防沿革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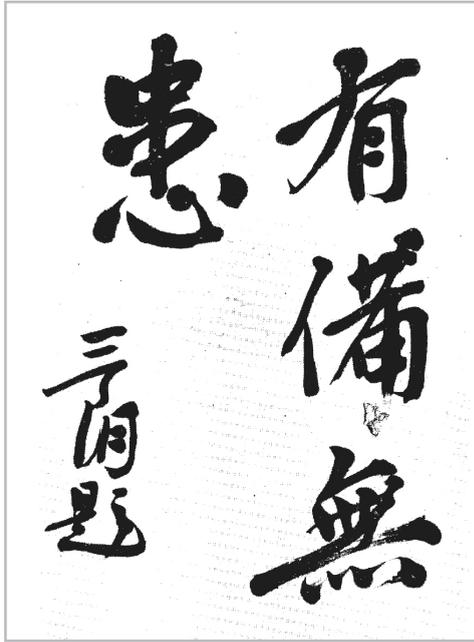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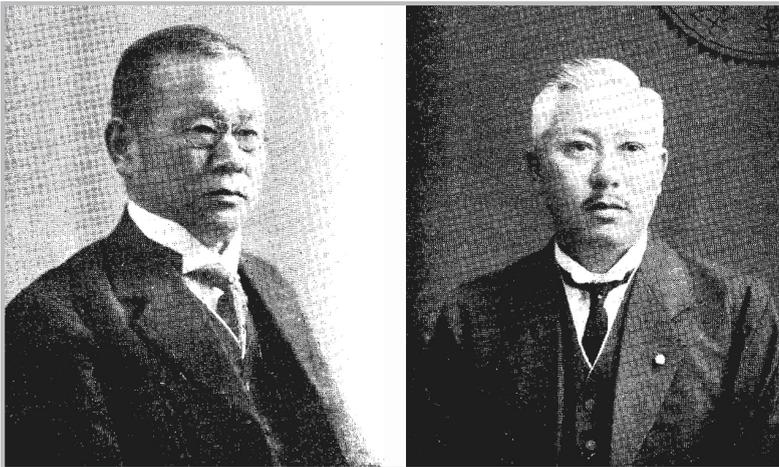
목포소방조 기(旗)



통감부 경무국장을 역임한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左
조선 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필체 右



총독부 경무국장 아사리사부로(淺利三郎) 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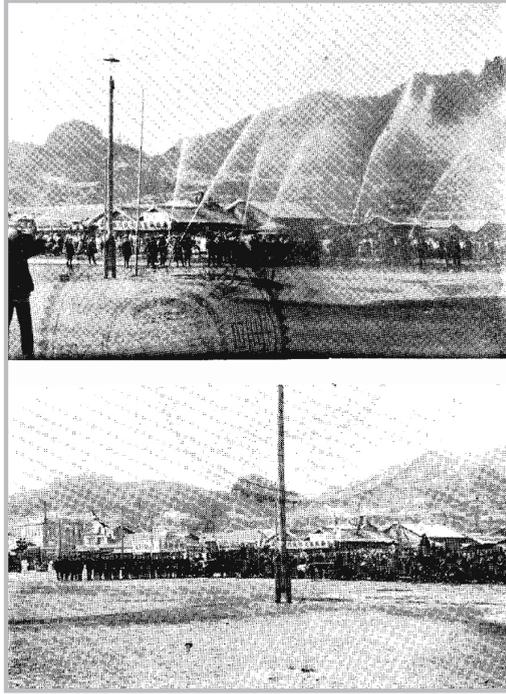
1908년 목포부 이사관인 마쓰모토 시게토시(松本重敏) 左
 1909년 목포경찰서장이며 목포공설소방조를 만든 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 右



1926년 목포소방조 조직 개편 기념사진(평복은 퇴직자, 정복은 유임자)



1926년 목포소방조 조직 개편 기념사진(평복은 퇴직자, 정복은 유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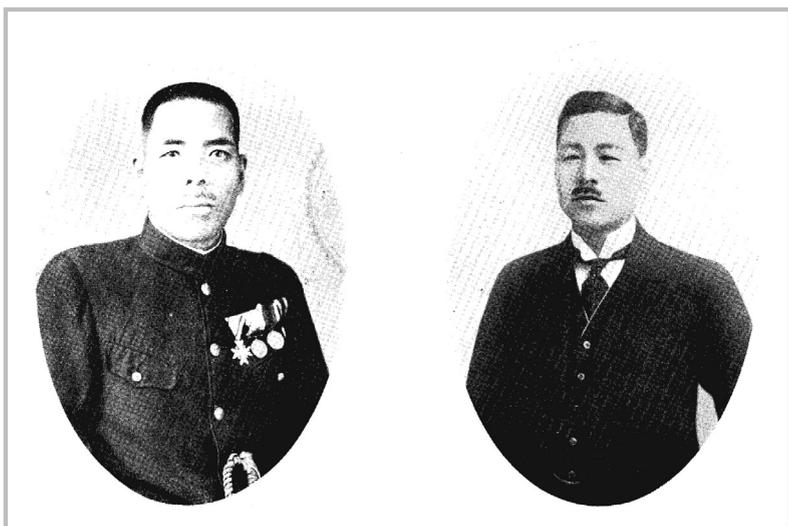
목포소방조의 방수훈련과 사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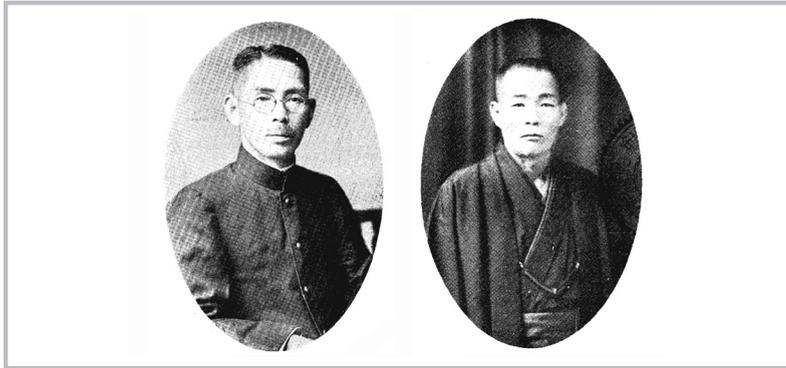
1929년 11월 목포소방조 결성 기념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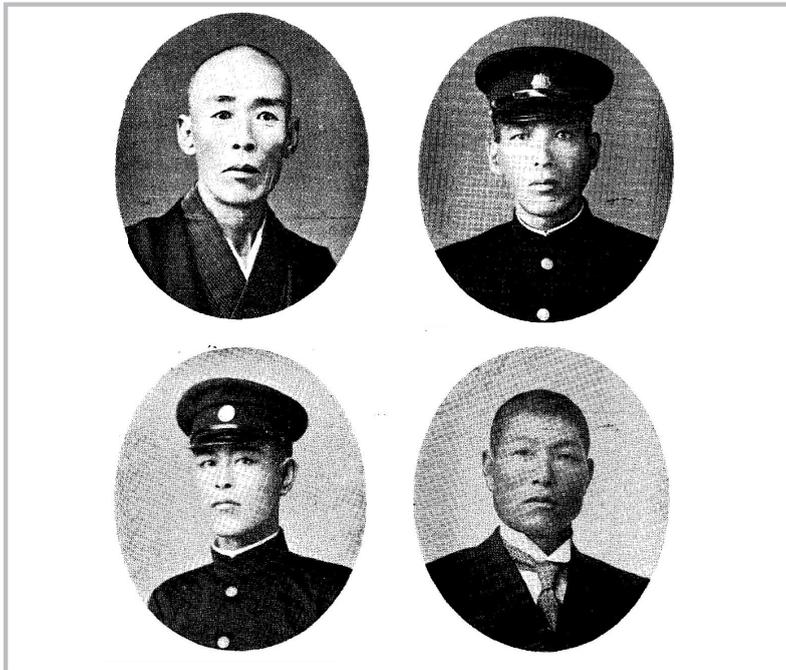
목포 거류민단장 다카네 노부레(高根信禮) 左
 목포소방조 초대조두 후쿠다 유조(福田有造) 右



1925년 목포경찰서장인 나카시마 겐조(中島建三) 左
 목포부윤 히시키(飛鏞)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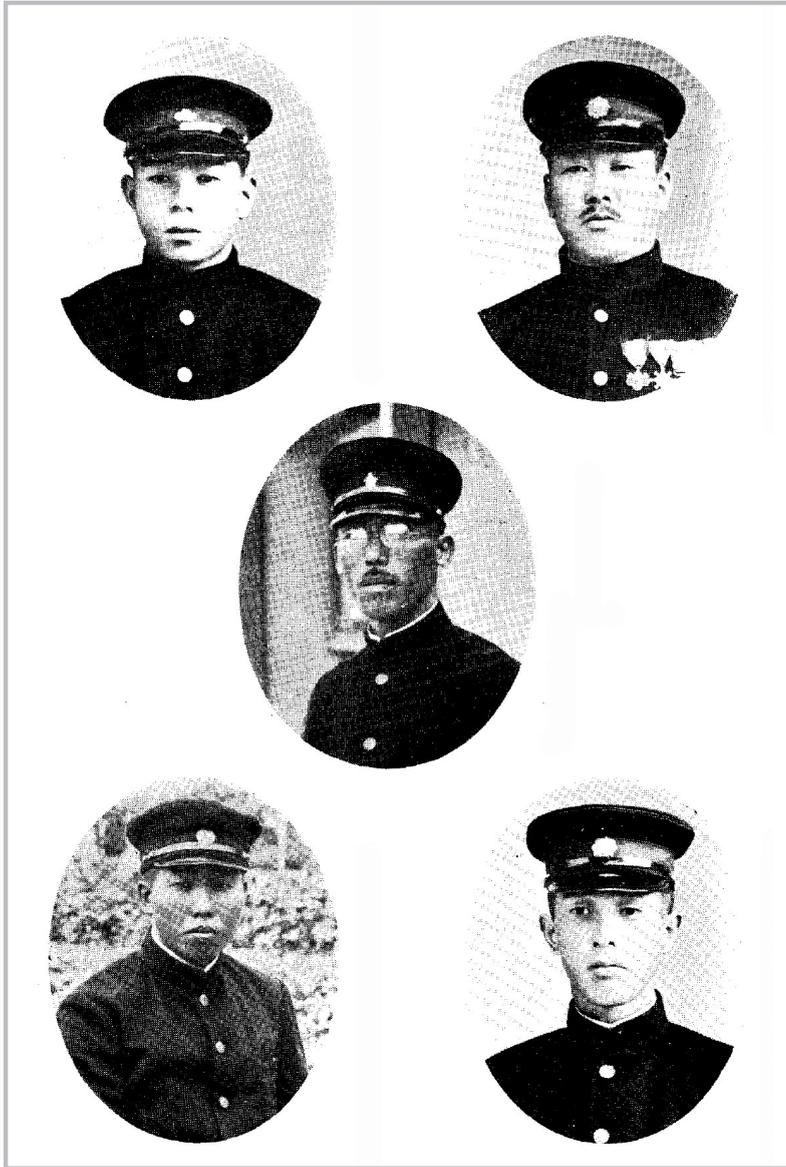
1926년 목포소방조두 아소 사쿠오(麻生作男) 左
부조두 후타키 이치조(二木市藏)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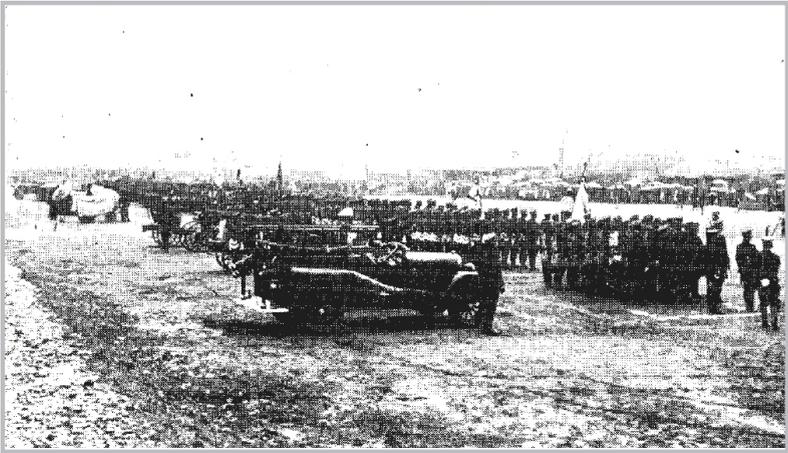
현 소두 후쿠이에 타케미(福家武見) 오른쪽상
퇴직 소두 오카다 마츠미나미(岡田松三浪) 오른쪽下
퇴직 소두 가와쿠보 노부유키(河久保延之進) 왼쪽상
현 소두 토요나가 구니타로(豊永邦太浪) 왼쪽下



1926년 퇴직 제1부장 이와타니 고이치(岩谷小市) 오른쪽 上
 現 2부장 요시다 료조(吉田良藏) 왼쪽 上
 現 제4부장 車南錫 왼쪽 下
 1926년 퇴직 제1부장 요시다 오토마쓰(吉田音松)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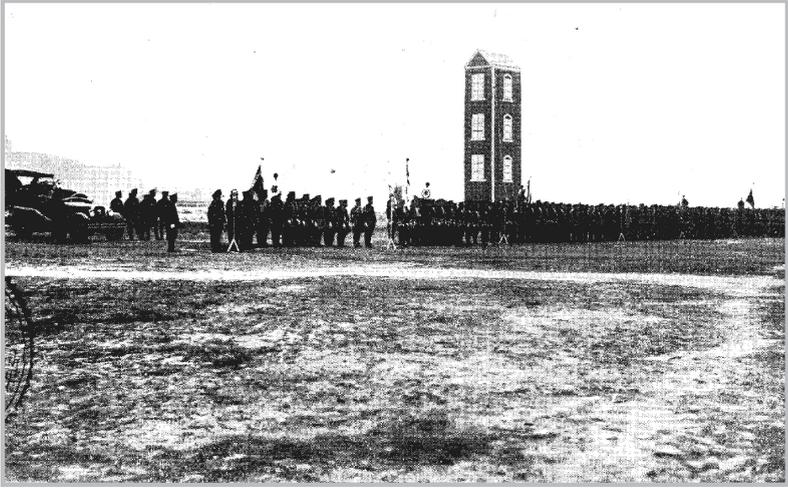
現 소두 미야모토 이도쿠(宮本伊徳) 오른쪽 上
 現 소두禹亨圭 왼쪽 上
 現 소두金鍾泰 왼쪽 下
 상비소방계장 타다(多田) 순사부장 中



조선소방연합회 전라남도 연합지부 발회식 및 연합 연습



소방 조두 마쓰마에 요시조(松前義三) 오른쪽 上
 소방 제3부장 미야모토 이도쿠(宮本伊徳) 오른쪽 下
 소방 부조두 요시다 료조(吉田良藏) 왼쪽 上
 소방 제3부 소두 에가미 잇토지(江上一斗次) 왼쪽 下
 1926년 퇴직 소두 하라구치 오사부로(原口王三郎) 中



목포소방조의 소방 연습 광경

목차

제1장_목포소방조의 기원[濫觴]

제2장_소방 규칙 발포

제3장_목포소방조 창설

제4장_목포소방조 정비

1. 황금시대
2. 간부의 교체
3. 가솔린펌프 설비

제5장_소방조의 일대 쇄신

1. 자동차펌프 구입
2. 소방 강습 실시
3. 소방사무소 낙성식과 공로자 표창
4. 조직의 개선 新 진용이 되다
5. 기념품 증정식과 퇴임자 석별연
6. 소방설비의 충실
7. 목포소방가

제6장_역대 간부와 현재 조원

제7장_기구기계 기타 설비

제8장_소방조 예산

제9장_목포의 소방과 수도(水道)

제10장_최근 화재 건수

제11장_소방조와 야경

제12장_방화사상 선전과 사업

머리글

목포는 개항 후 30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 일본거류민회에서 거류민단¹으로 변경하고 부제(府制)를 실시²하여 전남에서 첫 번째 도회지가 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의 연혁사로서는 하나도 연속적인 장(章)을 보지 못하였기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나는 이를 늘 걱정하였는데 때마침 조선소방협회³가 설립되면서 앞으로의 기록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함을 알았다.

이제 과거를 추모하고 설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연혁의 주요한 내용을 편찬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날의 불확실한 기록을 찾아 관계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하게 되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오류탈루(誤謬脫漏: 문장이 잘못되고 빠짐)가 없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사정을 참작하여 너그러운 이해 바란다. 또한 본서 편찬에 있어서 수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과 본서를 위하여 글을 기고해서 본서의 값어치를 더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1_1905년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거류민단법 제도의 요강은 다음과 같다. ①거류민단법은 1906년 7월부터 시행한다. ②민단은 주로 거류지, 잡거지에 설치한다. 단 거류지 중 성진에는 민단을 두지 않는다. ③민단에는 民長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民會에서 선출하여 統監의 인가를 받는다. ④民團에는 居留民會를 두어 의결기관으로 삼고, 의원의 정수는 8인 이상 24인 이하로 한다. ⑤의원의 선거 자격은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民團稅 5원 이상을 내는 자로 한다. ⑥民團제도는 1914년 府制 시행 때까지 존속한다. ⑦병합 당시 민단을 설치했던 지역은 京城, 仁川, 群山, 木浦, 大邱, 釜山, 馬山, 平壤, 鎭南浦, 新義州 등이었다.

2_총독부는 1913년 10월 부제를 공포하였고, 1914년 거류민단을 폐지하여 4월 1일부터 각 府에 거류민단을 편입시켰다.

3_1929년 내선일체와 우수 소방조원에 대한 표창, 소방 전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소방협회는 본부를 조선총독부에 두었고 협회장은 총독부의 실권자인 정부총감이 담당하였다.

바이다.

1928년 8월

목포소방조 조두 아소 사쿠오(麻生作男)

소감

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

목포 소방시설의 역사는 21년 전의 일이지만, 세월의 흐름은 실로 빨라서 놀라울 따름이다. 나는 1910년에 목포경찰서장으로 취임했었지만, 도시의 기본으로 소방설비 완성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 생각하여 이 일에 즉시 착수하였다. 우선 시가의 고지대인 용미산(유달산을 얘기한다)에 두 개의 큰 저수지를 굴착하였다. 이 저수지는 시가 중심지에 위치하여 풍부한 고압력 저수를 소화전에 공급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본 연혁사에 수록되겠지만, 이 설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 설비의 완성 덕분에 시중의 가옥 및 상품의 화재보험료율은 1년에 2만 원 남짓 인하되었다. 일반 점포들도 이 설비 덕분에 보험액의 할인 혜택을 입었으며, 이 설비는 화재에 대한 예방상의 안정과 경제상의 이익을 함께 가져다준 것이다.

소방활동과 소방 조직에 대해서 나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부민들은 다행히 나의 의중을 이해해 주어 목포에 거주하는 명망가들이 조장과 간부 역할을 맡아 주었다. 공공심이 투철한 청년들이 자원하여 소방수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는 분위기여서 자질이 뛰어난 소방원들로 인원이 충원되었다. 덕분에 오늘날 목포가 고상한 소방 기풍을 전 조선에 과시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다. 이렇게 고상한 소

방 기풍이 결국은 시민의 고상한 기풍으로 굳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소방의 고상한 덕분에 목포 기풍이 형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포소방은 그 이후 십 수년 간에 시세의 발전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작할 때의 작은 노력에 비하여 지금의 창대한 결과를 생각하면 유쾌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축사(祝辭)

조선소방협회 발회식

조선소방협회의 식전을 거행함에 즈음하여 한마디 곱하여 마지않는다.⁴ 생각건대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봉공(奉公)의 정성과 단결이 바탕이 되어 결속력이 단단하고 매우 건전하여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일단 시행하면 과감하고 용감하게 몸을 내던져 앞장서며, 자기 몫에 진력을 다하며, 평상시에는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 지방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신념을 굳게 지키어 한결같이 참으로 내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일의 성과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웠을 때 더욱 나타난다. 지금 소방 관계자 여러분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의지가 굳고 보람되게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렇더라도 수화(水火)의 재해로 국력이 소진되고 세상이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구조활동의 실적을 발휘하여야 한다.

4_1929년 內鮮一體 실현과 우수 소방조원에 대한 표창, 소방 전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소방협회는 본부를 조선총독부에 두었고, 협회장은 총독부의 실권자인 정무총감이 담당하였다.

요즘에 소방협회가 발족되어 국가 경사와 번창의 상서로운 구름이 우리나라(일본)에 짙게 끼어서 자욱하다. 오늘 발회를 거행하게 되면서 7만 회원은 상호간 더욱 소방의 쇄신 발달을 기하며 사회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하며 시작할 때의 마음을 굳게 새겨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시대의 변화가 급박한 현실에서 영화로운 기운이 보인다고 하여도 사람의 마음 자세는 올바르고 신중해야 한다. 너무 자만하면 국민의 태도 또한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되는 폐습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희생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기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바쳐서 자중자에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본회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여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축사로 한다.

1928년 12월 2일

조선 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식사(式辭)

조선소방협회 발회식(朝鮮消防協會發會式)

오늘 여기에 조선소방협회의 발회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소방 관계 여러분은 항상 봉공희생의 정신을 몸에 익혀서 상호협력의 친분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유사시에는 그 본분인 재해(災害)의

경계에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회봉사의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근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민의 생활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지역마다 재해가 해마다 증가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의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현재의 소방 조직 및 그 시설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방 관계자 여러분은 능히 그 미래의 사명을 완수하고 재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민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소방의 개선·발달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조선 각지 유지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아서 조선소방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신흥청신(新興淸新: 새롭게 피어나는 정신)의 힘으로 소방이 쇄신되고, 지역과 고향의 안위를 지키는 정신으로 나라 발전과 지방 번영에 기여하게 된 점은 흔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경(東京) 본회 조직⁵이 광범위하여 본회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책임 또한 무겁고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회의 취지하는 바를 양해받아서 더욱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 목적을 관철하여 일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1928년 12월 2일

조선소방협회 총재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⁶

5_여기에서 '본회'라 함은 대일본소방협회를 얘기하며, 조선소방협회는 대일본소방협회의 지부로 인식되고 있다.

6_경시청에 들어가 부현의 경무부장을 거쳐 오사카 경찰부장이 되었고, 오사카시장을 역임하고 1928년 朝鮮總督府 政務總監에 임명.

제1장_목포소방조의 기원[濫觴]

목포소방조는 1910년 1월 1일, 공설소방조 설립인가하에 조직하게 되었다. 목포소방조의 시초는 1899년 즉, 목포 개항 2년 후인 11월 3일, 메이지 천황 탄생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당시 목포영사 모리카와 기시로(森川季四郎),⁷ 경찰서장 엔도 다다오키(遠藤忠興)⁸·후쿠다 유조(福田有造)⁹·다카네 노부레(高根信禮)¹⁰ 씨 등의 간부 주선으로 창설되었는데, 명칭은 ‘각국거류지목포소방조(各國居留地木浦消防組)’라고 칭하였다.

소방수는 목포조(木浦組), 장문조(長門組), 팔두사조(八頭司組)의 하역부로 충당되었다. 그 인원은 30명, 소방 장비는 고작 용토수(龍吐水)¹¹ 1대, 연구(鵞口),¹² 도끼,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그물, 즈크(마사료 짠 두꺼운 천), 제수통(製水通) 등 약간을 갖추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유치하였다. 당시 목포는 개항 초기여서 거류민의 숫자도 800명이 되지 않았고 시가지 역시 황량하고 적막한 모습이었기에 소방설비 또

7_모리카와 기시로(森川季四郎)는 1899년 7월 18일 목포영사로 전입하여 1902년 4월 6일까지 목포영사에 재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목포 각국 거류지회 회두 직무를 수행하였다.

8_엔도 다다오키(遠藤忠興)는 목포 개항 무렵인 1897년 10월부터 1900년까지 일본 외무성 경부로 목포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1898년 8월부터 1899년 9월까지 목포 지역 일본거류민회 자치위원을 역임하였다.

9_후쿠다 유조(福田有造)는 개항 이후 부산에서 목포로 건너와 정착하였다. 목포항에서 회조업을 하였으며, 미곡상 등 다양한 사업을 하였다. 목포소방조 결성에 공이 있으며 초대 조두를 하였다.

10_다카네 노부레(高根信禮)는 개항 이후 부산에서 목포로 건너와 사업을 하였다. 1898년 12월부터 1906년 10월까지 일본거류민회 회장을 역임했다.

11_구식 소화기의 하나로 상자 모양의 물통 속에 물펌프를 장치하여 물통 속의 물을 뽑아 내게 고안된 것이다.

12_막대기 끝에 술개 주둥이 모양의 쇠갈고리가 달린 소방기구이다.

한 보잘것없었다.

해가 갈수록 목포가 발전하면서 소방조도 보완되어 1901년 4월에는 30명이었던 소방수를 60명으로 증원하였고, 1903년 1월에는 90명으로 늘렸다. 조제(組制)는 1901년 들어서는 소방조에 각 부를 두었는데 제1부, 제2부로 나누고, 하역부 중 유력자가 통솔하였다.

1903년 1월 조원의 증원이 이루어져 제3부가 증설되고, 새롭게 조두(組頭), 소두(小頭)¹³가 임명되고 소방조를 통괄하였다. 소방 장비는 앞에 설명처럼 유치하였으나 1897년 봄에 완용펌프 1대, 1903년 7월 마찬가지로 2대를 구입하고, 1905년 다시금 완용펌프 2대 및 소방수의 피복 50조를 새로 맞추었다. 망루(望樓), 방화정호(防火井戶) 등이 신설되면서 충분한 소방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즈음 소방조는 소방 연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서는 행동 통일이 되지 않았으며 무질서하여 단체적 동작으로 절도가 없었으며 장비 또한 구식에 가까웠다. 덧붙여서 급수설비 또한 불완전하여 유사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목포의 성장 또한 급하게 이루어져 42년 말 거주 인구는 삼천 명이나 되었다. 시가지 역시 정돈되어 호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소방설비도 크게 개선되고 확충되어 1910년 1월 목포소방조의 조직을 변경하게 되었다.

13_조두(組頭), 부조두(副組頭)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15년 '조선소방조규칙'에서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1915년 이전인 이 부분에서는 조두 부조두가 아니라, '조장' '부조장'으로 표현되어야 맞는 표현이다.

제2장_소방 규칙 발표

1909년, 목포부 이사관 마쓰모토 시게토시(松本重敏)¹⁴·목포경찰서장 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¹⁵·거류민단장 다카네 노부례(高根信禮) 등은 목포항의 급속한 팽창에 맞추어 소방설비의 확충이 급선무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소방조의 조직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09년 12월 27일 목포 이사청령 제8호로 다음과 같이 소방조 규칙이 발표되었다.

소방조 규칙

제1조 거류민단 혹은 일본인회는 화재 기타의 재해를 당하여 경방구호(警防救護)를 위하여 소방조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관할 경찰서를 경유하여 이사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관은 소방조의 필요를 인정했을 때에는 거류민단 또는 일본인회에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조 소방조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이를 지휘 감독한다.

제3조 소방조에 다음의 역원을 둔다.

1. 조장 1인
2. 부조장 1인
3. 소두 약간 명
4. 소방수 30인 이상
5. 部를 만들 때에는 각 부에 부장을 둔다.

14_마쓰모토 시게토시(松本重敏)는 목포부 이사관. 정치교육단체인 대성회(大成會) 간사장 역임. 법학박사로서 목포소방조 규칙을 만들었다.

15_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는 1875년 출생하여 1906년 8월 부산 이사청 경부, 1909년 10월 목포경찰서 서장 겸 경비서장, 1910~17년 경성 종로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제4조 조장 및 부조장은 이사관, 소두 이하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제5조 소방조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소방조 설치 구역 밖으로 이주했을 때
2. 육해군의 현역에 복무 또는 동원 소집에 응하였을 때
3. 징역형에 처하였을 때

제6조 조장은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부하를 지휘·감독하며, 소두 이하의 담당 임무를 정하는 한편 다음의 사항을 맡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1. 경찰관서의 명령 전달에 관한 사항
2. 소방수의 기술 훈련에 관한 사항
3. 조원의 신분제에 관한 사항
4. 조원 명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
5. 건물 및 기계기구의 보관 및 그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6. 피복 및 수당 부조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조원의 질병, 부상, 사망 및 상벌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 부조장은 조장을 보좌하고 조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여야 한다.

부장, 소두는 오로지 소방수의 단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소방수는 조장 및 소두의 지휘를 받아서 각자 그 임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 경찰서장은 재해를 경계하기 위하여 소방조로 하여금 순찰하도록 한다.

제9조 소방조는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장이 정한 시기에 연습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 타종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1. 근화신호(近火信號): 3점 연타
2. 원화신호(遠火信號): 2점 연타
3. 진화신호(鎭火信號): 반점타
4. 비상신호: 난타

제11조 소방조는 화재신호가 있을 때는 기계를 두는 장소에 집합하여 각자 맡은바 임무에 대하여 현장에 달려가며, 비상신호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 집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원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조폭방만(粗暴傲慢: 행동이 거칠고 오만)의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조원은 서로 경애하고 친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3.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할 수 없다.
4. 화재 기타 비상 사변 시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에 응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5. 직무에 종사할 때는 경찰관의 지휘 없이는 함부로 담당 구역을 벗어나거나 가옥 기타의 건조물을 파괴할 수 없다.
6. 조원은 직무상에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7. 소방조의 명의를 갖고 물품을 기증할 수 없다.
8. 피복 기구는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직무 외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9. 화재가 끝난 뒤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장의 점검을 받거나 또는 명령이 있지 않으면 퇴장할 수 없다.
10. 소방조의 행동이 치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는 이사관은 그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다음의 행위가 있는 조원은 해직, 정직 또는 견책(譴責)에 처한다.

1. 경찰관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2. 경찰관의 명령 또는 허가 없이 집합 또는 운동을 행하는 자
3. 직무상 집회 장소 또는 도중에 있어서 고의로 통행을 방해하는 자
4. 제10, 11조 각호를 준수하지 않는 자
5. 이유 없이 역원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자
6. 기타 직무상 성실하지 않는 자

제15조 조장·부조장의 상벌은 이사관이 실시하며, 소두 이하의 상벌은 경찰서장이 이를 행한다.

제16조 조원이 직무상 발군의 공로가 있을 때는 수상 또는 칭찬한다.

제17조 소방조에는 다음의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一. 경종 一. 펌프 一. 운수기(運水器) 一. 대나무사다리
 - 一. 자척(刺叉: 날카로운 창)
 - 一. 연구(鳶口: 솔부리 같은 창) 一. 도끼 一. 전(纏: 새끼줄)
 - 一. 기(旗) 一. 제등(提燈: 각 부를 상징하는 등불)
 - 一. 톱 一. 나팔(喇叭) 一. 화견대(火見臺: 전망대)
 - 一. 기계치장(機械置場: 격납고) 一. 건승(鍵繩: 로프)
- 자우(刺叉: 긴 막대기 끝에 U자 모양의 쇠붙이를 꽂은 무기)
연구(鳶口: 막대 끝에 솔개 주둥이 모양의 쇠갈고리가 달린 소방 용구)
건승(鍵繩: 갈고랑쇠가 달린 밧줄)

제18조 소방기구의 보관 및 화견대(火見臺: 망루)의 위치는 경찰서장

이 이를 지정한다.

제19조 소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물론 기타 때때로 청소를 위하여 경찰서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거류민단 또는 일본인회는 소방조원 급여 규정을 정하여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이사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급여 규정을 정할 때에는 피복년수당, 출장수당, 연습수당, 질병부조료, 조위료, 유족부조료 및 상병료 등의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21조 소방조의 깃발, 제등, 새끼줄 및 피복은 다음 방식에 따라야 한다.

(방식 생략)

제22조 소방조에 관한 비용은 거류민단 또는 일본인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_목포소방조 창설

1909년 12월 27일, 목포 이사청령으로 소방조 규칙의 발표가 있자 즉시 마쓰이(松井) 경찰서장이 중심이 되어 신 소방조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우선 종래의 소방수 정원 100명에게 새로이 내지인(일본인) 30명, 조선인 20명을 증원하여 150인의 정원이 되었다. 이것을 3部로 나누어 제1, 2부는 거류지 내에 조직하고 각 부에 소두 4명을 두고, 그중 한 명을 부장으로 하며, 제3부는 내지인 소두 3명, 조선인 소두 3명을 두었다. 내지인 1명은 부장으로 하여 통솔하게 하였다.

소방수는 부내의 장년 중에서 선발하여 조장, 부조장은 평판이 좋은 유력가를 추천하고, 상담역에는 명망 있는 원로 2명을 지명한다. 또한 부내 18구의 구장(區長)을 소방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들은 소방 경비 및 기타의 협의 사항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한다. 1910년 1월 24일, 종래의 소방조를 해산하고 새롭게 목포소방조의 조직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조간부의 임명이 있었다.

목포소방조 조장 후쿠다 유조(福田有造)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조장	福田有造	상담역	松煎僞之助 ¹⁶
부조장	松井邑借郎 ¹⁷	〃	麻生作男 ¹⁸
제1부장	二木市臧 ¹⁹	〃	縱原又三
소두	吉田音松	〃	土肥庄作 ²⁰
소두	河久保廷之進	〃	守田千助 ²¹
소두	補富密三郎	〃	長浦福市 ²²
제2부장	岩谷小市	〃	衛藤對漿 ²³

16_松煎僞之助는 1886년 가을 15세의 나이로 조선에 음. 형인 松前才助가 운영하던 부산 본정의 점포에서 잠시 일함. 1897년 목포, 영산포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후에 영산포로 옮겨서 미곡상, 비료상을 경영하였다. 소방 조두를 지냈고 학교조합의원, 번영회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17_松井邑借郎은 1921~1926. 3월까지 목포소방조 부조장을 역임하였다.

18_麻生作男은 북강현 출신으로 1906년 목포로 건너왔다. 주식회사 旭시장 전무를 역임하고 주조업 및 제빙업에 투자하여 성공하였다.

19_二木市臧은 목포상업회외소 의원을 역임하였다.

20_土肥庄作은 잡화점을 운영하였으며, 목포상업회외소 의원을 역임하였다.

21_守田千助는 목포 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대지주이다. 목포 거류민 자치위원, 목포 상업회외소 의원을 역임하였다.

22_長浦福市는 목포상업회외소 의원이다. 선구업을 운영하였다.

23_衛藤對漿은 미곡상이다. 목포에 정착하여 토지를 축적, 대지주로 행세하였다.

소두	原口庄次郎	〃	西野六穰 ²⁴
소두	岡田松三郎	〃	丸岡佐次郎 ²⁵
소두	小松五郎	〃	辻川國十郎
제3부장	橫田壹代市	〃	佐藤秋穰
소두	中山孫市	〃	奈良次郎 ²⁶
소두	米蒸鹿臧	〃	大石仙太郎 ²⁷
소두	鄭汝玉	〃	久保田音平
소두	崔文端	소두	姜成奎

1910년 1월 4일 거행되는 소방 출초식을 겸하여 신 조직을 이룬 목포소방조의 발회식은 1월 24일 목포 이사청 아래 광장에서 거행하였다.

당일 아침 일찍 마쓰이(松井) 경찰서장 지휘하에 각 간부, 소방수 등은 새로 맞춘 제복을 착용하고 씩씩하게 각 부의 마토이(에도시대에 시민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소방대의 깃발)²⁸를 선두로 완용펌프 5대를 정돈하여 출동하였다. 이어서 소방기구의 점검, 방수 연습, 서장의 강령 훈시 등이 있었고, 씩씩하게 시가행진 이후에 다시 광장에 모여 일동은 축배를 들고 산회했다.

24_西野六穰은 목포상업회의소 회원이다. 잡화점을 경영하였다.

25_丸岡佐次郎은 목포상업회의소 의원을 역임하였다. 거류민 자치위원을 지냈다.

26_奈良次郎은 목포학교조합의원, 목포무진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목포 주조전증 회사를 운영하였다.

27_大石仙太郎은 國武農場 대표이자 대지주이다.

28_마토이는 에도시대에 사용하는 소방대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처음에는 다이묘들이 구형한 다이묘 비계시에서만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일반 상인들로 구성된 마찌 비계시에서도 마토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제4장_목포소방조 정비

1. 황금시대

1910년 1월 24일, 조직 변경 이후로 목포소방조는 마쓰이(松井) 경찰서장의 노력과 아소 사쿠오(麻生) 상담역 이하 간부들의 노력으로 차츰 개선되고, 그 내용은 충실하게 정비되었다. 목포소방조는 전 조선에서 모범 소방조로 추천되어 칭송을 받기에 이르렀다. 목포소방조의 정비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부산일보』에 게재되었던 「목포 명물의 소방-조선 제1의 정돈 모습」이라는 기사를 다음에 적어 본다.

목포의 명물 소방조 조선 제1의 정돈 모습

(『부산일보』 게재)

목포소방조는 조직이 자못 정돈의 열매를 보이며, 모범적인 사례로 각지에서 관심을 받아 왔다. 하물며 경성 같은 대도시에서도 조직 구성을 배우기 위해 찾아올 정도이며, 각지로부터의 문의도 적지 않았다고 듣고 있다. 목포는 최근 3개년 동안 유일하게 1회의 작은 불이 발생한 것 이외에는 한 번도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가지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길래 화재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목포소방조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불만 끄는 것을 소방 임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소방조의 활동에는 이상과 포부와 특색이 있다. 목포소방조는 목포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소방조의 체면을 훼손하는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하는 것이 소방조의 본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소방수의 예의 범절을 다듬어서 사회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도 소방조 활동의 목적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하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여러 지역에 참고로 제공하는 것도 헛된 수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소방 조직과 연혁

목포소방조는 개항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치되었으며, 각국거류지회의 사업으로 민단의 전신(前身)인 일본인회로부터 약간의 경비 지원을 받아 유지해 왔다. 그 무렵 소방조는 매우 불완전하였기에 불을 끄는 소방의 업무는 각 집꾼들에 부탁하고 수당도 거의 없이 집꾼들은 호의상 일을 떠맡았으며 규율도 절제도 없었다. 소방수로서 사명감도 없이 말하자면 겨우 외관만 갖춘 채 가까스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후 와카마쓰(若松) 영사,²⁹ 나카오지 마사오(中大路正雄) 이사관³⁰ 시대에 변화를 시도해 보았는데 아직은 미흡하였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는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소방조 개선의 새로운 계기는 1909년이었는데 이사청령으로 '소방조 규칙'이 발표되었고 각국거류지회 경영이었던 것을 민단 사무실의 경영으로 이관하였다.

전쟁으로 말한다면 병참부의 일을 민단에서 떠맡아 책임을 지고, 경찰서에서 소방수를 지휘하고 전투에 활동하는 구조가 되었다. 1910

29_와카마쓰(若松)는 1869년 1월 17일 오이타현(大分縣) 출신으로 동경제국대학 정치학과에서 수학하였다. 1896년 2월 외교관 및 영사관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896년 3월 영사관보에 임명되어 경성에서 근무하였다. 1902년 5월 10일 목포 근무를 명받아 목포 이사청 이사관이 되었다.

30_나카오지 마사오(中大路正雄)는 1907년 6월 23일에 목포 이사관에 부임하여 1909년 4월 25일 청진으로 전입되었다.

년에는 목포 지역에 상수도가 완성되면서 이상적으로 한 걸음 진보하게 되었다. 현 경찰서장인 마쓰이(松井) 경시(일제강점기에 둔 경찰 계급으로, 지금의 총경 계급)는 부임 이후, 소방에 중점을 두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이상적인 결과, 모범적인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기자는 1일, 마쓰이 경시, 다카네(高根) 민단장을 방문하여 그 의견을 여쭙어 보았다.

마쓰이(松井) 서장의 이상(理想)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소방의 일은 짐꾼이나 노가다꾼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여 소방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은 큰 잘못이다. 소방수는 일개의 당당한 공직으로 결코 업신여길 만한 일은 아니다. 내지(内地: 일본)에서는 근래 차츰차츰 이것을 공직화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독일 같은 나라는 군대처럼 소방조를 황제가 친히 통솔하고 있으며, 가장 명예로운 공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소방기관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짐꾼이나 노가다 등 중류 이하의 노동자에게만 일임해 두어야 할 일은 아니다. 그 조장이나 부조장에는 좋은 평판이 있는 유력가를 추천하고, 소방수가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관념을 인민에게 심어 주어 사회가 소방조를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소방조라고 하면 단순히 화재 현장에 달려가서 물을 뿌리는 정도의 사람으로만 생각되었는데, 소방기관은 그런 단순한 의미의 기관이 아니다.

소방기관의 업무 중 우선 첫 번째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는 데 소방기관을 보람 있게 활용하며, 부민 일반을 여기에 따르게 하여 주의를 하면 화재는 절대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완전한 진압기구와 소방 장비를 설치하고 많은 경비

를 투자하여도 소방의 임무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오히려 육창십국(六菴十菊: 창포는 5월 5일, 국화는 9월 9일)이 제 명절인데, 5월 6일과 9월 10일은 그 다음 날이므로 기회를 잃었다는 비유)의 경우가 될 것이다.

나의 주장으로는 소방조를 사회 개량의 첨병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소방수로 하여금 일종의 '소방 기질'이라고도 하여야 할 기풍을 만들어 그들 동료들 그만두게 하는 도박, 고주망태, 싸움 등의 나쁜 풍습을 교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목포에는 150명의 소방수가 있는데 그들의 직업은 짐꾼, 노가다, 목수, 미장이, 큰톱장이, 기타 각종 장인들이며 그들은 대체적으로 중류 이하의 사람이다. 이 150명의 사람을 수준 높게 교정할 수 있다면 경찰 사고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목포 사회는 개량되어 많은 효과를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의 소방기관 운영에 대한 이상은 첫째, 화재에 즈음하여 활동하고 둘째,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뜻밖의 재해가 없도록 하는 것, 셋째, 다시금 이것을 이용하여 사회 개량의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는 목포소방조를 지휘하고 있다. 다음의 소방가를 부르는 것도 그들의 기풍을 북돋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조원들이 평소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도 유행가 등을 부르는 대신에 소방가는 당연히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목포소방조의 노래

(一)

수천만의 보물이라도

수많은 생명이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재가 된다.
땡~ 하고 치기 시작하는 종소리
재빨리 갈아입은 화재 복장
매우 빨리 달려서 날아서 간다
돌리자마자 바로 펌프의 모래 연기
화재는 우리들의 적이로다.

(二)

담당 구역으로 마음을 합하여
이 명령 이것에 따라서
끄지 않으면 안 될 혼(魂)은
호스 앞의 물기둥
바람이 가세하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비조(飛鳥: 날세게 나는 새) 같은 대나무사다리
급소를 찌르는 연구(鷹口: 솔부리 같은 창 도구) 휘두르는 손도끼
드러나는 숨씨 지금이다 보아라.

(三)

배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몸은
불꽃과 연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보자마자 표지(標識)는 한가운데로
움직이지 않고 우뚝 솟아서³¹

31_3장에서는 소방훈련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표지는 방수를 하기 위한 목표물의 표시를 의미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날뛰는 불길도
멋지게 꺼 버렸다 진화하였다.
우리들의 명예는 더욱더 높고
우리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조직 현황

다카네(高根) 민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본년도 민단의 소방비는 4,421원으로 그중에서 2,771원을 민단에서 지출, 1,650원이 각 지방 거류지회의 보조액이었다.³² 이것을 상설야경소방비, 조장 이하 소방수 연수당, 화재출장수당, 조위회비, 연습수당, 피복비 등의 여러 과목에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경비는 민단 세출경상부 33,426원의 1割 3分에 해당된다.

또한 후지노(藤野) 회계역의 설명에 의하면 소방기계는 종래의 펌프 2대 외에 수도, 방수전 응용에 대한 기구 일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작년 18구장들의 주장에 의하여 계(契)를 만들어 이 겐돈 1,800원으로 소화 전용 수도관 및 포 호스 등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소방 장비를 시내 주요 구역 10개소에 설치하였다.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소방수가 올 때까지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불을 끄게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기에 비상시에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방수 숫자는 총 144명으로 내지인이 103명, 조선인 31명이다. 조선인은 1910년 합병 무렵, 무안감리의 노력으로 펌프 1대를 구입하여 조선인 노동조(勞動組)를 소

32_1915년 조선총독부 소방조 규칙이 발표되면서 소방조에 대한 운영비는 府面에서 담당하였다. 이전까지 소방조 운영비는 각 지역 거류민회나 일본인회에서 지원하였다.

방수로 하였다. 합병 이후 도시 지역은 내선인(內鮮人: 일본과 조선인)의 잡거지(雜居地: 여러 사람이 섞여 사는 곳)로 바뀌었으며 편의상 조선인 소방조는 거류지 소방조에 합병되었던 것이다.³³ 그리고 위의 144명은 3부로 나누어 제1, 제2부는 거류지 방면에서 조직하고 각 부에 소두 4명에 그중 한 명을 부장으로 하였다. 조선 마을 방면에서는 내선인 합병의 제3부를 조직하여 내지인 소두 3명을 두며, 그중에서 한 명을 부장으로 하는 외에 조선인 소두 3명을 특별히 두어서 부원을 통솔하였다.

역원(役員)은 상류 신사

목포소방조는 기존의 3부로 구성하고 간부는 조장, 부조장 각 1명, 상담역 2명, 18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모두 목포 일류의 신사(紳士: 유력자들이나 교양 있는 재산가)들이 모인 것이다. 전국 각지의 소방조에는 목수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라든가 청부업의 우두머리 등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조장을 명하였다. 화재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시중의 신사(紳士)³⁴라든가 재산가라든가,³⁵ 그 지방의 상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목포의 소방조는 우선 이런 사람들로부터 면목을 달리하고 있다.

33_소방조는 크게 일본인 소방조, 조선인 소방조, 조일공동소방조로 나뉘어진다. 목포소방조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혼거가 이루어진 탓에 조일공동소방조로 구성되었다. 군산소방, 광주소방조는 1930년대까지 일본인만으로 소방조를 운영한 광주소방조, 군산소방조와는 차별성이 있다.

34_신사(紳士)는 재산이 많은 지역의 유력자라든가 지역의 영향력 있는 거주자를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35_여기서 '화재와 가장 이해가 많다'라는 의미는 화재로 인하여 정미소, 면화공장, 제조공장 등이 소실되는데, 이러한 공장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실업가나 자산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목포의 조장은 후쿠다 유조(福田有造) 씨이다. 후쿠다 씨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목포 제1류의 자산가로 명망가이며, 전 시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사이다. 다음으로 부조장은 수입무역상으로서 좋은 평판과 기세가 왕성한 마쓰이 유지로(松井昌次郎) 씨, 상담역의 마쓰마에(松前)·아소(麻生) 두 사람은 민단, 회의소 등의 의원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류 기대주, 그리고 18명의 위원은 모두 다 시내 18구장(區長)³⁶의 겸임이다. 일일이 존함을 소개하지 않아도 이들이 시중 유수의 유력가인 점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들 신사가 소방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화재, 연습 시에 정복을 착용하고, 소방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한다는 것은 부민들에게 소방의 중요성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소방수 자신들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포소방조의 좋은 평판은 우선 이 점에 그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재 예방 방법

화재 발생에 소방조가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목포는 화재 예방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화재 예방은 주로 경찰의 업무로 취급되지만 18구장회가 협동하여 화재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을 밝히는 램프의 기름통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규 전입자가 거주신청서를 지참하고 왔을 때 접수처의 담당자는 램프의 사용을 질문한다.

첫 번째, 유리 제품의 사용자에게는 조언하여 금속제로 바꾸도록

36_개항 이후 목포부에서는 점차 인구가 늘어 가면서 18구역으로 목포의 거주지를 설정하였으며, 여기의 책임자를 區長이라고 하였다.

한다.

두 번째, 램프의 매다는 위치를 조사한다. 만약 천장에 가까운 위험한 장소에 램프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적당한 위치로 변경시킨다.

세 번째, 아궁이의 구조, 욕실, 고타쓰(일본식 난로), 온돌 설비의 좋고 나쁨을 조사하여 만약 불완전한 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수리를 명하고 개량시킨다.

네 번째, 연돌(煙突: 굴뚝)은 평소에는 청소 방법에 주의하는 한편, 6월, 12월 2회에 걸쳐 상세히 검사를 한다. 만일의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을 취급하는 장소, 화기가 있는 장소는 경찰서 및 각 구장들이 빈틈없는 경계를 한다. 이러한 것은 매월 호구조사 때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설명하는 상비소방수도 이용하고 있다.

상설야경소방수

경찰서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에 맞추어 상설야경소방수의 활동은 화재 예방에 효과가 많고 도난 방지의 역할도 맡고 있다. 야경소방수는 정원 4명으로 이들의 수당은 각 2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야경소방수의 도입 이래 이들에 의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건이 11회 있다. 만약 이 야경소방수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목포 사람들은 입었을까?

시내 지리 연구

경찰서에서는 소방수를 소집하여 훈련하는 일이 종종 있다. 훈련은 5명, 10명씩을 교대로 소집하여 시내의 지리 연구를 시키고 있다. 또한 수도방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땅을 파서 만든 우물의 설치(저수

조) 위치 등도 숙지한다. 준비한 가옥과 처마의 염매(鹽梅: 처마에 매달린 소금에 절인 매화 즉, 처마 나무의 가연물을 의미한다.)라든가 좁은 골목의 방향, 소화용 수로의 위치를 상세하게 조사한다. 비상시에는 이 방면에서 호스를 통과시키는 것이 편리하다든지, 그 방면에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든지 하는 지리적으로 현장 연구를 시켜 두는 것이다. 평상시에 이러한 화재 위험성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비상시에 있어서는 얼마나 효과가 많은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수도와 방화우물

목포 시내를 구경하면 도로 사거리에 2칸(3.6m) 4방이나 되는 커다란 우물에 나무로 조립한 큰 덩개가 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수도 완성 전에 설치된 방화용 우물로 수질은 별로이나 수량이 많아서 수도가 사용되는 지금도 방화전 호스 이외에 펌프로 이 우물을 이용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살수차(撒水車)로 도로에 뿌리는 일에도 사용하여 보건의생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상수도의 수원지는 세 곳의 저수지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식수로는 1리(一里: 3.93km) 앞에 있는 용연(龍淵)이라는 저수지이다. 목포 시가의 배후 유달산 중턱에 있는 옥지(玉池)라는 곳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소방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수되어 있다.

비상시에 전화를 걸면 이 물은 5분을 기다리지 않고 나오는데, 실로 160척이라는 강한 압력을 갖고 있으며 이 압력의 위력으로 방수하면 보통 가옥을 날려 버릴 정도이다. 따라서 목포가 3층 4층의 대층고루(大層高樓: 어마하게 높은 건축물)가 준비한 대도시가 되어도 화재에 대한 대응에서는 지극히 안심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도 철관이 4인치라고 하면 소방에는 4인치의 호스를 한 개 사용하든지 2인치의 호스를 두 개 사용하든지, 그 이상의 것은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목포 수도의 철관은 멀지 않아 두꺼운 것으로 교환될 것이므로 이 방화 목적의 수도가 특색을 발휘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연습의 향상

소방수들의 훈련은 대단히 좋은 결과를 보여, 화재 현장에 임하여 조급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바람은 한층 더 군대적으로 교련을 실시하고,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사를 초빙하여 철저한 연습을 쌓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

소방수 직업별

소방수들의 업종으로는 이전에는 짐꾼을 하던 사람들만을 채용했던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1910년의 대쇄신³⁷으로 인하여 소방수의 직업은 짐꾼은 물론, 기타 목수, 미장이, 큰톱장이, 대장장이, 다다미 만드는 직업 등 각종 업자를 망라했다. 다양한 직종의 소방수들은 현장 활동에 있어서 뛰어난 활약을 하였다. 화재 시에 인접 가옥을 헐어야 할 경우에는 짐꾼보다도 목수가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지붕이라든지 벽에 대해서는 목수보다 미장이가 편리하다. 중량물의 운반 등에 대해서는 짐꾼이 적임자이듯이 적재적소에 직업상의 특징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언뜻 생각하면 어려운

37_1910년 이사청령 목포소방조 규칙이 발포되고, 마쓰이 서장이 새롭게 목포공설소방조로 개편한 시기를 목포소방조의 대 쇄신이라고 한다.

얘기지만, 들어 보면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소방수의 풍기 개량

소방수의 풍기 개량에 대해서는 마쓰이(松井) 서장의 담화로 이미 소개하였다. 마쓰이 서장은 소방수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방수의 풍기 개량도 중요하다는 지론이었다.

소방수라고 하면 대개 중류층 이하의 장정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목포소방조원 150명의 풍기 태도는 목포 전반의 풍기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싸움, 말다툼, 고주망태, 도박, 기타 경찰 사고와 같은 것도 소방조원끼리 많이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간부들은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너무 풍기가 문란한 자는 소방수의 임명장을 몰수하여 면직함으로써 사회적 재제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뇌리에 소방수는 결코 나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의식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기에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이루었다.

어느 밤 한 명의 취한이 경찰서에 구인되어 왔다. 자세히 보니 소방조원인 모씨였다. 담당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네는 혹시 목포소방조원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이런 꼬락서니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라고 말했더니,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하여 담당자를 향하여 싸울 듯이 덤빌 기세를 보이던 그도 ‘소방조원이 아닌가’라는 한마디에 홀연히 술에 깬 듯 황송하게 여기며 물러난 일이 있다.

또 모씨는 도박으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풍문으로 소방수 직함을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 앞에 그들도 처음에는 태연한 척하였지만, 시일이 경과하면서 소방 연습이라든가 기타 소방조

행사에 얼굴을 내밀 수 없었다. 확실히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명예를 손상당한 소방수들은 근래에 크게 개전(改悛)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다.

소방조 간부들은 실수를 저지른 소방수들도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소방수의 복직을 허락해 주기도 하였다.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소방수들의 풍기를 단속하면서부터 소방수들은 상당히 양전해지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방수의 풍기 개량의 일은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최근에는 범죄 사고도 확실하게 감소하였다.

휘장 패용(佩用)

변화를 도모하고 일반인들과 소방수를 즉시 판명할 수 있게 휘장(배지)을 만들어서 공적인 행사 등에 패용하도록 하였다. 휘장은 길이 한 치, 너비 8부의 금화 형태로 주위는 호스로 감고 가운데에는 연구를 좌우로 교차하여 넣은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효과가 많아서 소방 기질을 발휘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명사 강연

소방수들은 자기의 행동을 경건하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자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명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데, 이것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소방수들의 소방 기질을 고양시키는 노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공로자 표창

공로자 표창의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금년 출초식에 제1회 공로

자 표창식을 거행하였다. 근속 10년, 7년, 5년의 3종으로 나누어 민음이 가고 성실한 사람들을 선발하였는데, 그 수가 30명에 달하였다. 표창의 방법으로는 시계를 주기로 하였다. 시계는 뚜껑에 소방 호스와 연구를 도안하여 안쪽에 표창의 글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표창은 그들이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것으로 오랫동안 무례하지 않고 근속한 사람에게 이 정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방조 개량의 효과

이처럼 목포소방조는 수많은 미담과 미풍을 발휘하고 의용소방조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발전하고 있다. 수도의 완성과 어울려서 화재보험율은 2년 전에 이미 2회까지 감소되었다. 이 감소된 보험료는 시내의 주된 것만을 어림으로 계산하여도 틀림없이 연간 1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때문에 민단의 소방 경비 4천 원을 공제하면 목포 사람은 보험료만 해마다 6천 원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화재 예방으로 얻는 이익은 물론 예외다. 이와 같이 소방조의 활동 또한 목포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간부의 교체

목포소방조는 1910년 설립 이후 서장인 마쓰이(松井) 경시를 비롯하여 조 간부들의 노력 덕분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조선 전체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탄탄한 소방조가 되었다. 또한 모범 소방조로 인정을 받아 소방조의 황금시대를 구가하였는데, 이 후 몇 년은 그 영향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경과했다. 1917년 3월 조장으로 목포소방조를 위하

여 진력하던 후쿠다 유조(福田有造) 씨가 돌연히 병으로 돌아가시고 부조장 마쓰이 유지로(松井昌次郎) 씨 역시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퇴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을 물색한 결과, 후쿠다(福田) 조장이 병약하였기에 사실상 그를 대신하여 조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상담역의 아소 사쿠오(麻生作男) 씨를 조장에, 야마모토 신타로(山本幸太郎)³⁸ 씨를 부조장에 추천하여 1917년 4월 9일 취임하였다.

3. 가솔린펌프 설비

목포소방조에서는 1910년 소방조 설립 당시 구입한 완용펌프 3대 외에는 소방 장비라고 내세울 만한 장비는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시가지의 팽창,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화재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 간부들은 회의 결과 소방 장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각 단체에 설명하였다.

1919년 4월, 마침내 하시모토 도요타로(橋本豊太郎)³⁹ 부윤(府尹), 무라카미 나오스케(村上直助)⁴⁰ 씨 등의 주도로 3,800원을 가지고 가솔린펌프 1대 및 그 장비 일체를 구입, 설치하여 소방조의 면목을 일신할 수 있었다. 그 후 수년 동안은 이 최신 장비의 사용으로 세인의

38_목포학교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39_하시모토 도요타로(橋本豊太郎)는 1868년 2월 3일 나가타현 출신으로 외무성 서기관으로 경성 영사관에 주재하였다. 1906년에는 통감부 이사청으로 옮겨 1907년 성진 이사청 청진지청에 근무하였다. 1919년 10월 인천 이사청 부이관에서 목포부 초대 부윤으로 전임되었다.

40_무라카미 나오스케(村上直助)는 아마구치현 출신으로 1896년 목포로 건너왔다. 전라남도 의원 및 목포상업회의소 회두를 역임하였으며, 조선연초주식회사 이사역과 목포전등 이사역을 역임하였다.

주목을 받을 정도의 큰불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1922년 말, 화재사고가 빈발하여 부민은 불안해하였고 그 결과 1925, 26년의 소방조 대쇄신의 기운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5장_소방조의 일대 쇄신

1. 자동차펌프 구입

1924년 12월, 목포소방조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목포의 발전을 고려하여 그 조직과 설비상으로 크게 쇄신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따라서 목포소방조 간부들이 수차례 협의 결과, 우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좋은 소방 장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번 빈번하게 논의되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던 자동차펌프 구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비는 부내 유지의 기부금을 받기로 하여 다음 해인 1925년 3월, 다음과 같이 의뢰장(依賴狀)을 부내 유지에게 보냈던 것이다.

삼가 아뢰니다.

날마다 건승하심을 경하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당 소방조 화재 진압 장비의 부실함은 조선을 통털어 그 유례를 볼 수 없으며 만약에 큰불이라도 일어나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화재로 유소(類燒: 남의 집에서 난 불로 인하여 자기 집이 타는 것)를 보지 않은 것은 하늘의

도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자동차펌프 1대를 구입하여 조원 일동이 힘써 의용소방의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그만 둘 각오를 하겠습니다.

현재 府의 재정으로는 이것을 구입할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들 소방조원 일동은 이것을 도저히 묵시(默視)할 수 없어서 여기에 부윤·서장의 양해를 얻어서 모든 기업 및 유지 여러분의 후원을 구하여 설비를 완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서 저희들의 취지를 승낙해 주실 것과 충분한 후원을 간청합니다. 삼가 아뢰었습니다.

1925년 3월

목포소방 조두 麻生作男

同 부조두 二木市臧

同 제1부장 吉田音松

同 제2부장 岩谷小市

同 제3부장 山田嚴

同 제4부장 車南錫

同 소두 河久保延之進

同 同 福家武見

同 同 川原勝治

同 同 原口庄次郎

同 同 本村松三郎

同 同 宮本伊德

同 同 崔文瑞 외 조원 일동

이 계획을 듣자마자 부민과 유지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찬의를 표

시하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5월 말에 이르러서는 기부금으로 무려 17,743원의 거액이 모금되었다. 우리 소방조는 다음에 열성 있는 부내 유지 여러분의 존함 및 보고서를 기록하여 영원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삼가 아뢰웁니다. 춘양지절에 더욱 건승하심을 경하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소생들이 소방설비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1924년 말 이후 자동차펌프 구입을 위하여 前 府尹, 나카시마(中島) 서장의 양해를 얻어서 유지 여러분의 찬조를 구한바, 다행히도 찬동해 주시고 아래와 같이 기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9일 합계 17,743원을 府에 제공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정성을 다한 호의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 목포소방 조두 麻生作男
- 同 부조두 二木市臧
- 同 제1부장 吉田音松
- 同 제2부장 岩谷小市
- 同 제3부장 山田巖
- 同 제4부장 車南錫
- 同 소두 河久保延之進
- 同 同 福家武見
- 同 同 川原勝治
- 同 同 原口庄次郎
- 同 同 本村好松
- 同 同 岡田松三郎

同 同 宮本伊徳

同 同 崔文瑞 외 조원 일동

목포소방조 자동차펌프 구입 기증자 방명(단위: 원)

금액	기부자	금액	기부자	금액	기부자
867	조선면화주식회사	70	大和勝太郎	이십원	松永良助
535	동척 목포지점	70	伊藤關太郎	同	八木副太郎
500	조선제유주식회사	70	田中源太郎	同	藤田林平
500	남북면업주식회사	70	山下熊次郎	同	川本高政
500	内谷萬平	50	和久田半藏	同	近清又平
433	주식회사조일정미소	50	竹下清七	同	平岡知作
400	조선은행목포지점	50	栗岡民治	同	驅田謙次
350	福田有造	50	立花豊次郎	同	전남소주주식회사
300	森酒井	同	浦岡權太郎	同	二木松次郎
300	무안면작조합	同	呼子直七	同	矢野壓作
300	井上留吉	同	河合 好	同	村田太吉
300	大岡徳太郎	同	松嶋新吉	同	永義和
265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同	立石吉三郎	同	新盛號
250	藤森利兵衛	同	太田孫次郎	同	長生順
250	文在喆	同	都策唯一	同	同盛長
230	조선실업주식회사 목포지점	同	高橋信一	同	鎌田重次郎
220	목포소방조대표 麻生作男	同	福田多一	同	石井五郎吉
200	주식회사삼정오복점	同	三宅三平	同	市木金治郎
200	伴諒輔	同	中村義助	同	下條佳一
200	朝倉忽之助	同	若狹谷齋二	同	목포제염소
200	木下千重治	同	목포 醬油 주식회사	同	森康次郎
200	村上直助	同	松尾今吉	同	李善弘

200	守田千助	同	木山右馬太	同	斐和玉
200	松前義三	同	洪世炳	同	近藤義一
200	松永卯太郎	同	阿部義右衛門	同	參本政治郎
200	松井邑次郎	同	목포식산주식회사	同	大河原龍
200	목포전등주식회사	同	주식회사 旭시장	同	田中信藏
200	山野隴三	同	목포해운주식회사	同	中村利三郎
200	십팔은행 목포지점	同	松村德治郎	同	山本馬太郎
190	조선흥업 목포지점	同	柴田龜松	同	史寅0
150	富永清一	同	大田政右衛門	同	吉賀壽0
150	宮道文吉	同	목포금융창고 주식회사	同	入江辰三
150	中上國次郎	同	沖永榮助	同	大久保德藏
150	八島喜藏	同	島田喜八	同	內山作兵衛
150	谷村近之助	同	辻川德太	십오원	衛藤房太郎
150	渡邊彌太郎	同	岩永永吉	同	保見宗直
150	高嶋梅吉	40	永成仁	同	稻垣新太郎
150	森田泰吉	30	米澤友吉	同	大木守作
150	검전산업 목포지점	同	光田源一	同	濱永正城
130	坂本喜一郎	同	三谷長三郎	同	李敬倫
130	합명회사 국부농장	同	北川俊一	同	蔡平善
120	木ノ下政太郎	同	林 武夫	同	中西九一
120	石川三太郎	同	柴原葉治	同	白在玉
100	彼多野龍介	同	石森武男	同	速水常吉
同	中道清太郎	同	石黒良總	십원	山下判市
同	濱田庄吉	同	朴鐘眞	同	高岡春吉
同	嶋澤岩太郎	同	金容鎭	同	福島佐十
同	吉田音松	同	金命峻	同	松浦龜次郎
同	衛藤對藏	同	新坂忠雄	同	井堀松次郎
同	山内平助	同	小松金次郎	同	三原公人

同	伴忠吉	同	宮奇速雄	同	仁義館
同	丸岡佐次郎	同	清水近造	同	津守精一
同	隈部 親	同	永田萬平	同	山下蓋太郎
同	姬野猶吉	同	金源喜	同	大西卯之助
同	桶口由太郎	同	徐寅燮	同	大要直松
同	二木市藏	同	車南鎮	同	伊賀伊勢吉
同	藤本久之助	同	李祥圭	同	趙文煥
同	宋戶重之	同	松岡 慕	同	竹下重作
同	금강호모공업소	同	平岡義夫	同	橋本平八郎
同	木下治郎吉	同	原口壓次郎	同	中隈八〇
同	奈郎次郎	同	岡田松三郎	同	森タイ
同	목포모진주식회사	同	本村好松	同	朴永根
同	山本 薫	이십오원	大野龜藏	同	鄭基豊
同	高力 勉	同	落合仙太郎	同	八谷喜平
同	金星圭	同	楠井達造	同	吉守命
同	國村松之助	同	石井伸吉	同	申東一
同	스탠다드 석유회사	同	金子嘉吉	同	裴和一
同	덕전양행 목포출장소	同	野老山勝藏	同	衛藤今朝五郎
同	호남은행 목포지점	同	的野和三郎	同	橫山要
同	金商燮	同	林 幹	同	協昌號
80	조선농림합자회사	이십원	川上一治	同	濱田長造
70	森又 市	同	野口小次郎	同	鄭麟來
				同	柳官五
				同	寺山答正
				同	萩野履物店
				同	藤井眞次郎
				오원	三盛樓
				同	池田昌平

				同	藪本源吉
				同	久野茂渚
				삼원	勝山治兵衛

합계금 1만 7천 7백 43원(17,743)

소방조 간부는 다시 협의한 결과, 우선은 위 금액을 일괄하여 목포부에 기부채납하였다. 동년도 예산 경비비, 임시부에 19,143원을 계상하고 그중에 8,500원을 가지고 미국제 시보레, 노잔식 자동차펌프 1대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5,700원으로 경찰서 인접지에 철근콘크리트 외부 인조석인 2층 건물 소방사무소 겸 격납고를 신축했다.

2. 소방 강습 실시

목포소방조에서는 자동차펌프 구입과 함께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롭게 히다카 요시히로(日高義博)·후지타니 에이(藤谷榮)·에지마 도요히로(江島豊寛)·시마모토 도라지(島元寅次)·정우순, 이종수의 6명을 상비소방수로 임명하였다.

여기에 다다(多田) 순사부장을 계장으로 하여 1925년 1월 7일부터 50일간 경성에 출장을 보냈다. 그동안 다다 부장 이하 소방수들은 오구마(小熊) 경성소방서장 등 간부 지도하에 자동차펌프 조작법 일체의 강습을 받고 2월 26일 목포로 돌아왔다. 당시 다다 부장이 이 소방 강습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다음에 게재한다.

“목포상설소방수를 위하여 1월 7일부터 2월 26일에 걸쳐서 50일간 경성

소방서에서 소방 강습이 열려 나도 동참하여 지도를 받은 일은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경성소방서의 소방수와 합숙하며 활동을 배웠는데, 가장 통절하게 느꼈던 점은 소방기구의 완비입니다. 또한 화재 통보를 받자마자 출동 준비는 고작 1분간이며, 즉시 자동차에 분승하여 현장에 도착하면 각각 담당 구역에서 활동하였는데 원기왕성한 동작과 기민함은 탁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지휘관이 명하는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점도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강습 중, 수차례 화재 현장에 출동 견학하였습니다만, 경성에서 화재는 다른 곳과 비교하여 대단히 많았습니다. 일반 서민은 소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돌진하는 빨간 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방 길을 양보합니다. 또한 소방차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다수가 소리 질러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일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경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지켜서 경계선 내에 돌입하는 것과 같은 몰상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소방대의 활동은 자유롭고, 따라서 소화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목포소방수들도 크게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에서도 금번 소방 장비의 완비를 기하는 의미에서 자동차펌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자동차펌프는 노잔식(式)이라고 하여 경성소방서에도 3대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목포와 같은 1분에 6石(1석은 180리터) 170尺 이상이나 방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목포로서 대단히 행복한 일로, 이 우수한 자동차펌프가 화재 현장에서 마음껏 활용된다면 목포도 앞으로 대형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소방수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금번 강습에 오구마 서장 이하의 열심을 쏟은 지도에 충분히 기술

을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만 부민 여러분의 경화사상(警火思想)과 서로 어울려서 목포 경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소방사무소 낙성식과 공로자 표창

목포소방조 간부의 열정적인 활동과 부민 유지의 후원 덕분에 오랜 숙원이었던 자동차펌프 구입도 마침내 실현하였다. 펌프 장비의 격납고 및 소방사무소의 건축도 동시에 착수하여 다음 해인 1926년 3월 공사가 시작되어 3월 15일 신축 낙성식이 격납고에서 거행하였다. 이것과 동시에 목포소방원으로서 오랫동안 경비의 임무를 담당하여 공로가 많은 여러분의 표창식도 병행하여 거행되었다. 지금 당시의 기록을 아래에 게재한다.

격납고 낙성식

목포소방조의 자동차펌프 격납고 낙성식을 겸한 소방조 공로자 표창식은 4월 15일 오전 11시부터 목포경찰서에 인접한 신축 격납고 앞에서 거행되었다. 일동이 착석하자마자 아브라 타니(油谷木浦府) 내무과 주임이 개식사를, 다카하시(高橋神官)⁴¹가 경건한 축사를 올리고, 끝으로 아브라 타니 주임이 다음과 같이 공사보고를 하였다.

41_매우 의미 깊고 감동적인 행사였으니 만치 목포, 신사의 신관이 축사를 올린 듯하다.

공사보고

이전에 우리 부 소방조의 일대 쇠신을 기획할 생각으로 자동차펌프 구입의 의견이 생겼을 때, 부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후원에 의하여 여기에 우수한 자동차펌프를 구입할 수 있었음을 참으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자동차펌프의 격납고 건축 위치에 관하여 신중한 연구 끝에, 경찰서 구내의 일부 관 유지를 차입하여 암석을 잘라내고 땅을 평평하게 하여 대지를 만들어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1925년 11월 24일 청부업자 이시카와 다로(石川太郎) 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25년 11월 25일 장엄한 지진제(地鎮祭) 집행과 더불어 공사를 착수하여 1926년 3월 31일에 준공을 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격납고는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외부 회칠과 인조석, 세출(洗出) 마무리, 지붕은 목지붕, 주위는 빠레트를 붙여서 위층 아랫층 연평수 32평(坪) 5합(合)으로 하고, 공사비는 토공비 1,170원, 건축비 3,613원 50전, 총계비 4,783원 50전을 지불하였습니다.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착오 없이 본 공사의 준공에 이른 것은 여러분의 심심(深甚)한 관심과 원조 덕분은 물론이고 관계 직원의 노력 및 공사 관계자들의 희생적 열정 덕분입니다. 오늘 낙성식을 거행함에 즈음하여 공사의 근황을 보고함과 아울러서 여러분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1926년 4월 15일

부속(府屬) 아브라타니 야스조(油谷保三)

이어서 히시키(飛鋪) 부윤은 자동차펌프 구입을 알리고 펌프 구입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제 목포소방조의 소방시설도 거의 구비되어 이러한 성과가 조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앞으로의 각성도 촉구하였다. 이어서 자동차펌프 구입에 공이 컸던 전 부윤 소가 쇼시로(曾我章四郎) 씨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재임 중 계획이 성취된 기쁨을 얘기하며 낙성을 끝내고 표창식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원 표창식

도지사 대리로 임석한 경찰부 貝보안과장은 지사 표창의 상장을 수여하고 다음과 같은 고사(告辭)를 낭독했다.

지사 고사(告辭)

오늘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목포소방조 공로자의 표창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본관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오늘 표창을 받는 여러분은 멀리는 1910년 소방조 설치부터, 가깝게는 1919년까지 다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10년을 하루 같이 혹은 간부로서 각각 그 직분에 따라서 애쓰시고 그 직무에 매진하였다. 또한 성실하게 내용의 개선 향상 및 설비의 완성에 진력하신 결과 오늘 본 소방조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노고가 참으로 컸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존경쟁이 격심하다. 요즘처럼 이기주의 사상이 농후한 시기에 제군들은 속세의 욕망을 잊고서 의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받들고 있으니 어찌 일반 소방조원의 의지로 이 재난을 막아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영예 있음은 참으로 까닭이 있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조의 활동은 오로지 사회 공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구제하는 것에 임무가 있다. 또한 화재, 재난의 피해는 개인의 생명, 재산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안위와 관련되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소방직에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그 직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평시에도 담력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유사시에 준비를 다해야 한다. 또한 재변(災變)에 직면하여서는 헌신적으로 공공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소방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서민으로 하여금 마음을 안심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현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목포부의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높은 건물이 즐비하여 과거와 비교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소방조의 설비는 아직 미흡하여 부 당국은 이것을 유감스럽게 여겨 이전에 자동차펌프를 구입하고 오늘 새롭게 격납고를 신축하는 등 드디어 설비의 충실함을 본 것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다. 바라건대, 조원 여러분은 직책의 중대함을 생각하고 더욱 분발하여 본 소방조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 줄 것을 당부하며 두서없는 말로 고사(告辭)에 갈음한다.

전라남도지사 從4位勳3等 장헌식

끝으로 히시키(飛鋪) 부윤이 각자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아소(麻生) 조두는 조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연설을 하였다. 축하의 주악이 울리는 동안 식(式)이 마무리되고 이어서 경찰서 옆 광장에 설치된 연회석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각 요정의 기녀들이 술을 권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오후 2시에 산회하였다. 덧붙여서 당일의 표창자는 아래와 같다.

지사에 의한,

금배 1개 조두 麻生作男

금배 1조 부장 吉田音松 소두 原口壓次郎 소두 佐野德藏 소두
崔文瑞

은배 1개 소두 川原勝治 소두 福家茂見 소방수

소방수 中川貞一 高木喜代三 半木次郎 渡邊太西郎

透音松 韓龍伊 渡邊宗太郎 泉喜代八

井上一平 森下新市 山本房太郎 渡邊宗太郎

井上一平 森下新市 山本房太郎 川村又七

山崎榮男 朴元俊 青木喜代郎 泉喜代八

田中慶次郎 本山常作 今村保次 五島長吉

堀新市 竹中才吉 豊永郡太郎

府에 의한,

은배 1개 소방수 金永基 増田文藏 川上勝治 孫永化 下脇矢右
衛門

4. 조직의 개선 新 진용이 되다

목포소방조에서는 그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조직의 일대 쇄신을 계획하여 우선은 설비에 있어서 신에 노잔식(式) 자동차펌프를 구입하고, 여기에 전속 소방수 6명을 경성에 파견하여 소방에 관한 일반 기술을 닦아 터득하도록 하였다.

조직에 있어서도 일대 개선을 거듭 감행하여, 제1부를 자동차펌프

대로 하고 순사 부장을 계장으로 상설소방수 6명을 여기에 배속하고, 종래의 4부는 삼분하여 3부 편성을 하고, 제2부를 가솔린펌프대, 제3·제4를 완용펌프대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다년간 목포소방조를 위하여 진력한 후타키(二木) 부조두, 요시다(吉田)·이와타니(岩谷) 부장 등 간부 및 소방수 중에서 용퇴 희망을 하였으나, 이때까지 여러 종류의 사정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여러 사람의 퇴임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다음과 같이 간부를 임명함과 동시에 퇴임자 71명의 보충으로 부내 청년 중에서 모범적인 인물을 선발하여 소방수로 하고, 여기에 원기 발랄한 신진용(新陣容)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조두 麻生作男

제1부(자동차펌프대) 계장 多田 순사부장 상설소방수 6명

제2부 부장 西川良藏 소두 福家茂見 豊永郡太郎 소방수 20명

제3부 부장 山田 巖 소두 宮本伊徳 又亨圭 소방수 40명

제4부 부장 車南錫 소두 清弘岩彦 金鐘泰 소방수 40명

5. 기념품 증정식과 퇴임자 석별연

목포소방조에 자동차펌프가 도입되면서 조직 교체에 의하여 퇴임하는 조원은 71명에 달한다. 이들은 1910년 1월 소방조 규칙에 의하여 조직된 이후, 17개년을 하루같이 목포소방조를 위하여 노력하신 분들이다. 목포소방조에서는 이들 퇴임자 및 유임자 44명, 기타에 대하여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하고, 증정식은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포 공회당에서 거행되었다.

당일은 소방조원 外 목포 관민의 주요 인사가 다수 열석하고, 정각에 아소(麻生) 조두는 목포소방조의 연혁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후타키(二木) 부조두, 요시다(吉田)·이와타니(岩谷) 부장 기타 여러분이 길게는 30년 이하로부터 십수 년에 걸쳐서 목포 의용소방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적을 칭송하며, 금번 조직 개선에 즈음하여 용퇴하시는 여러분, 기타에 대하여 약간의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는 취지의 인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기념품을 각각 증정했다.

鐵鉢形番外薄瑞床置瓶⁴² 조두 麻生作男

3組 銀盃 盃台, 銚子 부조두 二木市臧

瓶掛, 床置物, 薄瑞 제1부장 吉田音松

同 제2부장 岩谷小市

宣德火鉢 1對 제3부장 山田巖

木盃特製 1組 제4부장 車南錫

瓶掛, 床置 소두 佐野德藏 原口庄次郎 本村好松 岡田松三郎 崔文瑞

宣德火鉢 1對 소두 川原勝治 福家武見

木盃特製 1組 소두 宮本伊徳

宣德火鉢 1對(24호) 소방수 中川眞一 高木喜代三 半木治郎 川久保庭之進 渡邊泰四郎 木造音松 韓龍伊 泉喜代八 井上一平 田中慶四郎 渡邊宗次郎 森下新市 本山常作 山本房太郎 今村保次

42_탁발 그릇 형태의 병으로 탁자에 놓는 것을 말한다.

宣德火鉢 1對(26호) 川村又七 五島長吉 山崎永男 堀新市 朴元
俊 竹中才吉 青木喜代吉 豊永郡太郎 金永
基 孫永化 増田文藏

宣德火鉢 1個 山縣吉右衛門 藤森龜助 田島金三郎 下脇矢右衛門
森川留吉 新ヶ江良次 川上勝治 今村唯夫 井堀仙助
岡田熊吉 中村謙次郎 吉村良造

銀盃 1個 江崎今太郎 山本 悟 大平孫八 津田留作 中原岩太郎
新村重吉 長谷 薫 佐ヶ久木久悟 尾田由太郎 江上一斗
次 北村俊一 推葉龍次 木村彌一 有井才次 奥村彌平
伊藤三四郎 宇佐芳郎 東方五郎 竹村伊平 江口伊六
自石傳次郎 橋口政吉 吉賀留市

木盃 1個 76명(氏 名 畧)

木盃 1組 王江重吉

銚子 中島建三

木盃 1組 名取保太郎

메달 加藤 鑛

그 외에 내빈으로 히시키(飛鋪) 부윤, 나카시마(中島) 서장, 소가(曾我) 전부윤, 아브라타니(油谷) 회두 대리의 축사와 연설이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아소 조두가 소방조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을 하고 식(式)을 마쳤는데, 정오부터 내빈과 조원 일동 이백 수십 명이 동운루(東運樓) 대광장에서 용퇴 조원의 석별연을 열어 오후 3시, 이상 없이 성황리에 폐하였다. 또한 이날 기념품 증정식에 즈음하여 목포 소방조 설립 당시의 목포경찰서장이었던 현 평양부윤 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 씨 및 가미오(神尾) 도경찰부장으로부터 축사 및 전화를 받았다.

6. 소방설비의 충실

자동차펌프 증설

1928년 2월에 들어와서 1일 이후 혹은 연일, 혹은 격일로 20회에 걸친 화재가 있었다. 그 손해는 매우 심하여서 거액에 달하였으며, 때문에 경찰관, 소방조원은 바쁘게 뛰어다녀서 지쳤다. 시민 또한 흥흥하여 불안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심혈을 기울여 소방기관의 완비에 노력하고 있던 나카시마(中島) 서장, 아소(麻生) 조두는 대단히 우려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취하여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일반 부민에 대하여 경화사상을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연돌 조사, 온돌의 개선을 엄격히 지키게 하였다.

한편, 나아가 소방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펌프 증설을 결정하고 3월 중에 2회에 걸쳐서 경찰관, 소방조원 기타 유지를 크게 동원하여 시중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경화사상 선전의 대시위 운동을 하였다. 한편, 자동차펌프 구입에 대해서는 간부를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부민 유지의 원조를 구하기로 하고, 부윤의 양해를 얻어서 3월 중순부터 기부금 모집에 착수하였는데 시기적절하게 그 계획은 대부분의 부민의 찬동을 받는 바가 되어서 금세 12,306원의 거액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의 상태로 소방조에서는 오사카 스스키(鈴木) 상회로부터 돛지, 발브레스 자동차펌프를 구입하고, 잔여 금액으로 호스 기타 소방용구를 구입·비치하였다. 이때부터 도경찰부에서는 목포소방조의 설비가 충실하다고 인정하고 종래 도경찰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돛지식 고급 자동차 1대를 소방수 출동 및 가솔린펌프 견인용으로 양도하여 완전한 소방 장비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의 자동차펌프 증설에 즈음하여 그 계획에 찬조하고 기부를 해 주신 여러분의 성명을 게재하여 경의를 표한다. 때마침 조선소방협회 설립이 있었고 목포부에 할당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필요하여 소방 장비와 함께 이것을 모금하고 아래와 같이 나열하여 보고한다.

일금 12,306원 기부금 총액

일금 166원 37전 은행 예금이자

합계 **금일만이천사백칠십이원삼십칠전(12,472.37)**

—金 칠천일백육십원사십오전	자동차펌프부속품대 협회
—金 이천이백십원	조선소방협회기부
—金 일천이십일원이십전	승용자동차부속품협회 및 임시 격납고 건설비
—金 오백이십구원삼십칠전	조선 각지 자동차펌프 성격 시찰 기타 기부 모집 중 잡비
差리金 일천오백오십일원삼십칠전	호남은행 목포지점에 예금

기부자 방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350	250	100	朝鮮棉花株式會社	70	50	20	菅愼平
250	150	100	金哲鎭	70	50	20	桶口由太郎
250	150	100	內谷萬平	70	50	20	彼多野龍介
250	150	100	日華製油株式會社木浦工	70	50	20	姬野豫吉
230	130	100	朝鮮銀行 木浦支店	70	50	20	二木市藏
220	120	100	南北綿業株式會社	70	50	20	岡村松之助
180	180		東拓木浦支店	70	50	20	藤木久之助
180	150	30	福田有造	70	50	20	丸岡佐次郎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시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시명
150	120	30	朝鮮實業株式會社	60	40	20	內山裕義
150	120	30	森酒井,	50	30	20	衛藤對藏
150	120	30	木浦電燈株式會社	50	30	20	島澤光治
150	120	30	十八銀行 木浦支店	50	30	20	中三國三郎
150	120	30	朝鮮殖産銀行木浦支店	50	50		木下治郎吉
150	120	30	朝鮮興業木浦支店	50	30	20	高橋信一
130	100	30	國務農場	50	30	20	朴鐘眞
130	100	30	兼田産業株式會社	50	30	20	阿部儀右衛門
130	100	30	山野晔三	50	30	20	渡邊彌太郎
130	100	30	藤森利兵衛,	50	30	20	木布日由岬岬소
130	100	30	村上直助,	50	30	20	福田多一
130	100	30	松井邑次郎	50	30	20	太田孫三郎
130	100	30	松前義三	50	30	20	山田又助
130	100	30	朝倉勤之助	50	30	20	矢野壓作
120	90	30	井上留吉	50	30	20	吉田音松
100		100	痲生作男	50	30	20	伴忠吉
100	70	30	松永迎太郎	50	30	20	大和勝太郎
100	70	30	朝日精米精,	50	30	20	森又市
100	70	30	中道清太郎	50	30	20	崎村龜太郎
100	70	30	清木精技	50	30	20	岡村又次郎
100	70	30	木浦無盡株式會社	50	30	20	內良次郎
100	70	30	守田千助	50	30	20	朝鮮農林代表奧平九一
100	100		山內平助	50	30	20	木下政太郎
100	70	30	森田泰吉	50	50		伊勢伴補
100	70	30	半諒輔	50	50		高津福太郎

* 제2차 모금에는 소방 장비 확충과 함께 조선소방협회 설립기금 모금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조선소방협회는 1929년에 발족되면서 각 道에 할당액을 주었는데, 전라남도에 50,382원, 목포에 6,115원이 할당되었다.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100	70	30	高島敏吉	40	30	20	徐寅燮
100	70	30	木下千重治	40	40	-	田中信藏
100	70	39	宮道文吉	40	40	-	二木松次郎
80	60	20	大岡徳太郎	40	40	-	목포해운주식회사
80	60	20	호남은행 목포지점	40	40	-	浦岡權太郎
80	80	-	三中井吳眼店	40	40	-	주식회사 旭시장
80	80	-	坂本喜一郎	40	40	-	新盛號
80	60	20	谷村根之助	40	40	-	松村正助
80	60	20	林 カイト	40	40	-	森誠一
80	60	20	덕전양행 목포지점	40	40	-	三原公人
40	40	-	木浦 醬油株式會社	20	20	-	大島清助
40	40	-	近清又平				松尾仁市
40	40	-	內山作兵衛				橫山要
30	30	-	宮崎速雄				鮮一社
		-	厚地一政				米澤嘉一郎
		-	米澤友吉				安渡治之吉
		-	林幹				沖永榮助
		-	岡田松三郎				東和樓
		-	八木副太郎				山口林藏
		-	八島喜藏				大木守作
		-	直場建三				中城喜之助
		-	竹下清七				일선해운목포출장소 矢田達己
		-	呼子直七				中田孝之介
-	和田楠次郎	平岡知作					
-	市木伊造	林正杓					
-	遠藤 滿	若狹谷齋二					
-	立花豊次郎	森田次郎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30	30	-	林武夫	20	20		石森茂男
		-	桂山蓋之極			中村ままつ	
		-	都策唯一			稻垣新太郎	
		-	立石吉三郎			中西賢五	
		-	原口歴次郎			川上一治	
		-	朝鮮煙草木浦支店 村上直助			西村彦三	
		-	栗岡民治			山本房太郎	
		-	三宅三平			吳相翊	
		-	和久田半藏			崔陽相	
		-	永盛號			光田源一	
		-	조선우편목포출장원 永井元男			朴永根	
		-	中野孫次郎			德盛棧	
		-	동아고무공업주식회사			남일운수주식회사	
		-	목포창고금융주식회사			吉賀壽平	
		-	목포금융조합			針谷末吉	
25	20	-	石薰良總				金命峻
		-	岩男 廣				鶴崎俊治
		-	虎屋旅館				駒田鎌次
		-	未元新太郎				近騰義一
20	20	-	木山石馬太				造田 規
		-	久間吉藏				島田喜八
		-	神坂忠雄				條原又藏
		-	藤田林平				田中原太郎
		-	藤井亦市				隈部 親
		-	濱永正城				清水大陸
		-	大田政右衛門				車南鎮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20	20	-	肅玉山	15	15	-	井堀松次郎
		-	加藤光三			藪本源吉	
		-	伙野柳太郎			全南商會車紋洙外2名	
		-	仁義館			松本倉助	
15	15	-	栗山吉助	10	10	-	石井五郎吉
		入江辰三	安岡 隆				
		金龍文	大西卯之助				
		下條住一	大野龜助				
		永田萬平	松岡募				
		衛藤房次郎	蔡平善				
		尾田由太郎	田邊嘉之助				
		李春培	趙準彩				
		市木金次郎	申東一				
		鈴木金次郎	松島新吉				
		吉川定一	明月樓				
		楠居達造	石森壽				
		野口小次郎	今西克十郎				
		洪世炳	高公立				
		岡田嘉平	鄭基豊				
		津守精一	八谷喜平				
		李儀沅	松尾勝之助				
		三盛樓	栗田政次郎				
		藤井眞次郎	青木 ッグ				
		泉喜平	李斗永				
		金容鎭	金哲津				
		宋華鎭	國村 ルヤ				
		木本浴敏	大西直松				
		橋本平八郎	世木政人				
		柴原葉次	片山繁實				
		村田太吉	協昌號				
松前喜輔	伊賀伊勢吉						
伊藤忠孝	衛藤今朝五郎						
松尾今吉	神崎登						
川本高雅	德順興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15	15	-	柴前龜松	10	10	-	伊藤桑太郎
14	14	-	永和利支店				鄭和景
			孫盛良				鄭仁浩
			文聖興				金斗賢
			永和利				松江和夫
			德記號				青森貞藏
			文繁德				金鐘沢
			德盛興				油野覺太郎
13	13	-	吉田夕カ				仁和樓
12	12	-	落合仙太郎				安成植
10	10	-	方德順				東順詳
			木村光衛				永和昶
			三共倉庫運輸株式會社				水島小一郎
			森末龍治				上坂徳市
			松浦龜次郎	吉守命			
			村上藤吉	同義福			
			森本正治郎	謙順徳			
			金鶴泰	野口垢三郎			
			塚本重郎	山縣正一			
			森 타이	和田正三郎			
			宋昌萬	尾田蘊三			
			竹下京輔	有田眞碧			
			佐藤患司	李敬倫			
			山下判市	金マ支店			
			管田政太郎	흥업상점목포지점			
			濱田壓吉	崔汝章			
			加藤茂久治	井上福三郎			
			干豊蘭	趙斗漢			
			山田梅玉郎	河村西郎			
			森下神市	廣瀬清			
曹鳳順	文斗京						
復増永	竹下重作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총액	소방기금	소방협회	씨명
10	10	-	仁成號	10	10	-	朴正允
			鈴木音三郎				朱萬龍
			大河原龍				長野寅太
			小島義夫	8	8	-	林春月
			濱島田吉	7	7	-	佐藤壓三郎
			河東田教平	5	5	-	德順興志店
			小貫精一				土田彦
			中村好藏				三興德
			鎌田重太郎				任奉安
			山河蓋太郎				鄭有餘
			正田久太郎	5	5	-	土田宗造
			辻正平				尹昌仁
			的野和三郎				卓琮奎
			矢島春茂				金元五
			永昌源	3	3	-	吉田保太
			合興利				原田長太郎
			楠本貞二郎				
			金詳奎				
			石井伸吉				
			牧原盛人				
			西田周一				
			中村利三郎				
			室中正啓				
福島佐十							
金山利太郎							
榊村米太郎							
久野茂渚							
肅玉衛							

7. 목포소방가

목포소방조에서는 1927년 8월, 조원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하여 출동 시 제창할 수 있는 목포소방가를 현상 모집했다. 그런데 마감일인 9월 20일까지 도착한 응모수가 54편에 달하였다. 따라서 목포소방조에서는 히시키(飛鋪) 목포부윤, 나카시마(申島) 경찰서장, 오카다(岡田) 상업학교 교장, 미우라(三浦) 초등학교장, 나카무라(中村) 보통학교장, 요시나가(吉永) 여학교 교감, 야마모토(山本) 목포신보 기자, 가와무라(河村) 오사카 아사히(大阪朝日) 기자 여러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들은 수차례 회합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였다.

그러나 목포소방가로 적당한 작품이 없어 다시금 10월에 재공모하였다. 이번에는 62편 응모했고, 전 위원장 및 아소(麻生) 조두 등 소방사무소와 회합하여 심사한 결과, 1등 2등 3등 및 등의 가작을 선정하여 11월 29일 1등 입선가를 목포소방가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덧붙여서 입선, 사퇴(辭退)의 선외(選外)를 선정하였다.

1등(상금 30원 증정)

목포초등학교 原 三猿郎 군

우리는 계림 남단의

행복과 번영의 항구인

목포를 지키는 소방대

명예 높은 유달산

경종이 울릴 때

높이 오른 마토이(소방대의 조의 표지)가 가는 곳마다

정열적인 마음을 더욱 갖고 있는 사나이의

임무는 중하나 몸은 가볍다
높은 기둥을 태우는 맹렬한 불도
지축을 씻어내는 홍수도
어찌 두려워할 것인가 이 신체
소중히 여겨라 죽음보다 남겨질 이름을
협객의 몸 안에 피는 타오르며
외부는 예절로 온화하다
오 척 장부의 의와 눈물
부민의 본보기로 우리러보지 않겠는가

2등(상금 20원 증정)

함평경찰서 永里常樹 군

우리 목포부를 진압하겠노라고
보아라 솟아오른 유달산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통일하여
세우는 치안의 깃발
미친 듯이 날뛰며 하늘을 태우고
격류가 지축을 씻어낼 때
사명을 존중하고 경방(警防)의
임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되자
들끓는 여름의 염천과
별그림자가 어는 겨울 밤중에
쉬지도 않고 휘어지지 않고
성스러운 노고를 즐기노라
헌신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물어보면 들리지 않는가 의용이로구나 하고
부민을 옹호하기 위하여
원기가 넘치는 다도해

3등(상금 10원 증정)

목포경찰서 多田碧 군

정열의 정성을 하나로
같은 정신으로 모인
우리 목포 시민을 위하여
떨어져도 아깝지 않는 벚꽃
재화가 엄습하는 그때는
사명을 귀히 여기고 몸을 헌신한다
생각하면 소중한 소방의
임무를 맡았기에 명예가 된다
나라의 치안을 지키기 위하여
일치협력하여 활동하니
발광하는 화염은 순식간에
진화의 종소리도 높구나
오호라 조선에 숨겨지지 않은
의용에 불타오르는 의기를 보아라
유달산의 달빛은 맑고
공적이 빛나는 소방기

3등(상금 10원 증정)

전남이로공립보통학교 峰村一則 군

주야 구별이 전혀 없이
위급을 알리는 경보에
이곳이 우리들의 전장이로구나
몸을 던져서 재난에 일어선다
안녕 유지의 큰 노력
도리어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정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금지로서
그 이름도 그리운 소방대
한푼에 몸을 찌르는 엄한도
들끓어 오르는 염열(炎熱)도
정기에 넘치는 사나이가
향하는 곳에 무엇이 있을쏜가
치안의 두 글자를 등에 지고서
봉사의 정성을 가슴에 간직하고서
강화하여 쉬지 않는 우리들의
그 이름도 그리운 소방대

입선 사퇴[選外]

목포경찰서 中島健三 군

의용의 빛 빛나는
마토이(소방대의 조 깃발) 깃발 아래 봉공에
몸과 목숨을 헌신하겠노라
맹세를 굳게 한 이가 백여 명
순식간에 울리는 경중에

평화의 꿈은 깨어지고
아비규환의 수라장
여기야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
연기에 목이 매이며 불에 짓물려
격랑하는 큰 물결에 남자답게 굳세게
함께 힘쓰고 격려하며
사자분신(獅子奮迅: 맹렬한 기세로 분투함)의 활동에
악마의 맹위를 타도하여
유달의 봉우리에 걸쳐 놓는다
중지의 나팔소리 드높아
세운 마토이의 용감함이어

3등(상금 10원 증정)

木浦府廳 神藏昌平 君

사람의 마음의 틈새로 빠지는
불은 요원의 위세를 떨치며
지상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잃게 하고 초토가 되게 하지 않는가
수많은 부민의 생명과
부를 지키려 아침저녁으로
우리 소방대원의
임무는 중하다 유달산
경보 대산(臺上) 삼점종
엔진소리가 높게 울리면
수라의 맹화는 지금 꺼지고

순식간에 돌아오는 평화의 고장
임무를 마치고 명랑하게
세운 마토이의 평안함이여
쉴 틈이 없는 우리의 마음
더욱더 힘쓰자 잠깐의 시간이라도

선외 가작(상금 5원 증정)

木浦府 櫻町 塩本直實 군

일선용화의 열매를 맺어
쌀과 면화에 번창하여 간다
이곳 전남의 개항지
목포의 꽃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소중한 사명을 양어깨에
2만의 부민을 지키겠노라고
의협이 혈 쫓기하여
우리 용맹스러운 소방대
염열이 몸을 태우는 여름날에도
한풍이 피부를 찌르는 겨울의 밤에도
경중이 한 번 난타하면
발광하는 맹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토이가 가는 방향으로
목숨을 울타리로 하여 따라간다
참으로 용맹스러운 이
명예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선외 가작(상금 5원 증정)

木浦府 京町 奥山震一 군

유달의 바람에 옆으로 휘어진
의용의 깃발 그 아래에
모인 용사는 백여 명
추상열일(秋霜烈日)⁴³ 의기는 높고
비상을 알리는 종소리
번개처럼 달리고 달려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용감하게 움직이는 화재의상
몸은 천황과 나라에 헌신하고
마염과 싸워서
일사불란하게 용부의
날마다의 몸짓 그것을 보아라
귀신도 어찌 적일 수 있으랴
혼연(紅蓮)의 불꽃 잠잠해지고
부민의 마음이 평안해짐은
우리들이 힘써 일하는 바이다
가슴에 빛나는 황금색의
휘장의 빛은 더욱 높아라
휘장의 빛은 더욱 높아라
사람들의 본보기로 우러러보지 않겠는가

43_가을에 내리는 찬 서리와 여름의 뜨거운 태양.

제6장_역대 간부와 현재 조원

1910년 1월 1일 목포소방조가 조직되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방조 간부의 이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직 조원 (1928년 3월)

목포소방조 조두 麻生作男

목포소방조 부조두 결 원

제1부 (자동차펌프)

계장 多田巡查部長 日高義博 騰谷 榮 江島豊寛 島元寅次
鄭石順 李宗秀

제2부 부장 吉田良藏

소두 福家武見 豊永郡太郎

소방수 津田留作 作村伊平 屈岩太郎 藤村繁次 東野萬五
郎 宇佐芳郎 青木喜代吉 岡田態吉 河本正市 長谷
川 響 竹下藤作 松熊數睦 東野秀一 中原岩太郎 松
本壓一 山崎榮男 吉木 榮 吉田生駒 酒井國雄 西
原靖人

제3부 부장 山田 巖 소두 宮本伊德 禹亨圭

소방수 江上一頭次 奥村彌平 北川俊一 木村彌一 阿部晴男
濟藤武門 山本增一 上田信輔 福光孫一 野崎彌八
橫田愛造 中野朝一 吉原幸一 藤丸龜次 小佐勘一郎
安永新藏 水野勘一 松田利惠 遠藤金一 山本男一
豊島覺太郎 山本高雅 高岡伯光 金德明 鄭俊永 朴
元俊 金炳圭 徐在錄 車周元 劉誠亨 金基成 金聖

載 河野角太郎 下條知男 山下吾市 白山隆美 重松
昇 永田峰雄 荒谷拙夫 行廣源一

제4부 부장 車南錫 소두 淸弘岩彦 金鍾泰

소망수 向井岩太郎 吉原京一 橋本國太郎 三森英雄 崔有
山 李學俊 金明伍 車貴男 李再鳳 金福圭 朴商辰
任榮吉 李龍辰 金永福 金五振 任光玄 裴晟基 裴
宗文 梁泰順 林錫橫 曹奉玉 張榮洙 柳基俊 金相
龍 崔漢順 朴大根 朴探護 韓種煥 李次鳳 鄭昌夏
金石道 金基澤 梁周奉 徐贊永 李奉吉 鄭範順 金
仁泰 松尾武良 西村實義 田京涉

제7장_기구기계 기타 설비

‘각국거류지목포소방조’ 당시 소방기구는 용토수(龍吐水)⁴⁴ 1대가 있
을 뿐이었는데, 1910년의 쇄신 개혁과 함께 완용펌프 3대와 호스 50
본을 구입하였다. 1910년 5월 수도의 완성과 동시에 다시금 ‘스탠드파
이프’⁴⁵ 격납 호스가 부착된 차 4대 외에 수도방화전 응용 사용 기구
일체를 잘 정돈하였다. 1912년에는 1,800여 원을 투자하여 방화 전용
스탠드파이프 10본, 호스 30본을 새로 조달하였다. 목포소방조는 이

44_용토수(龍吐水)는 구식 소화기의 하나이다. 상자 모양의 물통 속에 밀핌프를 장치하여
물통 속의 물을 뿜어내게 만든 것이다.

45_스탠드파이프는 호스에 쇠를 연결하여 물을 뿜어 올리거나 방수할 수 있도록 만든 완
용펌프에 연결한 장비 형태를 말한다.

것을 시내 주요지 10여 곳에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방수들이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했다. 이어서 1916년, 1918년에는 호스 각 50본을 새로이 구입하였고, 1919년에는 3,800여 원을 들여서 가솔린 펌프 1대 및 그 부속품 일체를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1925년에는 8,500원을 투자하여 시보레 노잔 자동차펌프 1대를 구입, 이어서 1928년 4월 도 경찰부로부터 최신식 돛지 고급 자동차를 양도받아 화재 출동 및 가솔린펌프 견인용으로 비치하였다.⁴⁶ 금번에 더욱더 약 7,600원을 들여 돛지, 발브레스 자동차펌프를 오사카 스즈키(鈴木) 상회로부터 구입했다. 지금 이러한 기구기계의 중복된 것 및 창고, 망루, 저수지, 비상용 우물을 아래에 기록한다.

1. 펌프

자동차 1, 자동차 2, 가솔린펌프 1, 완용펌프 2

2. 사무소 및 창고

사무소 및 자동차 격납고	경찰서 동쪽 인근
제3부 기구 격납고	역전파출소 인근
제4부 기구 격납고	남교동

3. 망루

경찰서 뒷산	철골제
남교동파출소 옆	同

46_돛지 고급 자동차는 자동펌프나 가솔린펌프를 싣거나 장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4. 기타

전(纏)⁴⁷ 3, 기 3, 수관차(水管車)⁴⁸ 4, 용심농차(用心籠車 수레차) 3,
고장제등(高張提燈)⁴⁹ 3.

5. 저수지

저수지는 부내(府內)에 19개소가 있으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대화정(大和町) 목포경찰서 앞 지하
영정(榮町) 松永商店 십자로 지하
행정(幸町) 식산은행 지점 앞 지하
앵정(櫻町) 一ノ谷樓 앞 지하
앵정(櫻町) 萬直誌 앞 지하
대화정(大和町) 井堀商店 앞 십자로 지하
본정(本町) 십팔은행 지점 앞 지하
남교동(南橋洞) 과출소 옆 지하
죽동(竹洞) 시장 앞 지하
상반정(常盤町) 석천제목점 앞 지하
상반정(常盤町) 丸岡상점 옆 지하
무안통(務安通) 법원지청 앞 지하
중정(仲町) 송영주조장 앞 지하
본정(本町) 목포병원 서쪽 모퉁이 지하
본정(本町) 석삼상점 앞 지하
경정(京町) 岡田상점 앞 지하

47_소방대조표지 대나무사다리

48_소방펌프를 실어 나르는 수레차

49_긴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리게 한 초롱

대정정(大正町) 山田과자점 앞 지하

6. 비상용 우물

부내 저수지 외에 비상용 우물은 다음의 10개소에 있으며, 비상시 경우 이것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다.

목포여학교 기숙사 내 1/ 목포소학교 내 1/ 옥산 산기슭(夕麓) 1/ 경정 마쓰나가 약방(松永藥店) 모퉁이 1/ 하정 중야 주점장 1/무안통송 목욕탕 옆 1/ 상반정 土田상점 뒤 1/ 복산정 송정상점 뒤 1/ 앵정 一ノ谷樓 內 1/ 앵정 山陽停 內 1

7. 평소의 준비

가솔린펌프 담당 소방수는 매일 1회 출근하여, 각 펌프 기계 보관창고의 소방 장비를 검사하고 수선할 장비는 수선하여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펌프 담당인 상비소방수 3명은 주야로 소방사무소에 대기하며 화재 발생 통보나 연락을 받았을 경우 순사와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화재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였다.

제8장_소방조 예산

목포소방조 경비는 창설 이래 목포 각국거류지회에서 지출하고 있다. 1910년 1월 신조직으로 변경된 이후 소방조가 목포 거류민단의 관할이 되면서 경비는 민단 예산 중에서 계상하고 각국거류지회는 민단

에 대하여 그 보조금을 지출하였다. 당시(1912)의 거류민단의 소방비 예산을 보면 총계 3,052원으로 그중에서 1,200원은 민단이 지출하고, 1,852원은 각국 거류지회의 보조에 의존하였다. 1914년 4월 부제가 실시되면서 소방조는 다시금 府의 관장하에 속하게 되어 그 경비비 또한 부 예산에 계상하기에 이르렀다. 1916년 이후 목포부 예산 중 경비비⁵⁰의 매년도 액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경상부(원)	임시부(원)
1916년	1,950	150
1917년	2,057	
1918년	3,199	
1919년	2,347	
1920년	3,655	
1921년	3,723	2,246
1922년	3,736	1,666
1923년	3,860	
1924년	4,601	2,381
1925년	6,283	19,143
1926년	6,750	6,750
1927년	6,530	6,530

위에 적은 임시부의 내용을 설명하면, 1916년 호스 구입에 150원, 1921년에 제복 60인분의 새로운 제작에 1,500원, 호스 구입에 360원, 경찰 구내 망루 개축에 386원을 계상하고, 1922년에는 역전 제3부 소방기구 보관소의 개축비로 1,666원을, 1924년도에는 제4부 증설에

50_‘경비비’는 일반적으로 소방조의 예산을 칭하는 용어이다.

동반하여 남교동 소방기구 보관소를 2,382원으로 신축하고, 다음 해 1925년도에는 1,300원을 투자하여 부내 6개소에 비상용 저수지를 설치하고, 나아가 자동차펌프 1대 구입비 8,500원, 차고 및 소방 대기소 신축비 5,700원, 기타 3,043원의 많은 비용으로 그동안 숙원이었던 자동차펌프를 구입할 수 있었다. 1926년에는 4,279원으로 남교동 경종대 신축 저수지 3개소의 설비를 실현하고, 1927년도에는 다시금 1,420원을 계상하여 저수지 6개소를 증설하고 있다. 또한 경상부의 사용처를 보면 1927년도 예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경상부 경비비 6,530원

잡금 5,120원, 내역-소방조원 수당 257원, 상비소방수 수당 3,600원, 기관수 수당 129원, 출장수당 286원, 연습수당 365원 50전, 상비소방수 특별근무수당 64원, 위로금 300원, 상여금 100원, 조위료 10원, 구조료 10원, 퇴직 구조료 10원, 잡비 100원.

수요비 1,110원

내역-비품비 430원, 소모품비 380원, 피복 수선비 50원, 잡비 250원

그리고 조두 이하의 수당액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별	정부 조두	소두	소방수
연수당	15원	3원	2원
화재수당	2원 50전	2원	1원 20전
연습수당	2원	1원 50전	1원

여타 상비소방수에 대해서는 피복을 제공하는 한편 1명의 내지인 55원, 조선인 35원의 월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9장_목포의 소방과 수도(水道)

화재와 수도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목포는 해마다 시가가 팽창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조밀하다. 따라서 소방기관도 더욱더 충실을 기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더불어 수도도 종래의 시설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에 관하여 목포부 수도 당국자에게 찾아가서 그 의견을 구하자, 기타무라(北村) 주임은 즉각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재와 방화용수와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행히 목포는 화재 발생 빈도가 적었고, 특별한 재해도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의 실현, 항구의 발전에 동반하여 가옥은 더욱 즐비하고, 고층 건축물도 차츰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 손해를 예상하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와 생활의 안전을 기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소화용수의 시설 설치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목포부의 최근 호구수는 5,988호, 29,342명에 이른다.(1927년도 말 현재) 이 중에서 수도 급수를 받는 사람은 3,465호, 18,851명이며, 이것에 대하여 현재 축설한 저수지 수량은,

제1수원지 473만 7천 立方尺

제2수원지 16만 4천 立方尺

제2수원지 예비지 8만 8천 立方尺

제3수원지 1,067만 6천 立方尺

예비지(豫備池) 5백 59만 立方尺

합계 2천 125만 5천 입방척이지만, 인구 증가에 비추어 목포부가 인구 5만을 포섭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그중 3만 1천 명이 수도에 의존할 것으로 보고, 하루 일인당 급수량은 3입방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하루 10만 입방척을 급수할 수 있도록, 1927년도 제3수원지의 대확장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1928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약 18만 7천 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송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과 같은 수도시설을 가지고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방수력이 거의 제로라고 할 정도로 소화하기에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여름철 갈수 시는 단수 등의 장애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유사시에 참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부내 각 곳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방화전의 수는 공설 59개소, 사설 20개소, 합계 79개소에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화전의 자연방수력이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펌프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소화전이 자연방수되도록 하는 한편, 연중 단수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원지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송수 철관을 제1수원지의 6인치를 8인치로 제2, 제3수원지의 8인치를 10인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수압이 50 파운드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화재 시에는 소화전이 자연방수되어 충분히 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府) 당국에서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완비를 기하려고 하고 있다. 부내의 소화용 저수지는 기존 7개소에 1925

년에 7개소, 동 15년에 2개소, 1927년에 2개소를 증설하여 현재 18개소에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나아가 약 1만 원의 경비를 가지고 축정(祝町) 거리로부터 마루오카(丸岡) 상점, 마루오카 상점으로부터 미요시노(三吉野) 여관, 그리고 수정(壽町) 거리를 해안까지, 일구획으로 하고 여기에 지하도 수관을 몇 가닥 깔아서 충분히 소화용수를 얻을 수 있는 설비를 이룰 계획이다. 목포부는 소화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출선하여 이것을 실현해 오고 있다. 목포부에서는 소방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소화용수의 증강에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제10장_최근 화재 건수

목포에 최근 5개년간 화재 건수 및 그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도수	소실 가옥	손해
1923년	14	22호	9,456
1924년	8	9	8,766
1925년	13	24	240,324
1926년	12	55	242,480
1927년	25	55	235,784
계	72	165	736,810

一. 1927년 화재표

1월

소화 4, 출동소방수 17명, 손해 23원 50전

- 一, 8월 남교동 군청 아래 방향 요리점
- 一, 21일 남교동 길 소나무 옆 적치장
- 一, 27일 해안통 우치다니(內谷) 면화공장
- 一, 30일 해안통 남북면업 옆 골목길 이동 간이가옥

2월

출동소방수, 손해 870원

- 一, 11일 목포대(木浦台) 無電下棉花購買組合 창고 소실

3월

화재 1, 소화 2, 출동소방수 81, 손해 16,216원

- 一, 5일 앵정 춘일정 연돌
- 一, 10일 본정 히코사카(彦坂) 상점 안쪽 창고
- 一, 31일 죽동 93번지 朴文若 외 6호 전소(화상 1명)

4월

화재 2, 소화 3, 출동소방수 178, 손해 123,170원

- 一, 해안통 조선면화 기관부
- 一, 북교동 206번지 온돌 반소
- 一, 죽동 90번지 윤맹호(尹孟浩) 온돌 반소
- 一, 보정 노인 야마가쓰 구라카타(山勝藏方) 외 전소 6호 반소 2호

一, 복산정 3번지 아부모토 하라키치(籙本原吉) 외 전소 2호

5월

화재 1, 출동소방수 78, 손해 6,000원

一, 27일 昌平町오쿠오카 예지로(奥岡榮次郎) 외 전소 2호

6월

소화 2, 출동소방수 27, 손해 60원

一, 21일 남교동 공지 솔잎 300본

一, 28일 앵정 수산시험장 통조림공장

7월

소화 1, 출동소방수 8, 손해 6,000원

一, 17일 남교동 조일정미소

8월 없음

9월 없음

10월

화재 2, 출동소방수 139명, 손해 51,000원

一, 134일 복산정 2번지 김덕순(金德順) 외 전소 5호 반소 4호

一, 18일 금정 3번지 밭 가리타 린조(刈田林藏) 전소 2호

11월

소화 4, 출동소방수 26, 손해 8,950원

- , 7일 양동 35 김용(金龍) 온돌
- , 11일 남교동 67 천상준(千相準)
- , 16일 대성동 88 홍만리(洪萬里) 온돌
- , 21일 양동 86 김재현(金在鉉) 온돌

12월

화재 2, 소화 6, 출동소방수 328, 손해 37,579원

- , 5일 북교동 공립여자보통학교
- , 13일 앵정 4번지 위 솔잎
- , 17일 영정2 다케시타 세시치(竹下清七) 창고
- , 20일 복산정 야부모토 하라키치(籙本原吉) 변소
- , 21일 이로면 산경리 임덕문(林德文)
- , 28일 본정 2정 스즈키 가쓰기치(鈴木勝喜知) 신축 가옥
- , 28일 북교동 109 솔잎
- , 29일 남교동 김봉순(金奉順) 온돌

一. 최근 주된 화재와 손해액

최근 목포의 주된 화재 및 그 손해액을 나란히 잇대어 적어 보면 개요가 다음과 같다.

- , 1926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 행정(幸町) 1번지 우치다니(内谷) 정미공장 부근에서 출화. 공장, 가네다(兼田)산업, 창고회사, 실업회사 창고 11동 및 여기에 보관 중인 벼 전부를 소실하고 오전 7시 40분 진화했다. 손해는 424,964원에 달하였다.

- 一, 1926년 1월 31일 오전 0시 55분, 고이치 마스쇼고(幸一増昌號)에서 출화. 부근 2戶를 전소, 8戶를 반소하여 동 3시 20분 진화, 손해 38,400원. 같은 날 밤 오전 4시 40분, 다시금 창평정(昌平町) 소네(曾根) 방향으로부터 출화. 부근 4동 13호를 태우고 6시 40분 진화했다. 손해 54,500여 원에 달하였다.
- 一, 1926년 2월 2일 오전 2시 30분, 남교동 양희천 방향으로부터 출화. 3戶를 태우고, 3시 20분 진화, 손해 12,200원
- 一, 1926년 12월 7일 오전 4시 20분, 무안동 6번지 희락관(喜樂館)과 다치마나 도요치로(立花豊次郎) 댁 중간로차(中間路次)부터 발화. 가옥 14, 창고 2, 극장 1개를 전소, 7戶를 반소하였으며, 손해액 103,700원
- 一, 1927년 3월 30일 오전 3시, 죽동 93번지 박문노 댁에서 출화. 2동 6호 전소, 손해액 17,300원
- 一, 1927년 4월 27일 오후 9시 20분, 보정(寶町) 도쿄로산 가쓰조(野老山勝藏) 댁에서 출화. 2동 6호를 태우고 同 1시에 진화, 손해 98,450원에 달한다. 同 부근 일대 상점을 무너뜨려 대 혼잡을 드러냈다.
- 一, 1927년 4월 28일 오전 5시 40분 출화. 손해 22,500원
- 一, 1927년 10월 13일 오전 3시 30분, 복산정(福山町) 2번지 靑田인 채소에서 출화. 5호 全燒, 4호 半燒, 손해 29,600원
- 一, 1927년 12월 5일 오전 1시 40분, 목포공립여자보통학교에 방화가 있었다. 이날 교실 전부를 태우고, 3시 20분 진화되었다. 손해 25,500원. 이날 밤에는 강풍과 소화용수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진화에 대단히 곤란을 느꼈다.
- 一, 1927 12월 29일, 남교동 150번지 김신순(金麟順) 댁에서 출화, 3

戶 소실, 손해 11,440원

一, 1928년 2월 2일 오전 2시, 목포대(木浦台) 3번지 조준채(趙準彩) 댁에서 출화. 가옥 3호, 창고 1동 및 창고에 수용 중이던 조면(縹綿: 목화의 씨를 앗아 틀어 솜을 만듦) 전부를 소실하였다. 손해 26,200원

一, 1928년 2월 7일 오후 11시 30분, 대정정(大正町) 15번지 문채철 소유의 창고에서 출화. 同 창고 및 수용 중인 벼 800석 등 소실, 손해 13,760원

제11장_소방조와 야경

목포소방조의 야경은 1910년 1월 목포소방조의 설립부터이다. 상설소방수 대기소는 목포 다이하타(台畑) 서점 옆, 및 역전파출소에 설치되었다. 야경소방수는 아마가타 기치에몬(山縣吉右衛門)·다지마 긴지로(田島金次郎)·후지모리 기스케(藤森龜助)·에구치구 구마이치(江口熊一) 등 4명을 선발하여 상설소방수로 하였다.

이들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2명씩 교대로 시내를 동서로 2구(區)로 나누어서 시중(市中)을 순라(巡邏)하였다. 이들의 감독은 시내의 수 개소에 순라함을 설치하고, 순회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항상 감시하도록 하였다. 대기소에는 펌프 1대를 준비하여 비상시에 제공하여 화재,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1926년 조직 개선과 동시에 대기소를 소방사무소로 옮기고, 야경은 종전 방식대로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목포소방조의 야경은 개시 이래 20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반 부민의 화난(火難), 도난 방지상으로 도움을 받는 자가 적지 않았다.

야경 개시부터 수년간에 화재, 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항을 당시의 야경일지 가운데에서 채록하여 본다.

연차	화재	도난	계
1910	4	3	7
1911	3	5	8
1912	7	4	11
1913	5	4	9
1914	7	2	9
계	26	18	44

제12장_방화사상 선전과 사업

목포소방조는 일반 부민의 방화사상 고취 선전 및 소방조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주요한 사항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 一, 1920년 7월 소방조 기금 조성을 위하여 발기인이 되어서 계한(けいはん: 경성-오사카) 합동 씨름을 흥행했다.
- 一, 1921년 11월 15, 6 양일 일반 부민들에게 방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키와좌(常磐座: 京都 지방의 극단)에서 영국 런던소방대의 활약을 촬영한 영화를 공개했다.

- 一, 1921년 12월 18일, 방화 선전의 연쇄극을 도키와좌(常磐座)에 공개, 아소(麻生) 조두는 방화와 소방에 대해서 일장의 강연을 하였다.
- 一, 1922년 12월 9일 도키와좌(常磐座)에 소방수 가족 위안을 위하여 메옹우에(女雲右衛)를 초대하여 나니와부시(浪花節)⁵¹의 반주에 맞추어 의리, 인정 등을 주제로 낭창한 대중적인 예능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 一, 1923년 9월 17일 도키와좌(常磐座)에 있어서 방화 선전극을 부민 일반에게 공개했다.
- 一, 1924년 1월 소방수의 품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공회당에 시카타라쿠텐(志方楽天) 씨의 강연회를 개최하여 소방수 전원이 청취하였다.
- 一, 1924년 4월 소방수 가족 위안회를 상반좌에서 개최하여 히로사와 교텐(広澤曉天)의 낭화절(浪花節)을 들었다.
- 一, 1925년 1월 28일 오구마(小熊) 경성소방서장을 초빙하여 초등학교 강당에서 소방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一, 1926년 1월 방화 선전을 위하여 복영회 일행의 소방극을 도키와좌(常磐座)에서 부민에게 공개하였다.
- 一, 1926년 5월 1일 구레 대화재를 당하여 100원을 기증했다.
- 一, 1926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전국소방조두대회에 아소 사쿠오(麻生) 조두가 출석했다.

51_일본 고유의 세 줄이 있는 현악기. 三味線を 반주로, 주로 의리나 인정을 노래한 대중적인 창.

화재 통지

목포경찰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목포우체국 전화교환수가 경찰서, 서장 관사, 소방 조두, 비번 소방수, 가솔린 담당자, 기관수 댁에 화재의 위치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먼저 출동한 상설소방수만으로 화재 진화가 어려울 때는 경종을 울리고 화재 발견자는 전화로 '비상'이라고 말하면 교환수는 즉각 통지하였다.

보집(補輯)

1928년 12월 2일 경성에서 조선소방협회 발회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설립 평의원인 아소(麻生) 조두는 조선소방협회 평의원 및 명예회원의 임명장을 받았다. 다음 해인 1929년 3월 14일 조선소방협회 전라남도 연합지부 발회식이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식에서는 협회장인 아사리(淺利) 경무국장 대신 협회 간사이자 명예회원인 다나카(田中) 경성소방 조두가 임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김도현(金本道) 지사는 아소 목포소방 조두에 대하여 포상 및 삼조대은배(三組大銀杯: 세 쌍의 큰 은잔)를 수여하였다.

표창

목포소방조 조두 아소 사쿠오(麻正作男)

위는 1918년 4월 9일 목포소방 조두에 임명된 이래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노력하고 소방조를 굳건하게 하고 소방 장비 보안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로가 현저하므로 포상 및 은배 1조를 드림.

1929년 3월 14일

조선총독부 전라남도지사

正五位 勳五等 김서규(金瑞圭)

◎ 조두 사직과 임원의 경질

아소 조두는 사표 제출 중이어서 4월 2일자로 수리하고 이날 날짜로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목포소방조 조두 마쓰마에 요시조(松前義三)

목포소방조 부조두 요시다 료조(吉田良藏)

목포소방조 소두 제2부장 미야모토 이도쿠(宮本伊徳)

목포소방조 제3부 소두 에가미 잇토지(江上一斗次)

이리하여 드디어 진용을 새롭게 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목포 부를 위하여 소방조의 참 의미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삼가 아뢰입니다.

본지 발행에 있어서 비용 부족 때문에 보조 광고의 부탁을 드렸을 때 지대한 동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표자 아소 사쿠오(麻生作男)

1933년 10월

광주소방20년사
光州消防二十年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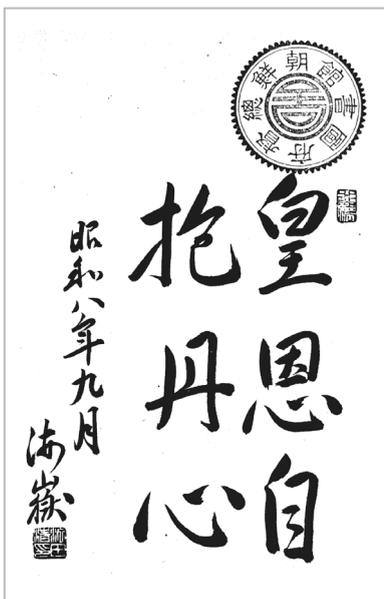
昭和八年十月

光州消防二十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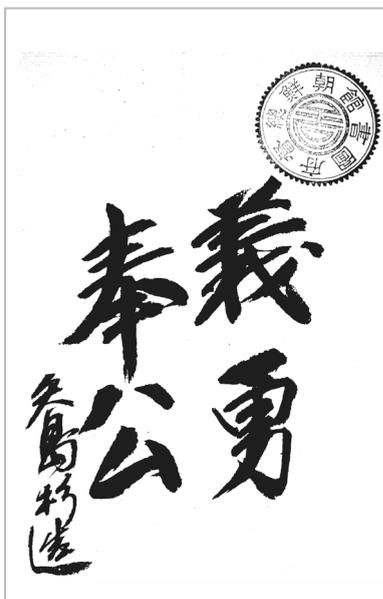
光州消防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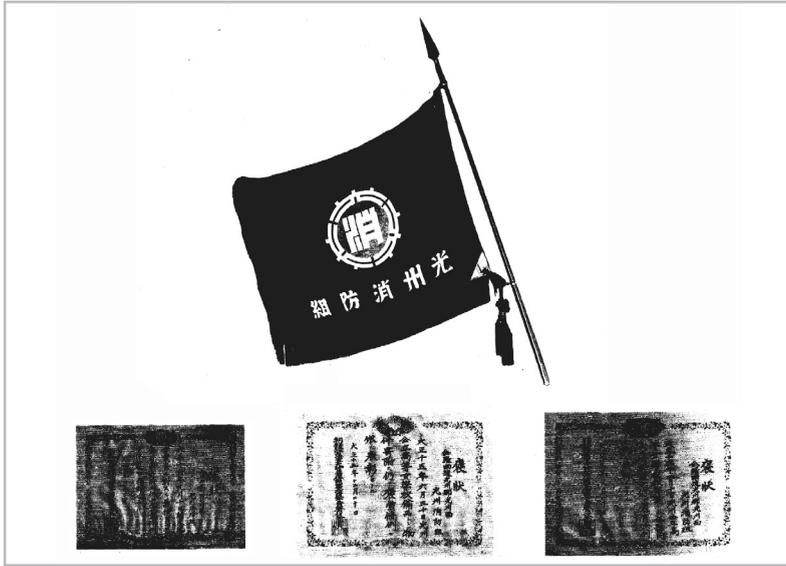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 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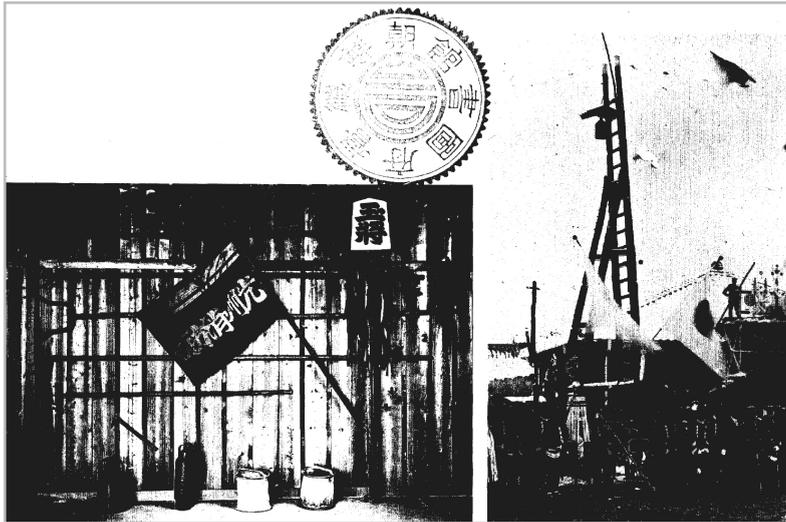
조선경무국장 이케다(池田) 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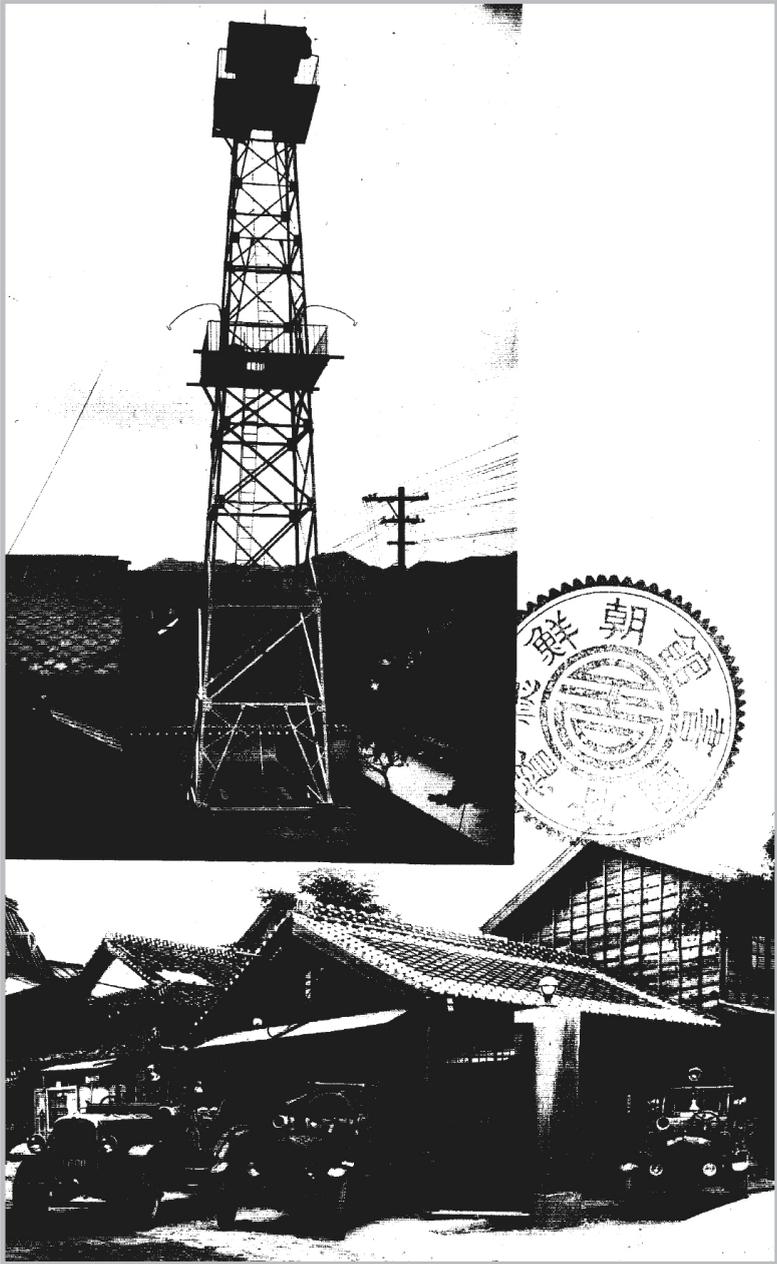
1931년 전남지사였던
야지마 스키조우(矢島杉造) 필체



광주소방조의 조기(組旗)와 포장(褒狀)이다. 1926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 경무 국장 명의



광주소방조 1907년 소방기구 좌
공설소방조로 개편된 1911년 출초식 모습 右



광주소방조의 망루와 격납고 모습



전라남도 장관 에토에이치(江藤英一) 오른쪽 上/ 경무부장 가사데지로(笠貞治郎)
 오른쪽 中 / 광주경찰서장 나카니시 기요요시(中西清吉) 오른쪽 下/전라남도지사
 야지마 시게조(矢島彬造) 왼쪽 上/경찰부장 야규 시게오(柳生繁雄) 왼쪽 中/광주경
 찰서장 가타야마 나미조(片山浪藏) 왼쪽 下/ 전남경찰부 보안과장 가타오카 마코
 쿠로(片岡孫九郎) 가운데 上/ 광주읍장 오쿠무라 노부유시(奥村信吉) 가운데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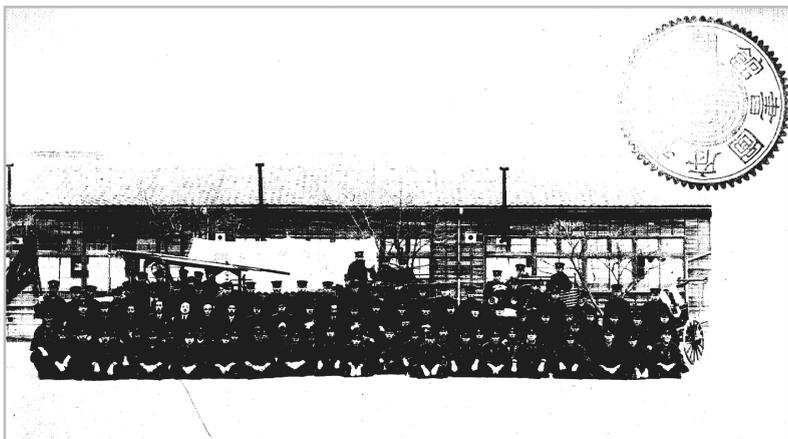
사설소방시대 조장 구타미 한타로(久民半太郎)오른쪽 上
 공설소방조 초대 조장 도쿠다 마코토(徳田 忠) 왼쪽 下
 原조두 시메노 히데이찌(占野幸市) 왼쪽 上
 前조두 마쓰이 리사부로(松井理三郎) 왼쪽 下
 위생소방조합장 겸 조두 마쓰다 도쿠지로(松田徳次郎)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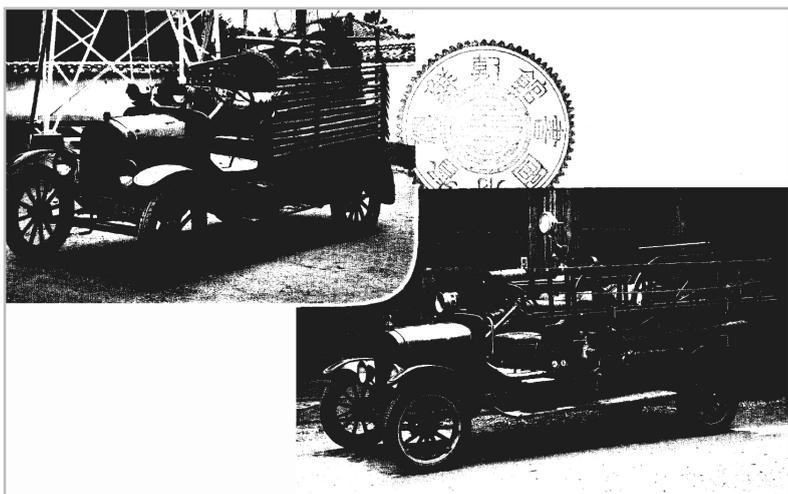
소두 엔조 텐페이(圓城博平) 右/ 소두 가토 마사히로(加藤正洋)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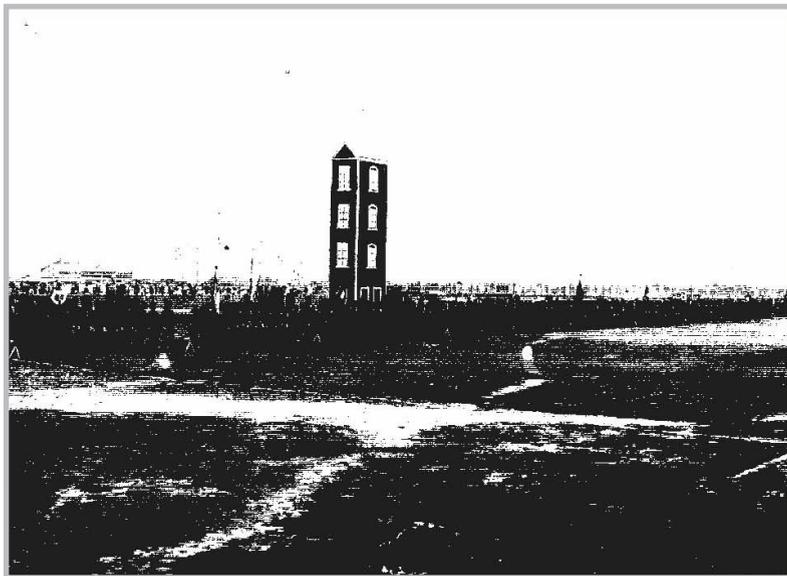
1915년 1월 출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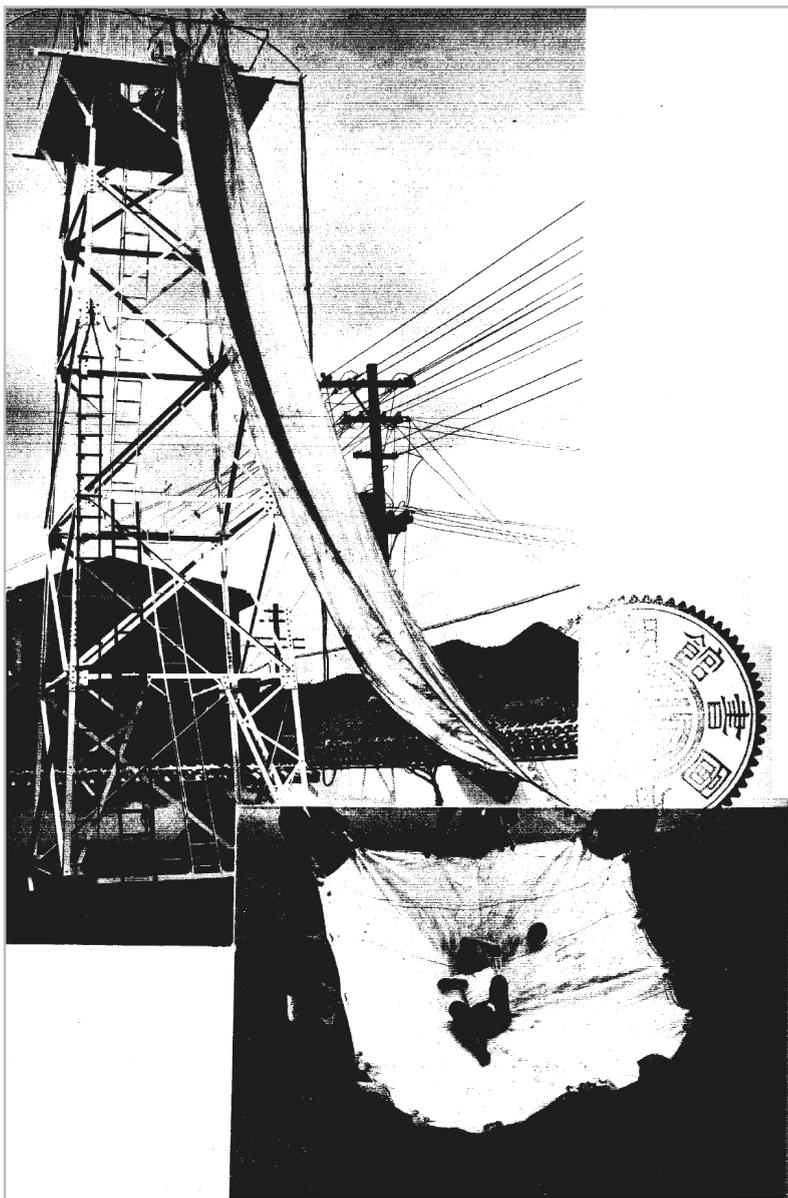
1933년 1월 광주소방조의 출초식



광주소방조가 보유한 490호 수관자동차는 수관20본 및 파괴장비 일체를 운반하였다 左 / 44호 펌프자동차 右



조선소방협회 전남지부 발회식 上 / 전남지부 연합 연습 下



구조대(救助袋)이다. 화재 시 등근 포대 속으로 탈출하는 장비

序

최근 문명의 발달에 동반하여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재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진압하여 공동생활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 소방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성의 장점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방조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그 정신에 있다. 소방정신은 개인적 이익을 없애고 인류애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순수한 열정에 기초한다. 따라서 내선인(內鮮人: 일본과 조선인) 소방조원이 이 정신 아래 결합하여 혼연일체를 이루어 그 책임을 다하는 특수한 사명이 있다. 우리 소방조는 이런 귀중한 정신에 입각하여, 중요한 사명을 담당한다. 이러한 실천 때문에 우리 사회는 소방조에 대한 지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원 여러분은 밤낮으로 소방의 역할을 각성하고 정신을 일깨워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소방조는 1911년에 창설되었고, 그 후 많은 변천과 지속적인 발달을 이루어 오늘날의 융성(隆盛)을 보기에 이르렀다. 어떤 급박한 재난이 발생하면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정비하고 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서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이 겪은 고심과 노력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본 소방조가 대광주(大光州)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¹

1 대광주(大光州) 건설은 오쿠무라(奥村) 광주면장이 추구해 온 광주의 세 가지 목표, 상

여기에 2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과거 빛나는 역사를 회상함과 동시에 장래 더욱더 분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발달에 대처하여 설비 개선을 도모하고, 항상 조원의 교양과 훈련에 노력하여 소방 본래의 사명에 정진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1933년 10월

전라남도경찰부장 야규 시게오(柳生繁雄)²

序

광주소방조는 1911년 10월에 창립되었다. 처음에는 수압펌프³를 유일한 방화기구로 하여 경방(警防)⁴을 담당하고, 수다한 고초를 맛보았으며, 참혹한 고통을 거듭한 지 오래되었다. 1920년 광주상수도가 부설되면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의 흔적을 남겼다. 광주 지역의 발전에 순응하여 최신 설비를 갖추었으며, 조원의 통제 및 훈련 또한 현저하게 숙달하여 완전한 모습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제 창립 제23주년을 맞이하여 소방조 연혁지의 편찬을 이루고 그 편자(編者)의 용의주도함으로 인하여 지나온 변천사를 돌아보아

수도 건설, 시장 건설, 광주천 정리 등을 목표로 하고 추진한 새로운 광주 건설을 목표로 한 운동이다. 대광주 건설의 추진이 오늘날 광주광역시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2. 야규 시게오(柳生繁雄)는 1923년 조선에 건너와 총독부 체신국에 들어가 총독부 이사관에 임명되었다. 평안남도 지방과장, 경기도 학무과장, 충청북도 재무과장 등의 요직을 지냈다. 1933년 총독부 도이사관에 임명. 전라남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3. 수압펌프는 흔히 완용펌프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방조들의 용어가 통일 안 된 탓으로 보인다.

4. 경방(警防) :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일체를 의미한다.

개선 발달의 유래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역대 소방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대한 사은사(謝恩史: 은혜를 기리는 연혁사)가 될 것이다. 또한 후진을 개발하는 교화사(教化史)가 되어 나아가 경방사상의 보급에 기여하고 장래의 발달을 기함에 있어서 이바지할 것을 믿는 바이다. 나는 이 기회에 조두(組頭: 소방조의 수장) 이하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더욱 건전한 발달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것으로 약간의 소회를 말하는 것으로 서문에 대신한다.

1933년 10월

광주읍장 오쿠무라 노부요시(奥村信吉)⁵

서문

광주소방조가 창설되어 이제 20여 년, 그동안 많은 변천을 거쳐서 오늘날 여러 대의 자동차펌프와 훈련된 조원으로 창설 당시와 비교하면 커다란 발달을 보였다. 광주소방조가 현재 광주 여건에 비추어 큰 부족함은 없지만 소방의 일이라면 도시의 발달에 맞추어 재해를 방어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한다. 또한 하루라도 나태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학의 진보는 건축과 항공의 발달, 기타 사회 전반의 발달이 놀랍기만 하다. 지난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공중폭발⁶ 사고 등도 이제

5_광주군 광주면장을 역임하였다. 하수도 건설, 광주공원 건설, 광주천변 정리 등 3대 정리사업을 추진하며 1920년대 대광주 건설의 사업을 이끌었다.

6_여기서 '공중폭발'이라 함은 비행기 사고를 의미한다.

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는 시설 및 기술도 부단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고에 대비한 국민의식이 새롭게 변하고 있으며, 다른 면에서 우리는 국제관계에서도 제국(諸國)⁷이 홀로 대처하는 비상시에 직면하였다.⁸ 이 가을에 우리 소방의 임무는 재해 방어에 소극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방 중심 단체로서 국민 사상을 선도하고, 자력갱생에 매진하여 국가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고 나아가서는 수화재(水火災) 천재지변의 재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해야 한다. 참으로 충실한 경방기관으로써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하여 현재의 난제에 대응하는 소방의 능력을 높이는 것을 더욱 바라는 바이다.

1933년 10월

광주경찰서장 가타야마 나미조(片山浪藏)

소감

금번 광주소방 20년사 편찬에 즈음하여 이전 조두였던 나에게 소감을 적어 달라는 취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1920년 4월부터 1929년 4월 동안, 조두로서 광주소방조에 재임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

7_여기서 '제국'은 일본에 대응하는 여러 서구 열강 국가를 얘기한다.

8_1931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은 대륙침략의 야욕을 드러냈으며 국제적으로 점차 고립화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태를 '일본의 고립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안 어떤 내똥을 만한 업적이 없고, 단순히 여러분의 성원으로 무리 없이 9년이 경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 가운데 약 절반에 가까운 재직자로서 나는 약간의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각 지역 소방조의 소화력이 펌프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취입 이전에는 ‘수압펌프시대’라고 하여도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계의 개선과 조원의 훈련에 진력하고, 관민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서 장비 개선을 실현시킨 점은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가 가정의 형편에 의하여 내지(일본)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후지모토(藤本) 현 조두에게 인계하였습니다만, 그 후 후지모토 조두가 열심히 조의 개선과 기계의 완전을 도모하셔서 바야흐로 완전히 각 도 소재지의 소방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게 된 점은 조를 위해서도 광주를 위해서도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1933년 10월

마쓰이 리사부로(松井理三郎)⁹

9 松井理三郎은 1920년 4월 22일에 취입하여 1929년 5월 8일에 이임하였다. 경성소방조에서는 1921년 한국 최초로 자동차펌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그가 조두로 재입하던 시기에는 일부 선진 소방조에서는 자동차펌프가 현장에서 사용되던 시기였다. 참고로 광주소방조에서 자동차펌프가 도입된 시기는 1930년대 초반이었다.

소감

광주소방조가 1911년에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만, 기록이 남은 것은 대부분 단편적이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고가 있는 경험자의 기억을 청취하여 지난날을 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해에 직면하여 향토애의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활동하는 기구가 소방조입니다. 일단 현장에 서자마자 희생정신으로 의용봉공하여 그 모든 열정을 쏟는 소방조야말로 숭고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유지들의 지도 편달과 시민의 협력으로 소방조가 발달하여 오늘날처럼 질서 있는 조직이 되었고 장래에 한층 더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발전 과정에 대한 기록이 다소 미흡하기에 그동안의 많은 헌신적인 봉사와 감동적인 미담이 세월에 따라서 퇴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방조의 향토애 정신을 드높이고 숭고함을 추앙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광주소방사의 편찬을 계획하여 여러분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부족하지만 여기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혁사를 통하여 전임자의 공로를 영원히 기리며 소방의 굳건한 이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서는 주로 카토 이쿠사부로(加藤幾三郎) 씨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큼니다. 특히 이것을 밝혀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33년 10월

광주소방 조두 후지모토 이치지로(藤本一二郎)

소방회의 총독 훈시

여기 조선소방협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한마디 소회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다행스럽고 기뻐하는 바이다.

근래 들어 문화의 전진과 산업의 발달은 한층 일상생활을 복잡하게 하고 여기에 동반하여 재해도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재해 방지에 종사하고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소방 관계자의 노고로 인하여 앞으로 조직 및 장비 발전이 나날이 이루어 간 것이라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조선의 소방제도는 모습을 갖추고 장비의 확충이 정상까지 올라서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쇄신을 이룩함과 동시에 경방사상 보급에 노력하여야 함은 참으로 시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소방 관계 여러분은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 의용봉공의 정신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꾸밈이 없으며 강건하고 향당후진(鄉黨後進: 사사로움을 뒤로하고 발전을 앞세운다)의 모범이 되어 그 목표인 상호 공영에 매진하여 더욱 경방(警防)의 실적을 거두기를 바란다.

1927년 5월 27일

조선총독임시대리

육군대장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목차

1. 우리나라 소방 기원[濫觴]
2. 광주소방조 기원
3. 공설소방조 조직
4. 공인소방조 조직 당시 기구
5. 위생소방조합시대 기구표(1916년 4월 조사)
6. 소방조 사무소 위치
7. 광주 읍내 지세
8. 경비관서
9. 광주읍
10. 조기 제정
11. 조가 모집
12. 규약 제정
13. 소방 예산(1916년도 위생소방조합 당시)
14. 조원 및 가족 위안회 기타 개최
15. 근속 조원 표창
16. 상해수당 지급
17. 조원 위로금
18. 퇴직수당 지급
19. 각금(醜金)을 받은 것
20. 기부품을 받은 물건
21. 각금(醜金)을 한 현황
22. 구역 외 응원

23. 조원의 각 가정
24. 조원의 평소 마음가짐
25. 조원 수양과 야구
26. 조원의 연령·직업·취미
27. 통보 연락
28. 주요 소방 관계 전화번호표
29. 경종타점(警鐘打點)
30. 수도 및 수리
31. 소방 전용 탱크 및 우물 건설 개소
32. 사설 소방기 설비
33. 1931년 소화전 수압검사표(1931년 9월 조사)
34. 경종대
35. 소방기구고
36. 주요 기구 구입 발취
37. 물품 구입에 대하여
38. 주요 소방 기계 성능
39. 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
40. 조선소방협회 각 도(各道) 기부 할당액표
41. 소방협회 기본금 전남 각 군(郡) 할당액
42. 조선소방협회 전라남도 연합지부 발회식
43. 강연회 개최
44. 각 방면 파견
45. 친열(親閱)
46. 조원 견학
47. 강습 지도

48. 방화 선전
49. 식전·송영·봉축·기타
50. 조원 채용 방법에 대하여
51. 상비원 채용
52. 광주경찰서 역대 서장
53. 역대 광주면·읍장
54. 광주면·읍회 의원
55. 관할의 변화
56. 현재 소방 장비표
57. 화재 외의 출동과 야경
58. 기본금 조성
59. 복제 개정
60. 역대 간부
61. 현 조원표(1933년 9월 1일 현재)
62. 퇴직 조원표(1911년 10월~1933년 8년 7월 11일)
63. 연중행사
64. 이상
65. 주요 화재
66. 최근 화재 빈도수
67. 각 도별 화재 손해
68. 화재 원인표
69. 조원 폐기 이용 고안(아이디어)

서언(緒言)

일상에서 소방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스럽게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소방을 사회가 경시하는 것을 보면서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소방기술이 우수하여 특히 에도 막부 시대¹⁰에 이른바 소방조에 대해서는 대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소방을 통하여 우리 국민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 그 희생적 활약에 대해서는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것을 내지(內地: 일본)에 견주어 생각해 보면, 메이지 중기 황공하옵게도 메이지 대제¹¹께서 칙령을 재차 발하셔서 나라의 소방 조직을 일제히 정비토록 지시하시어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방방곡곡의 구

10_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를 붕괴해 센고쿠시대를 종결시킨 이래 성립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쇼군으로 떠올랐고, 도쿠가와 가문은 에도(현재의 도쿄)에서 전 일본의 다이묘들을 다스리는 유력 가문이 되었다.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기반으로 사회 전체를 철저히 구분하였고, 사회 안정을 위하여 쇄국정책을 펼쳐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지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에도 막부가 다스리던 에도시대에는 급격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부유한 대상인 계급의 출현과 함께 우키요에와 같은 문화적 발전들이 이루어졌다. 에도 막부가 통치한 이 시기를 에도시대라고 한다.

11_메이지 천황(일본어: 明治天皇 메이지 텐노(1852년 11월 3일~1912년 7월 30일)은 일본 제국의 제122대 천황(재위: 1867년 1월 30일~1912년 7월 30일)이다. 휘는 무쓰히토(睦仁むつひと)이며 유소년기의 궁호(宮號)는 사치노미야(祐宮さちのみや)이다. 쇄국령을 실시하는 에도 막부(도쿠가와 막부)를 2년간(1868~1869)의 보신전쟁 승리로 타파하였다. 1876년에는 폐도령을 발표하고 정부한테 항거하는 사쓰마 번을 1877년에 세이난전쟁에서 승리하였다. 1879년에 류큐국을 병합하였고 1889년(메이지 22)에 이토 히로부미 등에게 명하여 일본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일본제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의 개혁정책을 연호를 따 '메이지유신'이라 부르며 일본의 근대화를 확립하고 부국강병을 달성한 군주로 평가된다. 1868년 9월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고치고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를 택하였다.

석촌에 이르기까지 소방조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조원의 실력은 훈련과 어울려서 충분하며, 장비의 정비는 열강 제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달을 이루었다. 원래 소방은 완전한 장비도 필요하지만 나는 소방 장비보다 조원들의 의기와 기술에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광주소방조 창설 이래 이제 22년을 기념하여 『광주소방20년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본인은 재주는 없지만, 작년 겨울부터 이 사료 수집에 착수하여 각 방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 과거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고는 하나 나의 재주가 변변하지 못하여 그 전부를 묘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기술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사실이 왜곡된 부분은 편자의 책임이 된다. 다행히도 지적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정정하도록 하겠다.

1933년 9월

-편자 기록하다-

1. 우리나라 소방 기원[濫觴]

우리나라에 소방이 처음 조직된 것은(기록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1650년 6월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시절, 막부가 에도에 소방대 2조를 두고 4천 석 이상의 족하(族下, 하타모토라고도 한다. 쇼군의 직할 무사들이며 경호대 역할을 하였다.)를 주임으로 하여, 이것을 통할하도록 힘을 주었다.¹²

동심(同心) 다이묘의 최하급 병졸 및 소방 인부를 가지고 조직한

것이라는 설과, 1659년 1월 4일 에도에서 처음으로 소방 출회식을 우에노 도쇼구(上野東照宮) 앞에서 거행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둘 다 시기에 20년의 차이가 있는데, 도쿠가와(徳川)¹³ 초기에 시작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1720년 8월 7일 에도 부교(奉)¹⁴ 오카 에치젠노가미(大岡越前守)가 47조로 편성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¹⁵ 요컨대 도쿠가와(徳川) 초기에 무가소방(武家消防)¹⁶과 의용제를 설치한 점은 우리나라 소방 역사상 무시할 수 없다.

점차적으로 다이묘 비게시(大名火消) 6조, 조비게시(定火消)¹⁷ 47조를 정비하고, 화소역(火消役)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젊은 사람을 임명하였다. 그후 방각화소(方角火消)라고 칭하며 녹봉의 액수가 10만 석 이상인 다이묘(大名)에 각 지방을 다스리는 번주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시내 경계를 하였으며, 자신화소(自身火消)는 다이묘(大名) 에도시대에 1만 석 이상의 봉록을 받던 제후의 소속으로 종졸(從卒)을 이끌고서 화재 현장에 나타나서 지휘하였다. 이 무렵이 1653년이다. 그 후 1894년 2월 10일 칙령 제15호, 1897년 칙령 제408호, 1919년 칙령 제355호로 소방 규칙을 발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_장군가의 사당이나 사찰, 그리고 가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진압하는 소방대를 다이묘 소방대라고 하였다.

13_도쿠가와 막부시대를 얘기한다.

14_명(命)을 받들어 사물을 행함. 특히, 무가(武家)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한 각 부처의 장관((町奉行·勘定奉行·寺社奉行 따위).

15_상인들이나 시민들의 가옥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마치 비게시(町火消)라고 하였다.

16_에도시대에 들어 화재가 빈발하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막부의 지시를 받아 다이묘들이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 즉 비게시를 창설하였다.

17_다이묘 휘하의 사무라이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쇼군이 있는 궁전 및 다이묘들의 거주지인 武家 지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출동하는 소방대를 말하며 '조비게시'라고 한다.

2. 광주소방조 기원

때는 1907년경, 당시 내지인 거주 30호 정도, 목포영사 별관이 설치된 시대, 화재라고 하면 술라 석유의 강통이라든가, 바가지 등을 손에 들고 달려와서 진흙물이든지 오줌물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뿌렸다. 그중에서는 부녀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우왕좌왕 허둥지둥 이동하여 시중의 밀집 가옥 소화법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광주에서는 내지인(일본인) 거주자도 격증하고 있었다. 이 중 내지인 몇 사람이 모여 앉아 의논하여 사설 의용소방대를 만들었는데, 구타미 한타로(久民半太郎)·다케우치 요시고로(竹内吉五郎)·다카야마 신타로(高山信太郎)·시미즈 요시카즈(清水義一) 등이었다. 그러나 취지는 좋았지만 경비의 출처가 넉넉치 않았기에 장비의 미흡함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휘자인 구타미 한타로(久民半太郎) 씨가 기부한 즈쿠(마포로 만든 운동화) 여러 개와 도비구치(蔦口, 연구: 막대 끝에 쇠갈고리가 달린 소방 용구) 정도의 장비로 시작하였으며 조원은 1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이 즉, 우리 광주에 있어서 소방조(사설이지만 하나의 단체로 보는 것)의 기원이다.

3. 공설소방조 조직

1911년 3월, 서문통(지금의 황금정) 모퉁이 나가노(中野) 잡화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사상자가 수 사람 발생하여 시민에게 충격을 주고 새삼스럽게 화재의 참사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재향군인회 간부 모씨 등의 노력으로 1911년 10월 약 30명 정도 되는 소방조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다. 뒤이어 당국의 공인을 얻고 수압펌프 1대 및 기타 기구를 갖추어 조장, 부조장 이하 소방수를 모집하여 비로소 소방조의 출현을 보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당시 거주하던 관민 여러분이 각출하였다. 기부는 비교적 많은 액수가 모여져 장비 구입을 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며, 당분간 출동수당은 이 각출로 잔액을 충당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광주 공설소방조의 시초이다.

초대 조장 도쿠다 마코토(徳田忠)

부조장 시미즈 요시카즈(清水義一)

부조장 다카하시 도쿠타로(高橋徳太郎)

나중에, 시미즈 부조장은 사퇴하고 시모가키 하루요시(下垣春吉)가 부조장을 계승

1914년 다카하시(高橋) 부조장 사임, 이후 부조장은 1명으로 변경하다.

4. 공인소방조 조직 당시 기구

완용펌프	1대	대낫	4丁
마토이(조기)	1개	長鳶	8丁
호스 2인치	5개	中鳶	20丁
면포 흡수통	30개	피복	약간

大差又(날카로운 창) 2丁	마승제등(馬乘提燈) ¹⁸	3개
大熊手(갈고랑이) 2丁	이상	

5. 위생소방조합시대 기구표(1916년 4월 조사)

펌프(大)	1대	호스 감는 차	1대
펌프(小)	1대	마토이(조기)	1개
호스(大)	8개	소방 제복(小頭)	2벌
호스(小)	3개	소방 제복(소방수)	40벌
高張提燈(다카하리조친: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어올리게 된			
초롱)	2개	대낫	3挺
手鳶(솔개 부리 모양의 갈퀴)	10정	熊手 (진압 도구)	5挺
手鳶(손솔개창)	2정	差又(갈퀴)	2개
長鳶(긴 솔개창)	10정	抽斧(도끼)	2정
小提燈(휴대용 조명등)	3개	螺鍵 (빗장 파괴기)	5개
螺健用苧(나사모시)	1丁	船鋸(배톱)	2개
손낫	10정	大鈴(큰 종)	2개
小鈴(작은 종)	1개	스틸와이어로프	1개
사다리	3정	大丸提燈(큰원 제등)	3개
제등용 장대	3개	즈크(重布製水汲(물을 담은 포))	15개
지휘기	1개	長鳶(긴 솔부리 창)	3개
差又(삼지창)	2개	야경금봉(夜警金棒: 몽둥이)	2개

18_말 위에 올라타서 비추는 등불을 말한다.

야경호신봉	2개	큰 낮	1挺
熊手(갈고랑이)	1정	곡괭이	1丁
輕便足踏펌프	2대		

6. 소방조 사무소 위치

전남 광주군 광주읍 본정 2정목

광주경찰서 구내

광주소방조 사무소(위생소방조합시대 사무소를 학교 조합 내에 두었다.)

7. 광주 읍내 지세

본읍은 광주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지형은 좁고 길어서 남반은 약간 넓고, 북반은 좁아서 흡사 새가 날개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 시가지는 전남 1등을 자랑하는 해발 1,150미터 솟은 영봉 무등산의 북쪽 기슭에 전개된다. 시가의 서측을 관통하는 광주천은 근원을 이 산에서 발하여 서북으로 달리고, 지세는 대체로 평탄하여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언덕의 기복(起伏)이 있다. 면적은 모두 30만 리 남짓, 33町, 호수는 6,600戶 남짓, 인구는 33,000명 남짓.

8. 경비관서

광주경찰서 본정 2정목 전화 4번
본정과출소 본정 3정목 전화 153번
역정과출소 대정정 전화 203번
누문정과출소 누문정 전화 552번
학강정과출소 신평주 역전 전화 번

9. 광주읍

경비 예산 연간 6천여 원, 기타 임시비용을 부담하여 소방조의 활약을 하는 본원에 읍¹⁹이 있다. 읍에는 결의기관인 읍회가 있어서 이러한 비용을 심의한 결과 실행하고 있다. 읍장과 읍회 의원 제씨의 소방에 대한 인식의 많고 적음과 관심의 유무는 소방조의 사기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 다행히도 우리 광주읍 및 광주읍회는 항상 광주 발전에 동반하여 소방시설을 소홀히 하지 않고 확충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은 소상하게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다.

10. 조기 제정

화재 시 출동에는 반드시 조를 상징하는 마토이를 사용하여 왔는데,

19_光州읍은 1931년에 지정면에서 읍으로, 1935년에는 府로 승격되었다.

이것이 흡사 군대에 있어서 군기(軍旗)와 비슷한 것이다. 주간 출동 혹은 환송연 기타 식전(式典)에 참가하는 경우에 마토이만 있어서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930년 4월 조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1. 조가 모집

후지모토(藤本) 조두는 1933년 8월 사기 고취를 위하여 진작부터 제정하려고 하였던 본조의 조가 현상모집을 실시하여 응모한 작품이 수십 편이었다. 이것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 조선에서 우수한 명사에게 의뢰하여 엄정한 결과 아래의 노래를 1등으로 정하고 조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덧붙여서 말하면 선외(選外) 가작이라고 하여도 감율의 차이를 두기 어려운 정도의 수작이 많아서 그 두서너트를 보이자면, 대정정 藤卷婦美子 씨, 西本馨·圓谷勇·皆川友行·白木正祝의 四氏合作, 옥정 原田富美 씨, 황금정 加藤菊代子 씨 등이다.

소방조가

구스노세 야스노리(楠瀬泰則) 작곡/ 이와사키 시게지(岩崎繁治) 작사

1. 타오르는 불꽃의 그것보다도 빨간 마음의 일편단심
단결은 굳세다 우리 소방
2. 늦가을의 세찬 바람과 겨울밤도 시민의 잠자리
편안하여라 한밤중에 순찰하네

3. 경보가 한번 울리면 사사(私事)는 뒤로하고 달려 모인다
동지는 칠십 여유 있는 사람이네
4. 파괴소방 용감하게 엔진 소리 우르릉우르릉
백룡천(白龍天)에 뛰어든다
5. 우리들의 마토이 가는 곳에 호스의 앞이 향할 때
날뛰는 화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6. 홍연(紅蓮)의 맹화(猛火) 순식간에 잔불을 남기지 않고 다 꺼 버
린다
정예의 비교할 수 없는 대 위력
7. 내가 사는 도시에 일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겠는가 준비하자
방심하지 말자 잠시도
8. 일사불란하게 통제에 희생과 봉사 맹세하고
사명에 살아가리라 소방조
9. 재화의 괴로움 조금도 없이 사랑하는 낙원이로다
평안한 시가가 되어라 이상이 되어라
10. 우리의 지킴이 굳세면 무등산 아래 대광주
번영해 가리라 영원히 영원히

12. 규약 제정

종래 불문율로 시행하여 온 본 소방조 규약도 시대의 요구라고 볼 수 있고 조금씩 복잡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다듬어서 현 조합의 대다수 의견을 모아 제작하고 이것을 광주서장을 거쳐서 본도 경찰부에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 1933년 7월 1일부로

인쇄하고 발표하였다.

광주소방조 규약

제1장 조직

1. 본조는 광주소방조라고 칭하며 광주 읍내에 거주하는 내선인(內鮮人: 일본과 조선인)으로 조직한다.
2. 본조는 광주읍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하고 防火·防水 기타의 재해를 경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조는 다음의 인원으로 성립한다.

조 두 1명

부조두 1명

소두 약간 명

계장 약간 명으로 호선하여 1명의 대표자를 선임하며, 임기는
만 1년

소방수 70명 이상

상비소방수 약간 명

고문(顧問) 약간 명(읍장 간부 퇴직자)

4. 조두는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소방조의 사무를 관리하고 조원의 지휘 및 단속에 임한다.

부조두는 조두를 보좌하고, 소두는 조두·부조두의 명을 받아서 소방수를 지휘한다.

조두 유고시는 부조두가 대신하며, 부조두 유고시에는 고참 소두가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이들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제8장의 사고에 한하며 조두의 지휘·감독하에 부조두로 하여금 처리하

도록 할 수 있다.

5. 본조는 아래와 같이 출동 편대 및 계를 정하여 분장하며 각 대에 小頭 2명씩, 각 계에 계장 1명씩 배속하고 지휘·감독에 임명한다.

1) 출동 편대 분담 사무

① 펌프자동차대-급수·방수 준비, 소화 방수를 담당한다.

② 현장대

A 현장에 있어서 방수로의 개척, 건조물의 파괴, 인접 건물 관계, 인명 구조, 불 앞의 활동 등 현장의 소방 사무를 담당한다.

B 완용펌프대-화재의 상황에 의하여 腕用펌프가 필요할 경우에 임시로 편제하여 본대를 조직하고 소화를 담당하기로 한다.

③ 수리대-용수 공급 저수지의 선정, 물 보급 용수 저수조의 보수, 堤堰(제언: 둑) 축조 등 수리(水利)를 담당한다.²⁰

2) 계 분담 사무

신호계 경종²¹ 기타 모든 신호에 해당하는 것

표시계 마토이 깃발 또는 제등²² 등 표시 관장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

20_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물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수리대는 펌프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물, 저수지, 하천, 소화전 등을 선정하는 일, 저수조 및 저수지, 우물 등의 물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 그리고 소화전 등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21_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 주는 종.

22_제등의 용도는 두 가지다. 우선 야간 화재 시에 현장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다. 두 번째 部를 상징하는 신호등으로 사용된다.

- 펌프계 펌프자동차 또는 기계의 운용에 해당하는 것
- 급수계 급수 기타 수리 운용에 관한 것
- 전령계 전령보고 기타 연락 임무에 해당하는 것
- 구조계 구조용 기구를 관장하고 인명 구조 및 부상자의 구호
에 해당하는 것
- 급여계 파괴 기구의 응급 수리, 교환 기타 재료의 운반 공급에
해당하는 것
- 화선(火先)계 관창[簫口],²³ 사다리 연구²⁴ 등의 취급, 방수 기타 화
재 현장 방어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

제2장 조원

1. 소방수는 광주읍에 현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자로 하여금 신체
강건 소행 및 사상이 건전한 자. 지원자를 조두로부터 서장에게
추천한다. 계장은 간부들의 협의하에 조원 중 책임자를 조두가 서
장에게 추천한다. 소두는 조두와 부조두가 협의하여 서장에게 추
천한다.
2. 조두가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서 경찰서
장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출원하는 것으로 하고 부조두, 소두가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갖추어서 조두를 거쳐서 출
원하는 것으로 한다. 소방수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서 조두를 거쳐서 경찰서장에게 출원하는 것으로 한다.
3. 조원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도 사직원에 대한 허가장의 교부가 있

23_화재 발생 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방수해 주는 노즐로 된 총.

24_솔개 부리처럼 날카로운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압 기구.

을 때까지 당연히 종전의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및 훈련

1. 본 조원은 기율을 중요시하며 항상 상급자의 지휘에 의하여 그 본분을 발휘하여야 한다.

2. 본 조원은 다음의 각호를 각수(恪守: 충실하게 지키)하여야 한다.
광주경찰서장 및 조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금을 모집하거나 혹은 직무에 관하여 의무를 저야 할 계약 및 결의를 하는 것을 금한다.

사용한 장비는 정중하게 보관하고 어떠한 때에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직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직무에 관하여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본 조원은 출동 명령 또는 신호가 있을 때 또는 조원 스스로 이재(罹災) 등을 인정했을 때에는 즉시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하여 지휘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5. 출동한 조원은 경찰관 및 상급 지휘자의 명령에 의하여 진퇴하여야 한다.

전항의 해산의 경우에 지휘자는 인원을 점검하고 나서 출동하나월일 시간, 씨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계기구

1. 기구는 항상 충분한 손질을 하여 정리정돈해 두어야 한다.

2. 기구를 사용할 때는 보관 전에 손질, 보충에 힘써 다음번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자동차는 매월 2회 이상, 완용펌

프는 매월 1회 이상 방수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3. 조두는 기계, 기구 및 격납고 관리의 책임을 진다. 항상 검사하고 고장이 있을 때에는 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수리하여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자인 소두는 계원이 사용한 기구의 파손 또는 이상이 발생했을 시 즉시 조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복장

1. 본 조원의 복장은 전라남도 道令 제7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종래 사용하여 온 것은 당분간 그것을 사용한다.

2. 복장 지급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대여품(貸與品)

- ① 방화 두건 또는 투구
- ② 사시코반텐(刺子絆纏: 누비질을 한 옷으로 유도복, 검도복, 소방복 따위에 쓰임) 및 단합뻬(單法被: 옛날 무가에서 家紋을 넣어서 머슴에게 입히던 옷)
- ③ 하라가케(腹掛: 가슴에서 배까지 덮고, 등 쪽을 가는 베로 교차시키고, 아래쪽에 주머니가 달린 감색의 무명 작업복, 배두렁이)
- ④ 모모히키(股引: 통이 좁은 바지 모양의 남자용 의복, 잠방이)
- ⑤ 오비가와(帶皮: 가죽 허리띠)
- ⑥ 制帽(모자)
- ⑦ 계장 이상에게는 手鷲(손쇠꼬챙이) 1挺, 提燈(등불) 1개
- ⑧ 소두 이상에게는 여름, 겨울 제복 각 1벌 및 지휘기

2) 급여품

- ① 장갑(1개년에 2회)

② 지카타비(地下足袋: 노동용 작업화, 1개년에 1회)

③ 권각반(卷脚絆,²⁵ 2개월에 1회)

3. 본 조원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는 전항의 대여품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급여

1. 본 조원이 출동할 때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받는다.

조두 금 1원 30전

부조두 금 1원 20전

소두 금 1원

소방수 금 80전

2. 전항의 수당은 일단 본 소방조의 수입으로 하며 제8장 제2항(③)호의 지출에 충당하고 잔액은 매 연도 말 조원의 출동 회수에 비례하여 출동 조원에게 배분한다. 다만, 연내 퇴직자에게는 당 연도 말 결산상으로 분배한다.

3. 본 조원 중 직무에 의한 질병 또는 상해를 받았을 때에는 본조에서 위문금을 지급하는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적법한 구제를 한다.

4. 본 조원 중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본조에 있어서 다음 표의 금액의 향료를 보내고 조원 일동이 정복을 입고 장례에 임한다.

일금 5원 弔旗貳流 재직 3년 미만

일금 10원 同 재직 3년 이상 10년 미만

일금 15원 이하 同 재직 10년 이상 15년 미만

일금 15원 이상 同 재직 15년 이상

25_소방조원들이 장화 대신에 발을 지탱해 주는 견고한 붙임대.

5. 조원 가족(양친, 처자, 조부모, 형제의 동거자)의 사망이 있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향료 금 5원 및 조기이류(弔旗二類)를 본조에서 보내기로 한다.

제7장 상벌

1. 본 조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명예를 본조에서 표창한다.
 - 1) 조원에게 있어서 변재(變災)에 즈음하여 발군의 공로가 있는 자
 - 2) 1개년간 개근자에게는 개근상
 - 3) 만 5개년의 정근자에게는 정근상
 - 4) 만 10개년 근속하고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근속상
 - 5) 15개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공로상
2. 조두는 본 조원 중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상신하여야 한다.
 - 1) 경찰관 및 상급 지휘에 따르지 않고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는 자
 - 2)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는 자
 - 3) 금고 징역의 형에 처해진 자
 - 4) 광주읍 외로 이주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

제8장 사무분장

1. 본장 사무는 조두의 지휘·감독하에 부조두가 이것을 처리한다.
2. 본조의 사무 취급을 위하여 다음의 계원을 두고 소두에서 이를 호선한다.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회계연도에 준한다.

 - 1) 서무계

- ① 조원 명부 정리 ② 소방원부 정리
- ③ 소방조의 연혁지 정리, 소방 설립 연월일 지역 조원수, 조직의 변경, 소두 이상의 임면 기타 연혁에 관한 사항
- ④ 기록: 소방조 및 조원의 출동 연습 상별 진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⑤ 통신 ⑥ 기구 구입 ⑦ 인사 복장

2) 회계계

- ① 금전 수불부 정리
- ② 수입금은 조원 출동수당, 이 수당은 즉시 예금하도록 한다.
- ③ 지출금: 조원 이재(罹災)자에 대한 위문금, 조원 가족 조위금, 출동 시 비용, 조원 전반에 관한 비용, 서무비 이상의 지출 금액은 수입금의 5할 이내로 제한한다.
- ④ 기타의 금전 수불에 관한 일체의 사항
- ⑤ 결산보고는 매 연도 말로 한다.

3) 용도계

- ① 피복 기계기구 교대부 정리 ② 기계기구 정리

제9장 회의

1. 조원 회합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유를 갖추어서 경찰서장의 승인을 거쳐서 조두가 소집한다.
2. 회원은 모두 조두를 의장으로 하고 조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상급자가 사회를 맡는다.
 - 1) 총회: 총회는 매년 춘기 연습일을 이것으로 총당하며 전년도 회계보고를 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조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중대 사항에 관한 총회는 경찰서장 및 고문의 출석

을 요청하기로 한다.

- 2) 간부회: 간부회라고 칭함은 소두 이상의 간부협회라고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계장 대표자를 더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연구회: 연구회는 간부인 계장의 소집으로 한다.
- 4) 정기회: 정기회는 기구 손질 및 소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매
월 1회 계장 이상을 소집한다.

제10장 퇴직 위로

1. 조원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의하여 조에서 퇴직위로금을
준다.

단, 징계 면직의 경우는 간부회에서 퇴직위로금의 지급 여부와 그
액수를 별도 심의 결정한다.

재직 5개년 이내	금 10원 이내
재직 5개년 이상 7개년 이내	금 15원 이내
재직 7개년 이상 10개년 이하	금 25원 이내
재직 10개년 이상 15개년 이하	금 35원 이내
재직 15개년 이상	금 40원 이상

2. 본조는 10개년 이상 근속 퇴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로금을
증여한다.

10개년 이상	금 15원 이상
15개년 이상	금 25원 이상

3. 간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증액한다.

간부의 근속연수는 소방수 근속연수를 통산한다.

조두 제1항 및 제2항의 6할 증액

부조두 제1항 및 제2항의 5할 증액

소두 제1항 및 제2항의 3항 증액

계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간부회의 결의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

제11장 기본금

1. 본조는 다음과 같은 수입에 대하여 기본금을 만들어 정기예금, 저축예금에 맡기고 조두가 이것을 보관하기로 한다.
 - 1) 출초식 또는 춘추 연습 및 이재 시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조가 증여를 받은 금액은 모두 수입으로 한다.
 - 2)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수납하고 수입으로 한다.
 - 3) 소방조 주체로 사업을 할 경우는 사정을 갖추어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것에 관한 수입은 간부의 협의에 의하여 수입으로 한다.
2. 본 조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여 기본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7장 제1항에 해당하는 자(근속상)
 - 2) 제10장의 규정에 의한 자(퇴직의 경우)
 - 3) 제6장 제3항에 의한 자(위문금)
 - 4) 기타의 지출금은 간부회에서 결정한다.
3. 매 연도 말에 수지 계산서를 가지고 보고하기로 한다.

제12장 감사

1. 매년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과반수의 간부가 출석하여 일반회계 및 기본금의 장부 및 예금통장을 통람(通覽: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봄)하기로 한다.

부 칙

본 규약은 193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소방 예산(1916년도 위생소방조합 당시)

▲ 세입

일금 940원 경상부 예산고

일금 163원 임시부 예산고

▲ 세출

일금 1,112원 경상 임시 합계 예산고

차인 잔액 없음

1933년도 예산(광주읍 예산)

일금 6,698원 경비비

내역

일금 2,348원 잡금

일금 3,450원 수용비

일금 250원 수선비

일금 650원 잡비

14. 조원 및 가족 위안회 기타 개최

- 1922년 4월 15일 춘기 연습을 겸하여 광주신공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다.

- 1923 4월 15일 同
- 1923년 8월 14일 가솔린펌프 구입의 목적으로 배우 후쿠이 시게히라(福井茂平)를 주제로 하는 연속극을 2일간 광주좌에서 개최하다.
- 1924년 4월 15일 춘기 연습을 겸하여 가족위안운동회를 신공원에서 개최하다.
- 1924년 5월 11일 금상 폐하의 성혼(결혼식) 축전에 즈음하여 무대를 만들어서 조원 전부 가장행렬을 하고 각종 묘기를 발휘하고 크게 축하하였다.
- 1925년 5월 10일 다이쇼 천황 은혼식 전 축제일을 기하여 소방조는 무대를 조직하고 모든 시내를 천천히 행진하며 여러 종류의 여흥을 하였다.
- 1926년 3월 16일 2일간 오노에 다미조로(尾上多見十郎) 주연의 구극(舊劇: 신과극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극)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 1926년 4월 2일 춘기 연습을 겸하여 가족합동운동회를 광주공원에서 개최하다.
- 1928년 5월 4일 소녀 가극을 광주좌에서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1929년 5월 16일 춘기 연습을 한 다음에 가족위안연예회를 광주좌에서 마쓰이(松井組頭)의 석별을 겸하여 개최하여 여러 종류의 연예가 이어져서 심야에 이르렀다.
- 1929년 11월 7일 방화 선전을 겸한 활동사진대회 ‘맹화와 소방’을 광주좌에서 개최하다.
- 1930년 1월 25일 소방사상 보급의 목적으로 활동영화대회를 광주좌에서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1930년 4월 2일 소화전 조사 기계 손질 등을 하고 가족위안회를 오

- 후 6시부터 광주좌에서 개최, 春の家·北村樓·飛入り連 등의 응원이 있어서 오전 3시에 이르러서도 끝나지 않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 1931년 5월 2일 춘기 연습 후 광주좌에서 가족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 조직을 주연으로 하는 연예대회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1932년 7월 15일 목포소방조 조원이 제작한 소방극 필름「명예의 소방수」를 상영함에 있어서 응원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2일간 제국관에서 개최하여 응원 여흥을 하였다.

15. 근속 조원 표창

- 1921년 2월 19일 부조두 시모가키 하루요시(下垣春吉)는 근속 10개년으로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소두 오카자키 가사쿠(岡崎嘉作)는 근속 10개년으로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1922년 1월 4일 출초식을 하여 魚谷興平·森山愛造·坂下吉作·白木正市 등 4명이 근속 10개년으로 포상 및 은시계 1개씩을 도경찰부장으로부터 표창받았다.
- 1924년 4월 10일 佐藤省三은 광주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반장인 佐藤省三은 다년간 소방에 진력한 공로로 경찰부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1925년 1월 04일 출초식을 기하여 東谷仁作·中村末五郎·箕田喜太郎·絳谷潔 등 네 명은 본도 경찰서장으로부터 근속 10개년 상으로 포상장 및 은시계를 각 1개씩 표창받았다.
- 1928년 12월 2일 京城에서 조선소방협회 발회식이 거행되었을 때

組頭, 松井理三朗은 명예회원이 되었고 다년간 소방계에 진력하였기에 포상 및 은잔 3重 1組를 수여받았다.

- 京城에서 개최된 조선소방협회 발회식에서 부조두인 下垣春吉은 근속 15개년의 공로로 표창을 받았으며 기념장을 받았다.
- 1929년 3월 14일 조두인 松井理三朗은 김서규(金瑞圭) 지사로부터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면려하고 소방조의 내용을 충실히 설비 완성에 진력한 공로로 포상 및 은잔 3重 1組를 수여받았다.
- 1930년 8월 12일 소두 松田捨次郎은 다년간 소방에 진력한 공로로 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1930년 8월 12일 소두 上田範二는 다년간 소방에 진력한 공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1931년 1월 4일 소두 岡崎嘉作은 오랜 기간 근속한 공로로 지사로부터 표창장 및 은잔 3重 1組를 수여받았다.
- 1932년 1월 4일 부조두 下垣春吉, 소두 佐藤省三, 藤本信太郎, 계장 箕田 喜太郎, 絳谷潔, 소방수 福村喜代太郎의 6명은 장기간 근속한 공로로 지사로부터 표창장 및 삼중은배(三重銀杯) 1조를 수여받았다.
- 1932년 2월 12일 소두 岡崎喜作은 조선소방협회장으로부터 장기근속의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 1933년 1월 4일 소두 圓城傳平은 장기근속의 공로에 의하여 지사로부터 표창 및 三重銀杯 1組를 수여받았다.
- 1933년 4월 16일 소두 佐藤省三은 퇴직에 즈음하여 조선소방협회로부터 장기근속 소방조원으로서 그 모범이 되어 표창받았다.
- 소두 藤本信太郎에 대하여 조선소방협회로부터 장기근속 소방조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1933년 5월 1일 계장 金物義一은 장기근속의 공로로 본조로부터 은배 三重一組를 수여받았다.

16. 상해수당 지급

화재 기타 출동할 때 부상자에 대하여 조로부터 금일봉을 문병 받았던 것은 다음과 같다.

圓城傳平 金 10원 양림리 화재 1923년 3월 21일

北崎八朗 金 10원 상동

金物義一 위문 금일봉

덧붙여서 同氏는 조선소방협회로부터 상해수당금 20원을 받다.

水上健之助 위문 금일봉 須奇屋町 화재

有清好太郎 위문 금일봉

野原孝明 金 10원 柳町 농사 시험장 화재 시 발바닥이 찢림.

17. 조원 위로금

森山愛山 1922년 2월 11일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어서
金 30원을 주다.

新倉庫造 1922년 6월 26일 향전(香奠: 부의)으로 金 15원을 드리다.

土田順吉 1923년 1월 4일 향전으로 金 30원을 드리다.

上田範二 1924년 12월 25일 初老(40세의 탄 이름) 축하로 金 5원
을 드리다.

魚谷與平	1929년 6월 9일 향전으로 금일봉을 드리다.
上田範二	1930년 8월 23일 향전으로 金 15원을 드리다.
東谷仁作	1930년 11월 20일 향전으로 金 15원을 드리다.
絳谷 潔	1931년 9월 5일 장녀 사망에 대하여 金 5원 및 조기(弔旗)를 드리다.
加藤正洋	1931년 11월 8일 유소(類燒: 남의 집에서 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탐) 위문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三崎定男	1931년 11월 8일 화재 위문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吉岡常松	1933년 2월 15일 유소 위문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島元源喜	1933년 5월 7일 유소 위문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18. 퇴직수당 지급

원래 의용(義勇)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본조 일이라고 하여도 재원이 없으면 생각한 만큼 충분한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은 유감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약간씩 각원에게 기념품을 대신하여 금일봉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부분은 기본금에서 지출한다.

安井富太郎	1922년 12월 16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20원을 드리다.
森本長壽	1923년 4월 2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小山寶治	上同
平島 茂	上同 金 5원을 드리다.
長谷川休太郎	上同
中村吉之助	1923년 12월 16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5원을 드리다.

福光吉太郎 上同
 佐藤繁市 上同
 青木有為 上同
 堀 周一 上同
 箕田喜太郎 1925년 1월 1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坂本留市 上同
 牧野米吉 上同 金 5원을 드리다.
 酒井律太郎 1926년 1월 4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5원을 드리다.
 坂下吉作 上同 金 10원을 드리다.
 中村末五郎 上同
 鹽田源次 上同
 水上健之介 1926년 11월 6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松井理三郎 1929년 5월 8일 사임에 즈음하여 다년간의 공로에 보답
 하기 위하여 조원 일동의 이름으로 석제조각 미술적인
 꽃병 1개(180원)를 증정해 드렸다.
 渡會專彌 1929년 12월 30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森山愛三 上同 金 20원을 드리다.
 佐藤義彦 1930년 3월 25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5원을 드리다.
 松田捨次郎 1930년 7월 19일 퇴직수당(재직 16년)으로 金40원, 위로
 금 50원, 합계 90원을 드리다.
 上田範二 1930년 8월 23일 사망에 의하여 퇴직(재직 11년)수당으
 로 40원, 공로금으로 50원, 합계 90원을 드리다.
 三浦虎助 1931년 6월 30일 퇴직수당금 20원을 드리다.
 原田七十七 上同
 金物義男 同金 10원을 드리다.

- 井手定男 1931년 10월 10일 퇴직수당금 20원을 드리다.
- 岡崎嘉作 1932년 2월 6일 퇴직하므로 재직 17개년의 위로금으로 수당금 100원을 드리다.
- 鷗目勝馬 1932년 3월 1일 퇴직금으로 金 15원을 드리다.
- 箕田喜太郎 1932년 3월 23일 퇴직에 앞서서 소두에 임명되고 나서 다음 날 퇴직, 위로금 50원을 드리다.
- 福村喜代太郎 1932년 3월 25일 퇴직금으로 金 20원을 드리다.
- 青野重次 1932년 7월 30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 木下忠光 1932년 11월 25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 三崎定男 1933년 1월 16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0원을 드리다.
- 佐藤省三 1933년 3월 27일 재직 17개년에 상당하기 때문에 위로금 65원, 공로금 60원을 출동수당 중에서 추가로 金 20원, 합계 145원을 드리다.
- 藤本信太郎 1933년 4월 26일 재직 12개년에 상당하기 때문에 퇴직수당금 70원, 공로금 60원, 별도로 20원, 합계 金 150원을 드리다.
- 金物義一 1933년 5월 16일 퇴직위로금 및 공로금으로 金 50원을 드리다.
- 山脇和夫 1933년 5월 16일 퇴직위로금으로 金 15원을 드리다.

19. 각금(醱金)을 받은 것

1931년 8월 동경시 시원식 터빈 및 GMC 25형 자동차펌프 600호 구입 자금으로

일금 4,000원 지방비 보조금
일금 2,500원 광주읍
일금 1,000원 공진회 협찬회
일금 500원 광주토목 청부업자

1931년 12월 소유 자동차펌프 44호의 펌프 교체 및 수리비로

일금 300원 광주읍
일금 245원 광주토목 청부업자
일금 155원 조두 기본금 중에서

위의 토목 청부업자로부터 각출을 받은 745원의 내역
50원씩

大江重春殿·境野角藏殿·森安孫六殿·關本久一殿·竹本組殿·丸岡
半八殿·由田策殿·岩瀬静殿

30원씩

岩崎仰右衛門殿·坂山彌高殿·井上直一殿·森伊之助殿·丸岡七郎
殿·野本組殿

15원

田浦光雄殿

150원

광주건축업자 조합殿

20. 기부품을 받은 물건

1929년 2월 당시 미야세(宮瀬) 자동차부에서 포드 자동차 차체 1량
을 기증하였다.

이에 당조에서 발동기 기타 의장(儀裝)을 실시한 것이 현재의 490호이다.

1921년 8월 30일 목조 삼각의 경종대가 완성되었을 때, 다케우치 나오타로우(竹内直太郎)로부터 반종(半鐘) 1개의 기증이 있었다.(현재 사용하는 것)

21. 각금(釀金)을 한 현황

- 1923년 9월 20일 관동대지진 화재에 본조에서 金 100원을 기증하다.
- 1924년 11월 3일 광주신사에 석단이 없어서 우선 최하단 한 개소를 기본금에서 지출하여 축조하고 기진(寄進: 신불에 재물을 기부함, 시주)하였다.
- 1926년 5월 17일 광주공립고등여학교에 세간 구입비로 금 300원을 기부하다.
- 1926년 6월 30일 광주공립고등여학교에 세간을 구입하여 현품으로 기부하다.
- 1930년 2월 4일 대전 보병연대가 흑한 행군을 위하여 내광(來光)하였기에 위문품을 지참하여 각 숙소를 방문하다.
- 1930년 6월 27일 대구소방조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금 30원을 지출하여 송부하다.
- 1931년 12월 10일 만주 황군 위문금 150원을 각출하여 현금하다.
- 1932년 3월 26일 만주 출병 중 애국기 구입 자금을 헌납하는 자가 속출하여 우리 조에서도 이 취지에 찬동하여 金 100원을 각출하여 현금하다.

- 1933년 1월 8일 만주 출동 황군 장병 위문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금 100원을 광주헌병분견대에 위탁하여 기증하였다.
- 1933년 5월 2일 청주소방조 순직자에게 조위금 5원을 기부하였다.

22. 구역 외 응원

1929년 2월 14일 송정리 하시다(橋田) 정미소 화재의 보고를 접하고, 본소는 10여 명을 선발하여 즉각 44호 펌프자동차로 출동하여 응원하고, 4시간 반이 걸려서 가까스로 진화하고 철수하였다.

23. 조원의 각 가정

경종을 듣는 조원 한 사람만 달려오는 것은 아니다. 가족 일동 고용 인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분초를 다투며 신발, 피복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소방조원을 배출한 적이 있는 집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가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화재가 끝나면 여름은 여하튼 엄동이라고 하여도 다음 출동에 언제라도 지장이 없도록 처자는 젖은 옷을 말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손질 중에 다시 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4. 조원의 평소 마음가짐

우리 조두 이하 소방수는 이체동심(異體同心)의 한 덩어리이다. 또한 이렇게 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우리 광주소방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며 장점이다. 24시 중 조원의 염두에 지금의 것은 무슨 소리일까, 경중이 아닐까?라고 또 출타하여도 밤낮없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화재뿐이다. 이것은 조원 전체를 통하고 있는 심리이다.

평소라고 하여도 복장의 손질, 복장 용구를 두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며, 언제라도 '와라'라고 기대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최초 5분을 대비하는 소방조이기 때문에 조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50년 전까지의 소방은 완력, 정력뿐이었다. 그렇지만 잠시 소방장비를 기계화하고 여기에 개량에 개량을 더하여 과학 지식을 필요로 하고, 단순히 남자답고 용감한 정신만으로는 이제는 시대의 추세가 용서하지 않는다. 소용이 없게 된 건조물은 평면적인 것이 입체적이 되고, 해마다 아니 하루하루 구체를 버리고 변천·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물물과 하천만을 사용하였던 것도 수도를 사용하게 되고, 구호 방면에 보기에 또한 합리적인 고안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된 것이다.

직무를 실제로 하는 자, 단순히 출동만 하는 조원이 아니라, 유사시에 충실한 인명 재산의 보호자로서 임명되어, 지낭(智囊: 슬기주머니)과 정력을 경주하고 시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신뢰에 응하여야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원인 자들은 항상 연구와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고 품성의 향상과 어울려서 세상의 본보기로서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5. 조원 수양과 야구

1924년 8월 15일 조원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때에 마쓰이(松井) 조두는 운동 스포츠맨 스피리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조원에게 야구팀을 조직하게 하고, 크게 이것에 직력하였던 것이다. 광주 각 팀 중 다소 기업을 토하는 팀이 있었다. 선수는 다음과 같다.

P, 2B 加藤正洋

C 岡谷梅吉

1B 西島 岬

2B, P 鹽田源治

3B 絳谷 潔

S S 金物義男

外 野 藤本信太郎·渡會專彌·吉岡政八·金物義一

이와 관련하여 기본금 중에서 150원을 지출하여 장려하였다.



1930년 이래 잡지 「조선소방」을 제1차 시도로 계장 이상의 조원에게 계속 열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소방에 직접 관계 있는 기관 잡지는 물론, 다른 수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강독하게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종래 활동사진과 같은 것을 보아 왔는데, 앞으로는 정신적 수양에 힘쓰자는 의견이 있어 종교·교육·경제·정치·기타 제반에 걸쳐서 청강

에 힘쓰며 사회인으로서 뒤지지 않는 일에 힘쓰고 있다.

26. 조원의 연령·직업·취미

현 조원의 가장 연장은 55세이며, 최연소는 18세이다.



직업별로 보면, 100 중에 공업자에 속하는 사람 약 55, 상업에 속한 사람 약 35, 농업 기타 10의 비율이다.



조원이 취미를 크게 나누면, 스포츠, 여행, 음악, 등산, 활동사진, 독서, 바둑, 장기, 수렵, 낚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7. 통보 연락

비상통보

종래 경종에 의하여 비로소 급히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분초를 다투는 소방으로서 유감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여하튼 1930년 5월 후지모토(藤本) 조두와 당시 우편국장 다나베 소지(田邊宗次) 씨의 면담이 있었다. 면담 결과 통보의 첨단인 전화교환계의 귀에 ‘방화’라고 듣자마자, 하나의 스위치에 의하여 조의 간부와 담당자에게 일제히 속보되고, 속보를 접한 조원은 준비를 하며 경종을 이 제나저제나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땡 하고 울리자마자 진짜로 한문자로 급히 달려가서 출동하게 되

었는데, 이것은 종전의 경중에 비하여 비로소 준비를 갖추어 집합했을 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편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해 마지않을 수 없다.

준비 경보

화재와 수재, 폭풍 기타 변재(變災)를 예상하였을 때는 경찰서장으로 부터 준비 통보가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 조(組) 간부는 곧바로 대책을 강구하여 선처하고 있다.

28. 주요 소방 관계 전화번호표

광주서장 관사	전화 34번
광주경찰서	전화 4번
광주읍장 사택	전화 343번
광주읍사무소	전화 137번
수도 수원지	전화 125번
수도 배수지	전화 256번
광주소방 조두 덕	전화 647번
광주소방 부조두 덕	전화 49번
광주소방 소두 圓城搏平 덕	전화 426번
광주소방 소두 加藤正洋 덕	전화 553번
광주소방 소두 三田策一 덕	전화 252번
상비소방수 高橋勝市 덕	전화 606번

29. 경종타점(警鐘打點)

난타	○-○-○-○-○-○-○-○-○-○	관공서·공공건조물
사점타	○-○-○-○ ○-○-○-○	연습·출초식
삼점타	○-○-○ ○-○-○	근화(近火)
이점타	○-○ ○-○ ○-○	화재 외 출동
일점타	○ ○ ○ ○ ○	진화

30. 수도 및 수리

저수량	251·320立方尺
배수지의 높이	120尺
수압	52파운드
수도간선	6인치
6인치 延長	1,937미터
4인치 延長	3,002미터
소화전	51개소
공설소방대 우물	2개소
저수탱크	5개소

또한 사용하는 철관은 금년이나 내년에 각 방향으로 확장하겠다고 한다.

×

사설 우물	1,933개소
사설 소화전	25개소

池沼(지소)	서방지 1개소
하천	광주천 일대
축조탱크	5개소
소화 전용 우물	2개소

31. 소방 전용 탱크 및 우물 건설 개소

① 소방 전용 탱크

대정정 초등학교 정문 앞 모퉁이	50石(1石: 약 열 말, 180리터)
본정 오정목 산당(山堂) 약국 네거리	50石
본정 이정목 동운여관 옆 모퉁이	50石
황금동 네거리	50石
광산정 읍사무소 옆 모퉁이	50石
옥정고등여학교 모퉁이	50石

각각 평소부터 만수 수준으로 해 두고, 여기에 수도 입의 설비가 있다면, 유사시에 그다지 물 부족을 호소하지 않는다 하여도 예기할 수 없는 대화재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더욱더 탱크 증설의 준비를 요한다.

또한 사설 탱크로 광주중학교에 300석 정도의 것이 1개소 있었다.

② 소방 전용 우물

광주 대정정(최선진 씨 댁 쪽) 수면까지 6尺, 수심 11尺 8寸, 직경 10尺

누문정 사거리(고등보통학교 모퉁이) 수면까지 8尺, 수심 12尺, 직경 10尺

모두 수량이 풍부하여 물 고갈 등의 걱정은 없지만, 수면이 비교적 낮다.

32. 사설 소방기 설비

정명	소재지	펌프수	수도 소화전수	호스	스탠드 파이프수	참조
학강정	남철회사		1			옥외
同	도립의원		3	十間物2½二卷 ²⁶	2	옥외
광산정	도청	완용 2	3	十間物2½七卷 五間物1½三卷	2	옥외
同	읍사무소		1	五間物2½五卷 十間物二卷	3	옥내
본정1	제국관		1	五間物1½一卷		옥내
본정3	호남은행		1	同		옥내
본정4	주회사		1	十間物1½十卷		옥외
누문정	고등보통학교	완용 1	2	水管車 十間物2½三卷	1	옥외
명치정1	경찰관교습소		1	1		옥외
명치정1	헌병대		1	十間物2½二卷	1	옥외
명치정3	광주지방법원	완용 1	1	同	1	옥외
명치정3	만옥(萬屋)		1			옥외
대정정	전남광주역		4	十間物2½一卷	1	옥내 1개 옥외 3개

26_수관 호스 두께와 길이를 말한다.

동정	광주형무소	완용 1	1	同 三卷	1	옥외
황금정	북촌루		2	五間物1½二卷		옥내
호남정	현준호		2	同		옥내
서방정	광주중학교		2	十間物2½三卷	1	옥외
유정	운잡종제조소	1		十間物1½三卷		
유정	약림제사	1		十間物2인치 五卷		
천정	도시제사	1				
지한면	종방제사	기관에 의한 펄프 작업 준비가 있었다.				

33. 1931년 소화전 수압검사표(1931년 9월 조사)

소화전 장소	시간	조사 시간	비트게이지 示度 압력방수구 %사용 ²⁷
不動町 원성상점 앞	1분 35초	오후 10시 경	최강 22 최약 15 (단, 二石三斗탱크저수 만수시간)
광산町相馬자동차수선소 앞	40초	同	
광산町읍사무소 앞	1분 50초	同	최강 35 최약 10
신광주역전통십자로	40초	同	
남町舊道大櫟樹 側	57초	同	
제1보통학교 정문 앞	1분 8초	同	최강 20 최약 10
여학교 교차로	51초	同	
광주정미소 앞	1분 6초	同	최강 30 최약 15
초등학교 대강당 앞	59초	同	
전남광주역 앞	1분 18초	同	최강 30 최약 15

27_방수 소화전 물을 방수했을 경우 압력을 재는 공식이다.

同 관사	2분	同	
본정5정목 교차로	1분 1초	同	최강 30 최약 15
고등보통학교 교차로	2분 57초	同	최강 9 최약 0
坂口 변호사 덕 앞	54초	同	
법원 창고 側	50초	同	
산양자동차 가게 앞	45초	同	
주조회사 교차로	49초	同	
元광주좌 모퉁이	1분 20초	同	
본정2정목 3정목 사이 골목			최강 45 최약 20
본정5정목 삼산당 모퉁이			최강 50 최약 20
본정2정목 주재소 모퉁이			최강 50 최약 22
형무소 앞			최강 25 최약 9
우체국 모퉁이			최강 47 최약 20

비트게이지 조사는 최강 시간이라고 보아야 하는 오전 2시부터 3시까지를 가지고 하며, 최약은 오후 4시 무렵을 알맞게 고르고 있다.

34. 경종대

종래 이각 30척 정도의 것이 있었지만, 노후되어서 여기에 손질을 하여 역전 주재소 옆으로 옮겼으며, 1921년 8월 삼각 40척의 목제 경종대를 건설했다. 경종은 다케우치 나오타로(竹内直太郎) 씨가 기부했다.

그렇지만 다시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1929년 6월 4일 면비 2,500원을 투입하여 부산 가시모토(櫟本) 철공소에 청부하여 철골 사각 높이

75척의 완전한 것이 되었다.

또한 본 망루 기초를 이용하여 저수탱크로 하였고, 일단 유사시에 는 방화용수가 된다. 또한 한 번 사용한 호스류의 세척은 반드시 하 천에 가지고 나갔는데, 이 저수에서 세척하여 곧바로 망루 교각에서 건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말한다.

35. 소방기구고

1915년 3월 완용펌프 구입에 따라서 기구고가 필요하였기에 현재 기 구고 위치에 두 칸 반 내림에 안길이 한 칸 반 기와지붕 한 동을 건조 하였다.

1920년 호스 건조장의 필요를 느껴서 경찰서 안쪽 광장에 목제로 높이 15척 폭 6칸의 야가타(屋形: 귀인, 호족들의 저택)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1923년 11월 가솔린펌프 구입에 앞서 기구고의 협소함을 느꼈기 때문에 세 칸 내림에 안길이 네 칸의 기와지붕 단층집을 지어 서 면목을 새롭게 하였으며, 나아가 1930년 3월 490호를 파괴하고 기 구고를 만들면서 전기한 단층집에 접속한 2칸에 3칸의 2층 건물을 증축하였다. 아울러 경찰서 뒤쪽 광장의 전기한 야가타의 호스 건조 장은 누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신설 망루의 철각(鐵脚)이 호스 건조장이 되었다. 그 흔적에 4칸 내림에 안길이 2칸 반의 아연 기와지붕 단층집을 지어서 예비 기구고로 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36. 주요 기구 구입 발취

1924년 4월 16일 가격 4,200원을 투자하여 웅평(熊平) 상점에서 가스펌프 수만차 1량을 구입하여, 종래의 수압펌프만으로 의지한 것에 비하면 갑자기 방수 능력이 상승되었고 한층 더 위력을 증가하게 되었다.

1926년 12월 15일 마쓰이 조두 및 구라시나(倉品) 면장의 진력에 의하여 종래의 가솔린펌프로는 발전의 과정에 있는 광주의 품격에는 어딘지 아쉽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7,200원으로 호드티혀 스프링식 발브레스 26마력을 탑재한 펌프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일부가 되어 전기한 가스차를 상당한 가격에 견적하여 인도하고 그 차액만 지불하였다.

1931년 8월 28일 후지모토 조두의 이상으로서 소화에 대한 방법으로 주수, 파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주수소화를 주로 한다. 현재 광주에 1대의 펌프자동차로서는 안심할 수 없어서 3량을 바란다고 하여도 예산 관계상 곧바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우선 급한 대로 지금 한 대를 완전한 것으로 구입하자고 읍장, 읍회 의원에게 자문하였더니 찬성을 얻어서 다시금 도 수뇌부에게 건의를 구하였던바, 이해할 수 있는 회답을 받았다. 여기에 힘을 얻어서 지방비의 보조를 받으려고 도회(道會)가 개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도회에서 만장일치의 협찬이 있어서 많은 보조와 민간 독지가의 거액의 기부가 있었다. 동경시 이치하라(市原) 터빈펌프와 GMC, A 25형을 조합시켰다. 별항 성능표에 보이는 것처럼 근사한 우리 해군 전함 무쓰(陸奥)²⁸에도 비할 수 있는 일대 위력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1대

28_무쓰(陸奥)는 일본 해군 나가토(長門)급 전함의 2번함으로 1918년 6월, 요코스카 해군

를 구비하는 일이 없다면, 만일에 예상 외의 큰 화재를 당하든가 방
 심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두려워한다.

37. 물품 구입에 대하여

소방 장비는 원래 사소한 소모품이라고 하여도 여러 집에서 반드시
 견적을 받고, 이것에 의하여 결정하고 구입하게 되어 있다. 그 외 각
 종 지출에 있어서도 광주소방조는 이름자 그대로 광주 지역민의 소방
 조라는 견지에서 시중 동업자에게는 평등하게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점에서 금액의 다소와 어떤 종류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소방조인 점
 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입품에 대해서도 또한 엄격하게 시정을 기하
 고 있는 것이다.

38. 주요 소방 기계 성능

● 600호 펌프자동차

자동차 차대(車臺)	GMC, A25型	발동기 번호	256,2003호
발동기 마력	28·三(SEA)	차체 중량	2,250kg
차체 전(全) 길이	16피트 10인치	차체 전폭	68인치
기통수	6개	최고속력	7피트 6인치
최저속력	50마일	펌프 종류	4마일
규격 방수량	474미터 갈론	최고 펌프압력	200파운드

공창에서 가공되어 1920년 5월 31일 진수되었다.

최고 진공도	27인치	흡수구경 수	4인치 2개
흡수구경 및 수	2인치½ 4개	흡수관의 길이 및 수	7피트 6인치 4개
제조사	동경·시원펌프제작소 펌프·대판 일본 제너럴모터스회사 제차부		
판매점	경성, 웅평상점, 전남 광주 광주주조회사 납입		
시험원	東京 경시청 소방부 기계과·경성소방서 촉탁 託野宮武雄 씨		
구입일	1931년 8월 27일		
펌프	이치하라(市原) 초고압 2단 터빈		
장비	광주소방조 고안		

● 44호 펌프자동차

자동차 車臺	T型 포드	발동기 마력	19·半(SAE)
최고속력	30 마일	발동기 번호	15069, 083호
펌프 종류	齒輪式	규격 방수량	229미터갈론
최고압력	131파운드	최고 진공도	27인치
흡수구경 및 수	3인치 2개	방수구경 및 수	2인치 반 2개
흡수관의 길이 및 수	9피트 3개	기통수	4개
제조사 오사카·森田펌프 제작소			
판매점 경성·웅평상점			
시험원 오사카부 경찰부 소방과장			
구입연월일 1926년 12월 24일			
펌프 森田式 로타리펌프			

● 490호 수관자동차

자동차 車臺	T型 포드	발동기 마력	19·半(SAE)
최고속력	38 마일	장비	광주소방조 고안
제작월일	1930년 5월	기통수	4개
수관 20본 및 기타의 파괴 기구 일식을 등재 운반하다.			
수만기구 수관차 2			

수만 이인치 수관차 1
수만 이인치반 수관차 1
수만기구차 1
완용펌프 1
흡수능력 한 시간 80石 웅평상점 納
통보 연락용 자동차 겐트호 1

39. 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

우리 반도 발전에 있어서 소방설비의 충실은 더욱더 긴급을 요하여 조수 900, 조원 총수 6만이라고 칭하기에 이르렀으며, 당국도 또한 이에 힘을 더하여 일반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였는데, 때는 마침 1926년 1월에 거행된 동경출초식에는 황공하옵게도 섭정궁(攝政宮: 히로히토가 왕위에 오르기 전의 지위) 전하의 대림(臺臨: 황후나 황족이 참석함)하셔서 친히 친열(親閱: 최고 상관이 직접 검열, 열병함)의 영광을 차지하시고, 일반 소방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한결같이 황공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바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인지 1926년 9월에는 동경에서 전국소방조조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방협회 설립 계획서 실현을 기하고자 준비 중이었던바, 조선에 있어서도 각종 연락을 도모하는 필요상, 경무국의 진력에 의하여 1927년 5월 전국에 격문을 띄워서 전선소방조두대회를 개최하여 그 석상에서 조선소방협회 설립 계획을 회의에 부쳤던바, 전원 이의 없이 가결, (광주소방조부터는 조두 마쓰이 리사부로(松井理三郎) 씨 출석) 설립을 결의하였으며, 1928년 12월 2일 경성

에서 발회식을 거행하고, 다음의 요지를 발표하였다.

조선소방협회 설립 요지

- 一, 본회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본부를 조선총독부 경무국 구내에 두며, 각 도에 연합지부를, 경찰서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단, 경성에 있어서는 소방서) 연합지부 또는 지부에 관한 세칙은 회장의 승인을 거쳐서 지부장이 정할 수 있다.
- 一, 본회의 목적은 소방조 상호의 연락, 소방 발달·진보를 조성하고 관계자의 표창, 조위, 구제 등을 한다.
- 一, 본회 자산을 나눠서 기본 재산과 보통예금의 두 종류로 한다.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의 지정 기부금을 이에 충당하고, 사업 자금 및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一, 본회의 회원을 명예회원, 특별회원, 찬조회원, 정회원의 4종으로 한다.
- 一, 본회 총재는 정무총감을 추대한다.
회 장 (경무국장) 간사 3명
평의원 약간 명 사무원 약간 명
본회는 경무국장에게 총재를 촉탁한다.
간사는 경무국 경무과장 외에 회원 중에서 책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총재가 촉탁한다.
- 一, 연합지부장은 도지사에게, 부지부장은 경찰부장, 간사는 보안과장 및 회원 중에서 총재가 촉탁하고, 평의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또는 찬조원 중에서 총재가 이를 촉탁한다.
- 一, 지방 지부장은 경찰서장에게, 지부 간사는 경찰 근무하는 경부

또는 경부보 또는 회원 중에서 책임자에게, 평의원은 회원 중 책임자에게 연합지부장이 이를 촉탁한다.

역원의 임기는 2개년으로 한다. 직무에 의하여 총재 또는 역원인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 一, 본 행위는 평의원의 자문을 거치고, 총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필요한 세칙은 총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세칙을 총재의 승인을 거쳐서 회장이 이것을 정한다.

- 一, 회장은 매년 1회 전년도 지출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40. 조선소방협회 각 도(各道) 기부 할당액표

경 기 도	108,356원	충청북도	20,265원
충청남도	35,875원	전라북도	39,632원
전라남도	50,382원	경상북도	57,865원
경상남도	69,126원	황 해 도	32,655원
평안남도	34,582원	평안북도	23,878원
강 원 도	22,505원	함경남도	21,754원
함경북도	12,054원	총 계	528,929원

추가하여 기부 할당은 각종 기본 조사 자료 제1, 제2, 제3의 3안 중에서 제3안을 채용하여 직접 부세 부담액 백분의 6으로 직접 면세 부담액 천분의 35로 산출하였다.

41. 소방협회 기본금 전남 각 군(郡) 할당액

목포	6,115원 6전	장흥	2,398원 11전	광주	4,220원 45전
강진	2,252원 77전	담양	2,252원 77전	해남	3,398원 72전
곡성	2,040원 35전	영암	2,465원 19전	구례	1,397원 50전
나주	3,896원 23전	광양	1,358원 37전	함평	2,325원 44전
여수	2,001원 22전	영광	2,291원 90전	순천	2,968원 29전
장성	2,398원 11전	고흥	2,358원 98전	완도	1,106원 82전
보성	2,504원 32전	진도	1,179원 49전	화순	2,146원 56전
제주도	1,312원 00전	합계		54,390원 05전	

(덧붙여서 협회 할당액보다 4,000원 정도 초과달성하였다.)

42. 조선소방협회 전라남도 연합지부 발회식

조선소방협회가 설립되어 그 근본 취지에 의하여 본도에 있어서도 연합지부를 필요로 인정하여 이것의 발회식을 1929년 3월 24일 전라남도 상품 진열소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장 아사리(淺瀨) 경무국장 대리로 소방협회 간사 다나카(田中) 경성소방 조두의 임석하에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당일 연합지부장 김서규 본도 지사로부터 마쓰이 조두에 대하여 (목포 아소(麻生) 조두와 함께) 포상 및 3개의 대형 은컵을 수여받았다.

43. 강연회 개최

- 1930년 6월 26일, 경성소방서장 다이라쿠 쇼스케(大楽勝介) 씨의 광주 방문을 좋은 기회로 하여, 광주읍사무소 노상에서 소방에 관한 '시민이 바라본 소방'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1932년 5월 17일, 경시청 전 소방과장 아마카와 히테요시(山川秀好) 씨 만선(滿鮮) 시찰길에 광주 방문을 기회로 '문화의 경찰과 소방'이라는 주제로 무덕전(武德殿)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던바, 근린 소방조원이 다수 모여들어서 2시간여에 걸쳐서 크게 얻는 바가 있었다.

44. 각 방면 파견

- 1929년 10월 5일, 소두 마쓰다 스테지로(松田捨次郎)는 이세대신궁(伊勢大神宮)²⁹의 20년 환궁제(還宮祭)에 뽑혀서 참배하게 되어 이번 기회에 소방에 관한 각 방면의 시찰을 하게 되었다.
- 1930년 10월, 가토(加藤) 소두(전라남도 연합청년단 대표로 친열 참가)가 동경에 출장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때마침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펌프에 관한 각지의 소방조가 채용하고 있는 것 및 제조공장 여러 군데의 참관 조사를 촉탁하고, 내지(일본)의 여러 도시 수 개소를 현지 시찰하여 얻은 바가 적지 않았다.
- 1931년 3월, 후지모토(藤本) 조두, 광주경찰서 보안계 주임 니시카와(西川) 부장, 소두 가토 마사히로(加藤正洋)와 동행하여 조선 내

29_일본 황실의 종묘, 三重현 伊勢시에 있는 神社.

각지를 순찰하고, 경비기관의 연구 사찰을 수행하여 얻는 것이 많았다.

- 1931년 2월, 경성에서 개최한(경성소방서 주최) 소방에 관한 강습회에 소두 사토 쇼조(佐藤省三)를 파견, 2주간의 학술 및 체험 강습을 받게 하였다.
- 1933년 3월 13일, 경성에 있어서 개최한(조선소방협회 주최) 제2회 소방 강습회에 경찰서 보안계 호리키리(堀切) 부장 및 계장 오가와 타케시(小川驒)를 파견하여 학술 및 실제적인 강습을 받게 하였다.

45. 친열(親閱)³⁰

황송하옵게도 성상 전하께옵서는 격려하실 생각이 있으셔서 1929년 1월 6일 전국 소방조 대표자를 동경에 부르셔서 친열하여 주시고, 본 조로부터는 시모가키(下垣) 부조두가 참석하는 영광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모가키 씨 한 사람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광주소방조의 영광이라고 믿는다. 덧붙여서 시모가키 부조두는 참가 기념장을 삼가 받게 되었다.

1929년 10월 3일, 경성에 전선소방조 대표를 부르셔서 한원궁(閑院宮) 전하³¹의 친열이 있었으며, 우리 조에서는 후지모토(藤本) 조두

30_최고 상관인 직접 검열·열병함.

31_간인노미야 고토히토 친왕(閑院宮載仁親王, 1865년 11월 10일~1945년 5월 20일)은 일본의 군인, 정치인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참전하고 쇼와 천황 시기까지 활약한 일본 제국 육군의 군인이다. 일본 황족이며 육군 원수에까지 올랐다. 1919년에 일본군 원수가 되고 1931~40년까지 일본군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후시미노미야 구니이에 친왕(伏見宮邦家親王)의 서자였으나, 간인노미야 집안의 양자가 되고 이어 당주가 되

이하 10명이 이 광영을 입게 되었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小頭 藤本信太郎 係長 佐藤省三 係長 奈良野得一 係長
金物義男 係長 箕田喜三郎 係長 絳谷 潔 係長 井上定一
消防手 有清好太郎

46. 조원 견학

- 1924년 4월 15일 이리소방조를 시찰할 목적으로 조두, 부조두 이하 계장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만들어 왕복 2일간의 견학을 하였다.
- 1927년 5월 29일 경성에 소방대 연습 참관을 위하여 마쓰이(松井) 조두·소두 후지모토 신타로(藤本信太郎)·우에다 노리히토(上田範二), 반장 엔쵸 덴페이(圓城傳平)·가토 마사히로(加藤正洋)·미다 기사부로(箕田喜三郎)·구케야 기요시(絳谷潔)·사토 요시히코(佐藤義彦)·사토 쇼조(佐藤省三)·아리키요 코타로(有清好太郎)·소방수 에구치 쇼타로(江口重太郎)·모즈메 가치우마(鴟目勝馬)를 파견하여 견학하도록 하였다.(왕복 4일간)
- 1929년 3월 24일 광주에서 거행된 전남 연합지부 발회식에 전 조원(全組員) 참가.
- 1929년 10월 1일 경성에서 개최 중인 조선박람회 및 한원궁 전하의 친열을 위하여, 후지모토 조두 이하 10 수 명을 선발하여 왕복 4일간 참열.
- 1929년 10월 1일 목포지부 발회식에 마쓰이(松井) 조두, 시모가키

었다. 간인노미야 스케히토 친왕(閑院宮 典仁親王)의 4대손이다.

(下垣) 부조두, 후지모토(藤本)·우에다(上田)·마쓰다(松田) 소두의 출장.

- 1930년 9월 18일 전주에서 거행된 전북 연합지부 발회식에 마쓰이(松井) 조두·우에다(上田)·후지모토(藤本)·마쓰다(松田)의 3소두 출장.
- 1931년 10월 5일 나주지부 발회식에 후지모토(藤本) 조두, 엔쵸(圓城)·후지모토(藤本小頭)·미타(三田)·에구치(江口)·나라노(奈良野)·미다(箕田)·이오(飯尾)·다하라(田原)·아리키요(有清)·후쿠무라(福村)·우지하라(氏原)·다카하시(高橋)·사카모토(坂本)·오가타(小川)·미사키(三崎)·다나카(田中) 등 수 명이 출장
- 1930년 10월 6일 화순지부 발회식에 후지모토 조두, 후지모토(藤本)·사토(佐藤)·엔쵸(圓城)의 3소두(三小頭), 미다(箕田)·이노우에(井上)·미타(三田)·이데(井手)·에구치(江口)·아난(阿南) 등 각 계장 출장
- 1931년 10월 30일 육군 제20시단 기동 연습을 광주를 중심으로 집행하여, 끝나고서 20사단장실에서 중장 각하의 강령이 있었는데 우리 조 간부도 참관, 견학하였다.

47. 강습 지도

- 1930년 8월 종래 가토 마사히로(加藤正洋)·다카하시 가쓰이치(高橋勝市) 두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떠맡도록 하였는데, 이래서는 자동차량의 증가와 보충원의 부족에 의하여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가나모노 기이치(金物義一)·구케야 키요시(絳谷潔)·야마와키 가즈오(山脇和夫)·시오타 겐지(鹽田源次)의 네 명에게 운전수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토(加藤) 소두로 하여금 수업을 받도록 한 결과, 가나모노(金物)·구케야(絳谷)의 두 사람에게 본도 경찰부로부터 면허증을 받았다.

- 1932년 9월 5일부터 광주경찰서 뒤 광장에서 몇 해 전 경성소방 강습회에 파견되었던 소두 사토 쇼조(佐藤省三)의 지도에 의하여 15일간 기본 응용 및 자동차의 각 조법을 강습하도록 하였다.
- 1933년 4월 광주헌병 분견대 앞 광장에서 금년 3월 경성에서 개최된 제2회 조선소방협회 주최 강습회에 출석한 광주경찰서 보안계 掘切 부장 및 소방조 오가와 다케시(小川躰) 계장의 지도에 근거하여 광주군 내 각 소방조 간부를 소집, 기본 조법을 훈련하였다.

48. 방화 선전

1921년 이래 화재 시 출동 외, 풍수해 혹은 화재를 연상하게 할 때는 조원의 일부 또는 총원은 시중을 경계함과 동시에 캠페인을 실시하며 방화(防火)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적시에 활동사진 등으로 일반 민중의 방화사상 고취에 힘쓰며 이미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49. 식전·송영·봉축·기타

우리 광주소방조는 항상 시민의 일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평소에 정신 수양 향상에 힘쓰며 모든 식전 봉사 요배(遙拜: 먼 곳에서 배례함)의 제식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일면으로는 광주 출입의 고관, 명사,

빈객에 대하여 단체로 때로는 간부 혹은 전원이 참가하여 환송연을 하고 있다.

1930년 2월 육군 제80연대 제3대대 대전(大田)부대가 겨울 행군을 위하여 내광(來光)하여 본조에서는 위문품을 증정하고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1932년 10월 7일 이세대신궁(伊勢大神宮)³²에서 조선의 주요 신사에 신보(神寶: 신사의 보물)의 하사가 있었다. 우리 광주신사도 그 20개 신사 중에 있어서 큰 칼[太刀]·방패[楯]·활[弓]·우쓰보(鞆: 허리에 차는 화살통)·구시계(櫛笥: 빗 따위 화장 도구를 넣어 두는 상자)의 5종을 본부 신사국을 거쳐서 하사하게 하였다.

이것을 수령하기 위한 역할로 신궁 및 신사 총대인 기미시로(上城)가 이것을 수령하여 광주로 돌아와 광주역 앞에서 신사까지 관민이 도열하여 마중 나와 있는 가운데를 엄숙하게 나아가서 무사히 신사 배전(神社拜展)에 옮겼으며, 봉안고(後奉安庫)에 거둬 넣었다. 이 식전에 우리 소방조는 정선된 우량 조원으로 하여금 봉공을 드리게 하여 조금도 실수 없이 봉사하였다. 기타 해마다 광주경찰서 주최의 교통정리에도 참가하고 있다. 매년 4월 3일에 시행하는 도청 주최의 기념식수에도 조 간부는 참가하고 있다.

32_이세 신궁(일본어: 伊勢神宮)은 일본의 신사(神社) 중 하나이다. 미에현 이세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사의 이름은 미에현의 옛 이름 중 하나인 이세국에서 따온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사로, 일본 내 신사들의 중심 시설이다.

50. 조원 채용 방법에 대하여

▣ 임시소방수 모집

본조는 창설 당시 재향군인회가 주체로 되어 있었던바, 1919년 3월 만세 소동에 의하여 소방수의 급증원의 필요를 느껴서 임시소방수라는 명칭하에 십수 명을 모집하여 1921년 1월 15일 일제히 이를 소방수로 개정하였다.

▣ 조선인 소방수 채용

종래 내지인만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본조도 조선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1931년 5월 2일 최초의 시험으로 5명을 채용하였던바, 성적이 매우 좋아서 1931년 12월에 10명을 증원하였다. 이것이 모집에 있어서 오로지 심사를 엄격하게 하였기에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51. 상비원 채용

1923년 11월 가솔린펌프를 구입하고 1926년 12월 44호 펌프자동차 구입 등 장비의 복잡성은 더욱더 가하여졌지만, 이것의 조종 및 손질은 완전히 조원 중에서 경험자, 또는 유지에 의하여 의용 봉사만으로 손질 수리 기타 모두를 취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업무를 하는 각자에게 맡기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읍 세비에 최소한의 전문원(專務員) 1명의 채용을 간청하였던바, 다행히도 읍회를 통과하여 1931년 4월 1일부로 다카하시 가쓰이치(高橋勝市) 씨를

읍 고문으로 채용하였으며, 오로지 소방기구의 손질 기타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52. 광주경찰서 역대 서장

佐上原岩熊 씨	재임기간	1910년 4월 ……	1911년 4월
中西清吉 씨		1911년 4월 ……	1915년 1월
鈴木 貢 씨		1915년 1월 ……	1918년 2월
二宮恒藏 씨		1918년 2월 ……	1919년 12월
古谷清威 씨		1919년 12월 ……	1920년 1월
大仁田市太郎 씨		1920년 1월 ……	1921년 3월
鳥越嘉太郎 씨		1921년 3월 ……	1923년 1월
岩橋朝一 씨		1923년 1월 ……	1924년 1월
岩井逞作 씨		1924년 1월 ……	1925년 12월
今永政範 씨		1925년 12월 ……	1926년 7월
和田三郎 씨		1926년 7월 ……	1927년 9월
多田義一 씨		1927년 9월 ……	1930년 3월
片山退藏 씨		1930년 3월 ……	

53. 역대 광주면·읍장

金致疇	1912년 5월 25일부터	1913년 7월 22일까지
趙由錫	1913년 7월 22일	1914년 1월 24일까지

朴興緒	1914년 4월 1일부터	1915년 2월 9일까지
崔相鎭	1915년 2월 9일부터	1917년 9월 30일까지
松田徳次郎	1917년 10월 1일부터	1918년 7월 20일까지 1917년 10월 1일 지정면이 되다.
三浦快裁 씨	1918년 7월 20일부터	1918년 11월 26일까지
吉村軌一	1919년 7월 22일부터	1921년 2월 8일까지
福本有雅	1921년 2월 8일부터	1923년 5월 5일까지
秋場格太郎 씨	1923년 6월 22일부터	1925년 1월 15일까지
倉品益太郎	1925년 1월 27일부터	1929년 9월 24일까지
奥村信吉	1928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1931년 4월 1일 읍 제 발표하다.

54. 광주면·읍회 의원

1920년 11월 지방자치제도 개정의 제1보로 시행되었다. 광주면협의회원 및 1931년 4월 결의기관으로 개정된 초대의원 諸氏에 대하여 우리 소방조에 항상 심심한 노력과 후원을 해 주신 점을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광주면협의회원

1920년 11월(제1회)

戶板常之助 安藤廣次郎 藤本一二郎 前川定藏

松井理三郎 金衡玉 李政相 井筒甚三郎

張境斗 朴癸一 朱賀永 加藤機三郎

1923년 改選(제2회)

松井理三郎 谷口隆 坪井盛太 朴癸一
島村民衡 玄俊鎬 佐藤秋藏 諸山猪藏
金相淳 吳憲昌 藤本一二郎 李起滸

1926년 改選(제3회)

李起滸 坂口喜助 諸山猪藏 谷口隆 松井理三郎
林鳳周 金相淳 大津虎八 佐藤秋藏 玄俊鎬
崔駿基 藤本一二郎 相馬與作 吳憲昌 松井理三郎 玄俊鎬

1929년 改選(제4회)

岩男 廣 內山重夫 金信錫 相馬與作 牛島熊記
安藤 進 大津虎八 宋和植 藤本一二郎 坂口喜助
福本育雅 崔駿基 金相淳 沈德善

■ 음회의원

1931년 4월 1일(제1회)

安定基 崔駿基 藤本一二郎 福本育雅 安藤 進
岩橋朝一 金信錫 谷口隆 坂口喜助 內山重夫
相馬與作 岩男 廣 金相淳 牛島熊記

55. 관할의 변화

● 광주재향군인회

1911년(공인소방조) 창설은 당시의 재군적자(在軍籍者) 중에서 유지의 적지 않은 노력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이후 위생소방조합에 계승될 때까지 약 5개년간 이것이 회계 기타의 사무 일체를 돌보아 주었다. 창립 당초의 본회 간부는 우오타니 요조(魚谷與藏)·소마 요사쿠(相馬與作)·지하라 시즈오(千原静男)·미야자키 히데키(宮崎栄喜)·도쿠다 마코토(徳田忠)의 제씨(諸氏) 기타였다고 들었다.

● 광주위생소방조합

1914년 12월 28일 同 조합의 창설을 보자마자 전기의 소방조에 관한 사업 전부의 인계를 받아서 다시금 일대 개선을 가하여 조합장 겸 조두 마쓰다 도쿠지로(松田徳次郎) 씨, 회계역(會計役) 이시이 도구쥬(石井篤三) 씨에 의하여 1917년 10월 제도 개정을 위하여 조합사무 전부를 광주면에 인계될 때까지 부지런히 경영하였다. 그동안 시모가키 하루요시(下垣春吉) 씨는 현장 일체를 지휘하고 조두대리를 하였다.

● 광주면·읍

1917년 4월 광주위생소방조합의 사무를 인계하여 소방조에 관한 시설 및 여기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면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다. 덧붙여서 면에 인계한 이후 상당한 시설을 이룬 것도 씬이 되어 다시금 한층 소방의 충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완벽을 기하고 있다.

56. 현재 소방 장비표

種別	員數	種別	員數
소방사무소	1棟	기계기구 두는 곳	2棟
철골망루	1대	경종鐘	1개
호스세척소	1개소	마토이	1개
조기旗	1旒	고장제등	1개
펌프자동차(600호)	1대	펌프자동차(44호)	1대
水管자동차(490호)	1대	완용펌프	1대
기구·수관차	2대	2인치반卷수관차 1대	
種別	員數	種別	員數
2인치卷수관차	1대	기구차	1대
운반차	1대	자전차	1대
町野式 컷플링부착호스2½	83本	형검호스 (완용펌프용)	32本
구호용 포	1개	신호용 나팔	5개
구조 배	1本	구조 布	1本
自在 사다리	3개	줄사다리	1連
동근 사다리	1개	큰 망치	3丁
矢野式호스修理具	1개	리倒繩 ³³	2筋(가닥)
제등	22개	額面(현판)	5개
신호기	4本	熊手(大小)	10本

33_인도승(리倒繩)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탈출용이나 진압 장비를 묶어 사용할 수 있는 긴 로프를 말한다.

刺叉 ³⁴	2 本	長柄大鎌 ³⁵	4 丁
6尺柄 鎌	5 丁	長 鳶	8 丁
中鳶	47 丁	手 鳶	18 丁
포제 탱크	6 개	수도용 쇠망치	2 丁
도끼	2 丁	툽	1 丁
천정파괴기(天井破壞器)	3 本	충전기	1 개
표시판	2 개	바이스 스파나 기타 수리기	
철선절단가위	2 丁	十字가위	2 丁
서림(鋤簾)괘이 ³⁶	2 丁	전령등	3 개
펌프자동차용 관창(管鎗)	9 本	펌프자동차용 관창 대체구	19개
완용관창	4 本	완용관창 대체구	4 개

57. 화재 외의 출동과 야경

● 만세소요

1919년 3월 전 조선에 일제히 일어난 만세소요가 있었다. 광주 지방도 파급을 받아 불온한 움직임이 있어서 경중에 의하여 출동하고 잇따라서 매일 밤 야경을 하였다.

본부를 광주경찰서 구내에 두고, 조원을 몇 개의 반으로 나누어

34_자차(刺叉)는 비너나 작살처럼 생긴 예리한 창의 일종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수들이 지붕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파괴 기구이다.

35_장병대검(長柄大鎌)은 손잡이가 있는 큰 낫자루 기구로, 화재 현장에서 파괴 기구로 사용된다.

36_쥘렌은 긴 손잡이가 달린 삼태기의 일종.

각 조의 자위단, 수비대와 연락을 취하여 매일 밤 경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 수해 방지

1919년 7월 부동교 큰 홍수 때문에 야경을 하였다. 1921년 7월 17일 시내 동광산정 지사 관저 뒤뜰 침수 때문에 출동하여 방수에 힘썼다.

● 소작쟁의

1924년 1월에 일어난 소작쟁의의 진정을 위하여 수백 명이 광주서로 밀어닥쳐서 경종을 난타하여 소방조원을 소집하였으나 이와이(岩井) 서장의 간곡한 유시에 의하여 대표 23명을 남기고 곧 물러가서 무사하게 마쳤다.

● 극장 경비

1924년 이후 1930년 2월까지 조원을 적당하게 교체하게 하여 광주좌, 광남관에 출장, 야간 영업시간 중은 물론이거니와 관객이 귀가한 뒤 화기의 순찰을 실행하여 왔는데, 형편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 폭풍우 출동

1922년 2월 10일 전일부터 강우는 갑자기 폭풍우로 변하여 풍속 43미터를 보였기 때문에 본정통 동운여관의 공사 중인 3층 건물이 도괴하였으나 다행히도 사람과 가축의 사상은 없었지만, 출화의 우려가 있어서 회원이 출동하여 야경을 하였다.

● 비행기 구조작업

1925년 4월 16일 평양비행 제6대대 정찰기 3기가 송정리 착륙장에 비행 중 1기는 담양 방면에서 진로를 잘못하여 서방면 경양저수지에 착륙 전복하여 탑승자에게는 부상이 없었지만, 기체가 크게 파손됨에 따라 광주소방조는 즉시 출동하여 목재 운반 기체의 인양을 하였다.

● 학생소요

1929년 11월 3일 광주중학교 학생과 광주고보 학생 간 싸움을 동기로 종래부터 배양되어 왔던 사상단체가 준동(蠢動)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시위운동을 하는 등 큰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도중에 경찰관헌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아서 이때 본 소방조도 출동하여 경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 부동교 침수

1930년 8월 21일 광주천 범람으로 상류 철도선 일부가 파괴되어 부동교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유실의 우려가 있음에 전원 출동하여 방제에 힘써서 무사하게 마쳤다.

● 전남 공진회 야경(夜警)

광주에 공진회가 개최되자마자 밤낮으로 수만의 군중들이 몰려와서 혼잡하므로 야경의 필요를 느껴서 자발적으로 조원 중에서 선발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 도 회의실 파괴

1931년 11월 3일 전부터 건축 중인 도청회의실, 3층 천정 콘크리트

작업 중에 갑자기 붕괴되었기에 광주소방조원 전원이 출동하여 피해 인명 구조작업을 하였다.

● 수해 출동

1933년 6월 28일 연일 호우 때문에 광주 부근의 천변 각 곳에 침수 피해가 있음을 우려하여 경찰서의 명령에 의하여 오후 1시 총동원하여 저녁 11시에 귀환하였다.

1933년 8월 23일 연일 강우가 있었기 때문에 산동교 부근의 도선이 전복되어 4명이 행방불명되었다. 각지의 소방이 출동, 광주소방조에서도 자동차에 편승 조두 이하 다수가 출동하여 비아, 극락 사이에서 사체를 발견하였다.

1933년 8월 26일 지난밤부터 내린 호우로 담양 방면의 수해에 동반하여 극락강의 수위가 높아져 각 곳이 위험하여 출동 경종을 울려 극락교 부근을 순찰하였다.

1933년 9월 17일 만주사변 2주년에 광주에서도 의미 있는 기념을 하려 등화관제를 시행하여 우리 소방조도 참가하였다. 등화관제 종료 후 계속해서 소방 연습이 이어져 광주 하천변의 모래밭에 가상 화재를 일으켜서 출동, 진화하는 모의화재 훈련을 하였으며 훈련 효과는 양호하였다.

58. 기본금 조성

1919년 4월 장래를 위하여 기본금 조성을 계획하고 조의 임시수입금의 대부분을 적립하여, 이미 누적되어 온 정기예금 2,000원, 보통예

금 약 1,000원을 갖기에 이르렀다.

59. 복제 개정

1911년 창설 당시 제복은 조금 구식이었기에 마쓰이(松井) 조두가 1920년에 이르러 다소 변경을 보았다. 1928년 11월 창립한 조선소방 협회와의 전국 소방 복제 통일 방침에 맞추어 다시금 개정하기로 하고, 1933년에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제복으로 변경하였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 전 조원에게 보급할 수 없는 섭섭함도 있었는데, 앞으로 면(面)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변화시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1930년 6월 17일 조원의 각계별(各係別: 광주소방조의 편제인 係의 구별) 표시를 위하여, 왼쪽 어깨에 도비구치(鵞: 솔개창)·마토이(纏)·신호(信號)·급수(給水)·펌프자동차·통선(筒先: 호스의 끝, 그것을 잡는 소방수)의 6종류의 마크를 제정하였다.

60. 역대 간부

	씨명	취임 연월일	사임 연월일	비고
組 頭	徳田 忠	1911년 10월 5일	1914년 4월 1일	
	松田徳次郎	1914년 12월 18일	1917년 3월 31일	
	占野幸市	1919년 3월 15일	1920년 1월 10일	
	松井理三郎	1920년 4월 22일	1929년 5월 8일	
	藤本一二郎	1929년 5월 8일	현 재	조선소방협회 특별회원
副組頭	高橋徳太郎	1911년 10월 5일	1929년 1월 30일	死去
	清水義一	1911년 10월 5일	1912년 6월 10일	사임 下垣 씨 후임이 되다
	下垣春吉	1911년 10월 5일	현 재	松田 씨 消防衛生組合長時代組長 직무대리를 명받다
小 頭	山本広作	1914년 1월 4일	1915년 3월 30일	死去
	古城平一	1914년 1월 4일	1915년 6월 20일	轉居
	岡崎嘉作	1915년 6월 23일	1932년 2월 6일	同 6월 23일 小頭 拜命
	細田長市	1915년 4월 2일	1929년 1월 10일	死去
	三浦重五郎	1915년 6월 30일	1917년 10월 20일	
	上田範二	1921년 4월 2일	1930년 8월 22일	死去
	松田捨次郎	1921년 12월 30일	1930년 7월 12일	
	藤本信太郎	1921년 6월 2일	1933년 4월 25일	
	圓城傳平	1922년 6월 17일	현 재	1930년 9월 25일 小頭 拜命
	加藤正洋	1923년 11월 1일	현 재	同上
	佐藤省三	1916년 12월 15일	1933년 3월 일	同上
	箕田喜太郎	1916년 12월 15일	1932년 3월 20일	小頭 拜命 동시에 사임
	奈良野得一	1915년 11월 10일	현 재	1932년 3월 29일 小頭 拜命
	絳谷 潔	1921년 12월 13일	현 재	1933년 4월 15일 小頭 拜命
	三田策二	1923년 2월 1일	현 재	1933년 6월 10일 小頭 拜命
井上定一	1925년 2월 15일	현 재	同上	

61. 현 조원표(1933년 9월 1일 현재)

직명	배명 연월일	적요	씨명	원적
조두	1929년 5월 8일 조두 배명		藤本一二郎	福岡
부조두	1911년 10월 5일 소방수 배명	1912년 5월 2일 부조장 취임 1913년 8월 8일 조장직무대리배명 1916년 7월 일 조장직무대리해임 부조두 배명	下垣春吉	島根
소두	1922년 6월 17일	1930년 9월 3일 소두 배명	圓城傳平	滋賀
	1923년 11월 1일	1930년 9월 3일 소두 배명	加藤正洋	長野
	1925년 11월 10일	1932년 3월 29일 소두 배명	奈良野得一	廣島
	1921년 12월 13일	1933년 4월 15일 소두배명	絳谷 潔	長崎
	1923년 2월 1일	1933년 6월 10일 소두 배명	三田策二	兵庫
	1925년 11월 25일	1933년 6월 10일	井上定一	熊本
계장	1925년 12월 25일	1930년 9월 8일 연(鳶)계장 1931년 4월 1일 관창(管鎗)계장 1933년 7월 계장 대표	飯尾文一	徳島
	1919년 4월 2일 소방수 배명	1933년 6월 1일 수관계장	有清好太郎	山口
	1925년 6월 8일	1930년 4월 1일 관창계장	江口重次郎	岡山
	1927년 12월 16일	1930년 9월 8일 연(鳶)계장	鹽田源次	香川
	1928년 5월 30일	1932년 4월 1일 연(鳶)계장	田原幸三郎	島根
	1929년 12월 24일	1932년 8월 1일 급수계장	小川 辱	熊本
	1930년 10월 11일	1933년 6월 1일 (鳶)계장	八田敬吉	鹿島
	1930년 10월 11일	1933년 6월 1일 급수 및 전령계장	島本源喜	熊本
	1931년 5월 2일	1933년 3월 1일 (鳶)계장	大野龜次	岡山
1931년 12월 25일	1933년 6월 1일 唧筒(펌프)계장	占野 大	大分	
상비 소방수	1926년 12월 15일	1933년 4월 1일 톱고용원, 상비 소방자동차 등의 수리 및 운전 담당	高橋勝市	長崎

소방수	1922년 6월 17일 소방수 배명		荒木長臈	福岡
	1923년 12월 25일 同		岡谷梅吉	山口
	1925년 1월 10일 同		森本覺治	島取
	1925년 2월 15일 同		小山勝	石川
	1926년 12월 15일 同		川上種藏	福岡
	1929년 10월 18일 同		田中藤吉	大阪
	1930년 2월 17일 同		吉岡商松	長崎
	1930년 10월 11일 同		戶島辰藏	福岡
	同		橋本榮太郎	京都
	同		前田松太郎	香川
	同		永田長次	長崎
	同		足立東三	兵庫
	同		瀬戶口光男	佐賀
	同		加來干城	大分
	同		畠山長治兵衛	岡山
	1931년 5월 2일		井上隆次	兵庫
	同		佐藤靜夫	岡山
	同		崔敬洙	光州
	同		具順道	同
	同		金柄植	同
	同		朴宗完	同
	同		李基垣	同
	同		東谷孝	石川
	1931년 12월 25일		信國忠	大分
	同		內田俊一	山梨
	同		松岡宗春	愛媛
	同		小川時義	熊本
	同		曹奇煥	光州
同		鄭長洙	同	

소방수	同		荒川司松	熊本
	1932년 8월 1일		信井 勉	大分
	同		中島豊喜	長崎
	同		條原武雄	京都
	1932년 10월 10일		曾我芳三	岐阜
	同		野原孝明	山口
	1932년 10월 10일		孔三岩	光州
	同		東三才	同
	同		明大安	同
	1932년 10월 30일		吉村寅三郎	高知
	同		後藤常義	熊本
	1933년 5월 15일		坂本義局	愛媛
	1933년 6월 5일		稻數一雄	大分
	1933년 8월 1일		横山正二	鹿島
	同		伊豫永萬之助	山口
	同		柿本善孝	大阪
	同		丹次喜代郎	兵庫
	同		石川傳吉	同
	同		宮本一郎	大分
	同		松本武一	島取
	同		原田 巖	山口
	同		松井源三郎	高知
	同		井手勝視	福岡
	同		松永彌夫	山口
同		彼賀野喜視	岐阜	
同		清水 貢	石川	
同		福居蓋次郎	富山	
同		加藤治朝	秋田	

62. 퇴직 조원표

(1911년 10월~1933년 8년 7월 11일)

德田 忠(조장) 山本廣作 魚谷與市 加藤新一 柿田豊太郎 松尾熊太郎 梅谷茂三郎 澤野至光壽 末宗久米次 竹村長吉 高橋德太郎(부조장) 森山藤二郎 上浦虎市 尾崎佐吉 和田乙吉 永松三内 細田長市(소두) 坂根兼一 大隈密太郎 立野辰三 古城平市(소두) 内田傳三郎 牧野米吉 若松卯吉 松田拾二郎(소두) 小田卯市 小林治助 安井富太郎 吉次熊六 佐野摸亮 高田時太郎 三浦中五郎(소두) 酒井長二郎 飯島福二郎 花石文二郎 松下藤一 久保川常太郎 有木勇作 松尾久市 權藤和之吉 松田德次郎(조두) 長谷川竹四郎 本村傳七 中村吉之助 森木長壽 坂井津太郎 松井理三郎(조두) 花田佐市 高橋德三郎 上田新在衛門 竹内作市 島田富造 長谷川久太郎 和田磯松 福村喜代太郎 鹽田清之助 新倉庫造 佐藤義彦 岡崎喜作(소두) 大脇成事 秋下久七 道之豊太郎 前田 清 箕田喜太郎(소두) 上田範二(소두) 白木政市 金物文次郎 福光吉太郎 佐藤繁市 米川 進 藤本信太郎(소두) 土田順吉 原田七七七 中島 寬 高田 禰 白石竹市 占野幸市(조두) 山下太三郎 佐野榮造 久保田丈市 佐藤省三(소두) 坂本留吉 田中愛造 上田卯作 松本福二郎 中村末五郎 渡邊文吉 堀周 一 清水有爲 東谷仁作 酒見龜三郎 森山愛三 山口若江 酒井喜久郎 小山寶治 田中安一 本田清太郎 大須賀爲市 野間茂吉 水野只次 坂下吉作 中原宗一 尾崎令三 藤原政治 平島 茂 横田儀藏 三浦虎助 白井熊平 藤本清太郎 三好儀市 荒木長藏 入部右平 井手定男 西島岬 陶賢 藏 井本幸吉 岩男 廣 石橋 茂 岡原 一 丸地金作 福村竹雄 三浦眞太郎 高橋清喜 行廣源一 小田正一 田中久三郎 宮本一夫

末宗 鼠 久保田國次郎 金物義一 北崎八郎 金物義男 品川岩太郎
 太田壽太郎 宇山榮一 金子大助 阿南末光 川上眞五郎 吉岡日出子
 大谷揮夫 佐藤 務 石龜一次 小田義夫 三崎定男 辻爲次郎 壓本正
 義 杉清 小田 清 吉岡政八 渡會傳彌 大西 秀 米川 健 米澤武一
 石川本介 橋本義男 久保田愼五 内丸鷺藏 山脇和夫 草傷一郎 佐野
 梅助 松田憲一 尾崎揮雄 前田 治 宇野重松 和田直助 中谷榮一
 雜子政夫 기井敬之助 木下忠光 堀口清吉 久野一義 青野中次 國
 兼井市 濱西一郎 小林龍樹 賜目勝馬 米澤武市 入部正喜 宮川 登
 上村清次 須村勝治 末次正民 中島豊喜 勝木都光 阿部歳夫 鍛治
 省三 阿比留豊

63. 연중행사

1월 4일	출초식
舊 연말	야경(약 1주일)
임시	야경 및 방화 선전
정례	경성에서 개최된 소방 강습회에 우량 조원 파견
4월	춘기 연습
4월	조원 총회, 회계보고
4월 3일	기념식수 참가
10월	추기 연습(소화전 조사·방화 선전·각 관청의 방화기구 점검 등)
12월 말	시중 송식(松飾: 소나무 장식) 청부
매월 1일	정례 소방기계 손질 및 검사
매월 1일 列會	경찰 간부 및 보안계·조두 이하 계장 집합 연구좌담회

64. 이상

소방조 아니, 소방수는 과거 에도시절의 꽃이라고 불리며 민중 속의 무도 기질을 양어깨에 짊어졌다. 세상 사람들도 또한 남자답고 용감한 기질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것은 필경 의기로 느꼈기 때문이다. 소방수의 직무는 대단히 공공적이어서 그 신분관계는 훌륭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각자가 자중하여 신용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상호간에 서로 경계하며 특별히 공경의 태도를 취하는 태도를 삼가야 한다. 만일 소방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난폭을 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다면, 일반 민중은 가령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반드시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소방수라고 하면 소방 규칙의 취지를 체득하여 지휘자의 명령을 따르며, 항상 공평하게, 유사시에 있어서는 용기 있는 희생적 정신을 발휘하고 사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 등에서 관창을 잡고 방수를 하는 소방수들이 현장의 관계자 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 멋대로 관창 방수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³⁷ 그렇게 하면 소방수의 절의를 더럽히는 것이 되며, 참으로 의용봉공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으로 크게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품행 면에 있어서도 태도에 있어 소방 직원이라면, 에도의 꽃

37_화재 현장에서 불을 끌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소방 호스를 대고 물을 방수하여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먼저 불을 꺼 달라고 요구하여도 소방수는 자신의 주관과 판단에 따라 방수하고 화재를 진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절³⁸을 모방함이 없이 때가 때인 만큼 국민정신의 원동력이 되어 다만, 소방조원의 명분과 과시에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서는 지방 향당의 선각자가 되어 꾸밈 없이 진실한 대중의 마음을 얻기에 노력하며 반도의 흥융에 다소나마 기여함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이리하면 비로소 민중은 소방조로 하여금 경모신기(敬慕信倚: 존경하고 사모하며 믿고 의지한다)하기에 이르지 않겠는가?

65. 주요 화재

연월일	화재 원인	평수	손해액	장소	화재 장소
1912년 3월	양초 부주의 실화	35평	5,000원	서문통모퉁이	中野雜貨店
1914년	담뱃불	60	2,000	광산정	요정 수국
1914년 중	온돌화재 6회(그중에서 도착까지 진화 1회)				
1915년 6월 7일 오후 7시 30분	온돌화재	30	500	수기옥정	麻生氏裏 조선인 가옥
1915년 7월 20일 오후 7시 30분	同	15	30	금정	조선인 가옥
1915년 12월 9일 오후 2시반	同	10	20	수기옥정	梅山裏 조선인 가옥
1915년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	不明	10	50	금정	安達氏 주택
1916년 2월 20일 오후9시	失火	20	100	수기옥정	細田哥太郎貸家

38_소방은 에도의 꽃이다라는 말은 에도시대에 화재가 다발하였으며, 화재의 소실로 인하여 에도가 건설이 촉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일부 소방수들은 지나친 자만심에 충만하여 방정한 품행을 망각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1916년 8월 10일 오후 3시	同	25	3,000	동광산정	氏家參顯
1917년 중	온돌화재 3회				
1919년 6월 10일 오후 9시	失火	70	4,000	동문통	西村樓
1919년 7월 14일 오후 8시반	同	15	120	同	魚 검사댁
1920년 12월 30일	同	20	100	수기옥정	金稿閑
1921년 1월 16일	同	10	150	법원 앞	조선인 가옥 (수도 최초 사용)
1921년 2월 10일	同	5	10	光州河向 (現社町)	
1921년 2월 27일	同	20	300	서광산 정	元竹内直太郎 댁 앞
1921년 3월 11일	同	15	100	서광산 정	光山館
1921년 11월 11일	同	15	1,000	수도정수지	
1921년 11월 27일 오후 9시	同	40	1,000	서문통	金憲植
1921년 12월 6일 오후 10시	同	15	200	同	小橋某 댁
1921년 19일	松葉失火		10	남문 외	
1921년 14일	실화	8	15	수기옥정 정거장 앞	
1922년 1월 16일	同	10	20	금계리	具경부 댁
1922년 1월 11일	同	20	50	남문통	自動車部吳南許
1922년 2월 19일	同	15	50	금계리	조흥인 댁
1922년 3월 2일	同	12	20	同	同
1922년 3월 10일 오후 10시	同	25	250	법원 북쪽	김흥선
1922년 3월 18일	同	10	50	서문 외	조선인 가옥

◎ 1920년 화재수 회수 25, 출동 13, 소실 63호

총 손해액: 178,800원, 출동 연인원: 635명

주요 화재를 살펴보면,

출화 월일	출화 원인	평수	손해액	장 소	이름
1월 14일 오전 3시	실화	13	150	천정(泉町)	김태욱
3월 8일 오후 10시	同	131	20,000	본정5(本町五)	김봉기
3월 16일 오후 9시	同	71	12,105	광산정(光山町)	이승신
4월 4일 오전 0시	同	1,220	98,360	본정5(本町五)	정경봉
5월 17일 오전 1시	同	40	950	구강정(龜岡町)	안호권
9월 12일 오후 3시	同	139	45,550	본정5(本町五)	마영준
12월 5일 오후 12시	同	43	13,350	황금정(黃金町)	청수메리아스점

기타 100원 미만의 작은 화재 6회

© 1921년 화재수 회수 21, 출동 17회, 소실 43호

총 손해액: 87,000원, 출동 연인원: 728명

주요 화재를 살펴보면,

화재 월일	화재 원인	평수	손해액	장소	씨명
1월 2일 오후 1시 반	온돌	12	200	사정(社町)	
2월 10일 오전 0시 40분	화로	65	19,980	대화정(大和町)	광주일보사
3월 6일 오전 2시 20분	방화	24	1,500	황금정(黃金町)	安本菊太郎
3월 12일 오후 9시	램프	10	100	금정(錦町)	鄭鎭源
5월 18일 오전 0시 50분	방화	13	100	부동정(不動町)	小山裏
7월 13일 오후 7시 40분	실화	76	8,250	풍향리(豊郷里)	중학교 기숙사
10월 16일 오전 2시 반	실화	20	1,000	부동정(不動町)	橫山愛造

단, 100원 미만 손해 화재를 제외한다.(9회)

66. 최근 화재 빈도수

광주에 있어서 최근 화재 및 손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도수	소실 가액	소실 평수
1926년	20	26	156
1927년	16	19	198
1928년	15	22	170
1929년	18	25	203
1930년	26	121	807
1931년	17	43	626
1932년	16	19	240

67. 각 도별 화재 손해

小結	關脇	大關	橫綱	蒙御免	小結	關脇	大關	橫綱
평북	전북	평남	경기		전북	함남	함북	경남
135,181	146,033	168,206	390,655	행사 각도 경찰부	138,486	148,070	280,266	506,989
	前頭	前頭	前頭				前頭	前頭
	충남	강원	충북	勸進元 조선 총독부			황해	경남
	42,962	44,872	78,561				77,790	81,511

(1922년 말 조사)

68. 화재 원인표

溫突焚火(구들장 불), 溫突殘火(구들장 잔불), 竈殘火(아궁이 잔화), 風呂殘火(목욕탕 잔불), 溫突煙突(구들장 굴뚝), 竈焚火(아궁이 연소), 飛火(바람 화재), 洋燈(등불 화재), 溫突破損(구들장 파손), 竈煙突(아궁이 굴뚝), 風呂焚火(목욕탕 발화), 火鉢(화로), 屋外焚火(옥외 화톳불), 風呂煙突(목욕탕 굴뚝), 取り灰(짚을 태운 재), 爐(향로), 酒精引火(주취로 인한 화재), 消し灰(타고 남은 재), 汽車煙突(기차 굴뚝), 漏電(누전), 溶解中ペソキ引火(용해 중 페인트 인화), 燐寸自然發火(반딧불 자연발화), フィルム引火(필름 인화), 燈明火(신에게 올리는 의례 등불), 火藥(화약), 燐寸弄び(도매비불 장난), 落雷(벼락), 桐油類自然發火(건성류 자연발화), セルロイド引火(셀룰로이드 발화), 蚊燻(모깃불), 炬燵(각로: 이불을 뒤집어씌운 난로), 各製造工場(각 제조공장), 煙火(불꽃), 生石灰(생석회), 鍛冶工場(대장간), 煙草吸殻(담배꽂초), 油類引火(기름 발화), 繭乾燥場(누에고치 건조장), ストブ(스토브), 放火(방화), 其他不明(기타 불명)

69. 조원 폐기 이용 고안(아이디어)

● 작업화(지가다비) 안전못 고정

발아래를 보고 가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원기가 소방의 생명이며, 육박이 소방의 전투다. 발아래 따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이 설령 형극의 가시발길이라도 못이 깔린 들판이라도 불을 보면 그저 나아갈 뿐이다. 이 소방의 가장 중요한 발밑에 쫓는다는 녀석이 영원한 과

제로서 아직 남아 있어 연구의 플라스크 안에 넣어져 있었던바, 이번
에 우리 소방조가 폐품 호스를 활용하여 못 방지(고정) 작업화를 제
조하여 실지로 응용하여 본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하여 금번 우
리 소방조가 널리 사회봉사적으로 발표하였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 호스는 어디까지나 호스로서 제1생명을 보지
함에 힘써야 하지만, 마침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하는 수 없기 때
문에 무언가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작업
화 바닥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용품은 2인치 반 호스가 최적이며, 호스는 그
끝을 8寸 정도로 재단한다. 하지만, 파손개소는 잘라 버린다. 이것을
10文(신발의 치수) 半 한도의 양말 바닥 썰이로 재단한다. 재단할 때
에는 반드시 한쪽 끝에는 이음매를 넣을 것. 그렇다면 미싱을 사용하
기도 용이하고, 또한 실이 풀렸을 때에도 엇갈림을 막는다.

재단이 끝나면 미싱질을 한다. 경비는 광주형무소에 의뢰하였더니
한 켈레당 고작 1전이였다. 전술한 10문 반이라고 하였으나 그중에는
썰이 작은 것도 있었다. 하나하나 크기가 다른 경우는 각자에게 그
원료인 호스를 주고 각각 자신의 크기에 맞추어서 재단하여 오도록
하였다. 10문 반 완성품은 작업화 11문에 적당하다. 이 완성품을 각
자 작업화의 바닥에 넣어서 출동하면 그 못 방지(고정)에 탁월한 효
과가 있음을 실험하고 나서 이 발표를 하는 것이다. -終-

본 20년사 간행에 즈음하여 우가키(宇垣) 조선 총독, 이케다(池田)
경무국장, 야지마(矢島) 전라남도지사 등 여러 각하를 비롯하여, 여
러분의 제자(題字)·서문(序文)·소감(所感)을 보내주셨음은 참으로
이 권두를 장식할 뿐만 아니라, 본 20년사가 저절로 광채를 띠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소방기관의 중책을 믿으시고, 지도 장려의 생각을 해 주심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한층 더 분투노력을 아끼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하 및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으며, 감사의 보답으로 더욱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여기에 삼가 조원을 대표하여 만강(滿腔)의 사의를 표한다.

1933년 10월

광주소방 조두 후지모토 이치지로(藤本一二郎)

금번 본지 편찬에 즈음하여 경비 부족 때문에 부록 광고를 상담하였을 때 흔쾌하게 많은 각출을 승낙해 주신 여러분에 대하여 본지를 통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33년 10월

광주소방조 各位

사진관으로서 역대 도장관·지사·경무부장·경찰부장·경찰서장·면·읍장 여러분을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사진을 전부 모으기가 어려워서 유감스럽지만 이것을 변경하여 창설시와 현재의 관계자만으로 한정하였다. 다행히 양해해 주셨다.



본지 표지 문자는 오쿠보 마카(大久保晚香) 선생님, 사진은 다무라(田村) 사진관, 인쇄제판 제본은 광주일보사 인쇄부이다.



本誌 氏名 아래에 「氏」 또는 「君」의 명칭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결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舊·新 어느 쪽도 조원에게는 조원들 스스로 발행한 책자이므로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한다. =편저=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4
국역 근대 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

인쇄_2022년 9월 10일

발행_2022년 9월 20일

역자_김상욱

발행인_천득염

발행처_(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_062-603-9600 팩스_062-941-6705

홈페이지_<http://hiks.or.kr>

편집제작_호름(www.heureum.com)

비매품

ISBN 979-11-90608-32-9 94910

ISBN 979-11-90608-28-2 (세트)